황금 삼각형

Le Triangle d’or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8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6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 Triangle d'or » (1918)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Triangle d'or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6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저녁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하던, 오후 여섯 시 반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이었다.

샤요 거리와 피에르 샤론 거리가 마주치는 곳, 갈리에라 박물관 정면에는 작은 나무들이 우거진 사거리가 있었다. 두 병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였다.

한 명은 보병 특유의 하늘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세네갈 출신 병사였다. 그는 전쟁 이후 주아브병과 아프리카 부대원들에게 입히는 베이지색 양모 복장을 하고 있었다. 넓은 바지와 허리선으로 꼭 조인 조끼가 특징이었다.

한 명은 왼쪽 다리 하나만 남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오른쪽 팔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광장 한 바퀴를 돌았다. 광장 중앙에는 아름다운 실레누스 군상이 서 있었다. 그들은 멈춰 섰다. 보병이 담배꽁초를 던졌다. 세네

갈 병사가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는 재빨리 몇 모금 빨아들였다. 꺼뜨리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꽉 쥐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그 모든 것이 말 없이 이루어졌다.

거의 동시에, 갈리에라 거리에서 또 다른 두 병사가 나타났다. 그들의 복장을 보니 어떤 부대 소속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군복이라기보다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명은 주아브병의 셰시아를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포병의 케피를 쓰고 있었다. 첫 번째 병사는 목발로 걸었고, 두 번째 병사는 지팡이를 짚었다.

이들은 보도 가장자리에 세워진 키오스크 옆에 섰다.

피에르샤론 거리, 브리뇰 거리, 샤요 거리를 지나 또 세 명이 하나둘 도착했다. 팔 한 쪽이 없는 보병대 사병, 절뚝거리는 공병대 병사, 한 쪽 엉덩이가 찌그러진 보병대 병사였다. 그들은 각자 나무 한 그루로 직진해 그 나무에 기대 섰다.

그들 사이에는 단 한 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이 일곱 명의 장애자 중 어느 누구도 동료들을 아는 기색이 없었고,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도, 아니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나무 뒤나 키오스크 뒤, 실레네 조각상 무리 뒤에서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1915년 4월 3일 저녁, 이 적막한 사거리를 지나가는 드문 행인들도, 덮개를 씌운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움직이지 않는 실루엣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다.

저녁 여섯 시 반이 되었다.

그때 광장을 내려다보는 집 중 한 곳의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그 집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그는 샤요 거리를 건너 에스플라나드 주변을 돌았다.

그는 카키색 제복을 입은 장교였다. 세 줄의 금색 장식 끈이 달린 빨간 군모 아래로, 넓은 천 띠가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 천 띠는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가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매우 마른 체격이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고무 패드가 달린 나무 의족으로 끝이 나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걸었다.

광장을 떠나자 그는 피에르샤롱 거리의 차도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돌아서서 여러 곳에서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정밀한 탐색 끝에 그는 광장 한쪽의 나무로 돌아왔다. 지팡이 끝으로 살짝 밀어보니, 밖으로 나온 배가 보였다. 배가 다시 속으로 들어갔다.

장교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피에르샤론 거리를 따라 파리의 중심부로 향했다. 그는 샹젤리제 거리로 나가, 왼쪽 보도를 따라 걸었다.

이백 보쯤 더 나아가자, 넓은 호텔이 나타났다. 현수막이 이를 알리고 있었다. 호텔이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장교는 멀리서 자리를 잡았다. 밖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사십오 분, 그리고 일곱 시가 울렸다.

여전히 몇 분이 더 흘렀다.

호텔에서 다섯 사람이 나갔다. 이어 두 명 더 나섰다. 드디어 현관문 앞에 한 부인이 나타났다.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큰 파란색 코트를 입은 간호사였다.

"드디어 나왔군요." 장교가 속삭였다.

그녀는 장교가 지나온 길로 들어섰다. 피에르샤론 거리로 나가 오른쪽 인도에 올랐다. 샤요 거리 교차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가볍게, 발걸음이 유연하고 리듬감 있게 나아가고 있었다. 빠른 걸음에 부딪힌 바람이 어깨를 휘감는 긴 파란 베일을 부풀렸다. 코트가 넉넉했지만, 허리의 리듬과 젊음이 묻어나는 걸음걸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장교는 뒤에서 따라갔다. 산책하듯 여유로운 태도로 걸으며 지팡이로 원을 그었다.

지금 이 순간, 그 거리 구간에는 그녀와 그 남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마르소 아베뉴를 막 건너자마자, 그(장교) 자신이 그곳에 이르기 훨씬 전에 아베뉴 옆에 정차해 있던 한 대의 자동차가 움직였다. 차는 젊은 여성과 같은 방향으로 달렸고, 거리는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것은 택시였다. 장교는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보았다. 먼저, 차 안에는 두 남자가 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중 한 남자는 회색 펠트모자를 쓰고 굵은 수염을 기른 얼굴이었는데, 그는 거의 내내 차 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간호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걷고 있었다.

장교는 보도를 건너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젊은 여성이 교차로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는 작은 광장이 거의 한눈에 들어왔다. 눈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어둠 속에 일곱 명의 절단자들이 숨어 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없었다.

먼 곳, 서로 교차하는 넓은 대로들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전차가 내려진 차양막을 드리운 채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젊은 여성은 더더욱 그러했다. 비록 그녀가 거리 풍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주저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뒤따르는 자동차의 수상한 움직임도 그녀의 주의를 끌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분명히 그녀에 다가오고 있었다. 광장 근처에서, 자동차는 간호부로부터 기껏해야 십에서 십오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간호부는 여전히 몰두한 채 첫 나무들에 도착했고, 자동차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도로 한가운데서 벗어나 보도 옆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도와 반대편, 즉 왼쪽에서 두 남자 중 바깥에 서 있던 남자가 문을 열고 발판을 내려서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재빠르게 길을 건넜다. 들킬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밖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입에 호루라기를 물었다. 이제 곧 예상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사실, 자동차는 갑자기 멈춰 섰다.

두 남자는 양쪽 문으로 뛰쳐나와 광장의 보도로 뛰어올랐다. 키오스크 몇 미터 앞이었다.

그 순간, 젊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장교가 날카로운 호루라기를 불렀다.

동시에 두 남자는 사냥감을 붙잡아 곧장 차 쪽으로 끌고 갔다.

나무들 뒤에 숨어 있던 부상병 일곱 명이 마치 나무 줄기에서 솟아난 듯이 달려나와 두 공격자를 쫓아갔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싸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택시 운전수는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을 보고는 곧장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렸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차를 몰아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두 남자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았다. 그들은 위협적인 지팡이와 목발들 앞에 서 있었고, 무엇보다 장교가 겨누고 있는 권총의 총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총알이 명중하지 못하도록 지그재그로 달아나, 브리뇰 거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야본, 돌진해." 장교가 한쪽 팔이 없는 세네갈인 병사에게 명령했다. "저 녀석들 중 한 명을 꼭 붙잡아 와."

장교는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을 자신의 팔로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곧 실신할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매우 다정하게 보살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코랄리 어머님. 저예요, 벨발 대위…… 파트리스 벨발입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아, 당신이군요, 대위님……"

"네,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양소 별관에서 다시 찾아낸, 어머님이 돌보던 그 병원의 옛 부상병들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이들은요? 그 두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야본이 쫓고 있죠."

"도대체 그들한테 뭘 원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나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코랄리 어머님. 먼저 당신 이야기를 합시다.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어서 여기로 오세요……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한 병사의 도움을 받아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바로 그가 사십오 분 전에 나왔던 집이다. 젊은 여인은 그의 뜻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그들은 모두 지층으로 들어가, 그가 전등을 켜고 좋은 장작불이 타오르는 안락한 방으로 들어섰다.

“앉으시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의자 중 하나에 털썩 주저앉았고, 대위는 지시를 내렸다.

“너, 풀라르. 식당에서 잔 하나 가져와. 그리고 너, 리브락. 부엌에서 찬물 한 병 가져다 줘… 샤트랑, 부엌 찬장 안에 럼주 한 병이 있을 거야… 아니, 아니, 그녀는 럼주를 좋아하지 않잖아… 그럼…”

“그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그의 얼굴은 원래부터 창백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입술로 피가 차올랐고, 얼굴을 밝히던 미소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매력을 자아내고 부드러웠다. 윤곽은 순수했고, 특징은 지나칠 정도로 정교했다. 피부는 빛이 없었고, 표정은 놀라며 항상 눈을 크게 뜬 아이처럼 순진해 보였다.

그런데 그 우아하고 섬세한 모습은 때때로 에너지 넘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아마도 어두운 빛을 발하는 눈과, 이마를 감싸고 있는 흰 모자 아래로 내려오는 두 줄기의 규칙적인 검은 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 좋아!"

그녀가 물 한 잔을 다 마시자 대위가 신나게 외쳤다.

"제법 나아진 것 같은데, 코랄리 어머님?"

"훨씬 나아졌어요."

“좋아! 그런데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었네. 무슨 일이야? 이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모든 걸 밝히자고. 어때?”

“일단, 자식들아. 코랄리 아줌마께 안부부터 전해라. 어이, 내 친구들아. 이 아줌마가 너희를 어르고, 베개를 두드려서 네 머리를 푹 파묻어주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라. 누가 이 아줌마가 이제 병석에 누워, 아이들이 그 아줌마를 돌봐주게 될 줄 알았겠나?”

그들은 모두 코랄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절뚝거리는 자들도, 의수를 가진 자들도, 몸이 불편한 자들 모두 그녀를 보는 것이 기뻤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쥐어주었다.

“자, 리브락. 그 다리는 어때?”

“이제 더는 안 아파요, 코랄리 아줌마.”

“자, 바티넬. 어깨는?”

“이제 더 이상 흔적도 없어요, 코랄리 어머님…”

“당신은 어때요, 풀라르? 조리스는요?”

그녀는 자기가 ‘내 아이들’이라 부르던 그들을 다시 마주하며 감정이 깊어졌다.

파트리스 벨발이 외쳤다.

"아, 코랄리 어머님, 이제야 눈물이 나시네요. 어머님, 어머님, 그 모습으로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고문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사방에서 네 명이 붙잡고 있을 때도, 당신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으니까요. 코랄리 어머님은 당신 자식들을 위해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더 악물고 버텼죠."

"나도 더 많이 울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바로 당신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시작하시는군요. 아, 감상은 이제 그만!. 서로 사랑하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코랄리 엄마, 미소 하나 지어보세요. 자, 야본이 오네요. 야본은 늘 웃고 있죠."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두 사람 중 한 명을 따라잡았을까요?"

"당연하지요. 야본에게 목덜미를 잡아끌라고 했으니,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을 뿐이죠."

그들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미 세네갈 남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단단히 쥐고 있는 남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낡은 천뭉치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인형을 들어 올리듯 팔을 쭉 뻗은 채 그 남자를 들고 있었다. 대위가 명령했다.

"놓아."

야본이 손가락을 벌렸다. 남자는 현관 타일 바닥에 주저앉듯 털썩 쓰러졌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군." 장교가 중얼거렸다.

야본은 오른손만 가지고 있지만, 그 손이 누군가의 목을 쥐어짜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목이 졸려 죽는다. 독일군들이 그걸 잘 알고 있다.

야본은 거구였다. 빛나는 숯검정 피부에 곱슬머리, 턱수염도 곱슬거렸다. 왼쪽 어깨에는 빈 소매가 고정되어 있었고, 도르만 제복에는 두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대포 파편에 볼, 턱의 한쪽, 입의 절반, 그리고 입천장이 산산조각 난 적이 있었다. 입의 나머지 절반은 귀까지 갈라져서, 마치 끊이지 않을 듯한 웃음으로 벌어져 있었다.

부상당한 얼굴 부분은 어찌어찌 붙여지고 피부 이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과 끊이지 않는 웃음의 대비는 더욱 놀라웠다.

또한 야본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어렴풋이 들리는 중얼거림뿐이었지만, 그 소리 속에서는 그의 별명인 '야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내뱉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고 돌아왔을 때 주인과 사냥감을 번갈아 보듯, 그는 자신의 주인과 희생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좋소.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다뤄요."

장교는 그 남자에게 몸을 숙여 몸을 더듬어 보았다. 그가 단순히 실신했을 뿐임을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아시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확신하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오?"

그 얼굴은 유난히 컸다. 검은 머리는 포마드를 발라 넘겼고, 수염은 희끗희끗했다. 옷은 짙은 파란색에 재단이 훌륭했다. 그 옷차림은 그가 여유 있는 신사임을 말해주었다.

"결코… 결코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대위는 주머니를 뒤졌다. 안에는 종이 한 장 없었다.

"좋지. 일어나서 심문할 때까지 기다리자. 야본,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여기 복도에 남아 있어. 너희 다른 동무들은 이제 별관으로 돌아가.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 엄마랑 작별 인사하고 얼른 가."

인사를 마친 그들이 나가자, 대위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젊은 여자에게 돌아와 다시 거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외쳤다.

"이제 이야기하자, 코랄리 어머님. 먼저 설명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 주게. 짧게 할 테니까."

그들은 환하게 타오르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불꽃이 기쁨에 넘쳐 반짝였다.

파트리스 벨발은 코랄리 어머니의 발 아래에 쿠션을 넣어 주었다. 그녀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 전등 하나를 끄고 나서야, 코랄리 어머니가 제격으로 편안해졌음을 확인한 그는 곧장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코랄리 어머니, 저는 구급차에서 나온 지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이유의 마요 대로에 있는,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구급차 부속 건물을 제 집으로 삼고 있지요. 아침마다 여기서 상처를 치료받고, 밤마다 여기서 잠을 잡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산책도 하고, 유유자적 거닐며, 여기저기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옛 친구들을 찾아뵙기도 하지요.

오늘 아침, 저는 그중 한 친구를 기다리며 대로변에 있는 큰 카페 레스토랑의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부분이 들리는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다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방은 사람 키만큼 높은 칸막이로 양쪽이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카페 손님들이, 다른 한쪽은 레스토랑 손님들이 등을 기대고 앉는 구조죠.

저는 아직 레스토랑 쪽에 혼자 있었습니다. 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두 손님, 즉 제가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아마도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들은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그 대화의 내용을 저는 이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문장들은 제 주의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보다 앞서 나온 몇 문장에서는 '불꽃'과 '불꽃 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쟁 전 두 차례나 있었죠. 야간에 보내는 신호의 일종으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엿보기 위해 기다렸다가, 발생하면 즉시 행동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요?"

"곧 아실 겁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려야겠군요. 두 화자는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법은 정확했지만 억양이 영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영국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었죠. 그들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다. 오늘 저녁 일곱 시 조금 전에, 당신과 그는 정해진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대령. 우리 자동차는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좋다. 그 소녀가 일곱 시에 구급차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라."

"걱정 마십시오. 실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길을 지나 피에르샤롱 거리를 통과하니까요."

"그리고 계획은 모든 면에서 확정된 겁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은 샤요 거리 끝의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설령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인을 구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운전기사에게 확신이 가십니까?"

"그가 우리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충분히 지불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군요. 저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애를 저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셈이죠."

"그 애는 대령님 차지가 되겠군요. 기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애가 정말 미인이라니까요."

"정말 미인이죠. 오래전부터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소개시켜 줄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대령은 덧붙여 말했다.

"아마 울음소리와 한숨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길 때는 저항할수록 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는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다. 상대방도 따라 웃었다. 그들이 마신 술값을 치르는 사이,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대로 쪽 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중 한 명만 그 문을 통해 나갔다. 굵고 처진 수염을 기른 회색 펠트 모자를 쓴 남자였다. 다른 한 명은 수직으로 맞닿은 골목 쪽 문으로 사라졌다.

그때 도로에는 택시가 한 대뿐이었다. 남자는 그 택시를 탔고, 나는 그를 쫓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매일 저녁 일곱 시에 당신이 병원을 나서 피에르샤롱 거리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맞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대위는 말을 멈췄다. 젊은 여성은 걱정스러운 빛을 띠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그가 외쳤다.

"경고하다? 하지만 만약 그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면 어떡하나요? 굳이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정말 당신이 표적이라면, 왜 미리 경계하게 만들어야 하죠? 이번 시도가 실패했더라면 당신의 적들은 또 다른 함정을 파놓았을 테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미리 막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최선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속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당신의 옛 환자들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내가 기다리던 친구가 바로 이 광장에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그의 아파트를 저녁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 내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모든 일입니다, 코랄리 어머니. 이제 당신도 나만큼이나 상황을 파악하셨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위험에 처해 있던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험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무서운 것이었죠."

"아니, 그 말은 받지 않겠소. 내가 기뻐하는 건 당신의 감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이 일의 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것이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런 의견이 없소. 당신이 들려준 모든 말이나 사건 속 어떤 단서도, 저에게는 전혀 단서가 되지 못하거든요."

"원수라도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두 공격자가 당신을 넘겨주려 했던, 당신을 안다고 주장하는 그 남자는요?"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모든 여성은 한 번쯤은 자신의 뒤를 쫓는 남자를 만나게 되지 않나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위는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로서는 이 죄수를 심문해서야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입을 닫는다면,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를 경찰에 넘길 뿐입니다. 경찰이라면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하겠죠."

젊은 여자는 놀라 몸을 떨었다.

"경찰?"

"물론이죠. 제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 소유가 아닙니다. 경찰의 소유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녀가 급하게 외쳤다.

"제 삶에 경찰이 개입한다니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제 이름이 이런 잡다한 일들과 얽히게 될 텐데!"

"하지만 코랄리 어머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제발요. 친구,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시오. 단,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원치 않아요!"

대위는 그녀가 그토록 흥분한 모습을 보고 다소 놀라며 말했다.

"코랄리 어머님,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소."

"그렇다면 그 남자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 웃으며 먼저 정중하게 그에게 내 질문에 답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겠소. 그리고 당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 인사를 전하지. 마지막으로, 물러가라고 정중히 부탁할 뿐이오."

그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그를 보고 싶소?"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나 지쳤소. 만약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둘이서만 질문을 진행해 주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제게 들려주면 되겠소…"

사실 그녀는 새로운 흥분과 피로에 지친 상태였다. 이는 이미 간호사로서의 삶을 그토록 힘겹게 만들던 온갖 피로 위에 더해진 것이었다.

대위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야본, 잘 지켰나? 별일 없었나? 그 감시 대상은?"

"아, 자네가 여기 있구만. 숨 좀 쉬게 됐나? 야본의 손은 좀 세다는 걸 알아두게. 뭐? 대답이 없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움직이지도 않네. 크레블뢰, 이건 뭔가……"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젊은 여자가 복도까지 달려갔다. 대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급히 말했다.

"가지 마.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당신 다쳤어요!" 그녀가 외쳤다.

"소맷부리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아, 그렇군. 하지만 괜찮아. 이 남자의 피가 내 옷에 묻은 거야."

"그 남자가 다쳤다는 뜻이야?"

"응. 아니, 적어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 혈관이 터진 게겠지."

"뭐라고? 야본이 그렇게 세게 조르지는 않았을 텐데…"

"야본이 아니야."

"그럼 누구지?"

"공범들이야."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래. 그리고 그 남자를 목졸라 죽였지."

"목졸라 죽였다니? 아니야, 말이 안 돼. 상상할 수도 없어."

그녀는 간신히 몸을 비집고 들어가 죄수 곁으로 다가갔다.

죄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죽은 자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가는 빨간 비단 밧줄이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밧줄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었다.

제2장

"어머니 코랄리, 나쁜 녀석이 하나 줄었소."

파트리스 벨발이 젊은 부인을 살롱으로 데려다놓고 야본과 함께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 뒤, 그렇게 외쳤다.

"그 녀석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오. 그자의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거든. '무스타파 로발라이오프'. 바로 그 나쁜 놈의 이름이지."

그는 기쁜 어조로 그 말을 했다. 더 이상 감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방 안을 오가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수많은 비극을 지켜보고, 수많은 착한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 코랄리 어머님. 무스타파 로발라이오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맙시다. 그는 동조자들에게 살해당했으니까요. 장례 기도조차 필요 없겠지요? 야본이 그를 팔 아래로 껴안았어요. 광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브리뇰 거리 쪽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그를 철제 울타리 너머 갈리야 박물관 정원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울타리는 높지만,

야본의 오른손 앞에는 장애물이 없죠. 그러니 코랄리 어머님, 이 일은 묻혔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감사의 인사라도 받아야겠네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는 고맙지만, 칭찬은 받지 않겠소. 참으로 형편없는 감옥지기라니! 다른 이들이 어떻게 재주껏 내 포로 하나를 빼앗아 갔는지 보시오. 그 두 번째 공격자, 회색 펠트 모자를 쓴 남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세 번째 공범에게 알리러 가리라는 걸 내가 어찌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동료를 구하러 오리라는 것도 어찌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왔소.

당신과 내가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부엌 출입구를 뚫고 부엌을 지나 작은 문 앞에 도착했소. 그 문은 식탁방과 현관을 나누는 문이었죠. 그들은 그 문을 살짝 열었소.

그 문 바로 옆, 소파 위에 그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단단히 묶인 채로 누워 있소. 어떻게 해야 하오? 야본의 눈을 피해서 그를 현관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소. 하지만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는 입을 열게 될 것이오. 그는 공범들을 팔아넘길 것이오.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한 계획을 무산시키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동료 중 한 명이 슬쩍 몸을 굽혀 손을 뻗었소. 야본이 이미 심하게 상하게 해 놓은 그 목을 밧줄로 감았소. 양 끝의 고리를 모아 천천히, 그러나 차분하게 조였소. 죽음이 올 때까지 조였죠.

소음 하나 없었소. 숨소리조차 없었소.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소. 누군가 와서 죽이고, 다시 떠났소.

안녕히 주무십시오. 일은 끝났소. 동무는 입을 닫았소.

대위의 웃음이 더욱 커졌다.

"동료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울타리 안의 정원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법정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할 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랄리 어머님.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납치하려 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대위는 말을 이었다.

"정말요. 제가 교도관으로서도 변변치 못하지만, 경찰로서는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방 안을 끝에서 끝까지 계속 거닐고 있었다. 다리가 잘린 것, 정확히는 종아리가 잘린 것은 그를 별로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그저 걸을 때마다 엉덩이와 어깨가 약간 어긋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 허벅지와 무릎 관절은 여전히 유연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키가 크고 우아해서 그 불협화음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다. 손짓발짓이 자연스럽고, 잘린 다리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그 결함은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얼굴은 해에 그을리고 비바람에 굳어 있었지만, 색채는 선명했다. 표정은 솔직하고 경쾌했으며, 종종 장난기 어린 기운이 돌았다. 벨발 대위는 스물여덟에서 서른 살쯤 되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제1제정 시절의 장교들을 연상시켰다. 군대 생활이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품은, 이후 살롱이나 여성들 앞에서도 여전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벽난로의 불빛에 비친 코랄리의 아름다운 옆모습을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그녀 곁에 앉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급대에서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당신을 코랄리 씨라고 부른다. 부상자들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다. 당신의 본명은 무엇인가? 기혼인지, 과부인지. 당신은 어디에 사느냐? 아무도 모른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당신은 나타나고, 같은 거리를 통해 떠난다. 때로는 회색 긴 머리와 수염을 기른 노신사가 너울너울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노란 안경을 쓴 채 당신을 따라오거나, 당신을 데리러 오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그가 같은 의자에 앉아 유리 천정이 있는 마당에서 당신을 기다리기도 한다. 우리는 그를 심문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는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더없이 선하고 자비로우며, 또—제가 말해도 될까요?—더없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코랄리 엄마, 아마도 당신의 삶이 저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당신을 신비롭고, 어쩌면 고통스럽기까지 한 분으로 상상하는 게 아닐까요. 네, 정말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당신은 항상 슬픔과 근심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을 전할 기회를 기다려 왔죠. 당신은 분명히 당신을 이끌고 지켜줄 친구, 혹은 형제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코랄리 엄마?"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 젊은 여자는 점점 더 안으로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와 사이를 조금씩 벌였다. 마치 그가 비난하는 그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그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요,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어요. 제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뭘 방어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소!" 그는 점점 격정을 띠며 외쳤다. "그리고 당신을 납치하려던 자들은요? 당신을 겨냥한 음모는요? 그 음모는, 그것이 발각될까 가해자들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잡힌 자까지 죽일 정도였다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대담한 적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음, 음……"

그녀는 침묵을 고수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고, 거의 적대적인 태도였다.

장교는 벽난로 대리석 위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 몸을 기울였다.

"좋아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문장을 끝맺으며 말했다. "좋아요, 만약 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그걸 강제로라도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강제로라도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되뇌었다. "이건 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벨발 대위가 다시 말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코랄리 어머님."

"무슨 이유죠?" 젊은 여인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연인이 조심스럽게 고백하듯 말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선언하는 남자의 태도로 그 말을 던졌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는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제가 그걸 직접 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열정적인 연설도, 한숨도, 큰 제스처도, 합장도 필요 없죠. 무릎 꿇지 않고 딱 세 마디만 드릴 테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이미 그걸 알고 계시니 더 쉽게 말할 수 있죠. 네, 코랄리 엄마, 엄마는 잔인한 표정을 짓지만 알고 계세요.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요. 엄마도 저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 감정이 태어난 순간을 우리 둘 다 봤잖아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작은 손이 피투성이가 된 제 머리를 만졌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고문했지만, 엄마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다정함이었죠. 동정 어린 엄마의 시선도 다 다정함이었고, 제가 아파서 흘린 눈물도 다 다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방금 일곱 명

이나 된 환자들, 코랄리 엄마, 그들 모두 엄마에게 반했어요. 야본은 엄마를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평범한 병사일 뿐이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 대위니까요.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젊은 여성은 불타오르는 뺨에 손을 얹은 채, 상체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이 말을 건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맞죠? 만약 전쟁 전에 지금처럼 불구가 된 상태였다면, 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땐 겸손하게, 제 용감함을 용서해 달라고 빌며 제 사랑을 고백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 코랄리 어머님, 제발 믿으세요. 당신처럼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여성 앞에 서 있으니, 저는 제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제가 당신에게 우습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는 듯 잠시 멈췄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으로 몸의 일부가 끊긴 이들이 비천한 존재나 불운한 사람, 혹은 불쌍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네,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다리가 하나 부족하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뇌와 마음이 없는 인간이 됩니까?

전쟁이 내 다리를 하나, 혹은 팔을 하나, 아니 다리와 팔을 모두 앗아갔다 해도, 내가 사랑을 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거절당하거나, 상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눈치채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노력해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자선심이라고 생각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든 사회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든,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든 모두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운이 좋거나 용감하지 못한 이들, 즉 안전지대에 있는 이들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평등입니다.

대위는 벽난로를 다시 한 번 두드렸다.

"네, 완전한 평등입니다. 절뚝거리는 자도 있고, 팔이 없는 자도 있고, 한쪽 눈이 먼 자도 있고, 전적으로 시력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기형인 자들도 있죠.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범한 사람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낫다고도 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다리로 달려 적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리를 잘린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상 앞의 난로에 두 발을 데우며

앉았던 자들에게 인생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리 하나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는 그 자리를 단단히 잡을 수 있고,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닿지 못할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행복을 쟁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해낼 수 없는 일도 없습니다.

야본의 오른손은 이미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두 손을 합친 것보다 낫습니다. 벨발 대위의 왼쪽 다리는 그가 원한다면 시속 2리(약 8km)를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른손과 왼쪽 다리, 왼쪽 손과 오른쪽 다리. 남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지. 우리가 어찌 쇠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위를 얻든, 후손을 남기든,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내가 단언컨대, 우리가 조국에 바칠 아이들은 모두 튼튼하게 태어날 것이다. 팔과 다리는 물론, 그 외의 부분도 모두 정상일 것이다. 더구나 마음과 열정이라는 훌륭한 유산까지 물려줄 테니까.

코랄리 어머니,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우리가 목발 위에서도 살과 뼈로 된 다리 위에서처럼 똑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처녀가 눈먼 군인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영웅주의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남들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수치스러운 낙인도 우리 몸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세 세대에 걸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진실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장애인을 마주하게 되면, '완전한 인간'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새로워질 인류 안에는 두 팔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 팔만 가진 사람도 있게 됩니다. 마치 갈색 머리와 금발 머리가 있듯이, 수염을 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각자는 온전할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코랄리 어머님, 제 인생은 곧 어머님의 것입니다. 제 행복도 어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연설을 드리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후, 다 끝났군요. 이 주제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젊은 여자의 침묵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사랑의 말을 건넨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그의 얼굴을 더듬다가 이마에 닿았다. 가벼운 떨림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렀다.

그는 몸을 굽혔다. 끝없는 부드러움으로, 그녀가 굳게 쥐고 있던 가느다란 손가락을 살며시 벌렸다. 그리고 예쁜 얼굴을 드러냈다.

"왜 우세요, 코랄리 어머니?"

너무도 친근한 '너'체 호칭이 그녀를 당황하게 하지는 않았다. 상처 입은 이에게 몸을 기울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특히 벨발 대위는 그런 약간은 친밀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상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이 눈물을 흘리게 한 건가?"

"아니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당신의 그 밝음, 당신의 그 태도 때문이에요. 운명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온전히 제압해 버리

는 거요. 당신들 중 가장 미천한 사람조차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 위로 올라서지요. 그 무심함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건 없어요."

그는 그녀 곁으로 다시 앉았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걸 말한 걸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다니요?" 그녀는 질문의 의도를 모른 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당신과 동의해요. 만약 자애가 전쟁에서 돌아올 자들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틀림없이 가장 혹독하게 고통받은 이들을 향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애정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더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릴까요?"

"그럼요, 답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친구. 그 말들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제게 그걸 금지하는 겁니까?"

"네,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뵐 때까지는 절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에 벨발 대위는 큰 흥미를 느꼈다.

"오호, 오호! 왜 제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코랄리 어머니?"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요?…"

그녀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 말에 대위가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가장 평온한 어조로 단언했다.

"자, 두 번째 결혼을 하세요. 당신의 남편이 늙었고,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이해할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 친구."

그녀가 일어나 떠나려던 순간, 대위는 그녀의 손을 재빨리 잡았다.

"맞아요, 코랄리 어머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너무 가벼운 태도로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이 일은 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어머님의 생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두 생명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머님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뿐입니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할 테니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일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더는 저를 만나려 하지 말고, 제 이름조차 알려 하지 않겠다고 명예를 걸고 맹세해 주십시오. 당신의 우정이라면 더 많은 것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털어놓은 고백은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했죠. 제 인생에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녀는 선언에 진심을 담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팔을 옥죄는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파트리스 벨발은 이를 거부하며 말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은 자신을 이렇게 내몰 권리가 없습니다. 제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녀가 그를 밀쳤다. 그때 우연히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던 작은 주머니가 흔들려 바닥의 카펫 위로 떨어졌다. 단단히 여밈이 안 되어 있던 주머니는 열렸고, 두세 개의 물건이 굴러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들을 줍고, 파트리스 벨발도 함께 몸을 굽혔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충격으로 열려 버린 짚으로 엮은 작은 상자였다. 상자에서는 묵주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말없이 서 있었다. 대위는 묵주를 살폈다. 그러곤 중얼거렸다.

"참으로 흥미로운 우연이군. 자수정 알들, 그리고 금 세공으로 된 오래된 받침대…… 같은 공예 기법과 같은 재료를 다시 마주하다니, 기이하기 그지없어."

그가 몸을 떨었다. 너무 뚜렷하게 떨었기에 젊은 여성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손가락 사이로 다른 구슬보다 조금 더 큰 구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 구슬에는 한쪽으로는 십의 단위를 세는 목걸이가, 다른 쪽으로는 짧은 기도의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정중앙에서 깨져 있었다. 거의 금으로 된 장식이 감싸고 있는 부분 바로 직전까지 파손된 상태였다.

"그게 말이죠," 그가 말했다. "이 우연의 일치가 너무도 불가사의해서, 저는 감히…… 하지만, 이 사실을 즉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묵주 목걸이를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소유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의 것이었겠지요?"

"아마도 제 어머니 것이었을 겁니다."

"아! 어머니께 물려받으신 거군요?"

"네, 아마도 그렇겠지요. 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보석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머니를 잃으셨나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네 살이었어요. 그분과의 기억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묵주알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 자수정 알 하나 때문입니다. 반으로 부러진 그 알이요."

그는 도르만(군복)을 열고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가죽과 은으로 만든 작은 체인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시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반으로 잘린 자수정 공 모양의 장신구였다. 바깥쪽 면에서 깨진 이 조각도, 다른 조각과 마찬가지로 세공된 금속 발톱에 박혀 있었다. 두 보석 공의 크기는 거의 동일해 보였다. 색도 같았고, 세공 방식도 동일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공의 두 반쪽이 서로 완벽하게 맞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 역시 겁에 질려 말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으려면 그토록 단순한 동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도 장교는 그 행동을 결심했다. 묵주알을 쥐고 있던 오른손과, 부적 같은 장신구를 들고 있던 왼손이 서서히 가까워졌다. 두 손이 맞닿았다. 잠시 주저하며 더듬거리던 손이 이내 멈췄다.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깨진 부분들이 서로 정확히 일치했다. 돌출된 부분은 빈 공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두 개의 자수정 조각은 같은 자수정 구슬의 절반이었다. 두 조각을 합치면 단 하나의 완전한 구슬이 된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에는 감동과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 벨발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 부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값싼 물건들이 들어 있는 상자 속에 시계 열쇠나 낡은 반지, 오래된 인장 같은 것들과 함께 넣어두었는데, 그중에서 두세 해 전 이 부적들을 골라냈습니다. 이 부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는 두 조각을 떼어 놓고, 신중하게 그것을 살피며 결론을 내렸다.

"내가 확신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구슬 목걸이에서 가장 큰 구슬이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갔고, 깨졌습니다. 그 구슬은 두 조각으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았고, 다른 쪽은 장식품으로 만들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둘이 가진 것은 스무 해 전 누군가가 온전히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낮고 다소 무거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방금 전 제가 운명을 믿고, 사건들이 우리를 서로 향해 이끌고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반박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는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우연일 것. 둘째, 우리의 삶이 이미 과거의 어떤 신

비로운 지점에서 교차했으며, 앞으로는 다시 만나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 사실일 것.

그래서 저는 아마도 먼 미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신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 제 우정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제 말씀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우정뿐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혀 버렸다. 두 개의 자수정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에 너무도 혼란스러워, 선장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잠시 후,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좋은 기분을 내며 말했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여준 의지가 충분치 않단 말인가?"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좋소. 상황에 맡기겠소. 오래가지 않을 거요. 그전까지, 당신을 다시 만나려 애쓰지 않겠다고 맹세하오."

"제 이름을 알아내려 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 맹세하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답했다.

"안녕히."

그녀는 멀어져 갔다. 문턱에 서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벽난로 곁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안녕."

그가 다시 대답했다.

"안녕, 코랄리 어머님."

그들 사이에서 지금 당장은 할 말이 다 끝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다.

거리 쪽 문이 닫히고 나서야, 벨발 대위는 창가 중 하나로 걸어갔다. 그는 어둠 속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은 더없이 작아 보였다. 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보게 될 거야!" 그가 외쳤다. "아마도 내일쯤일 거야. 내가 신들의 총애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는 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그가 말한 대로, 단단한 각오로 말이다.

저녁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벨발 대위가 뉴이유에 도착했다. 마요 대로 입구에 자리 잡은 앰뷸런스 지부 건물은 아름다운 빌라로, 불로뉴 숲을 내려다보았다. 이곳의 규율은 다소 느슨했기에, 대위는 밤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었고, 병사들 역시 감시관으로부터 휴가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야본이 여기 있나?" 그가 감시관에게 물었다.

"네, 대위님. 연인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그의 권리야. 내게 편지 같은 건 없나?"

"아니요, 대위님. 소포 하나뿐입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지?"

"상점 배달부가 가져왔더군요. 말은 딱 이거만 했어요. '벨발 대위님께.' 방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장교는 최상층에 정해둔 방으로 돌아갔다. 방 테이블 위에는 끈으로 동여맨 종이 포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뜯었다.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낡고 녹슨 거대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모양과 제작 방식이 확실히 오래된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상자에는 주소나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는 누군가의 실수일 테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수수께끼가 충분해. 자, 자자."

그가 커튼을 치려던 순간, 창문을 통해 불로뉴 숲 너머로 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멀리서 불꽃이 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엿들었던 대화, 그리고 코랄리 마마 납치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말한 그 쏟아지는 불꽃을 떠올렸다.

제3장

팔 살 때, 파트리스 벨발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던 파리를 떠나 런던의 프랑스 학교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십 년이 지나서야 나올 수 있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매주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이 그를 불러 일러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의 학비는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성년이 되면 영국 변호사를 통해 약 이십만 프랑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십만 프랑. 그 돈은 지출이 많았던 한 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알제리로 군복무를 가던 중, 아직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 프랑의 빚을 지는 데 성공했다.

일단 그는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일에 착수했다.

그는 영리하고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특정한 소명은 없었지만, 주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해냈다. 아이디어가 풍부했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고, 자금을 모았으며, 사업을 차려나갔다.

전기 사업, 수원과 폭포 매입, 식민지에서의 자동차 운송 서비스 조직, 선박 노선, 광산 개발 등. 그는 단 몇 년 만에 열두 개가 넘는 기업을 즉흥적으로 설립했고, 그중 단 한 곳도 실패한 곳이 없었다.

그에게 전쟁은 경이로운 모험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던져 그 속에 뛰어들었다. 식민지 부대 병사였던 그는 마른 강 전투에서 중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9월 15일, 종아리에 총상을 입은 그는 그날 바로 다리를 절단당했다.

두 달 뒤,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리를 잃은 그가 우리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의 비행기 관측수로 올라탔다. 1월 10일, 샤프넬 파편이 두 영웅의 활약을 끝냈다.

이번에는 벨발 대위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샹젤리제 대로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 그가 '코랄리 어머니'라고 부르던 여인도 이 구급차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가 받은 두개골 절개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겼다.

그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같은 고난을 겪는 동료들을 북돋웠다. 그들 모두는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

그는 그들을 웃게 했고, 위로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항상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재치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누구도 그가 인공 다리를 제안하러 온 제작자를 맞았던 방식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 아! 관절이 달린 다리군요! 대체 왜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건가요, 선생? 세상을 속여서, 제가 다리를 잃은 게 들키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잃는 건 결함이고, 프랑스 장교인 제가 부끄러운 일처럼 숨겨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위님. 다만…"

"그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오백 프랑입니다."

"오백 프랑! 십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저처럼 다리를 잃고, 나무 다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때, 당신은 내가 관절 다리에 오백 프랑이나 쓸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얼굴이 활짝 피어 올랐다. 코랄리 어머니도 미소를 띠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만약 코랄리 어머니가 자

신에게 미소 지어준다면, 파트리스 벨발이 무엇이든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듯, 그는 첫날부터 이미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그녀의 감동적인 아름다움, 순진한 우아함, 다정한 눈빛,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부드러운 마음씨에 흠뻑 빠졌다. 그녀는 마치 축복받은 어루만짐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첫날부터 매혹의 힘이 그 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를 깨웠다. 그녀의 시선과 향기는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랑의 지배에 복종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헌신의 충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 작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 바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둘러싸여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에게 옳았음을 증명했다. 위기가 구체화되었고, 그는 젊은 여성을 적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행운을 누렸다. 첫 번째 승리는 기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공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미 그는 아침에 젊은 여성을 향해 꾸며진 음모와,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불꽃이 드러낸 어떤 신호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지 따져볼 권리가 있었다. 두 화자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같은 어두운 음모의 일부였을까?

저쪽에서는 불꽃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파트리스 벨발이 볼 수 있는 한, 그건 센 강 쪽으로 뻗어 있었다. 왼쪽 끝은 트로카데로, 오른쪽 끝은 빠시 역이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갈 거리로 이삼 킬로미터쯤?"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가보자. 어떻게 될지 봐야지."

2층에서, 어느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야본이 거기 살았다. 그리고 그 장교는 감시관으로부터, 야본이 자신의 연인과 함께 카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야본은 더 이상 카드를 치지 않았다. 그는 탁자에 펼쳐둔 카드들 앞에 앉아 있는 안락의자에서 잠들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되돌린 소매가 늘어져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자의 머리가 기대져 있었다.

그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천박한 얼굴이었다. 입술은 야본처럼 두꺼웠고, 그 입술 사이로 검은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기름지고 누런 피부는 마치 기름에 절인 듯 보였다. 바로 안젤이었다. 부엌의 하녀이자 야본의 연인. 그녀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파트리스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광경은 그의 이론이 정확함을 입증해 주었다. 야본이 연인을 찾았다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영웅들조차 사랑의 모든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는 세네갈 사람의 어깨를 툭 치었다.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아직 눈을 뜨기도 전에 먼저 웃음을 지었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야본."

야본은 기쁜 듯 중얼거리며 앙젤을 밀어냈다. 앙젤은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며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더 이상 불꽃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그 불꽃들을 가려버린 것이다. 파트리스는 대로변을 따라 걸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순환 열차를 탔고, 앙리 마르탱 거리까지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는 라 투르 거리로 들어섰다. 그 길은 빠시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길에서 그는 야본에게 자신의 근심거리를 끊임없이 털어놓았다. 야본이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야본은 그의 전우였고, 이후에는 하인이 되었다. 그는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스러웠다. 주인과 같은 날 다리를 잃었고, 같은 날 머리에 부상을 입은 야본은 주인이 겪는 모든 시련을 함께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인과 동시에 죽는 기쁨을 느꼈을 때처럼, 두 번 다친 자신을 기뻐했다.

주인은 그런 충성스러운 개 같은 복종에 대해, 다정하지만 약간 장난기 섞인, 그리고 종종 꽤 거친 우정으로 답했다. 그런 태도가 야본의 애정을 한층 더 고취시켰다.

야본은 사람들이 상의는 하면서도 그의 말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에게 짜증을 풀어 버리는, 수동적인 말상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본 씨?"

그가 야본과 팔을 끼고 걸어가며 물었다.

"내가 보기엔 역시 같은 수법일 거야. 네 생각은 어때?"

야본은 중얼거리는 소리를 두 가지로 내었다. 하나는 '네', 다른 하나는 '아니'를 뜻하는 소리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군."

장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코랄리 어머니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해. 그렇지?"

"네."

야본이 중얼거렸다. 그는 원칙적으로 항상 동의하는 편이었다.

"좋아. 이제 문제는 이 '불꽃 비'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거야."

잠시 멈춰 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덟 날 전, 제펠린이 처음 우리를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생각했지. 하지만 내 말 듣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제펠린의 두 번째 습격을 알리는 배신 신호일 거라는 거였어."

"아니, 바보야. '네'가 아니라 '아니'라고. 제펠린의 신호일 리가 없어. 내가 엿들었던 대화에 따르면, 그 신호는 이미 전쟁 전에 두 번이나 있었잖아. 더구나, 그게 정말로 신호인 건가?"

"무슨 소리야? 그럼 대체 뭐란 말이야? 정말 멍청하군.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들어. 네가 무슨 이야기인지 조차 모른다는 걸 알거든. 나 역시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해, 도무지 감이 안 잡혀.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너무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풀기엔 내가 너무 무자격해!"

파트리스 벨발은 라투르 거리 끝자락에 나왔을 때 더 당황했다. 여러 길이 그를 향해 열려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파시 중심부에 서 있었음에도, 어두운 하늘에는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

"다 끝난 모양이군. 허탕 치고 말았어. 다 너 때문이야, 야본. 네 연인 품에서 너를 떼어 내느라 소중한 몇 분을 허비했으니까. 만약 그걸 안 했다면 우리는 제때 도착했을 거야. 앙젤의 매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겠지만, 어쨌든…"

그는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벌인 이 작전은 분명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작전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찰나였다.

그때 프랭클린 거리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튀어나왔다. 트로카데로 쪽에서 온 차였다. 안의 누군가가 음향 튜브를 통해 외쳤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리고 내가 알릴 때까지 곧장 직진해."

벨발 대위는 그 목소리가 아침 식당에서 들었던 낯선 억양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색 모자 쓴 놈인가? 코랄리 부인을 납치하려던 자들 중 하나?"

"응." 야본이 중얼거렸다.

"맞잖아. 번개 신호가 그 녀석이 근처에 있다는 걸 말해 주잖아. 이 추적을 놓치면 안 돼. 야본, 빨리 가!"

하지만 야본이 무리할 필요는 없었다. 주인의 자가용 리무진이 레이누아르 거리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벨발 대위는 차가 교차로 세네 미터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바로 그곳에 도착했다. 차는 왼쪽에 있는 큰 마차 문 앞에 섰다.

남자들이 다섯 명 내렸다.

그중 한 명이 종을 울렸다.

서른에서 마흔 초가 지났다.

그때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보도 위에 모여 서 있던 다섯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린 뒤, 문판 중 하나에 난 작은 출입문이 살짝 열렸다.

잠시 멈칫했다. 말다툼이 오갔다. 문을 연 사람이 설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두 남자가 문을 세게 밀었다. 문이 허물어지며 무리 전체가 안으로 들어섰다.

굉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즉시 대위가 주변을 살폈다.

레이누아르 거리는 과거 파리 외곽의 시골 길이었습니다. 센강이 감싸 안는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파시 마을의 집들과 정원 사이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던 길이었죠.

이제 그 흔적은 점점 더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에서 옛 지방 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저택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고, 나무들 틈새에는 낡은 가옥들이 숨어 있죠. 발작이 살던 집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르센 뤼팽이 고대 해시계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징세 청부인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답니다.

다섯 명의 인물이 잠입한 집은 여전히 자동차가 멈춰 서 있는 곳 근처였다. 때문에 대위는 그 집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이 집은 담장 옆에 이어져 있었다. 제1제국 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저택처럼 보였다. 1층의 둥근 창문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고, 2층 창문은 통창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창들이 긴 정면 외벽을 따라 일렬로 늘어섰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독립된 날개 건물처럼 다른 건물이 붙어 있었다.

"이쪽은 소용없군." 대위가 말했다. "성채처럼 빽빽하게 막혀 있어."

"다른 데서 찾아보자."

레이누아르 거리에서 좁은 골목들이 옛 영지들을 갈라놓으며 강가로 굴러 내려간다. 그중 한 골목은 집 앞 담장을 따라 이어졌다. 대위는 야본과 함께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바닥은 울퉁불퉁한 날카로운 자갈로 깔려 있었고, 계단도 섞여 있어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야본, 한 번 해보자. 담장이 너무 높아. 하지만 저 등불 기둥을 이용하면…"

흑인의 도움을 받아 그는 등불까지 기어올랐다. 한 손을 뻗으려던 순간, 그는 담장 꼭대기에 유리 조각들이 빽빽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유리들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내려왔다.

"크레블료, 야본! 미리 좀 알려줄 수 있었잖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네가 내 손을 베어놓을 뻔했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궁금한 건, 왜 그렇게 꼭 내 동행을 고집했는지야."

길은 꺾였다. 등불이 끊긴 골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대위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세네갈 출신의 야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일이야, 야본?"

야본의 손이 그를 벽 쪽으로 밀었다. 그곳은 문이 들어간 오목한 자리였다.

"당연하지, 문이잖아. 내가 못 본 줄 아나? 아니, 오직 야본 씨만 눈이 밝은 모양이군."

야본은 성냥갑을 건넸다. 대위는 성냥을 여러 개 연속으로 켜며 문을 자세히 살폈다.

"내가 뭐랬어?" 그가 투덜거렸다. "소용없어. 통나무로 만든 단단한 문에 철제 막대와 못까지 박혀 있잖아. 봐, 이쪽에는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 자물쇠 구멍 하나만 있을 뿐이야. 아, 정말 요긴한 열쇠가 하나 필요해. 딱 이 문에 맞춰서 만든 정교한 열쇠 말이야. 자, 저기. 아까 심부름꾼이 별관에 내게 맡겨두고 간 열쇠 중 하나가 딱 그런 종류일 거야."

그는 말을 멈췄다. 터무니없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든 그는 그 작은 제스처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열쇠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이 다시 빛을 받았다. 자물쇠 구멍이 또렷이 드러났다.

캡틴은 망설임 없이 열쇠를 꽂았다. 왼쪽으로 힘을 주어 돌렸다. 열쇠가 돌아갔다. 밀자 문이 열렸다.

"들어갑시다."

흑인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파트리스는 그의 경악을 직감했다. 사실 파트리스 자신의 놀라움도 만만치 않았다.

어떻게 그 열쇠가 하필 이 문에 맞는 열쇠였을까? 어떻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가, 파트리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도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기적일까?

하지만 파트리스는 의문의 해답을 파고들 생각은 없었다. 장난기 어린 운명이 던진 수수께끼에 대해선 묻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들어갑시다." 그가 다시 말했다. 승리의 미소가 어렸다.

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자신이 풀밭 위를 걷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앞에는 정원이 펼쳐져 있을 거란 걸 깨달았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잔디밭의 검은 덩어리 속에서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일 분, 이 분 정도 걷다가 물이 흐르는 바위들에 부딪혔다.

"젠장!" 그가 투덜거렸다. "이제 온몸이 다 젖었군. 이 야본 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원의 깊은 곳에서 맹렬한 짖음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파트리스는 경계견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온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무리 용감한 그였지만, 한밤중의 이 기습은 뭔가 소름 끼치는 기운이 있어 그는 오싹했다.

어떻게 맞서야 할까? 총성을 울리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가진 무기는 오직 권총 하나뿐이었다.

짐승은 거세게 달려왔다. 요란하게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숲속을 달리는 멧돼지 같았다. 사슬이 끊어진 듯했다. 쇳소리가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파트리스는 몸을 굳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는 야본이 자신을 막아 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충돌이 일어났다.

"잘했어, 야본. 왜 내가 앞장서게 하지 않았어? 잘했어, 친구. 내가 여기 있네."

두 상대는 풀밭에 굴러떨어졌다. 파트리스는 몸을 구부려 흑인 청년을 구하려 했다. 그는 짐승의 털과 야본의 옷가지를 만졌다. 하지만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땅에서 꿈틀거리며,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의 개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싸움은 길지 않았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뭉쳐 있는 곳에서는 간헐적인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떻게 됐나? 야본, 어때?" 대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본이 투덜거리며 일어났다. 성냥불빛에 패트리스는 야본이 한쪽 팔로 힘겹게 싸우던 상대를 보고 있었다. 야본의 유일한 팔이 거대한 개의 목을 단단히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 손가락이 목을 죄어 신음하는 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 개의 목걸이에는 끊어진 사슬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고마워, 야본. 죽을 뻔했군. 이제 놓아줘. 이 개는 더 이상 해칠 게 없어."

야본은 말대로 손을 놓았다. 하지만 너무 세게 조였는지, 개는 잠시 풀밭에서 몸을 비틀더니 몇 번 신음하듯 울음소리를 내다 결국 움직이지 않았다.

"불쌍한 녀석," 파트리스는 말했다. "우리 같은 도둑들을 막으려다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보자, 야본. 우리의 임무는 훨씬 더 복잡하니까."

창문 유리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빛을 따라 걸었다. 바위 속에 파인 계단들을 오르고, 겹겹이 쌓인 플랫폼들을 지나 마침내 집이 세워진 테라스에 도착했다.

거리 쪽과 마찬가지로 이쪽 창문들도 둥글고 높았다. 모든 창문에 셔터가 닫혀 있어 방패처럼 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살짝 틔워져 있었다. 아래에서 보았던 그 빛이 그 틈새로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야본에게 덤불 속에 숨으라고 명한 뒤, 그는 건물 정면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말이 섞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튼튼하게 닫힌 창문 셔터로는 안도 밖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네 번째 창문을 지나 계단으로 이어지는 돌계단까지 나아갔다.

그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정원의 열쇠를 보내줬으니, 정원으로 통하는 문은 당연히 열려 있겠지.'

문은 실제로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대위는 그 소리가 계단 샤프트에서 올라오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 계단이 집의 비어 있

는 부분을 잇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계단 위쪽은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는 올라갔다.

실제로 2층에서 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틈으로 내밀어 안을 살피더니,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넓은 방 중간쯤을 가로지르는 좁은 발코니였다. 이 복도는 천장까지 닿은 책장 옆을 따라 세 면을 돌아 있었다. 방 끝끝마다 나선형 철제 계단이 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발코니 난간 쪽으로는 책 더미가 쌓여 있었다. 덕분에 파트리스는 아래, 즉 3~4미터 아래 1층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천천히 그는 두 무더기를 헤쳤다. 그때였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친 함성으로 터져 나왔다. 그가 눈치를 채자마자, 다섯 명의 남자가 한 사내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은 그가 방어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그를 쓰러뜨렸다. 그들은 광인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를 누르고 있었다.

대위의 첫 번째 반응은 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야본이 그의 부름에 달려왔더라면, 그는 분명 그들을 제압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아무런 무기를 쓰지 않았고, 살의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쓰러진 남자를 목과 어깨, 발목으로 잡아누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빨리!" 다섯 명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자다운 톤으로 명령했다.

"줄로 묶어라…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소리 지르든 말든 상관없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파트리스는 즉시 그 목소리가 아침 식당에서 들었던 두 목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남자는 키가 작고 마른 몸매에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나, 피부는 올리브빛을 띠고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붙잡았군, 이 개자식!" 그가 말했다. "이번엔 결국 입을 열게 될 거야. 자, 친구들, 각오는 됐지?"

네 명 중 한 명이 적의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서둘러야 해!"

그 남자는 굵은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그와 대화하던 상대를 알아봤다. 바로 식당에서 코랄리 엄마를 습격한 두 사람 중 한 명, 즉 도망친 그 범인이었다. 그의 회색 펠트 모자는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뭐든 각오됐단 말이지, 부르네? 무슨 일이 생겨도?" 두목이 비웃었다. "자, 시작하자! 아, 옛 친구 에사레스, 네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재미있겠군."

그들은 모든 행동을 미리 상의했고, 일을 철저히 분담한 듯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했다.

남자는 묶인 채로 들어 올려져, 등받이가 매우 뒤로 젖혀진 안락의자 깊숙이 던져졌다. 그들은 그를 몸통과 가슴 부분으로 묶어 의자에 고정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묶인 채였다. 같은 높이의 무거운 의자 한 개에 고정했는데, 의자 높이는 안락의자와 같았다. 두 발이 의자 가장자리 밖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그 두 발에서 작은 부츠와 양말을 벗겨냈다.

두목이 명령했다.

"밀어!"

정원을 내려다보는 네 개의 창문 중 두 개 사이에는 큰 벽난로가 있었다. 그 안에서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은 붉게 달아올랐고, 어떤 곳은 하얗게 타올랐다. 화로가 너무 뜨거워 빛날 지경이었다.

남자들이 안락의자와 의자를 밀었다. 그 위에는 희생자가 묶여 있었다. 그들은 두 발을 앞으로 내민 채, 그 뜨거운 불빛에서 딱 오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다.

입을 막았음에도 비명 같은 고통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끔찍할 정도로 비명이었다. 그리고 묶인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는 스스로를 향해 말려들었다.

"가자! 얼른 가! 더 가까이!"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휘관이 절규하는 소리였다.

파트리스 벨발이 권총을 쥐었다.

'나도 가야지. 이 비참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는 몸을 일으켜 행동에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 우연히 몸을 움직인 덕분에 그는 상상도 못 할,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그 순간, 방 건너편, 그가 앉아 있는 발코니와 마주 보는 쪽이었다.

여기서 한 여성의 얼굴이 보였는데, 난간 철창에 얼굴을 기댄 채였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아래, 붉게 타오르는 불꽃 앞을 어지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코랄리 엄마였다. 대위가 알아본 것이다.

제4장

코랄리 엄마! 코랄리 엄마가 이 집에 숨어 있었다. 이 집은 그녀의 공격자들이 점령한 곳이었다. 그는 불가사의한 일련의 사건 덕분에 이 집에 숨을 수 있었다.

그는 즉각 이런 생각을 했다. 적어도 하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셈이었다. 그녀도 골목길로 들어와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섰고, 그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을까? 무엇보다,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이 벨발 대위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았다. 코랄리의 광기 어린 표정이 그를 너무도 강하게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또 한 번의 비명이 아래에서 들려왔다. 첫 번째 비명보다 더 야생적이고 격렬한 소리였다. 그는 벽난로 앞 붉은 불빛 스크린 앞에서 희생자의 두 발이 비틀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랄리가 있는 탓에, 파트리스는 환자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젊은 여성의 행동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휴식!" 지휘관이 명령했다. "그를 뒤로 당겨라. 이 시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가갔다.

"자, 에사레스 씨. 이 이야기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혁명 시절의 진짜 '쇼퍼'들, 즉 진짜 장인들처럼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게 맞죠?"

두목이 욕설을 내뱉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부한다는 거야? 정말 고집불통이군.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나?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희망이라니, 미친 게 아니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하인들? 경비원, 집사, 주방 책임자는 이미 내 편이야. 해고를 통보했고, 그들은 이미 떠났다. 하녀나 요리사? 그들은 집 반대편에 살고 있어. 너 자신이 여러 번 말했듯이,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 그다음엔? 아내? 그녀도 이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시메온, 너의 오래된 비서? 우리가 방금 현관을 열어주자마자 그를 묶어놨어. 더 이상 이 이야기로 시간을 끌지 말자. 부르네!"

짙은 콧수염을 가진 남자가 그 순간 의자를 잡고 있던 자세를 바로 잡으며 반문했다.

"무슨 일인가?"

"부르네프, 그 비서는 어디에 가뒀나?"

"관리인의 방에."

"그 부인의 방은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당신이 알려주신 대로입니다."

"너희 네 명은 가서 부인과 비서를 데려와!"

네 명의 사내는 코랄리 아줌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으로 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두목이 희생자에게 몸을 굽히며 속삭였다.

"이제 둘이 됐군, 에사레스. 내가 원하던 대로다. 이 기회를 이용하자."

그는 더 깊이 몸을 숙였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파트리스는 듣기 힘들 정도였다.

"저런 놈들은 바보야.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 계획을 최대한 숨길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에사레스, 우리는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넌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 결과 넌 이런 신세가 됐어. 자, 에사레스, 고집 부리지 말고 속임수 부리지 마. 넌 함정에

빠졌고, 무력하며, 내 의지에 복종하고 있어. 그러니 고문으로 인해 결국 의지가 꺾이기 전에, 타협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둘이서 나누자고. 동의해? 평화를 맺고, 동등한 분배를 기반으로 거래하자. 넌 내 게임에 참여하고, 나는 네 게임에 참여할게. 우리가 합치면 승리는 필연적이야. 적으로 남으면, 승리자가 여전히 가로막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둘이서 나누자. 답해. 예, 아니면 아니오?"

그는 입마개를 풀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내뱉은 몇 마디가 파트리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한 명, 즉 두목이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제안했다는 거야? 정말 너는 대담하구나!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하다니! 그런 건 부르네프나 그 동무들에게나 해라. 저들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나? 나? 파키 대령에게? 안 돼, 친구야. 나는 더 탐욕스러운 놈이란다. 나랑은 나누는 건 좋지만, 구걸을 받는다? 절대 안 돼!"

파트리스는 간절히 경청했다. 동시에 그는 코랄리 아줌마의 눈치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파트리스와 똑같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벽난로 위에 놓인 거울에 비친 피해자를 살폈다.

벨벳 소재에 자수가 돋은 집안용 가운을 입고 갈색 플란넬 바지를 입은 그 남자는 대략 오십 살쯤 되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벗겨졌고

얼굴은 살이 쪄 있었다. 굵고 휘어진 코, 두꺼운 눈썹 아래 깊게 파인 눈, 그리고 회색빛이 도는 거친 수염으로 뒤덮인 볼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초상화는 벽난로 왼쪽, 두 번째 창문과 첫 번째 창문 사이에 걸려 있었다. 초상화는 더 선명하게 그의 모습을 보여줬다. 강인하고 힘차며, 표현력까지 거칠 정도로 강렬한 얼굴이었다.

'동양인의 얼굴이군,' 파트리스는 생각했다. '이집트와 터키에서 그런 얼굴을 여러 번 봤다.'

이들 네 사람의 이름, 즉 파키 대령, 무스타파, 부르네프, 에사레스의 이름부터 그들의 억양, 태도, 외모,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파트리스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곳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호텔이나 보스포루스 해안, 에디르네의 시장, 그리고 에게해를 오가는 그리스 배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레반틴, 즉 동방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파리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었다. 에사레스 베이라는 이름은 금융가로서 파트리스가 잘 알고 있었다. 파키 대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어조와 말투는 그가 파리에 정통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은 갑자기 열렸고, 네 사람이 끌고 온 한 남자를 방 입구에 내동댕이쳤다. 남자는 묶인 채였다.

"자, 시메온 아저씨가 여기 있소." 부르네프라는 남자가 외쳤다.

"그 여자는?" 두목이 재촉했다. "당연히 데려왔지?"

"아니요."

"뭐? 도망쳤다는 말이오?"

"창문으로요."

"그럼 쫓아가야지! 아마 정원에 있을 거야… 방금 전, 경비견이 짖던 걸 기억나?…"

"만약 도망쳤다면?"

"무슨 소리요?"

"골목문으로?"

"불가능해."

"왜?"

"그 문은 몇 년째 안 쓰는 문이거든. 열쇠도 이미 없어."

"좋소." 부르네프가 말했다. "하지만 등불을 들고 동네를 뒤지며 여자를 한 명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파키 대령은 격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포로 쪽으로 돌아섰다.

"운이 좋군, 늙은 악당. 오늘 두 번째로 그 여자가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어. 네 그 얌전한 아가씨가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말해 줬나? 아, 만약 저 악질 대위가 없었더라면… 내가 나중에 꼭 찾아내서 개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는데."

파트리스는 분노에 치밀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코랄리 아줌마가 자기 집 안에서 숨어 있었다는 사실. 다섯 명의 괴한들이 들이닥친 것을 깜짝 놀란 그녀는, 기어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끝에 창문에서 내려와 테라스를 따라 현관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손님이 묵지 않는 호텔 쪽으로 이동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벌어진 처절한 싸움을 지켜볼 수 있는 이 서재의 발코니에 몸을 숨긴 것이다.

'남편이라니! 남편이라고!'

파트리스는 전율하며 생각했다.

이 일에 대해 아직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 의심을 단번에 걷어냈다. 두목이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그래, 옛 친구 에사레스.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마. 네 아내가 내게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그녀를 놓쳐서, 나는 오늘 밤 너와 모든 일을 정리한 뒤 더 즐거운 다른 일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내 손아귀에 들어온 이상, 그녀는 인질 노릇을 했을 테고.

우리 간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행되기 전까지는 그녀를 돌려주지 않을 거야. 확신해라."

"그리고 넌 아무 의심 없이 내 말에 따랐겠지, 에사레스! 네 코랄리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는 벽난로 오른쪽으로 걸어가 스위치를 돌렸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창문 사이, 반사판 아래에 놓인 전등이 켜졌다.

거기에는 에사레스의 초상화와 마주 보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두목이 커튼을 걷어냈다.

순간 코랄리가 밝은 빛 속에 드러났다.

"이 곳의 여왕이시여! 마법 같은 미녀여! 우상이여! 보석 중의 보석이여! 은행가 에사레스 베이의 황실 다이아몬드여!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 보라. 그 섬세한 얼굴선과 순수한 타원형, 그리고 매력적인 목과 우아한 어깨를 찬탄해 보라. 에사레스, 우리 저쪽 나라에서는 코랄리만한 총애받는 여인이 없다!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테니까. 아, 코랄리! 코랄리!"

파트리스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욕설이 나올 때마다 분노와 격분으로 몸을 떨었다. 이미 코랄리가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그녀가 이 남자들의 눈앞에 드러나, 힘없는 먹이처럼 가장 강한 자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보는 것에 격분했다.

동시에 그는 코랄리가 왜 이 방에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비록 그녀가 정원에서 나갈 수는 없더라도, 집의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까?

물론 그녀는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남편을 사랑했다면,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그 남자가 고문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그 처참한 참상을 목격하며,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쯤에서 장난은 그만!" 두목이 커튼을 다시 당기며 외쳤다. "코랄리, 네가 내 최고의 보상일 거야. 하지만 그걸 얻으려면 네가 그 가치를 보여줘야 해. 자, 일할 시간이다. 우리 친구를 빨리 끝내자. 우선 십 센티미터 더 당겨라. 그 이상은 금지야. 뜨거우냐? 에사레스? 그래도 참을 만하잖아. 참아라, 좋은 친구여, 조금만 참아."

그는 포로의 팔을 풀어주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다. 그리고 연필과 종이를 올려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입마개가 있어서 말을 못 하니까 글로 써라. 무슨 일인지 모를 리 없지? 여기에 몇 줄 적어주면 너는 자유가 될 거야. 동의하냐? 안 되냐? 자, 동지들, 십 센티미터 더 당겨라."

그는 물러서서 늙은 비서에게 몸을 굽혔다. 더 밝은 빛 아래에서 파트리스는 그 비서가 때때로 코랄리를 구급차까지 바래다주던 바로 그 노인임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시메옹, 너에게는 아무 해가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주인에게 충성스럽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가 네게 사적인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지. 더구나 네가 이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우리를 고발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내뱉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네 주인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테니까."

"이해했지? 응?"

그런데 시메옹은 대답이 없다.

"로프가 목을 너무 조랐나? 잠시만, 숨을 좀 쉬게 해줄게…"

그런데 벽난로 근처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열기에 붉게 달아오른 두 발 사이로, 불꽃의 맹렬한 광채가 투명하게 비치는 듯했다.

환자는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접으려 하고 뒤로 물러나려 했다. 입에 막힌 것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낮고 끊이지 않는 비명이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람을 꼬치에 꽂은 닭처럼 구워 죽이자는 건가?'

파트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코랄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경련처럼 일그러져 식별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눈은 끔찍한 광경을 보며 홀린 듯 고정되어 있었다.

방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섯 센티미터만 더!"

그는 늙은 시메옹의 결박을 풀면서 외쳤다.

명령이 즉시 실행되었다. 희생자가 내지른 비명은 너무도 처절해서 파트리스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다.

환자의 손이 작은 떨림을 반복하며 테이블 반대쪽 가장자리를 단단히 쥐고 있었던 것이다. 팔은 대리석 위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형자들은 다리만 고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고, 상관은 시메온과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다.

손은 회전식 서랍을 돌려 안으로 파고들더니, 곧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급작스럽게 손을 빼내어 의자 안쪽으로 무기를 숨겼다.

그가 밝힌 행동,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계획은 미친 듯이 대담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무력한 신세였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자유롭고 무장한 적들과 맞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파트리스는 거울에 비친 그(에사레스)의 얼굴에서 사나운 결의를 읽어냈다.

"다섯 센티미터 더."

파키 대령이 벽난로 쪽으로 돌아오며 명령했다.

그는 살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웃으며 말했다.

"피부 여기저기가 부어오르고 정맥이 터질 듯합니다. 에사레스 베이, 당신은 이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군요. 당신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쓰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럼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건가요? 당신의 아내 쪽에서요? 아니, 알다시피 그녀가 탈출했다 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당신은 나를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그는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발을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제대로 태워져서 냄새가 나게 해라! 아, 나를 장난으로 보는 거야? 좋아, 기다려 봐, 친구. 내가 직접 관여해서 귀 하나나 두 개를 잘라주마.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대로 말이야."

그는 조끼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단도는 불빛에 번쩍 빛났다. 그의 얼굴은 짐승 같은 잔인함으로 역겨웠다. 그는 야수적인 비명을 지르며 팔을 들어 올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든, 에사레스가 더 빨랐다.

단숨에 겨누었던 권총이 격렬한 폭발음을 내며 발사되었다. 대령의 칼은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몇 초 동안 위협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팔은 공중에 매달린 채, 눈은 흐릿하게 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자신의 피해자에게 쓰러졌다. 그의 온몸 무게로 에사레스의 팔을 마비시켰다. 바로 그 순간, 에사레스는 다른 공범자 중 한 명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더듬거렸다.

"아, 그 멍청한 놈… 멍청한 놈이… 나를 죽였군… 하지만 네가 망하는 거야, 에사레스… 나는 이 경우를 미리 대비해 뒀어. 내가 오늘 밤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청장은 편지를 받게 될 거야… 네 배신 사

실이 드러날 거야, 에사레스… 네 모든 비밀과 계획까지… 아, 불쌍한 놈… 왜 그랬을까… 우리 둘이 잘 지내면 어땠을까…”

그는 더듬거리며 몇 마디 더 중얼거린 뒤, 카펫 위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끝이 났다.

이런 반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죽어가던 두목이 남긴 고백과, 공격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고발할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모두 한 순간 얼어붙었다. 부르네프는 에사레스의 무장을 해제했다. 에사레스는 의자가 고정되지 않은 틈을 타 다리를 접을 수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풍기던 공포감은 오히려 침묵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듯했다.

바닥에는 시체가 누워 있었다. 피가 카펫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근처에는 시메옹의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었다.

그리고 불길 앞에 묶인 채, 자신의 살을 태우려던 불을 향해 있는 환자. 그 옆에는 네 명의 처형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적을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완고한 결의가 드러나 있었다.

부르네프는 다른 구성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모든 각오를 다진 듯했다.

그는 체구가 작고 통통한 남자였다. 하지만 힘줄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입술 위에는 수염이 나 있었는데, 파트리스 벨발이 눈여겨본 바로 그 수염이었다.

그는 두목보다 겉보기에 덜 잔인하고, 거동도 덜 우아하며, 덜 권위적이었지만, 더 침착하고 냉정했다.

한편 대령은 더 이상 동조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들이 걸고 있는 승부가, 그들에게는 쓸데없는 연민을 베풀 여유조차 없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부르네프는 결심을 굳혔다. 이미 세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가 근처에 놓인 회색 펠트 모자를 집어 들었다. 안감을 젖히고는 거기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 모습을 본 파트리스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그것은 가느다란 빨간 끈이었다. 야본이 체포한 첫 번째 공범인 무스타파 로발라이오프의 목에서 파트리스가 찾아낸 것과 똑같은 끈이었다.

부르네프는 그 끈을 펼쳤다. 양쪽 고리를 잡은 채 무릎 위에 올려 단단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에사레스에게 다가갔다. 입에 막힌 것을 풀어준 뒤, 그 끈을 에사레스의 목에 둘렀다.

"에사레스," 그는 말했다. 대령의 격분과 조소보다 더 위압적인, 차가운 침착함으로. "에사레스, 너를 고문하지는 않겠다. 나는 고문이라는 방법을 혐오한다. 그런 수단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너의 한 마디, 나의 한 행동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난다."

"그 한 마디는 네가 내뱉을 '예' 또는 '아니오'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내가 취할 행동은 네 석방이거나, 아니면……"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선언하듯 말했다.

"아니면 네 죽음."

그 짧은 말은 매우 평범하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판결처럼 단호하게 내뱉어졌다. 에사레스는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복종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결말과 마주하고 있었다. 1분도 지나기 전에 그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야 했다.

파트리스는 다시 한번 코랄리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수동적인 공포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 심지어 남편을 위협하는 그 상황까지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 파트리스는 참았다.

"동의했지?" 부르네프가 동맹자들에게 물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중 한 명이 대답했다.

"책임도 함께 지겠는가?"

"물론입니다."

부르네프는 두 손을 가까이 모은 뒤 꼬았다. 그 순간, 목에 감긴 끈이 조여들었다. 그는 끈을 살짝 당겨 압력이 느껴지게 한 뒤, 차갑게 물었다.

"예냐, 아니냐?"

주변에서 기쁨의 탄식이 새어 나왔다. 공범자들은 숨을 돌렸고, 부르네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의 뜻을 보였다.

"아, 너도 인정하는구나… 늦기 전에 잘했다. 에사레스, 네가 지금껏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는지 알겠지?"

그는 끈을 놓지 않은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이제 말해라. 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다. 네 대답이 놀랍군. 내가 대령에게도 그랬지. 네가 죽음을 눈앞에 두더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거라고. 내가 틀렸나?"

에사레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죽음도, 고문도…"

"그럼, 우리에게 다른 제안을 하려는 건가?"

"그 외에도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대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간 사이였죠. 하지만 대령은 당신들을 배신하고 저와 전체 비밀을 놓고 거래할 의향은 있었지만, 이 다른 제안만은 거절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받아야 합니까?"

"그건 받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당신이 이해하죠. 대령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즉, 타협을 하자는 거군요?"

"돈 문제입니다."

부르네프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천 프랑권 지폐 몇 장이겠지? 그리고 부르네프와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순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에사레스. 왜 우리가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비밀은 이미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쯤이야 너희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말하자면 그 비법의 '위치'조차 모르는 거다.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찾아낼 거야."

"절대로 안 돼."

"네가 죽어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내 죽음?"

"몇 시간 후면, 대위의 고발 덕분에 너희는 쫓기게 될 거야. 잡히거나 최소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겠지. 그러니 너희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내가 제안하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야."

"그 돈을 우리가 받기로 했다면, 언제 주나요?"

부르네프가 물었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바로 지금."

"돈이 이미 여기 있는 거야?"

"미미한 액수라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잖아."

"아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큰 금액이야."

"얼마나?"

"사백만 프랑."

제5장

동조자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움찔했다. 부르네프가 재촉하듯 달려나왔다.

"뭐라고? 뭘 말한다는 거야?"

"사백만이라고. 너희 각자에게 백만씩 돌아가는 셈이지."

"잠깐! 정말로? 사백만이라고?"

"사백만."

그 숫자는 너무도 거대했고, 제의는 너무도 예상치 못했기에 동조자들은 파트리스 벨발이 느꼈던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부르네프도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사실, 제의는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네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적은 액수라도 만족했겠나?"

"그렇죠," 부르네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불행히도 저는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제 금고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그 금고 안에는 천 장짜리 지폐 네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부르네프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했다.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가 네 백만 프랑을 가져간 다음,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더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위치의 비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백만 프랑이 한도입니다.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대가로 어떤 약속이나 서약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차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는 것뿐일 테니까요.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살인 따위로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 논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부르네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금고가 이 방에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창문과 두 번째 창문 사이, 내 초상화 뒤에 있죠."

부르네프가 그림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보여요. 금고는 작은 중앙 판넬의 틀선으로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에는 로제트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아니라 철로 만들어졌죠. 판넬 네 모서리에도 각각 하나씩, 총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려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야 해요. 비밀번호는 '코라'라는 단어죠."

"코랄리의 앞 네 글자요?" 부르네프가 에사레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말했다.

"아니요." 에사레스가 말했다. "'코란'이라는 단어의 앞 네 글자죠. 이해됐나요?"

잠시 후 부르네프가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열쇠는요?"

"열쇠는 없어요. 단어의 다섯 번째 글자, 'n'이 중앙 로제트의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부르네프는 다섯 번째 로제트를 돌렸다.

그리고 곧장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이제 당기면 돼." 에사레스가 명령했다. "좋아. 금고는 깊지 않아. 정면의 돌 중 하나를 파서 만든 거야. 손을 뻗어봐. 지갑 네 개가 있을 거야."

사실 이 순간, 파트리스 벨발은 부르네프의 수색이 뜻밖의 사건 때문에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사레스의 저주로 갑자기 열려버린 구렁텅이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세 공범자 역시 그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부르네프조차도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는 몸을 돌려 에사레스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손에는 캔버스 끈으로 단단히 묶인 네 개의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지갑은 짧았지만 폭이 유난히 두터웠다. 그는 끈의 버클을 풀고 그중 하나를 열었다.

소중한 짐을 무릎 위에 올린 그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갑 안주머니에서 엄청난 분량의 지폐 뭉치를 꺼냈고, 그 순간 그의 손은 열병으로 떠는 노인의 손처럼 보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천 프랑 지폐다… 천 프랑 지폐 열 뭉치."

싸움을 각오한 사람처럼 거칠게, 공범들은 하나씩 지갑을 움켜쥐고 속을 뒤졌다. 그러고는 중얼거렸다.

"열 뭉치다… 맞다. 천 프랑 지폐 열 뭉치."

한 사람이 목이 메는 소리로 외쳤다.

"가자… 빨리 가자…"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에사레스가 그들이 이 방을 나가기도 전에 도로 빼앗을 계획도 없이 그런 거액을 넘겨주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확실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벽들이 서로 달라붙어 그들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불가해한 적만은 건드리지 않을 테고.

파트리스 벨발도 의심하지 않았다. 대참사가 눈앞에 닥쳤고, 에사레스의 즉각적인 복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처럼 강인한 사나이, 그처럼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내가 400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손쉽게 놓아줄 리 없었다. 뒤에는 분명히 다른 계산이 있을 터였다.

파트리스는 숨이 막혀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지금까지 목격한 비극적인 장면들 중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어머니 코랄리의 얼굴에도 같은 강렬한 불안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르네프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다. 동료들을 제지하며 그는 말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시메온 노인하고 함께 우리 뒤를 쫓아올 수도 있어."

네 사람은 한 손으로 에사레스의 팔을 의자에 단단히 묶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지갑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사레스는 투덜거렸다.

"바보들! 너희는 내게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비밀을 훔치러 왔으면서, 고작 사백만이라는 작은 돈 때문에 정신을 잃다니. 그래도 대령은 더 큰 각오를 했군."

그들은 그를 다시 입마개를 씌웠다. 부르네프가 그의 머리를 향해 거친 주먹질을 날렸고, 에사레스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제 철수할 길이 보장됐네." 부르네프가 말했다.

동료 중 한 사람이 물었다.

"대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안 두겠나?"

하지만 그 대답은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부르네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결국, 아니요. 에사레스를 더 이상 몰아세우는 건 우리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익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거죠. 에사레스도 우리처럼요. 그 골치 아픈 대령의 편지가 경찰서로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저는 정오쯤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전에요."

"그럼 어떻게요?"

"그를 차에 태워 아무 곳에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의 서류는요?"

"가다가 뒤져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상처를 감쌌다. 그리고 시체를 들어 올렸다. 각자 팔다리 하나씩 잡고서였다. 그들은 지갑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은 채 방을 나섰다.

파트리스는 그들이 다른 방으로 급히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복도 바닥의 돌판 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야구나. 에사레스나 시메온이 버튼을 누르면, 그놈들은 바로 체포될 거야.

하지만 에사레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메온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위는 문이 닫히는 쾅 하는 소리, 엔진이 시동 걸리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자동차의 엔진음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범들은 사백만 프랑을 챙겨 도망친 것이다.

긴 침묵이 흘렀다. 파트리스의 불안은 여전했다. 그는 사건이 막바지에 다다른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닥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코랄리에게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그를 막았다. 코랄리가 일어난 것이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당혹감과 공포의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파트리스는 그녀가 갑자기 악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더 크게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돌았고, 눈썹과 입술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코랄리가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드라마의 결말일까?

그녀는 두 개의 나선형 계단 중 하나가 설치된 구석 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내려갔지만, 발소리를 죽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피할 수 없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거울을 통해 파트리스는 그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시선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아래층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그 태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명확하게 짜여 있었고, 그녀는 오직 그것을 실행할 최선의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 파트리스는 전율하며 생각했다. 코랄리 아줌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는 깜짝 놀랐다. 젊은 여자의 시선이 향했던 방향과, 그 시선이 지닌 기이할 정도로 고정된 눈빛이 그녀의 숨은 마음을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랄리는 대령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단도를 발견한 것이었다.

파트리스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단도를 잡으려는 의도가 남편을 찌르려는 것 외에 다른 데 있지 않음을.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살인의 의지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움직이기 전부터, 공포의 전율이 에사레스를 흔들었다. 그는 온몸의 힘을 짜내어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을 끊으려 애썼다.

그녀는 다가섰다. 잠시 멈췄다가, 급작스러운 동작으로 단도를 주워 들었다.

그녀는 다시 두 걸음을 내딛었다. 이때 그녀는 에사레스가 누워 있는 안락의자 바로 옆, 오른쪽에 서 있었다. 에사레스는 머리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일분일이 흘렀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응시했다.

한 사람은 곧 죽이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곧 죽으려 하는, 그 두 사람의 뇌를 뒤섞던 생각들의 끓어오름, 두려움, 증오, 그리고 어지럽고도 서로 모순되는 열정들이 파트리스 벨발의 마음속과 그의 의식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했을까?

개입하여 코랄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할까, 아니면 총알 한 발로 그 남자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어 자신이 그 일을 저지르는 편이 나을까?

사실 처음부터 파트리스 벨발의 마음속에는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하며 서서히 지배해 온 하나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적 갈등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격렬해진 호기심이었다.

그것은 어두운 사건의 이면을 알고자 하는 평범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비로운 영혼을 알고자 하는, 더 높은 차원의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갔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되찾고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가장 끔찍한 결단을 내렸다.

그러자 다른 질문들이 그의 머리를 채웠다. 그녀는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복수였을까, 형벌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증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파트리스 벨발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코랄리가 팔을 들어 올렸다. 바로 앞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적인 몸짓조차 하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하는 표정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간청도, 협박도 없었다. 그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들 근처에서, 여전히 묶여 있던 노신사 시메온은 팔꿈치에 기대 몸을 일으켜 그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코랄리가 다시 팔을 들어 올렸다. 보이지 않는 힘의 물결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 올렸다. 모든 기운이 그녀의 의지를 따랐다. 그녀는 내리치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릴 곳을 정확히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덜 차갑고, 덜 어두워졌다. 파트리스는 심지어 그 안에 망설임의 기미가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코랄리가 평소의 다정함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여성의 우아함, 그 어떤 부드러운 매력을 조금 되찾은 듯했다.

"아, 코랄리 어머니, 돌아오셨네."

파트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다시 돌아왔군. 잘 알아봤어. 네가 그 남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든 말든, 네가 죽이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젊은 여성의 팔이 천천히 몸 옆으로 처졌다. 얼굴의 긴장이 풀렸다.

파트리스는 그녀가 살인을 강요하던 집념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안도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단도를 바라보았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몸을 숙여 그의 묶인 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뚜렷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마치 그를 만지는 것조차 피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줄이 하나둘 잘려 나갔다. 에사레스는 자유가 되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감사의 말도, 분노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방금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고통이 아직 몸속을 태우고 있는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가 거꾸러지며 맨발로 식탁 위의 전화기 쪽으로 달려갔다. 전화기는 벽에 고정된 기계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굶주린 사람이 빵 부스러기를 발견하듯, 그는 그것을 간절히 움켜쥐었다. 구원이었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헐떡이며 에사레스는 수화기를 들어 올리고 외쳤다.

"중앙국 40-39."

그리고는 곧장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

아내는 듣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시메온 노인을 향해 몸을 굽혔고, 그도 함께 풀어주려 하고 있었다.

전화기 쪽에서 에사레스는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여보세요… 미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요… 40-39호… 지금 당장…"

그리고 코랄리에게 명령조로 다시 말했다.

"가버려!"

코랄리는 가지 않겠다는 듯 손짓했다. 오히려 듣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외쳤다.

"가버려! 가버려! 나가라고 했어."

"너도 나가, 시메옹."

늙은 시메온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사레스 쪽으로 다가섰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던 듯했다. 아마 항의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짓은 망설임만 가득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던 그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갔다.

"가버려! 가버려!"

에사레스가 아내를 향해 온몸으로 위협하며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코랄리는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그 태도에는 도발적인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때쯤 통신이 연결된 듯했다. 에사레스가 물었다.

"40-39번? 아, 알겠군."

그는 잠시 망설였다. 코랄리가 곁에 있는 게 그에게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알면 안 될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다. 그는 급히 마음을 정하고, 양쪽 귀에 수화기를 댄 채 영어로 말했다.

"그레고르? 나, 에사레스야. 알로. 그래, 레이누아르 거리에서 전화하는 거야. 시간 아끼자. 들어."

그는 자리에 앉아 계속했다.

"이렇게 됐어. 무스타파가 죽었어. 대령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젠장! 내 말을 끊지 마.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맞아, 우린 망했어. 너도 마찬가지고. 들어봐. 대령을 비롯해 본네프, 그리고 그 무리 전체가 다 찾아왔어. 그들은 힘과 협박으로 내 것을 빼앗았지. 나는 대령을 처리했어. 하지만 문제는 그가 경찰청에 서신을 보냈다는 거야. 우리 모두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지. 그 편지는 곧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본네프와 그의 부하 세 명은 도망칠 거야. 그들이 자기 집에 들러 서류를 챙길 시간이면 충분하지. 내가 계산해 본 바로는, 그들이 네 집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길어도 두 시간 정도야. 그곳이야말로 확실한 피난처지.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미리 준비해 둔 거야. 그러니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어. 그들은 곧 올 거야…"

에사레스는 말을 멈췄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이 침실로 쓸 각 방의 여벌 열쇠를 늘 가지고 있지? 응? 좋아. 그리고 그 방들의 찬장 열쇠도 두 개씩 가지고 있나? 응? 완벽하군. 자, 그들이 자거나,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그들이 깊이 잠들었다는 확신이 들면, 그들 방으로 들어가 찬장을 뒤져라. 그들 중 누구든 약탈한 전리품의 일부를 거기에 숨겨둘 게 분명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네 개의 지갑이지. 그것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최대한 빨리 도망쳐 나와 내게 합류해."

새로운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에사레스가 경청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뭐라고? 레이누아르 거리? 여기? 여기서 만나자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대령의 고발 이후에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절대 안 돼. 호텔, 역 근처에서 나를 기다려라. 정오나 한 시쯤, 아니면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 걱정 마. 차분히 점심을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 알았지? 그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중에 보자."

통신이 끊겼다. 사백만 프랑을 되찾기 위해 취했던 모든 조치들이 끝났으니, 에사레스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괴롭혔던 안락의자 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불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앉았다. 바지 끝을 발목까지 내리고 양말을 신은 뒤, 슬리퍼를 신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

도 했지만, 그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모든 동작을 해냈다. 마치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처럼.

코랄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벨발 대위는 살짝 당황했다.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을 대화를 엿듣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남았다. 코랄리 여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공격을 건넨 것은 에사레스였다.

"그래, 대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녀는 분노를 꾹 참으며 속삭였다.

"그럼, 정말인가요? 내가 의심할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는 비웃듯 웃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네가 처음부터, 진작부터 거기 있었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다면, 네 앞에서 전화를 걸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위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 들었구나?"

"그리고 다 봤겠지?"

"내가 당하는 고문을 보고, 내 비명을 들으면서도, 나를 변호하지도, 그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진실?"

"내가 의심만 하고,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그 진실."

"어떤 진실이라고?"

그가 더 크게 되물었다.

"당신의 배신에 대한 진실이에요."

"미친 소리를 해.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아, 단어 장난은 그만두세요. 사실 그 진실의 일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남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이해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던 그 비밀은 배신의 비밀이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배신이란 자기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지. 나는 프랑스인이 아니야."

"당신은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녀가 외쳤다. "프랑스인이 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 자격도 얻었잖아요. 프랑스인인 저와 결혼했고, 프랑스에서 살며 부를 쌓았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배신하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예요."

"말도 안 돼. 누구를 위해?"

"아,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달이고, 아니 몇 년이고요. 대장도, 부르네프도, 당신의 옛 공범들 그리고 당신까지. 거대한 일을 해냈죠. 정말 거대한 일이라고, 그들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공동 사업의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혼자 그 이익을 챙기고, 당신 것이 아닌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고 비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눈치챈 건, 배신보다 더 더럽고 끔찍한 무언가입니다.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알 수 없는 추잡한 짓이요."

"그만!"

남자가 안락한 의자 팔걸이에 주먹을 내리쳤다.

코랄리는 놀란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사이에 더 할 말도 없죠. 게다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신의 도주예요. 그게 곧 자백이죠. 당신은 경찰이 두려운 거예요."

그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떠나잖아요."

"그럼 매듭을 짓죠. 몇 시에 떠나요?"

"이따가, 정오쯤."

"만약 체포되면요?"

"나는 체포되지 않아."

"그래도 체포된다면요?"

"풀어줄 거야."

"적어도 수사나 재판은 하겠죠?"

"아니, 사건은 묻힐 거야."

"그러길 바라는 거겠죠…"

"확신해."

"하느님이 당신 말을 들어주시길! 그럼 당신은 프랑스를 떠나겠죠?"

"가능해지는 대로 곧."

"그러니까…?"

"2~3주 안에."

"그날이 되면 알려줘요. 그래야 제가 마침내 숨을 돌리죠."

"알려주지, 코랄리. 하지만 다른 이유에서야."

"무슨 이유로요?"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말이야."

"당신에게 가라고요?"

그가 비웃듯 비열하게 웃었다.

"너는 내 아내야.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해. 게다가 내 종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너는 알고 있지. 살해할 권리까지도. 어쨌든 너는 내 아내니까."

코랄리가 고개를 저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경멸의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해 가진 감정은 증오와 혐오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어떤 위협을 가하든, 저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다가가며 몸을 구부리고, 다리가 떨리는 채로 비틀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뭘 감히 말하는 거야? 나, 주인인 내가 네게 명령한다. 내가 부르는 즉시 나에게 오라는 것이다."

"저는 당신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제 영원한 구원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는 분노에 발을 구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건, 네가 남으려는 거겠지! 응, 네게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건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마음의 문제지, 그렇지?… 네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넌 늘 나를 증오했잖아?… 네 증오는 오늘 생긴 게 아니야. 그건 첫 순간부터야,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였지… 우리는 늘 치명적인 적처럼 지냈지.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숭배했어… 네가 단 한 마디만 했어도, 나는 네 발 앞에 주저앉았을 거야… 네 발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내 심장이 흔들렸어… 하지만 너는 나를 그저 혐오할 뿐이지. 그리고 넌 나 없이도 새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난 차라리 너를 죽이는 편이 낫겠군, 내 사랑."

그의 손가락이 꽉 쥐어졌다. 열려 있던 두 손이 코랄리의 머리 양옆을 맴돌았다. 마치 먹이를 짓눌러 죽이려 하듯, 아주 가까이서였다. 신경질적인 떨림이 그의 턱을 부딪치게 했다. 땀방울이 그의 두피를 따라 빛났다.

그의 맞은편에 선 코랄리는 가냘프고 작은 체격이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파트리스 벨발은 행동에 임할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서 읽어낸 것은 경멸과 혐오뿐이었다.

마침내 에사레스는 자제를 되찾고 입을 열었다.

"코랄리, 너도 올 거야.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네 남편이야. 방금 전, 살의가 무기가 되어 나를 향해 일어섰을 때, 네가 그 의도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걸 느꼈잖아. 앞으로도 항상 그래. 네 반항은 가라앉을 거고, 네 주인인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당신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집 안에서요. 당신이 저지른 배신 행위를 무너뜨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오 없이, 하지만 쉬지 않고 그 악행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증오가 있어. 조심해, 코랄리. 네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믿는 순간이, 바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이 될지도 몰라. 조심해."

그는 전기 벨 버튼을 눌렀다. 늙은 심에온이 곧 들어왔다. 그가 물었다.

"그래, 하인 두 명이 도망쳤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다시 말했다.

"잘 가. 하녀와 요리사만 있으면 집안일은 돌아간다. 그 두 녀석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 그렇지, 심에온? 너무 멀리 자서 들리지 않았겠지. 어쨌든 심에온, 내가 간 뒤에는 그들을 잘 감시해."

그는 아내가 왜 아직 떠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비서에게 말했다.

"여섯 시에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해. 나는 이제 죽을 듯이 피곤하네. 내 방까지 모셔다 줘. 그다음에 불을 꺼주게."

그는 심에온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나갔다.

파트리스 벨발은 즉시 코랄리가 남편 앞에서 약함을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서 더 이상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절하듯 무릎을 꿇으며 십자 성호를 그었다.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카펫 위에 놓인 편지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는 그녀와 문 사이에 있었는데, 그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코랄리 어머니님, 이 싸움은 이미 당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우정을 빌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손짓만 하시면 제가 바로 당신 곁에 가겠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며 쓰러질 뻔했다. 이 편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파트리스의 당돌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남은 의지를 총동원해 마지막 힘을 모았다. 그리고 파트리스가 간절히 빌던 그 제스처 하나조차 취하지 않은 채, 그녀 역시 방을 나섰다.

제6장

그 밤, 별채 방에서 파트리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압박감과 쫓기는 듯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 듯한 느낌이었다.

자신이 당황한 증인이자 무력한 배우 역할을 했던 격렬한 사건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쉬려 할수록 오히려 더 격렬하고 잔인하게 몰아쳤다.

남편과 아내의 작별 인사가 코랄리를 위협하는 위험을 잠시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위협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파트리스 벨발은 그 위험들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음을, 더구나 막아낼 힘조차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시간의 불면증 끝에, 그는 전등을 다시 켜고 작은 노트를 꺼내 방금 겪었던 반나절의 일을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 얽히고설킨 엉킨 실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으리라 바랐다.

여섯 시가 되자 그는 야본을 깨워 데려왔다. 그리고 당황한 흑인 남자를 앞에 두고 팔짱을 낀 채 그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래, 네 임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둠속에서 애를 쓰는데, 선생님은 잘 주무시고 모든 게 문제없다니. 내 친구, 네 양심은 정말 신축성이 풍부하군."

'신축성'이라는 말에 세네갈 남자는 크게 웃었다. 입꼬리가 더 벌어지며 그는 즐거움에 중얼거렸다.

"말은 그만하고." 대위가 명령했다. "네 말만 들린다. 의자에 앉아서 이 기록을 읽고, 이유를 대며 의견을 말해라."

"무슨 소리야? 읽을 줄을 모르냐? 하, 정말이지. 세네갈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엉덩이를 바싹 태우며 공부를 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상한 교육이야."

그는 한숨을 쉬더니, 손에서 그 원고를 빼앗았다.

"들어라. 생각해보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자. 내가 요약해 주마."

"에사레스 베이라는 은행가가 있더군.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만, 실체는 가장 추악한 간신배야. 프랑스도, 이집트도, 영국도, 터키도, 불가리아도, 그리스도 모두 배신하는 자지. 그의 공범들이 그의 발을 불로 지진다는 게 그 증거야.

그는 수백만 프랑을 들여 네 명의 동맹자를 죽이고, 그들을 박살 내 버렸지. 그리고 그 돈을 다섯 분 안에 찾아오라고 다른 동맹자에게 명령했지.

이 모든 사람들이 오전 열한 시에 모두 자취를 감출 거야. 왜냐하면 정오가 되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이지. 알겠나?"

파트리스 벨발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마마 코랄리…… 왜 하필이면, 예를 들어 말이지——프리푸유 베이와 결혼했을까? 그녀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한다.

그녀를 사랑하는 대령도 있다. 그 사랑으로 죽어 가고 있지. 그리고 무스타파라는 자가 대령을 대신해 그녀를 납치했는데, 이 역시 세네갈인에게 목이 졸려 죽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인 대위도 그녀를 사랑한다. 다리가 불편한 반쪽짜리 대위 말이야. 그녀는 그녀가 증오하는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대위를 피한다. 그리고 그 대위와는 전생에 자수정 한 알을 둘로 나눠 가졌단다.

거기에 녹슨 열쇠 하나, 붉은 실크 끈 하나, 질식사한 개 하나,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숯불 격자 하나를 더하면……

내 설명을 단 한 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내 의족으로 어디 한 대 갈겨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네 대위란다."

야본은 입술 전체를 들이밀며, 볼을 갈라놓은 깊은 상처까지 드러낸 채 크게 웃었다.

사실 그는 지휘관의 명령대로 이 사건의 전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파트리스의 말도 반쯤만 알아들었다. 하지만 파트리스가 그렇게 굵직굵직한 어조로 자신을 향해 말할 때면, 그는 기분이 좋아져 발을 동동 구르곤 했다.

"그만." 지휘관이 명령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추리하고, 결론을 내릴 차례지."

그는 벽난로에 기대어 두 팔꿈치를 대리석 위에 올렸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꼭 쥐었다.

평소 무심한 성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웃음도, 이번만큼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속으로는 코랄리를 걱정하는 고통스러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머릿속에는 여러 구상이 떠올랐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

전화번호로 그 그레고르의 은신처를 찾아야 할까? 부르네프와 그 무리가 숨어 있는 곳 말이다. 경찰에 알릴까? 아니면 레이누아르 거리로 돌아가야 할까?

알 수 없었다.

행동하는 것은 가능했다. 열정과 분노를 다해 싸움터로 뛰어드는 일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행동을 준비하고, 장애물을 예측하고, 어둠을 찢고, 그가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것. 그것은 그의 능력 밖이었다.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야본이었다. 그의 침묵이 야본을 괴롭히고 있었다.

"왜 그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냐! 네가 내 기분을 어둡게 만드는군. 너는 항상 사물을 검은색으로만 보잖아… 흑인처럼 말이야. 얼른 사라져."

야본은 완전 패배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밖에서 누군가 외쳤다.

"대위님, 전화가 왔습니다."

파트리스는 재촉하듯 뛰어나갔다. 이 이른 아침에 도대체 누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누구에게서인가?" 그가 앞장서던 간호사에게 물었다.

"글쎄요, 대위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말씀하시려는 듯하더군요. 오랫동안 울렸어요. 저는 아래 부엌에 있었거든요."

파트리스는 어쩔 수 없이 레이누아르가의 전화기를 떠올렸다. 에사레스 호텔의 넓은 방 안의 전화기였다. 이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

그는 한 층을 내려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전화기는 안방 너머, 지금은 세탁실로 쓰이는 방에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여보세요! 벨발 대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알지 못하는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숨이 차고, 허덕이고 있었다.

"벨발 대위!… 아, 다행이군요. 당신이 있군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당신, 열쇠와 편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열쇠와 편지를 받았습니까?" 목소리가 재차 강조했다.

"열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파트리스가 대답했다.

"편지가 없단 말인가! 이건 끔찍하군요. 그러니 당신은 모르는 거군요…?"

거친 비명이 파트리스의 귀를 때렸다. 이어 전화기 너머로 이해할 수 없는 소음들, 무슨 논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목소리가 갑자기 전화기에 밀착하더니, 또박또박하게 더듬거리며 들려왔다.

"너무 늦었어…… 파트리스…… 너니? …… 들어, 자수정 목걸이…… 응, 내 몸에 있어…… 목걸이가…… 아! 너무 늦었어! 정말 원했거든! 파트리스…… 코랄리…… 파트리스…… 파트리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다. 그 뒤로는 더 멀리서 우는 소리들이 들렸다. 파트리스는 그 소음 속에서 "도와줘요…… 도와줘요! 오, 살인자, 비열한 놈……" 하는 말들을 희미하게 알아들었다. 그 소리들은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갑자기, 멀리서 작은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살인자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이다.

그것은 스무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파트리스가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을 때, 그는 손에서 놓아야만 했다. 손가락들이 금속에 너무 강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잃었다. 눈이 창문을 통해 안뜰의 건물에 걸린 큰 시계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는 일곱 시 십구 분을 가리키고 있었

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를 중얼거렸고, 그 숫자에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광경이 현실 같지 않아서였다.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범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뇌속에서 일어난 환상인지 자문했다.

하지만 외침의 메아리는 아직 그의 귀에 울리고 있었다. 그는 절박하게 흐릿한 희망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여보세요… 아가씨… 저를 전화로 부르신 분 맞으세요? 그 비명을 들으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가씨를 욕설로 몰아세우고, 린넨실을 뛰쳐나왔다. 그러다 야본을 만나 그를 밀쳤다.

"꺼져! 다 네 탓이야… 당연하지! 넌 그냥 저기서 코랄리를 지켜야 했어. 자, 이제 너는 가서 그녀를 모셔. 그리고 나는 경찰에 알릴 거야.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진작 끝났을 거고,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가, 빨리!"

하지만 그는 야본을 붙잡았다.

"아니, 가만 있어. 네 계획은 말이 안 돼. 여기 남아."

"아, 여기 말고, 내 곁에 있어. 너는 너무 흥분되어 있어, 내 친구."

그는 그를 밖으로 밀어내고, 린넨실로 돌아갔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방 안을 이리저리 누볐다. 그의 초조함은 짜증 섞인 몸짓과 분노의 말로 드러났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생각이 서서히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결국, 레이누아르 거리 저택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그를 항상 같은 장면, 같은 비극적인 배경으로 이끌도록 강요할 이유는 없었다. 물론, 그는 직감했던 대로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다른 곳, 코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바로 진상을 캐묻는 것은 어떨까?

'왜 안 되지?'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경찰을 불러내거나, 자신을 찾은 자의 번호를 다시 찾아내고, 그렇게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나중에 쓰면 된다. 지금 당장, 아무 이유나 대고 누구인 척하며 레이누아르 거리로 전화를 거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만 하면 정황을 짐작할 단서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파트리스는 이 방법이 별 볼일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살인이 자행됐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일까?

하지만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그를 몰아세웠다.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에사레스 베이의 번호를 찾아냈고,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다.

기다림은 그를 견딜 수 없는 불안에 빠뜨렸다. 그러다 갑자기 온몸을 뒤흔드는 충격을 받았다. 전화가 연결된 것이다. 저편에서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가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는 에사레스 베이의 것이었다.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이 시간쯤 되면 에사레스는 서류를 정리하고 도피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파트리스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었다.

"에사레스 베이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 한 명의 편입니다……"

"벨발 대위 아닙니까?"

파트리스는 완전히 당황했다. 코랄리의 남편이 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벨발 대위군요."

"아! 정말 운이 좋네요, 대위님!" 에사레스 베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실은 방금 전 별관으로 전화를 걸어…."

"아, 당신이셨군요…." 파트리스가 말을 끊었다. 그의 놀람은 끝이 없었다.

"네, 벨발 대위와 통화할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그래야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셨군요… 당신이셨군요…." 파트리스는 점점 더 당황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에사레스의 어조에서 놀람이 역력했다.

"네, 맞죠. 대위님. 우연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니면 다른 전화가 제 회선에 겹쳐서요."

"그러면, 들으셨나요?"

"무엇을요, 대위님?"

"비명소리를…."

"비명이라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전화가 너무 희미해서요!"

"저는 단순히 당신을 찾는 사람을 들었을 뿐입니다. 매우 급한 기색이었죠. 하지만 저는 급하지 않았기에 전화를 끊고, 감사의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저를 감사하다니?"

"네. 어제 밤 아내가 당한 공격과, 당신이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만나볼까요? 예를 들어 야전병원에서요. 오늘 오후 세 시쯤…"

파트리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체포 위기에 처해 도망치려던 이 남자의 과감함에 그는 당황했다. 동시에 그는 에사레스 베이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의아했다. 아무런 강요도 없었건만, 그는 어떤 진정한 동기에 따라 행동한 걸까.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은행가를 동요시키지 않았다. 은행가는 정중함을 계속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가장 편안한 어조로 답하는 독백으로 그 불가해한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두 남자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파트리스는 더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두 시간 동안 잠들었다. 그 후 그는 야본을 불렀다.

"다음엔 신경을 단단히 잡고, 방금처럼 당황하지 마라. 참으로 창피한 짓이었지.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점심은 먹었나? 안 먹었나? 나도 마찬가지다. 진찰은 받았나? 아니라고? 나도 안 받았지. 그런데 바로 그 군의관께서 이 끔찍한 머리 붕대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단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은가? 나무 다리가 되어도 괜찮지만, 연인인데 머리를 천으로 감싸고 있다니! 얼른 준비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야전병원으로 가자. 코랄리 아줌마가 내가 거기를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파트리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한 시간 후 그가 야본에게 말한 대로, 마요 문으로 가는 길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렇지, 야본.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자. 먼저, 코랄리는 위험하지 않아. 내가 바랐던 대로, 그 싸움은 그녀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마도 공범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수백만 프랑을 두고 벌이는 싸움일 거야.

나에게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지르던 그 불쌍한 남자는 분명히 낯선 친구였어. 그가 나를 '파트리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너'라고 불렀으니까. 그가 바로 내게 정원의 열쇠를 보낸 사람이야. 안타깝게도 그 열쇠와 함께 온 편지는 분실된 것 같아.

어쨌든 그는 사건이 급박해지자 모든 것을 나에게 고백하려던 참이었지. 그런데 공격이 일어났어. 누가 그를 공격했다고? 아마도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공범 중 한 명일 거야.

이게 다야, 야본. 이 모든 건 눈이 부실 정도로 명확해. 물론 진실이 내가 말한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상관없어. 중요한 건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가설에 기반을 두는 거야. 설령 내 가설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네게 돌리겠어. 알아서 잘하길 바랄게…”

마요 문 너머로 나가 그들은 자동차를 탔고, 파트리스는 레이누아르 거리를 한 바퀴 돌아가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파시 교차로에 나왔을 때, 그들은 코랄리 아줌마가 시메온 노인과 함께 레이누아르 거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택시를 한 대 세웠다. 시메온이 뒷좌석에 앉았다.

파트리스가 뒤따르는 가운데, 그들은 샹젤리제 거리의 야전병원까지 갔다.

시각은 열한 시였다.

“잘되고 있어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남편이 도망가는 동안, 그녀는 평소의 일상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려 하죠.”

그들은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구급차를 감시하면서 대로변을 산책했다. 그러다가 한 시 삼십 분쯤 되어 구급차 쪽으로 향했다.

파트리스는 곧바로 유리 천장이 달린 안마당 구석에서 시메옹 노인을 발견했다. 그곳은 병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시메옹은 평소처럼

얼굴의 절반을 스카프로 감싼 채, 눈앞에 큼직한 노란 안경을 쓰고 자신이 늘 앉던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코랄리 아줌마는 3층에 있었다. 자신이 담당하는 병실 중 한 곳의 환자 침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미 잠들었다.

파트리스에게 코랄리 아줌마는 몹시 지쳐 보였다. 눈 밑이 퉁퉁 붓고, 평소보다도 더 창백해진 얼굴은 그녀의 피로가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불쌍한 아줌마, 저 악당 놈들이 결국 아주머니를 죽이고 말 거야.'

파트리스는 전날 밤의 광경이 떠올랐다. 코랄리가 자신의 삶을 숨기고, 적어도 야전병원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는 이름만 부르면 되는 자선적인 누나 역할만 하려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추악한 사실들을 눈치챈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성을 부정했고, 거처의 위치도 감췄다. 그녀의 의지와 수줍음이 쌓아 올린 장벽은 너무도 견고해서, 파트리스는 그녀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 그렇군! 아, 그렇군!'

그는 문턱에 발이 묶인 채, 그녀에게 들키지 않은 채 멀리서 젊은 여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찌 감히 명함이라도 건네겠는가?’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던 순간, 계단을 올라오며 꽤 큰 소리로 수다를 떨던 한 여자가 그의 옆에서 외쳤다.

“마담은 어디 있소?… 시메옹, 그녀를 당장 데려오시오.”

같이 올라갔던 노년 시메옹은 홀의 끝자락에 선 코랄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녀가 코랄리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자, 코랄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파트리스를 지나쳐 계단을 급히 내려갔고, 시메옹과 그 여자가 뒤를 따라갔다.

“차가 있어요, 마님… 숨이 차요. 집에서 나올 때 운이 좋아 차를 구했고,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서둘러요, 마담… 경찰서장이 저에게 명을 내렸다고요…”

계단을 함께 내려가던 파트리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말들이 그를 단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야본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곧장 자동차에 올랐다. 운전사에게는 코랄리의 차를 뒤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새로운 소식이다, 야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군.”

대위가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는 분명 에사레스 저택의 하녀야. 경찰서장의 지시로 주인을 찾으러 온 거지. 그러니까 대령의 고발이 효과를 본 셈이야. 집으로 들이닥쳐 조사를 하고, 코랄리 아줌마는 온통 시달림일 뿐이지."

대위가 야본을 힐끗 보며 혀를 찼다.

"그런데 넌 내게 신중하라고 권한다니?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 여자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나? 야본, 너는 참으로 추한 성품을 가졌구나."

그때 대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젠장! 에사레스라는 그 개자식이 잡히지는 않았겠지? 그게 문제야!"

대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 잡혔다면 큰일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어. 아마 꾸물거렸을 거야…"

길 내내 그 공포는 벨발 대위를 초조하게 몰아세웠고, 그는 어떤 양심도 갖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확신은 절대적이었다. 에사레스의 체포만이 하녀의 당황스러운 행동을, 코랄리의 급작스러운 출발을 부추겼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자신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증언

은 상황에 따라 강조하거나 약화시켜, 오직 코랄리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

따라서 두 대의 자동차는 거의 동시에 에사레스 저택 앞에서 멈춰 섰다. 호텔 앞에는 이미 다른 한 대의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코랄리는 차에서 내려 아치형 차고 안으로 사라졌다.

하녀와 시메온도 인도 너머로 나섰다.

"자, 갑시다." 파트리스가 세네갈 남자에게 말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파트리스가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현관에는 보초를 선 경관 두 명이 서 있었다.

파트리스는 재빨리 인사를 나누고는 집안 사람처럼, 아니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처럼 지나쳤다. 그에게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그의 존재감은 막강했다.

돌바닥을 밟는 그의 발소리는 부르네프와 공범들의 도주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게다가 왼쪽으로 살롱이 열려 있었다. 그곳은 공범들이 대령의 시체를 나르고, 서재와 연결된 곳이었다.

그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살롱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때, 코랄리의 비명이 공포 어린 어조로 들려왔다.

"세상에, 세상에!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문을 막은 다른 두 명의 요원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에사레스 씨의 친척입니다. 유일한 친척이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대위님."

"물론이지. 누구도 들이지 마라. 야본, 너는 여기서 기다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넓은 방 안에는 여섯에서 일곱 명의 신사들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경찰서장이나 법관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가 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무리 사이에서 코랄리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왔고, 공중을 두드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하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의자로 이끌었다.

"무슨 일이야?" 파트리스가 물었다.

"부인이 쓰러지셨습니다." 하녀가 여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세상, 머리가 엉망이 됐어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이유에서?"

"주인님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이라니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광경이요?"

그중 한 명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가왔다.

"에사레스 여사가 아프시다고요?"

"별일 아니에요." 하녀가 말했다. "실신한 거예요. 마담은 가끔 기운이 빠지는 편이거든요."

"걸을 수 있는 대로 바로 데려가세요. 마담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파트리스 벨발에게 물음을 던지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위님?"

파트리스는 모르는 체했다.

"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에사레스 여사를 모셔갈게요. 사실 여사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저는 먼저…"

그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해 돌아서며 걸었다. 그리고 법관들이 이루었던 무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틈을 타서 앞으로 나섰다.

그때 그가 목격한 광경이 코랄리의 실신과 하녀의 동요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 앞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벽난로 근처 바닥에, 자신이 어제 고문을 당했던 곳과 거의 같은 곳에 에사레스 베이가 반듯이 누워 있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갈색 플란넬 바지와 장식끈을 두른 벨벳 상의였다. 그의 어깨와 머리는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아마도 법의관일 것이다. 한 손으로 그 수건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 얼굴을……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살덩어리를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일부는 탄 듯 타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피투성이가 된 죽은 살점이 엉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뼈 조각과 피부 断片, 머리카락, 수염, 그리고 짓눌려 으깨진 눈알까지 뒤섞여 있었다.

"오, 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 파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그를 죽인 게 분명해. 머리를 불길에 그대로 박고 쓰러진 거야. 이렇게 주워진 게 맞지?"

이미 한 번 그를 불러세웠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남자가 다시 다가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벨발 대위입니다, 각하. 에사레스 부인의 친구입니다. 그녀가 정성껏 돌봐 구해낸 부상자 중 한 명이죠."

"좋습니다, 각하." 중대한 인물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도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경찰서장님, 의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어떤 구실로든, 절대 누구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각하.” 파트리스는 간곡히 말했다. “저는 각하께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듣겠습니다, 대위. 하지만 잠시 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7장

레누아르 거리에서 정원의 위쪽 테라스로 이어지는 큰 현관은 넓은 계단이 반쯤 차지하고 있었다. 이 현관이 에사레스 저택을 두 부분으로 나눴다. 두 공간은 오직 이 현관으로만 연결되었다.

왼쪽에는 응접실과 서재가 있었다. 서재에는 별도의 건물과 계단이 붙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당구장과 식당이 있었다. 천장이 낮은 이 방들 위에는 방들이 있었다. 거리의 쪽에는 에사레스 베이가, 정원의 쪽에는 코랄리가 살았다.

그 너머에는 하인들의 날개 건물이 있었다. 노년 시메온도 여기서 잤다.

파트리스는 세네갈 사람과 함께 당구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15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시메온과 하녀가 들어왔다.

늙은 비서는 주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한 듯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상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파트리스가 그에게 물었다. 노인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끝이 아니야…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무서운 일이야! 바로 오늘… 이따가…"

"이따가요?" 파트리스가 되물었다.

"네… 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녀는 파트리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선, 선생님, 오늘 아침 첫 번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집사, 하인, 경비원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세 사람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여섯 시 반쯤, 시메옹 씨가 와서 주인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인님이 서재에 들어가셨으니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점심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부인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아홉 시에 초콜릿을 드셨다고 합니다.

열 시에 시메옹 씨와 함께 나가셨죠. 그후 방 청소만 하고 우리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한 시, 정오가 지나고…

그런데 한 시쯤 되어서 현관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자동차 한 대에 네 분의 신사가 타고 있더군요.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나타나서 주인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닫힌 문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중 한 분이 열쇠를 따는 장치를 꺼내서 자물쇠를 열었죠…

그때, 그때…, 상상해 보세요… 아니, 오히려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 불쌍한 주인님이 그 순간, 머리가 거의 석탄 화격자 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에 이런 비열한 짓이 다 있다니요!

주인님이 살해당하셨죠? 네 분 중 한 분이 즉시 뇌일혈로 쓰러져 넘어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 시메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늘 두꺼운 옷에 싸인 채, 잿빛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노란 안경 너머로 눈은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가 그 지점에 이르자, 그가 작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파트리스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정말 무서운 일이야! 코랄리 여사…… 그녀를 당장 보내야 해. 그래야 해. 안 그러면 그녀에게 재앙이 닥칠 거야."

대위는 오한이 돋았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노인으로부터 더 이상 정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게다가 노인도 곧 자리를 떴다. 경찰관이 나타나 그를 데리고 서재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의 진술은 길게 이어졌다. 그 뒤에는 요리사와 하녀의 진술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모두 코랄리에게로 향했다.

오후 네 시, 새로운 자동차 한 대가 도착했다. 파트리스는 현관문을 지나가는 두 분의 신사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그는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알아봤다.

그들은 반 시간 동안 서재에서 회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떠났다.

드디어 오후 다섯 시쯤, 한 직원이 파트리스를 데리러 왔다. 직원은 그를 2층으로 올라가게 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고는 물러섰다. 파트리스는 자그마한 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나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코랄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는, 그가 도착했을 때 말을 건넸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그 신사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오십 전후로 보이는 그는 몸집이 크고 얼굴이 통통하며 행동거지도 둔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며 지혜가 느껴졌다.

"판사님, 맞습니까?"

파트리스가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데말리옹이라고 합니다. 전직 판사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파트리스는 매우 놀라며 외쳤다.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는 코랄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다가, 이내 데말리옹에게 시선을 돌렸다. 데말리옹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대위 님.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인과 제가 이미 모든 점에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흐릿하게 남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진리의 빛에 다다를 겁니다. 함께요. 당신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트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제 놀라움을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서명까지 수반하는 공식 선언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대위님, 말씀의 무게와 그 파장은 전적으로 대위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전 대화일 뿐입니다. 사실에 대한 의견 교환

일 뿐이죠. 게다가 에사레스 여사께서 당신이 제게 알려 주실 만한 정보를 이미 주신 것 같습니다."

파트리스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젊은 여성과 재판관이 어떤 암묵적인 합의를 맺고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와 열의가 오히려 거슬리는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그는 상대가 먼저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군요. 그러니 어제 식당에서 엿들었던 대화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군요."

"에사레스 씨가 납치 미수의 피해자가 된 일도요?"

"그리고 살인 사건은?"

"에사레스 씨가 오늘 밤 그에게 자행된 협박의 전말, 고문의 세부 사항, 대령의 죽음, 400만 프랑의 인계, 그리고 에사레스 씨와 그레고르라는 자 사이의 전화 통화,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조치들까지 모두 말씀하셨군요."

"네, 대위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파트리스가 되뇌었다. "내 설명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군요. 당신은 결론을 내릴 충분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군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여전히 질문을 던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들로부터 피하고 있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결론은 어떤 방향으로 내리셨습니까?"

"음, 대위님, 제 결론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증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정오 무렵 에사레스가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그의 책상 위에서 미완성 상태로 발견되었죠. 에사레스 씨는 저에게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시고, 필요하시면 당신께도 전달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내 떠남을 부도덕한 이유 때문으로 단정했던 건 네 잘못이야. 그리고 네 비난에 충분히 반박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떠난 유일한 이유는 나를 둘러싼 적대감 때문이야. 그 적들이 얼마나 가차없이 잔인한지 너도 이미 목격했잖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박탈하려는 적들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이 없어.

그래서 나는 떠난다. 하지만 코랄리, 나의 절대적인 뜻을 다시 한번 일러둔다.

첫 번째 신호만 보내면 너는 반드시 내게 합류해야 해.

파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를 합당한 분노로부터 지켜줄 수 없어. 내 죽음조차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

사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편지가 여기서 끝납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편지를 코랄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확실한 단서 하나를 통해, 에사레스 씨의 마지막 글씨가 그가 죽기 얼마 전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떨어지면서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시계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정오 23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는 아마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것이겠지요. 불행하게도 벽난로가 가까웠고, 그 안에는 거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머리가 벽난로 쇠살대에 부딪혔고,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의 불길이 그 일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보셨죠."

파트리스는 뜻밖의 설명에 경악하며 듣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즉, 당신 말씀대로 에사레스 씨는 사고로 죽으신 거죠? 살해당한 건 아니라고?"

"살해? 음, 아닙니다. 그런 추측을 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소."

"그런데도…"

"대위님, 당신은 연상 작용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 연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제부터 당신을 괴롭힌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해, 가장 비극적인 결론, 즉 살인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부르네와 그의 동조자들일까요? 그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지폐로 배부른 상태였습니다. 설령 그레고르라는 가명을 쓴 이가 그들에게서 수백만 프랑을 빼앗았다고 해도, 에사레스 씨를 죽였다고 해서 그 돈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또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대위님. 에사레스 씨는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 검안 의사의 의견도 그와 같습니다. 의사는 곧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파트리스 벨발이 코랄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건 늙은 시메온의 생각이기도 합니까?"

"오, 그 노망 든 시메온 말인가요?" 판사가 말했다. "저는 그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듣자니,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처럼, 에사레스 여사에게 위기가 닥쳤으니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거더군요. 제가 그에게서 끄집어낸 건 그게 전부입니다."

판사는 계속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낡은 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문은 정원을 끼고 있어, 레유나르드 거리와 수직으로 이어지는 골목과 맞닿아 있더군요. 거기서 그는 먼저 경비견의 시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 도서관 옆 계단 사이에서 발자국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 당신도 알고 있죠, 대위님? 바로 당신과 당신의 세네갈인 부하의 발자국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다시 물었다.

"경비견이 목이 졸린 것도, 그 세네갈인이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죠?"

파트리스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검사관의 망설임, 그의 해명, 그리고 젊은 여성과의 타협. 모든 것이 점차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또렷이 물었다.

"결국 살인은 아니라는 건가?"

"그렇다면 수사도 없겠지."

"그럼 이 일에 소문도 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침묵, 그리고 잊혀짐?"

"바로 그겁니다."

벨발 대위는 평소처럼 왔다 갔다 거닐기 시작했다. 그때 에사레스의 예언이 떠올랐다.

"나를 잡지 않을 거야… 만약 잡는다 해도 풀어줄 거야… 이 사건은 묻힐 거야…"

에사레스는 정확히 꿰뚫어 본 셈이었다. 사법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어찌 보면 코랄리를 침묵의 공범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대위의 분노를 깊게 자아냈다. 코랄리와 데스말리옹 씨 사이에 분명히 맺어진 거래를 통해, 그는 데스말리옹이 젊은 여자를 현혹해 자신의 이익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즉 파트리스를 제거해야 했다.

"오호, 오호." 파트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저씨, 점점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는군. 그 차분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아주 대놓고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러나 그는 참았다. 화해의 의도를 가장하며, 다시 판사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단순히 에사레스 부인이나 그녀에 대한 제 감정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감정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 행동은 그녀와 저를 연결하는 신비한 유대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감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사레스 부인이 이런 세부 사항을 말씀하셨나요? 제게는 이 사항들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말리옹 씨는 코랄리를 바라보았다. 코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스말리옹 씨는 대답했다.

"네, 에사레스 씨가 이미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그는 다시 주저했다. 그리고 다시금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해했다.

하지만 데말리옹 씨는 더 깊은 진실을 듣기 위해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벨발 대위가 우리가 이 건에서 발견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진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속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에게 숨길 권리는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데말리옹 씨는 말했다.

"설마 말할 필요조차 있을까요? 대위께 제가 찾은 이 사진 앨범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대위."

그리고 그는 파트리스에게 매우 얇은 앨범을 건넸다. 회색 천으로 된 표지에 고무줄로 묶인 것이었다.

파트리스는 불안한 기색으로 그 앨범을 쥐었다. 하지만 앨범을 열어본 순간, 그는 너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에 경악하며 외쳤다.

"믿을 수 없군!"

첫 페이지 네 모서리에 사진 두 장이 박혀 있었다. 오른쪽에는 영국식 교복을 입은 소년, 왼쪽에는 갓난아기 같은 작은 소녀가 담겨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두 줄의 설명이 적혀 있었다. 오른쪽에는 '파트리스, 열 살', 왼쪽에는 '코랄리, 세 달'이라고.

감격의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한 파트리스는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다시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이번에는 열다섯 살의 파트리스와 여덟 살의 코랄리였다.

그는 열아홉 살, 스물세 살, 스물여덟 살의 자신을 되살려 보았다. 언제나 코랄리가 곁에 있었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 다음에는 청춘의 소녀, 마침내 한 여인이 되어.

"믿기 어렵군." 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 초상화들인데,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다. 아마 아마추어가 찍은 사

진일 테고, 내 삶을 따라다닌다. 군복을 입은 내 모습, 군복 시절의 사진이군. 말 위에 탄 내 모습도 있다. 누가 이 사진들을 찍으라고 명했을까? 그리고 누가 이것들을 당신의 사진들 곁에 모아둔 걸까, 마담?"

그는 코랄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는 그의 질문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이 사진들이 증언하듯 드러난 그들의 사적인 삶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고 있는 듯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누가 이걸 모았을까요? 아시나요? 이 앨범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데스말리옹 씨가 답했다.

"의사가 에사레스 씨를 벗길 때 발견했습니다. 셔츠 안에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 안주머니에 이 작은 앨범이 있었죠. 의사가 딱딱한 표지를 만져 본 거예요."

이번에는 파트리스와 코랄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에사레스 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이십오 년 동안이나 모았다는 사실. 그것도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사실. 그 사진들과 함께 살다가, 그 사진들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런 상상이 파트리스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는 그 기묘한 의미 따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당신의 말씀이 정확한지 확신하십니까?" 파트리스가 물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발견 현장을 직접 목격했죠. 게다가 그 발견을 확인시켜 주고, 놀라울 정도로 보완해 주는 새로운 단서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데스말리옹이 말했다.

"자수정 한 덩어리를 깎아 만든 메달리온입니다. 주변에는 세공으로 된 원형 장식이 둘러져 있죠."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벨발 대위가 소리쳤다.

"메달리온이라고요? 자수정으로 만든 메달리온이라고?"

"직접 보십시오, 각하."

데스말리옹이 다시 한번 에사레스 부인에게 확인한 뒤 말했다.

데스말리옹 씨는 대위에게 자수정 구슬 하나를 건넸다. 그 구슬은 코랄리와 파트리스가 각각 가지고 있던 반쪽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컸다. 코랄리는 그 구슬을 목걸이에 달았고, 파트리스는 열쇠고리에 달아 다녔다.

새로 건네진 구슬은 금세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세공은 목걸이와 열쇠고리의 디자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금장식은 걸쇠 역할을 했다.

"제가 열까요?" 그가 물었다.

코랄리는 손짓으로 허락했다.

그가 열자, 안쪽이 드러났다.

안쪽은 수정 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판 사이에는 두 장의 아주 작은 사진이 끼어 있었다. 하나는 간호사 복장을 입은 코랄리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복 차림으로 다리가 잘린 그의 사진이었다.

파트리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그 메달리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신이 찾은 건가요, 선생님?"

"네, 대위님."

"그곳은 어디요?"

판사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코랄리의 태도로 보아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데스말리옹 판사가 입을 열었다.

"사망자의 손에서 찾았습니다."

"사망자의 손에서요? 에사레스 씨의 손에서요?"

파트리스는 가장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은 듯 놀라 몸을 떨었다. 그는 판사 쪽으로 몸을 숙이며, 그 대답을 한 번 더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그의 손에서요. 손가락이 굳게 쥐고 있었기에, 떼어내느라 애를 썼습니다."

대위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다.

"자,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논거를 꺼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죠. 게다가 방금 우리가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가 막 연결되자마자, 그 사람은 극심한 동요에 시달리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를 향한 흉악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 소음이 제 귀에까지 들렸죠."

"분투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그 비참한 남자가 마지막 정보로 간절히 전하려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파트리스… 코랄리… 자수정 메달리온…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메달리온이요… 아, 너무 늦었군… 정말 바랐는데… 파트리스… 코랄리…'"

"이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 일곱 시 십구 분, 자수정 메달리온을 지닌 한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몇 시간 뒤, 정오 이십삼분경, 또 다른 남자의 손에서 바로 그 자수정 메달리온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멀리서 들은 그 살인 사건, 즉 어제 밤부터 이 호텔, 이 서재에서 펼쳐진 비극의 첫 장면은 바로 이곳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실상 에사레스 베이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판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듯했다. 파트리스는 열정적인 어조로, 그리고 부정하기 어려운 논리로 그 주장을 던졌다. 고의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논리를 피할 수 없었다.

코랄리는 몸을 약간 돌린 채였다. 파트리스는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그토록 큰 모욕과 수치심 앞에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는지는 직감할 수 있었다.

데스말리옹 판사가 반박했다.

"두 가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하셨군요, 대위님? 첫 번째 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 일곱 시 십구 분에 살해당했다는 그 남자의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찾아낼 겁니다."

"좋소. 두 번째 문제다. 에사레스 베이의 손에서 발견된 자수정 메달리온 말인데, 그걸 그가 죽은 남자로부터 가져왔다고 누가 증명하느냐? 설마 그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도, 더구나 서재에 있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건 제가 압니다."

"어떻게?"

"나 몇 분 뒤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거든. 그가 받아냈지. 더구나 만약을 위해, 그 자신이 먼저 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다고도 했어."

데스말리옹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오늘 아침에 외출했는가?"

"에사레스 부인이 직접 말해 주시지."

코랄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패트리스의 시선을 피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집안에서 입는 옷이었으니까요."

"어제 밤 이후로 그를 보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아침 세 번이나 제 문 앞에 와서 두드렸어요. 일곱 시부터 아홉 시 사이였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한 시쯤 되자 저는 혼자서 나섰고, 그가 노인 시메온을 불러 제 동행을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메온은 곧바로 거리에서 저를 따라왔죠.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 후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각자는 저마다의 생각으로 그 기묘한 사건들의 연속을 곰곰이 되새겼다.

마침내 데스말리옹 씨는 깨달았다. 벨발 대위 같은 인물은 쉽게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전향해, 상대방의 최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타협을 제안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직진합시다, 대위님. 지금 제시하신 추측은 제게 매우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아주 명확한 질문입니다. 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묻는 만큼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재판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여기, 제가 선택한 싸움터이자 공격의 현장입니다. 필요하면 공격도 불사하겠습니다.

과거 저를 알고, 에사레스 부인을 어릴 적부터 잘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았죠.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의 초상화를 수집했고, 우리를 사랑할 만한 비밀스러운 이유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정원의 열쇠를 제게 건네주었고, 자신만의 이유로 우리를 서로 가까이하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순간,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에사레스 씨가 살해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 고소가 묻히지 않을 것이라 믿으십시오. 진실을 지붕 위에서 외치든, 다른 방법을 쓰든, 항상 목소리를 듣게 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데스말리옹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하십니다, 대위님. 너무 과하시네요."

"선생님,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에사레스 씨도 저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녀를 위한 일입니다. 그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묻히면, 그녀가 망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사법부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그녀를 위협하는 적들은 냉혹합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목적이 가장 선명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적들과 가장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승부의 상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상금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의뿐입니다."

데스말리옹 씨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곤 파트리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사법부가 그 상금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

파트리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아신다고요?"

"아마도."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자꾸 물어보시니…"

"무슨 일입니까?"

"오, 별것 아니야. 사소한 일이지."

"하지만 결국?"

"십억 프랑이야."

"십억?"

"그냥 십억이지. 안타깝게도 그중 3분의 2, 아니 4분의 3은 이미 전쟁 전에 프랑스를 떠났어. 하지만 남은 2억 5천만에서 3억 프랑도 충분히 십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만한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죠?"

"그 돈이 모두 금화라는 거야."

제8장

이제야 벨발 대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기색이었다. 그는 사법 당국이 왜 신중하게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그 까닭을 희미하게나마 눈치챈 듯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네, 대위.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한 지 이미 이 년이 넘었습니다. 제 수사는 프랑스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 수 없는 금 수출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사레스 부인과 나눈 대화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프랑스 전역은 물론이고 작은 마을까지 내려가 그 거대한 조직을 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 필수적인 금속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빠져나갔던 거죠."

"에사레스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녀가 의심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소. 당신들이 오기 전 밤, 에사레스와 그를 습격한 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그녀가 엿듣고, 그 내용을 내게 말해준 거요. 그 대화가 바로 그 수수께끼의 열쇠였지.

나로서는 당신 없이 이 수수께끼의 완전한 해답을 직접 끝까지 파헤치고 싶었소. 내무부 장관의 지시도 그랬고, 에사레스 씨 역시 같은 바람을 피력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의 열정이 나의 주저함을 무너뜨렸소. 당신을 내보낼 길이 없으니, 대위님, 솔직하게 나가겠습니다. 당신 같은 동료라면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파트리스는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말했다.

"결국 음모의 핵심은 여기 있었다."

에사레스 베이. 파리 라파예트 거리에 위치한 프랑코오리엔탈 은행의 총재였다. 겉으로는 이집트인처럼 보였지만, 실체는 터키인이었다. 그는 파리 금융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영국 귀화자였으나, 이집트의 옛 지배층과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에사레스 베이는 미상의 외국 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그는 프랑스의 혈관을 말라비틀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는, 가능한 한 많은 금화를 자신의 금고로 끌어모으는 일이었다.

일부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 방법으로 이 년 만에 7억 프랑을 송금하는 데 성공했다. 전쟁이 선포되던 순간, 마지막 송금 준비가 한창이었다.

물론, 이렇게 거액의 돈은 이제 평상시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국경에서는 열차가 검문당했고, 항구에서는 출항하는 배들이 수색당했다. 결국 송금은 무산되었다. 2억 5천만에서 3억 프랑 어치의 금괴는 프랑스 땅에 그대로 남았다.

열 달이 흘렀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생겼다. 에사레스 베이가 이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자, 점차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보물을 점점 자신의 것처럼 여기다가, 결국엔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다만, 문제였다. 공범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날 밤에 본 자들 말입니까?"

“네, 반쯤 의심스러운 레반트인 여섯 명쯤 되겠군요. 가짜 귀화자도 섞여 있고, 어설프게 변장한 불가리아인들도 있었습니다. 저쪽의 작은 독일 궁정들이 직접 파견한 요원들이죠.”

“이들 모두는 예전에 지방에서 에사레스 은행의 지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에사레스의 돈을 받아 수백 명의 하수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시골 마을을 누비고, 시장이 열리는 날을 노렸으며, 농민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프랑스 금화를 받아내곤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은 금화를 모두 털어내었죠."

"전쟁이 터지자 이들은 모두 점포를 닫고 에사레스 베이 곁으로 모였습니다. 에사레스 역시 라파예트 거리에 있던 사무실을 닫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공범들은 정부 측을 통해 마지막 금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사레스 베이가 갱단이 모은 3억 프랑을 혼자 먹어치우려 한다고도 짐작했을 것이다.

어쨌든 전 동료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끝없는 투쟁이었다. 한쪽은 자신의 몫을 요구했고, 다른 쪽인 에사레스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이미 그 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어제 하루 동안 이 싸움은 최고조에 달했다. 오후가 되자 공범들은 에사레스 부인을 납치하려 했다. 그들은 그녀를 인질로 삼아 남편을 협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밤이 되자, 여러분이 보셨던 마지막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왜 하필 어제 밤이었을까요?"

"공범들이 그날 밤 그 거액의 금이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에사레스 베이가 마지막 송금 때 썼던 수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들은 각 송금, 아니 가방 인출 전에 무언가 신호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불꽃 비가 내리는 거요, 맞죠?"

"맞습니다. 정원 구석에 오래된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난로 굴뚝이 있죠. 그 굴뚝은 때와 재,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불을 지피면 멀리서도 보이는 작은 불꽃과 불꽃가루를 뿜어냅니다. 예전엔 그걸 신호로 썼습니다. 어제 밤 에사레스 베이가 직접 불을 지폈죠. 공범들은 놀라고 결사적인 태도로 달려왔습니다."

— 에사레스 베이의 계획은 실패했단 말인가?

"네. 공범들의 계획도 마찬가지야. 대령은 죽었고, 다른 자들은 겨우 몇 뭉치의 지폐를 챙겼을 뿐이야. 그 지폐들도 곧 다시 빼앗겼겠지.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아침, 가장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며 이 사건은 종결되었지."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을 알고 있던 한 남자가 오전 7시 19분에 살해당했고, 아마도 에사레스 베이가 저지른 일일 거야. 그 남자가 당신과 접촉하려는 것을 에사레스가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정오 23분경에 에사레스 베이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공범 중 한 명이 범인일 겁니다."

"이제 사건 전모를 말씀드렸소, 대위님. 이제 당신도 나만큼이나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소. 그렇다면 이 사건의 수사는 비밀에 부쳐야 하지 않소?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소?"

잠시 생각하던 파트리스가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데스말리옹이 외쳤다. "이미 사라진 금, 찾을 수 없는 금 따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거니와, 두 해에 걸쳐 그토록 거대한 양의 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타협과 비리가 있을 거라는 건 당신도 잘 알겠지. 내 개인 조사를 통해 특정 은행이나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은밀한 거래 내막이 드러날 테고, 그건 세상에 공개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야. 그러니 침묵이야."

"하지만 침묵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불가능하겠어?"

"당연하지. 시체가 몇 구나 있었소. 예를 들어 파키 대령의 시체라든가."

"자살이었지."

"갈리에라 정원에서 찾을 수 있었던, 혹은 이미 찾았을 무스타파의 시체도."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했소."

"에사레스 씨의 시체는?"

"사고였어."

"그렇다면 같은 범인이 저질렀을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무관한 것으로 남게 된다는 말이오?"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소."

"대중은 반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대중은 우리가 시키려는 대로 생각할 뿐이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텐데."

"언론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소. 검열이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새로운 사건, 새로운 범죄라도 발생하면 어떡하죠?"

"새로운 범죄라도 생긴 겁니까? 왜요? 이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적어도 활기차고 극적인 부분은 그렇죠. 주요 인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에사레스 베이 피살 사건을 막 내리는 장막이 내려졌으니까요. 조

연 격인 부르네프와 다른 자들은 여드레 안에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 없는 수백만 프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테고, 프랑스는 그 돈에 손을 대도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트리스 벨발이 고개를 저었다.

"에사레스 부인도 남아 있습니다, 각하. 그녀의 남편이 내린 아주 구체적인 경고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경고는 유효합니다. 늙은 시메옹이 그토록 생생하게 경고했잖습니까."

"그는 반쯤 미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의 뇌리는 가장 시급한 위험의 흔적을 선명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위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에사레스 부인을 보호하고 방어해 주십시오. 제 임무가 여기 있으니, 우리의 협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상하는, 그리고 제가 의심

을 품는 그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 집과 이 정원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십니까?"

"어제 밤 에사레스 부인이 들은 말입니다. 파키 대령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금괴가 여기 있어, 에사레스.' 그리고 덧붙였죠. '수년 동안 매주, 네 자동차가 라파예트 거리 은행의 금괴를 이곳으로 실어왔어. 운전수 시메온과 네가 왼쪽 끝 지하 환기창으로 자루를 굴려 내려보냈지. 그 후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전쟁 당시 여기에 있던, 저쪽에서 기다리던 칠백~팔백 자루는 네 집에서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어. 나는 이미 의심했고, 밤낮으로 감시했다. 금괴는 여기 있다.'"

"그런데 단서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비록 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요."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펼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에사레스 베이의 손에는 메달리온과 함께 잉크로 얼룩진 종이 한 장도 들어 있었다. 비록 글씨가 흐릿해서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중 겨우 읽어낼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 '황금 삼각형'이다.

이 황금 삼각형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짐작컨대, 이 찢어진 종이 조각과 메달리온은 오늘 아침 일곱 시 십구 분에 죽은 남자에게서 에사레스 베이가 뜯어낸 것일 게다. 그리고 에사레스 베이 자신이 정오 이십 삼 분에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종이를 살펴보고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상황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파트리스가 말을 맺었다.

"보십시오, 선생님. 이 모든 단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요. 저는 이것이 단 하나의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데말리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소. 한 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두 번째 부분을 계속 진행하시오, 대위님. 사진이 발견된 일은 정말 기이한 일이 맞소. 당신과 에사레스 씨가 같은 앨범과 같은 메달리온에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오. 여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해답은 분명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일 것이오. 곧 뵙겠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제 부하들을 마음껏 활용하시오."

그는 파트리스의 손을 잡았다.

파트리스가 그를 붙잡았다.

"당신을 활용하겠소, 선생님.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하지 않겠소?"

"이미 취해졌습니다, 대위님. 이 집이 우리 편으로 점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어요. 구 시메온의 이상한 말들 기억나시죠?"

데말리옹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 대위님. 과장하지 마세요. 당장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이 남아 있다 해도, 그들은 지금 한창 정신을 추슬러야 할 테니까요. 그건 내일로 미루는 게 어떻습니까, 대위님?"

그는 파트리스의 손을 꼭 쥐고, 에사레스 부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나갔다.

신중을 기한 벨발 대위도 처음에는 함께 나가려는 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문 근처에서 멈칫하더니 다시 발걸음을 되돌렸다. 에사레스 부인은 그의 기척을 못 들은 듯, 고개를 돌려 구부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코랄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코랄리."

그녀가 또 침묵하길 바랐다. 지금 그에게는 그녀의 침묵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억압도, 반항도 없었다. 코랄리는 그가 자신의 곁에, 도움이 되는 친구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

파트리스는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을 잊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쌓여만 가던 연쇄 살인 사건도,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들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무력함과 고통만이 가득했다.

"대답하지 마, 코랄리. 말도 하지 마. 내가 할 말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야 해. 바로 네가 왜 이 집에서, 아니 네 삶 자체에서 나를 쫓아내려 했는지 그 이유를."

그는 그녀가 앉아 있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이 젊은 여성의 모자에 살짝 스쳤다.

"코랄리,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당신의 결혼 생활의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당신은 그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치 당신이 직접 죄를 지은 것처럼 당황하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왜 그러세요? 그것이 당신의 탓인가요? 당신은 그

둘 사이에 가난과 증오로 가득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 결혼도 알 수 없는 어떤 꾀에 의해 강요당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코랄리.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다. 장작불의 불빛이 그녀의 매혹적인 윤곽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격렬한 어조로 외쳤다. 그에게 '너'로 부르는 말투는 언제나 존중과 애정이 섞인 어조를 유지했다.

"말해야 할까, 코랄리 어머님? 아니죠, 그렇죠? 당신은 이미 깨달았고, 자신의 마음을 또렷이 보고 있군요. 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첫날부터 당신은 그 큰 키의 부상자를 사랑했죠. 비록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었지만요. 입을 닫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네,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오늘따라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아마도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나 봐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게요. 피할 수 없는 순간, 즉 당신이 직접 저에게 말해야 할 때까지요. 그전까지는 침묵을 지킬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것, 곧 우리의 사랑이 있죠. 정말 달콤한 일이네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코랄리… 좋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군요! 또 부인하려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울면, 어머님, 저는 잘 알아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친다는 뜻이죠. 우세요? 아, 어머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니 생각지 못했네요!"

파트리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코랄리의 창백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그 젖은 뺨에 키스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사소한 애정 표현조차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저 미친 듯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던 파트리스는, 젊은 여자의 생각이 자신과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뜻밖의 광경에 끌려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드리운 거대한 침묵 속에서, 그는 듣지 못했던 어떤 것을 그녀가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무엇인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 '무언가'를 그도 듣게 되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도시의 먼 소음에 섞여 들어오는 어떤 존재의 기척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파트리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화실은 넓지 않았고, 난로에서 뿜어내는 열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역시 파트리스가 모르는 사이에 에사레스 부인이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하지만 창문짝은 거의 다 닫힌 상태였다.

그녀는 그 창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 쪽에서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그 창문 쪽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위험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황혼의 그림자 너머로, 그는 기울어진 창문 너머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어 두 개의 창문짝 사이에서, 불빛에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권총의 총구처럼 보였다.

'만약 내가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초라도 잡히면, 코랄리는 끝장이다.'

사실 그 젊은 여자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문과 그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큰 소리로 말했다.

"코랄리, 좀 지쳤겠군요. 이제 작별인사를 나누죠."

그는 동시에 안락의자 주위를 돌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움직임을 다 끝내지 못했다. 그녀도 아마도 권총 총구가 번뜩이는 것을 본 듯했다. 그녀는 급히 뒤로 물러나며 더듬거리듯 말했다.

"아, 파트리스… 파트리스…"

총성이 두 번 울려 퍼졌다. 그 뒤로 신음 소리가 들렸다.

"다쳤어요!"

파트리스가 비명을 지르며 젊은 여자 쪽으로 달려들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아! 그 자식이 너를 맞혔다면, 그 비열한 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맞지 않았어요?"

그는 전등을 켜고, 젊은 여성을 살피며, 그녀가 다시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30초에서 40초를 허비했다.

그제야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발코니 너머로 몸을 날렸다. 방은 2층에 있었다. 벽을 따라 격자 시렁이 있었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던 파트리스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그가 테라스 위에 쓰러진 사다리의 가로대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그러자 1층에서 나온 순경들과 부딪혔고, 그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그쪽으로 도망가는 그림자를 봤어."

"어디로?" 파트리스가 물었다.

남자는 작은 골목으로 달아났다. 파트리스가 그를 쫓았다. 그때였다. 바로 그 문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 … 도와줘!"

파트리스가 도착했을 때, 경찰관은 이미 손전등을 바닥에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덤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형체를 발견했다.

"문이 열려 있어. 공격자가 도망쳤어… 가서 확인해."

경찰관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야본이 나타나자 파트리스는 명령했다.

"야본, 말 달리게. 경찰관이 골목을 올라간다면 너는 내려가. 나는 이 희생자를 처리할게."

그때 파트리스는 몸을 굽혔다. 경찰관의 등불빛이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남자에게 비쳤다. 그는 늙은 시메온임을 알아봤다. 시메온은 반쯤 목이 졸린 상태였다. 그의 목에는 붉은 비단 끈이 감겨 있었다.

"괜찮아요? 들리시나요?"

파트리스는 끈을 느슨하게 풀고 다시 물었다. 시메온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더니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짧고 거칠었다.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트림이 교차했다. 그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선생님." 파트리스는 데스말리옹 씨에게 말했다. 데스말리옹 씨가 다가가고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후였다. "진짜로 이 사건은 끝난 것 같습니까?"

"제가 맞았습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인정했다. "우리는 에사레스 씨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집은 밤새도록 경비원이 지키겠습니다."

몇 분 후, 순경과 야본은 헛수고 끝에 돌아왔다. 골목에서는 문을 열던 열쇠가 발견됐다. 그 열쇠는 파트리스의 것과 똑같았다. 낡고 녹슬 정도도 같았다. 범인이 도망가면서 버린 것이었다.

저녁 일곱 시가 되자 파트리스는 야본과 함께 레이누아르 거리 저택을 나섰다. 뇌이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파트리스는 평소처럼 세네갈인의 팔을 잡았다. 의지하듯 몸을 기댄 채 그는 말했다.

"네 생각이 뻔해, 야본."

야본은 투덜거렸다.

"맞아요." 벨발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의견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이 사건에서 경찰의 완전한 무능이었죠? '아무 쓸모도 없는 놈들'이라고 하겠군요. 야본 씨, 그런 말은 당신에게서 예상했던 어리석음이자 무례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주지 않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라, 에사르 씨와 저 사이의 신비한 관계 따위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죠. 그러니 제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제 힘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는 이런 적들과 맞설 만한 인물일까요? 한 놈은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호텔에 다시 나타나서 사다리를 걸고, 아마 제 데스말리옹 씨와의 대화, 그리고 코랄리 아줌마에게 한 말을 엿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 권총 총알 두 발을 쏘아 넣었죠! 어떻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친 프랑스 경찰 전체가 저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풀려면 비범한 인물,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흔치 않은 그런 남자요."

파트리스는 동료의 팔에 더 의지했다.

"너는 인맥이 좋잖아. 그러니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 천재라니, 반신(半神)이라니!"

야본은 다시 한 번 투덜거렸다. 하지만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팔을 빼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전등 랜턴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랜턴을 켜고 손잡이를 이빨 사이에 물었다. 그리고 도르만(군복 상의)에서 분필 조각을 꺼냈다.

길가에는 석회로 덧칠한 담장이 서 있었다. 세월 탓에 얼룩지고 까맣게 그을린 담장이었다.

야본이 그 담장 앞에 섰다. 빛의 원반을 던져 비추더니, 어설프게 손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 쓰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듯했다. 이 글자들을 조합해 기억해 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능력인 양, 애를 쓰며 썼다.

그렇게 써 내려간 두 단어를 파트리스는 한눈에 읽어냈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파트리스가 반쯤 중얼거렸다.

그를 경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르센 뤼팽이 무슨 뜻이야? 뭐? 너 아르센 뤼팽을 내게 제안한다는 거야?"

야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르센 뤼팽? 너 그 사람 알아?"

"네." 야본이 단호하게 말했다.

파트리스는 그때 생각났다. 세네갈 남자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자발적인 동료들에게 아르센 뤼팽의 모험담을 읽어 달라고 했다는 걸.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그 사람 이야기를 읽은 사람처럼 그걸 알아."

"아니에요," 야본이 반박했다.

"당신이 그와 직접 아는 사이란 말이야?"

"미친놈 같으니라니! 아르센 뤼팽은 이미 죽었어.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지. 그런데 너는 그와 친하다고?"

"죽은 후에 그를 만났다는 거야?"

"이런! 야본 씨의 권력이 아르센 뤼팽에게 얼마나 큰지, 야본 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대로 뤼팽이 부활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하군! 이미 넌 내 깊은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군. 고(故) 아르센 뤼팽의 친구라니, 정말 멋지군! 그런데 그 '그림자'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 여섯 달? 세 달? 한 달? 보름?"

야본이 손을 저었다.

벨발 대위가 번역했다. "대략 보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친구의 영혼을 불러내게. 그와 교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군. 하지만 정말로, 네가 나를 아주 경멸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협력자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대체, 나를 바보로, 무능한 자로 보는 건가?"

제9장

데스말리옹 씨가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언론은 이 일을 다루지 않았다. 대중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사고와 잡다한 사건들에는 무관심한 반응이 돌아올 뿐이었다. 막대한 부를 지닌 에사레스 베이의 장례식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장례식 다음 날, 벨발 대위가 군 당국과 préfecture(도청)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결과, 레이누아르 거리에 있는 저택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집은 샹젤리제 거리 응급병원의 제2분원으로 공식 인정받았고, 에사레스 씨의 감시 아래 벨발 대위와 그의 부상자 일곱 명만의 전용 거주지로 변모했다.

코랄리는 혼자 남았다. 하녀도, 요리사도 없었다. 일곱 명의 부상병들이 모든 일을 도맡았다.

하나는 문지기, 하나는 요리사, 또 다른 하나는 접대원이 되었다. 야본은 하녀로 임명되어 코랄리 아줌마의 개인 보살핌을 맡았다. 밤이면 그는 코랄리 방 문 앞 복도에서 잠들었고, 낮이면 창문 앞을 지켰다.

"누구도 이 문이나 창문에 가까이 하지 마라." 파트리스가 경고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모기 한 마리라도 그녀 곁으로 들어간다면, 네 인생은 끝장이다."

파트리스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적이 무슨 짓이든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방책을 세운들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믿지 못했다.

위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스며든다. 게다가 그 위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으니, 이를 피해 내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에사레스 베이가 죽었다. 이제 그의 사업을 이어받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한에서 공언했던 복수 계획을, 코랄리 아줌마를 향해 다시 실행에 옮기는 자는 누구인가?

데스말리옹 씨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극적인 측면은 그에게 무관심한 듯했다.

파트리스가 절규를 들었던 남자의 시체는 찾지 못했고, 파트리스와 코랄리를 향해 총을 쏜 미지의 공격자에 대한 단서도 전혀 얻지 못했다. 또한 그 공격자가 사용했던 사다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데스말리옹 씨는 더 이상 이런 질문들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노력은 오직 1,800개의 자루를 찾는 일로 한정되었다. 그 일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이 저기에 있다는 확신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다. "정원과 주거용 건물들이 이루는 사각형 네 변 안쪽을 말입니다."

물론 50킬로그램짜리 금화 주머니 한 개가 석탄 주머니 한 개만큼 부피가 크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같아도 금은 훨씬 작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주머니가 1,800개나 된다면요. 부피가 일곱에서 여덟 세제곱미터쯤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덩어리를 쉽게 숨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틀이 지나자,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숨겨진 장소는 집 안도, 집 아래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어느 날 저녁, 에사레스 베이의 자동차 운전사가 프랑스-동양 은행 금고의 내용물을 레이누아르 거리로 가져왔을 때의 일이었다. 에사레스 베이, 운전사, 그리고 그레고이라 불리는 남자는 대령의 공범들이 말했던 환풍구를 통해 무언가를 건넸다. 그것은 곧 발견된 굵은 철사 한 줄기였다.

그 철사를 따라 올라오던 갈고리들도 역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는 주머니들이 매달렸고, 그 주머니들은 곧바로 서재 바로 아래에 있는 넓은 지하실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데말리옹 씨와 그의 요원들이 이 지하실의 구석구석을 조사할 때 발휘한 기지와 정성, 그리고 인내를 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노력은 적어도 확실한 결론 하나로 이어졌다. 이 지하실에는 특별한 비밀이 없

다는 점이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서재에서 내려오는 계단의 위쪽 입구가 깔개 아래에 숨겨진 뚜껑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레이누아르 거리 쪽으로 난 환풍구 하나와, 첫 번째 테라스 높이에 있는 정원 쪽 환풍구 하나가 더 있었다. 이 두 구멍은 모두 안쪽에서 매우 무거운 철제 셔터로 봉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천, 수만 개의 금화 롤이 출하될 때까지 지하실 한가운데에 쌓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단 말인가?" 데말리옹 씨는 의아해했다. 의문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왜 레뇌아르 거리 지하에서 잠시 멈춰 섰을까? 이것 역시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파키와 부르네프 일당이 이번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번엔 아무런 작전도 없었다는 것이다. 금은 이미 이 집에 있고, 단지 찾아보면 나올 뿐이라고.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남은 건 정원이었다. 이쪽부터 찾아보자.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오래된 정원이다. 예전에는 파시에서 온천을 즐기러 사람들이 모이던 넓은 영지의 일부였다. 레뇌아르 거리부터 강가까지, 너비 이백 미터에 걸쳐 정원은 네 개의 계단식 테라스를 이루며 내려간다. 조화로운 잔디밭은 푸른 관목들이 경계를 긋고, 그 위로는 큰 나무들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이 정원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네 개의 테라스와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에서 비롯된다. 테라스 너머로는 강과 좌안(左岸)의 평야, 그리고 멀리 있는 언덕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테라스들은 서로 이어져 있다. 스무 개의 계단이 그 사이를 오가게 하고, 스무 개의 길이 한 테라스에서 다른 테라스로 이어진다. 이 길들은 종종 높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아이비 덩굴의 파도 속에 잠겨 버리기도 한다.

곳곳에 조각상들이 우뚝 서 있고, 잘린 기둥과 파편이 된 기둥머리(주두)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테라스 위를 감싸는 돌 발코니에는 아주 오래된 테라코타 항아리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 테라스 위에는 예전에 음료수를 팔던 작은 원형 신전 두 곳의 유적도 남아 있다.

도서관 창문 앞에는 둥근 물받이가 놓여 있고, 그 중심에는 소년 하나가 소라고둥의 깔때기 모양 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 물받이의 넘친 물이 작은 시냇물로 모아져, 파트리스가 첫날 밤 부딪쳤던 바위들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어쨌든 수색해야 할 면적이 삼사 헥타르쯤 되겠군요." 데말리옹이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파트리스의 상이군인들 외에도 열두 명의 요원을 동원했다.

사실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확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했다. 데말리옹 씨가 끊임없이 반복했듯, 천팔백 개의 자루가 영원히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굴착에는 흔적이 남는다. 들어가고 나올 출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잔디밭의 풀잎이나 산책로의 모래에는 새로 파헤친 흙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포도덩굴이 감긴 벽? 받침벽? 테라스?

모두 샅샅이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굴착한 자리에서는 때때로 세느강으로 이어지는 옛 배수관과, 과거 파시 지역의 물을 배출하던 수로의 일부가 발견될 뿐이었다.

하지만 피난처나 요새, 벽돌로 쌓은 아치형 천장, 즉 은신처로 보이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그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그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비록 방금 지나친 극적인 시간들이 남긴 불안감이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문제만 불타고 있었다.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수수께끼였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코랄리의 어머니는 살로니카 주재 프랑스 영사의 딸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당한 나이의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세르비아의 명문 가문 출신, 오돌라비츠 백작이었다.

그 백작은 코랄리가 태어난 지 일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미망인과 아이는 이때 프랑스에 있었다. 정확히는 레뇌아르 거리에 있는 이 저택이었다. 오돌라비츠 백작은 젊은 이집트인 에사레스를 통해 이 저택을 사들였다. 에사레스는 백작의 비서이자 집안일을 도맡는 사람이었다.

코랄리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삼 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갑자기 잃었다. 세상에 혼자 남은 소녀는 에사레스에 의해 살로니카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즉 영사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두고 있었다. 그 여동생이 소녀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에사레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할 뿐만 아니라 어린 조카에게도 서명하게 했다. 그 결과, 이집트인이 관리하던 소녀의 전 재산을 하나둘씩 삼켜버렸다.

드디어 열일곱 살 무렵, 코랄리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을 남기는 사건에 휘말린다. 그 사건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아침, 살로니카 시골에서 터키인 무리에게 납치당한 것이다. 그녀는 그 지방 총독의 욕망에 시달리며 두 주 동안 궁전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다.

에사레스가 그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그 구조 과정이 너무 기묘해서, 코랄리는 이후에도 종종 이런 의문을 품었다. 터키인과 이집트인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닐까.

어쨌든 그녀는 병석에 누워 우울증에 시달렸다. 다시 한 번의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웠고, 이모의 강압까지 겹쳤다. 한 달 뒤, 그녀는 이미 그녀를 쫓아다녔던 에사레스와 결혼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눈에 구원자처럼 비쳤다.

그러나 그 결혼은 비참한 것이었다. 그 비참함은 결혼이 완성된 바로 그날, 그녀에게 드러났다. 코랄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사랑은 그녀가 쏟아부은 증오와 경멸에 부딪혀 더 격렬해졌다.

결혼한 해, 그들은 레뇌아르 거리 저택으로 이사 왔다.

에사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로니카에서 프랑코-오리엔탈 은행 지점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그는 이 은행의 주식을 거의 모두 인수했고, 본점 건물용으로는 라파예트 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파리에서는 금융계의 거물이 되었고, 이집트에서는 베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그날, 파시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코랄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이랬다.

그들이 함께 더듬어 본 어두운 과거 속에서, 그리고 파트리스의 기억과 대조해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점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고, 어떤 이름도 두 사람에게 같은 추억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어떤 세부 사항도 그들을 이해하게 해주지 못했다. 왜 두 사람은 같은 자수정 구슬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두 사람의 사진이 같은 메달리온 속에 함께 담겨 있었는지, 혹은 같은 앨범 페이지에 붙어 있었는지.

"어찌 보면 설명이 가능하죠." 파트리스가 말했다. "에사레스의 손에서 회수된 메달리온은, 우리를 감시하던 이 낯선 자에게서 에사레스가 뜯어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자는 에사레스에게 살해당했고요. 하지만 앨범은요? 속옷 안주머니에다 바느질해 넣은 채 지니고 다니던 그 앨범은?"

그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자 파트리스가 물었다.

"시메온은요?"

"시메온은 늘 여기서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계실 때도 그랬나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살로니카로 떠난 지 일 년, 이 년쯤 뒤에야 에사레스가 시메온을 이 저택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죠."

"그가 에사레스의 비서였다는 말씀인가요?"

"그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비서였나? 아니요. 심복이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결코 함께 대화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살로니카에 있는 우리를 세 번, 네 번 찾아온 적은 있어요. 그중 한 번의 방문이 기억나요. 저는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에사레스에게 매우 격렬하게 말하며 그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저는 몰라요. 시메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여기서 거의 혼자 지냈고, 거의 항상 정원에 머물렀지. 파이프를 피우며 몽상하거나, 때때로 불러온 두세 명의 정원사의 도움을 받아 나무나 꽃을 가꾸곤 했어요."

"그가 당신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 부분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그의 일과도 저와 맞닿는 곳이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노란 안경 너머로 그의 시선이 저를 집요하게, 아니 어쩌면 관심 어린 눈빛으로 쫓아오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가 저를 야전병원까지 바래다주는 걸 즐겼어요. 그때는 저나 길가에서나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너무도 뚜렷해서, 이틀 전부터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 그건 다소 모호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왜 내가 샹젤리제 야전병원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당신도 부상자나 환자로서 이미 있던 그 야전병원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시메온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호사로 자원하기를 원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야전병원을 추천해 줬어요. 그곳에서 우연히라도 우리가 마주칠 거라 그는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봐요. 나중에 메달리온 사진이 나왔지. 당신과 내가 함께 나온 그 사진, 당신은 군복 차림이고 나는 간호사 복장이었어. 그 사진은 야전병원 안에서밖에 찍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중 그곳에 가는 사람은 시메온뿐이었잖아요."

"그가 살로니카에 왔다는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곳에서 저를 어린아이로, 그리고 소녀로 보셨죠. 거기서도 앨범 속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당신을 따라다닌 동료가 있었다고 본다면,

당신이 생각한 그 미지의 친구가 우리 사이에 개입해 정원의 열쇠를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불가능하지 않겠죠."

"그 친구가 바로 늙은 시메온이란 말인가?" 파트리스가 급하게 끊었다. "그 가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 했던 사람, 정원의 열쇠를 보내준 사람, 전화로 진실을 알려준 사람—그가 살해당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건 목이 베이는 비명, 죽음 직전의 절규, 숨을 거둘 때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확실합니까?"

"완전히 확신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 남자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죠. 반면 시메옹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파트리스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시메옹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시는 듣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코랄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원의 벤치 중 하나에 앉아, 푸른 4월 햇살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마로니에 나무의 새싹은 가지 끝에서 빛나고 있었다. 무거운 비단향꽃무 향기가 화단에서 올라왔고, 노란빛이나 황금빛을 띤 꽃들은 말벌이나 벌들이 서로 달라붙은 옷감처럼, 가벼운 미풍에 따라 물결치듯 흔들렸다.

갑자기 파트리스는 오한을 느꼈다. 코랄리가 사랑스럽게 손을 내밀며 그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살폈다. 그리고 그녀가 눈물까지 참지 못할 정도로 감동한 상태임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에요, 코랄리 어머니?"

젊은 여성의 머리가 숙여졌고, 그녀의 볼이 장교의 어깨에 닿았다. 파트리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제 같은 다정한 움직임이 코랄리를 상처입힐지도 모르는 애정적인 의미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되물었다.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요?”

“아, 정말 이상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파트리스, 보세요. 이 꽃들을.”

그들은 세 번째 테라스에 서 있었다. 아래쪽 네 번째 테라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중 가장 낮은 테라스에는 비단향꽃무

화단이 아니라, 봄꽃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튤립, 백일홍, 은화초 등이 뒤섞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큰 원형 화단이 있었다. 팬지꽃이 가득했다.

"저기, 저기요!" 그녀가 뻗은 팔로 그 원형을 가리켰다. "저기, 잘 보세요… 글자가 있어요…"

파트리스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꽃무더기들이 땅에 몇몇 글자를 새기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꽃들 틈에서 그 글자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다. 하지만 한 번 눈치채고 나면, 글자들은 스스로 모여들었다. 같은 줄에 세 단어가 나타났다.

'파트리스와 코랄리'.

"아! 내가 이해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기이하고 감동적인 일이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꽃잎처럼 피어오른 듯, 친구의 손길로 어우러져 놓인 것을 읽을 때면 말이다.

항상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되고, 알 수 없는 힘으로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꽃들의 노력이 그 연결을 더욱 단단히 한다. 꽃들이 피어나고, 깨어나며, 정해진 질서 안에서 만개해 가는 것처럼 말이다.

코랄리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정원은 오래된 시메온이 돌보고 있어요."

"당연하지." 그는 다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야. 우리 모르는 친구는 죽었지만, 시메온은 그를 알았을 거야. 시메온은 그와 어떤 점에서는 통했을지도 모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아, 만약 그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 텐데."

한 시간 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들은 테라스로 올라갔다.

높은 테라스에 도착하자, 데말리옹 씨가 그들을 보고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부인, 그리고 당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발견이 있소."

그는 그들을 테라스 끝까지 데려갔다. 서재 뒤에 이어지는, 손이 닿지 않은 공간 앞이었다. 거기에 두 명의 형사가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다.

데말리옹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수색 과정에서 먼저 작은 벽을 뒤덮고 있던 아이비를 치웠다. 벽 위에는 점토 화분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데말리옹 씨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벽의 일부, 몇 미터 길이에 걸쳐 석고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석고는 돌 자체보다 훨씬 최근에 바른 것처럼 보였다.

"왜죠?" 데말리옹 씨가 물었다. "그건 제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서 아니었나요? 저는 그 석고 층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더 얇은 석고 층 하나를 발견했죠. 돌의 거친 표면과 섞여 있던 겁니다. 자, 가까이 오세요… 아, 아니요. 조금 뒤로 물러서십시오. 더 잘 보입니다."

아래 층에는 하얀 자갈들이 가득했다. 검은 자갈로 테두리를 친 모자이크처럼, 그 위에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다.

그 세 단어는 역시 '파트리스와 코랄리'였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데말리옹이 물었다. "이 글은 몇 해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덩굴식물이 자라 있는 모양을 보면 최소한 십 년은 된 것 같소."

"최소한 십 년."

파트리스는 젊은 여성과 혼자 있게 되자 중얼거렸다. "십 년이면,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살로니카에 살던 시절이죠. 그리고 아무도 이 정원에 오지 않던 때요. 시메온과 그가 허락한 이들 외에는."

파트리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코랄리, 그들 중에 죽은 우리의 미지의 친구가 있었어. 진실을 아는 건 시메옹뿐이야."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그 노인을 보았다. 사건 이후로 매일 보아온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시메옹은 정원을 배회하거나 집 안 복도를 기웃거렸다.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다. 늘 머플러를 머리에 둘둘 감고 있었고, 안경은 측두부에 꼭 끼워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밤이 되면, 이웃에 사는 한 장애인이 그의 옆에서 노래하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파트리스는 두 번에 걸쳐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시메옹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순진한 아이처럼 웃었다.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누가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서로 약혼자처럼 약속하게 했을까. 불변의 법칙에 따라 미리 결정된 것처럼.

어느 누가 지난해 가을, 서로를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팬지 바구니를 준비했을까.

그리고 어느 누가 십 년 전, 두 사람의 이름을 흰 돌에 새겨 벽 두께 속에 감추어 두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발적으로 피어난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둘이 공유해 온 긴 과거가 서려 있었다.

정원을 함께 거닐 때마다, 그 한 걸음한 걸음이 잊혀진 추억 속을 여행하는 순례처럼 느껴졌다. 길목마다 돌아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묶어 온 흔적을 찾아낼 것만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며칠 동안 나무 줄기에는 두 번, 벤치 등받이에는 한 번, 서로의 이니셜이 얽혀 새겨진 것을 보았다.

또 두 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오래된 벽에 적혀 있었다. 벽은 덩굴식물로 가려진 석회층 뒤로 숨어 있었다.

그 두 번의 기록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두 날짜가 적혀 있었다. '파트리스와 코랄리, 1904년'…… '파트리스와 코랄리, 1907년'.

"십일 년 전이고, 팔 년 전이군요.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군요. 파트리스와 코랄리."

두 사람은 손을 꼭 쥐었다. 과거의 거대한 신비가 그들을 서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깊고도 간절한 사랑과도 같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찾았다.

에사르 베이가 피살된 지 2주 후, 그들은 골목의 작은 문을 지나다가 문득 결심했다. 나가서 센 강변까지 내려가 보자는 것이었다.

이 문 주변과 그 길은 큰 나무들 뒤에 숨겨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동시에 데말리옹은 부하들을 이끌고 정원 반대편의 오래된 온실과 신호용으로 쓰였던 낡은 굴뚝을 수색 중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간 파트리스는 멈춰 섰다.

정면 맞은편 벽에 똑같은 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실을 말했고, 코랄리가 대답했다.

"별일 아닌 거야. 이 담장은 예전에 우리가 떠나온 정원과 이어졌던 곳의 경계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안 산다. 내 집 앞, 레이누아르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은 항상 잠겨 있어."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문도 똑같고, 열쇠도 마찬가지일까?"

그는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자물쇠가 돌아갔다.

"가자." 그가 말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줄까?"

그곳은 꽤 좁은 땅이었지만, 식물이 제멋대로 자라나버린 곳이었다. 그러나 무성하게 자란 풀밭 한가운데에는 단단히 다져진 흙길이 있었다. 그 길은 자주 오가는 곳인 듯, 문에서 시작해 비스듬히 유일한 테라스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창문이 닫힌, 낡아빠진, 층이 없는 작은 별장이 서 있었다. 별장 위에는 등불 모양의 작은 전망대가 올려져 있었다.

그 별장에는 레이누아르 거리 쪽으로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다. 마당과 높은 담장이 그 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출입구는 널빤지와 서로 박힌 나무 기둥들로 마치 요새처럼 막혀 있었다.

그들은 집 뒤를 돌아 오른쪽으로 나섰다. 그곳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

사방이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작은 안뜰이었다. 회양목과 주목으로 만든 울타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아치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섰다. 이곳은 마치 미니어처 정원 같았다. 고요함과 평화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여기에도 노란 제비꽃과 팬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안뜰 네 모퉁이에서 뻗어 나온 네 길은 중앙의 원형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작은 사원이 서 있었다. 돌과 벽돌을 무심코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는 다섯 기둥이 우뚝 섰다.

작은 사원의 돔 아래에는 묘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돌무덤 앞에는 오래된 나무 기도가구가 놓여 있었다. 왼쪽에는 상아로 만든 십자가가, 오른쪽에는 자수정과 금세공으로 만든 묵주구슬이 달린 묵주가 매달려 있었다.

"코랄리, 코랄리."

파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에 누가 묻혔을까?"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돌무덤 위에는 진주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열아홉 개의 화환을 세어 보았다. 각각의 화환에는 지난 열아홉 해의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화환을 치우고 비에 씻겨 낡고 더러워진 금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파트리스와 코랄리, 둘 다 1895년 4월 14일 살해당함

제10장

코랄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대에 몸을 기댔다. 간절하게, 미쳐버릴 듯이 그녀는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 알 수 없는 영혼들의 평안을 위해?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은 열정과 흥분으로 타올랐고, 기도의 말들만이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파트리스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코랄리, 네 어머니 이름이 뭐였지?"

"루이즈예요."

"내 아버지는 아르망이었어. 그러니 그들 중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도…"

파트리스 또한 극도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열아홉 개의 화환을 살펴보았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코랄리, 이 우연은 정말로 비정상적이야. 내 아버지는 1895년에 이 세상에서 떠났거든."

"저도 그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요."

"알게 될 거야, 코랄리. 다 확인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바로 드러난 진실이 하나 있어."

그가 말했다.

"파트리스와 코랄리의 이름을 엮어 넣은 사람은 우리만을 생각한 게 아니야. 미래만 바라본 것도 아니지. 아마도 더 크게 과거를 떠올렸을 거야.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걸 알고, 복수를 맹세했던 그 코랄리와 파트리스를 말이야."

"자, 가자, 코랄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누군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은 산길을 내려와 골목의 두 문을 지나쳤다. 아무도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파트리스는 곧바로 코랄리를 집으로 데려다주었고, 야본과 동료들에게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라고 당부한 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고, 아침 일찍 다시 떠났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오후 세 시쯤이 되어서야 그는 코랄리에게 자신을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는 곧장 물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랄리.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의 반대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과거에 매우 선명한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이틀 전에 본 것을 설명해 주나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코랄리."

그는 그녀의 정면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파시 구청으로 달려갔고, 이어 세르비아 공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어머니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코랄리. 사망 증명서 사본을 떼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1895년 4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날이 묘비에 적힌 날짜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코랄리라는 이름은요? 제 어머니는 루이즈였는데 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루이즈-코랄리 오돌라비치 백작부인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오… 제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결국 그분이 살해당한 거였군요. 그래서 내가 저곳에서 기도했던 거였네요."

"이건 코랄리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요. 제 아버지는 아르망-파트리스 벨발이라고 했어요. 드루오 거리 시청에서 정확한 이름을 확인했죠. 아버지는 1895년 4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파트리스는 과거가 이상한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고 말한 게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무덤에 새겨진 글이 그(파트리스)의 아버지와 그녀(코랄리)의 어머니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같은 날에 살해당했다.

누가? 왜? 어떤 비극의 여파로?

젊은 여성은 이 질문들을 파트리스에게 던졌다.

"아직은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는 질문이고, 동시에 핵심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단서를 하나 더 안겨다줄 것입니다.

‘그 별장은 도대체 누구 소유일까요?’

레이누아르 거리 쪽으로 보이는 바깥쪽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안마당 벽과 그 문을 보셨죠?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번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구청의 세무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 집의 세금이 오페라 거리 근처에 사는 한 공증인이 내는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증인을 방문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별장은 스물한 해 전, 제 아버지가 사셨어요. 2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별장은 유산의 일부가 되어 현재 공증인의 전임자가 경매에 부쳤고, 그리스인 시메온 디오도키스라는 분이 사셨죠.”

“그 사람이야! 코랄리가 외쳤다. ‘디오도키스가 시메온의 성이야.’”

“그런데, 파트리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제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아버지는 유언장에 그를 전 유산 상속인으로 지목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전임 공증인과 런던의 변호사를 통해 제 학비를 지불했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유산 잔액인 이십만 프랑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들은 오랜 침묵을 지켰다. 많은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지만, 아직 또렷하지 않았다. 저녁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풍경처럼 모호했다.

그중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했다. 파트리스는 속삭였다.

"당신의 어머니와 제 아버지는 서로 사랑했단 말이야, 코랄리."

이 생각은 그들을 더 단단히 묶어 주었다. 동시에 깊은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과 겹쳐졌다. 시련으로 상처 입은 그들의 사랑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결국 피와 죽음으로 끝난 그 사랑 말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 그들은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귀엽고도 유치한 열정을 가진 연인이었을 겁니다. 남들이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은 각자의 두 번째 이름을 선택했고, 그 이름이 바로 당신과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어머니가 자수정 구슬로 만든 묵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큰 구슬이 두 조각으로 깨졌죠. 나의 아버지는 그 조각 중 하나를 가져다가 장식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시계 고리에 매달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는 모두 과부나 홀아비였습니다. 당신은 두 살, 나는 여덟 살이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나를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그 작은 별장을 사셨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근처 저택에 살다가, 골목을 건너고 같은 열쇠를 사용해 그 별장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마도 그 별장이나 그 주변 정원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해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테니까요.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그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무덤에 글자를 새기는 용감한 행동을 통해 그 사실을 단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살인자는 누구였을까요?"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코랄리. 너도 그 이름을 의심하고 있을 거야. 비록 확실한 단서는 없지만, 머릿속에는 저주받은 그 이름이 떠오를 테니까."

"에사레스!"

코랄리가 비명처럼 외쳤다.

"아마 그럴 거야."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어머니를 죽인 남자의 아내였을 리 없어."

당신은 그의 성을 썼지만, 결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날 밤, 내 눈앞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범위 이상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악귀였다는 사실, 그리고 시메온이라는 인물이요.

시메온은 내 아버지의 친구이자 유산 상속인이었습니다. 두 연인의 별장을 사들인 사람, 그들의 무덤에서 복수를 맹세한 사람이지요. 시메온은 당신의 어머니가 죽은 지 몇 달 뒤, 에사레스의 집사로서 그의 재산 지킴이가 되었고, 이어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이죠.

"복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바가 무엇인가? 에사레스 베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물론 시메온이 그를 죽인 것은 아니다. 그가 구급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증명이니까. 하지만 시메온이 다른 사람을 시켜 죽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복수라는 것은 천 가지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어쨌든 시메온은 내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을 것이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자는,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함께 세웠던 목표를 먼저 달성하려 했을 것이다. 코랄리, 그 목표가 그의 일생을 지배했다.

분명히 그는 내 어린 시절 소품들 중 하나인 자수정 반쪽을 넣어뒀다. 자수정의 나머지 반쪽은 네 묵주의 한 알을 이루고 있었지.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사진을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친구, 즉 그가 나를 위해 열쇠와 함께 편지를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내가 받지 못했다."

"그래, 파트리스. 그 알 수 없는 친구가 죽었고, 네가 그의 죽음을 알리는 비명을 들었을 거라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지?"

"모르겠어요. 시메온이 혼자 행동했을까요? 그가 계획한 일에 동조자나 조력자가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곱 시 십구 분에 쓰러진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불길한 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지난 스무 해 동안,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에 맞서, 보이지 않고도 인내심 있게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리스는 덧붙여 말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미쳐버렸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할 수도, 그가 알고 있는 암울한 진실이나 당신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질문할 수도 없소. 그럼에도, 그럼에도 오직 그 사람만이……"

파트리스는 또 한 번 시도해보려 했다. 비록 또다시 실패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시메온은 예전 하인 숙소로 쓰이던 별채의 방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부상병 두 사람과 이웃해 지냈다. 파트리스는 그 방으로 향했다. 시메온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안락의자에 반쯤 기대어 누워 정원을 향해 앉아 있었다. 입에는 꺼진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방은 작았지만 가구는 최소한으로만 갖춰져 있었고, 깨끗하고 환했다. 이 노인의 비밀스러운 삶 전체가 이 방에서 흘러갔다.

데말리옹 씨는 시메온이 없을 때 이 방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파트리스 역시 각자의 관점에서 그 방을 들여다본 바 있었다.

관찰할 만한 유일한 발견물은 서랍장 뒤에 연필로 대충 그려놓은 그림이었다. 세 줄이 교차하며 큰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기하학적 도형 한가운데에는 금박 테이프를 성의 없이 붙여 놓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황금 삼각형! 그 외에는 단서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데말리옹 씨의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파트리스는 노인을 향해 곧장 걸어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시메온."

시메온이 노란 안경을 들어 올렸다. 파트리스는 순간, 그 유리 장벽을 벗겨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안경은 노인의 눈을 가렸고, 그의 영혼과 먼 과거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메온은 멍청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파트리스는 생각했다. 바로 그이가 내 친구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단 말이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유지를 존중했으며, 아버지의 기억에 충실했다.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했으며, 복수를 맹세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파트리스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망가진 머릿속에서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더라도, 눈에는 아직 기억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하얀 종이에 시메온이 오랫동안 응시했을 법한 글자들을 적었다.

늙은이는 그 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교는 말을 이었다.

늙은이에게서 변함없는 무기력함만 느껴졌다. 파트리스는 다시 한 번 실험을 시도했다. 그는 '에사레'와 '파키 대령'이라는 이름을 적고, 삼각형을 하나 그렸다. 하지만 늙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리석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웃음이 덜 어린애 같아졌다. 파트리스는 공범 부르네프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순간 노년 비서는 무언가 기억을 떠올리며 몸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일어나려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다시 몸을 일으켜 벽에 걸린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는 방을 나와 파트리스를 뒤따르게 한 채 집 밖으로 나섰고, 오트유 쪽으로 왼쪽으로 꺾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걷는 사람처럼 앞만 향해 걸어갔다. 불랭빌리에 거리를 지나 센 강을 건너, 그레넬 지역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은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데 한 대로에서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뻗은 팔로 파트리스에게도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키오스크 뒤로 몸을 숨겼다. 시메온이 고개를 내밀었다. 파트리스도 그를 따라 했다.

정면, 그 대로와 다른 대로가 만나는 모퉁이에는 카페가 하나 있었다. 카페 앞 테라스는 회양목 화분들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 회양목 화분 뒤로 네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다. 세 명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파트리스가 정면을 향하고 있던 단 한 사람을 보고는, 바로 부르네프임을 알아챘다.

그때, 노신사 시메온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 끝냈으니, 나머지는 다른 이들에게 맡겨도 된다는 듯이 말이다.

파트리스가 눈을 굴려 우편국 하나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데말리옹 씨가 레누아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 부르네프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데말리옹 씨는 곧장 달려오겠다고 답했다.

에사레스 베이 피살 사건 이후, 데말리옹 씨의 수사는 파키 대령의 네 공범자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그레고르 씨의 은신처와 찬장이

달린 방들을 찾아냈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공범들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노인 시메온은 그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겠지. 무슨 요일의 몇 시에 그들이 이 카페에 모여들었는지 정확히 꿰고 있었겠지. 그리고 부르네프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문득 그 사실을 기억해 낸 거야.'

몇 분 뒤, 데말리옹 씨가 경찰들과 함께 자동차에서 내려섰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테라스가 포위되었고, 공범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데말리옹 씨는 세 명을 엄호 속에 파출소로 보낸 뒤, 부르네프를 별실로 끌고 들어갔다.

"오라, 파트리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를 심문할 거다."

파트리스가 반대했다.

"에사레스 부인은 저쪽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당신 부하들이 모두 있다."

"네, 하지만 저는 직접 가는 게 낫습니다. 그녀 곁을 비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온갖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고작 몇 분일 뿐이다." 데말리옹 씨가 고집했다. "체포가 주는 당혹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해."

파트리스는 그를 따라갔지만, 부르네프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부르네프는 협박에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위험도 없습니다. 총살이라니, 장난하십니까? 프랑스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총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네 명은 모두 중립국 국민입니다. 재판? 유죄? 감옥?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덮어왔고, 무스타파의 살해는 물론 파키와 에사레스의 살해도 은폐해 온 당신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일을 다시 꺼내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작 수용소 생활뿐이죠."

"그렇다면," 데말리옹 씨가 말했다. "당신은 대답을 거부하는 겁니까?"

"젠장, 안 돼요. 수용소라면 모를까. 그런 수용소에는 처우가 스무 단계나 있거든요. 저는 당신의 총애를 받아 전쟁을 편안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치는 떨어지는군. 에사레스의 마지막 밤에 대해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사백만 프랑의 거래에 대해서도요. 그 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네프는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했다.

"압수당했지. 도둑맞았어. 그것은 함정이었어!"

"누가 압수했습니까?"

"그레고르라는 자였지."

"그가 누구였나?"

"그자의 충실한 앞잡이였어.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지. 그 그레고르는 때때로 그의 운전수를 맡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렇다면 그 운전수는 은행에서 저택으로 금화를 나르는 일을 도왔던 셈이군."

"네, 우리는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예 확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로, 그레고르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요?"

"맞습니다. 에사레스의 정부지요. 우리는 그걸 증명할 여러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여자는 단단하고 당당하며, 남자처럼 강인해서 어떤 짓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것 같은 여자입니다."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금에 대한 단서는요? 전혀 의심 가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은 정원에 있거나 레누아르 거리 저택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

다. 그 이후로는 단 한 푼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우리는 매일 밤 잠복하며 감시했습니다. 돈주머니는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단언합니다."

"에사레스를 죽인 범인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혹시 범인이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의심이 들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우연히 알리바이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죠."

"증명하기 쉬운 일인가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밝힐 일은 없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 혹은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들을 배신한 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당신의 답이 제게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오후 네 시부터 다섯 시까지의 만남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

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 에사레스 베이 말입니다. 그는 종종 저희와 상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에사레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밀고한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노인 시메온입니다."

"뭐라고요! 시메온! 시메온 디오도키스!"

"에사레스 베이의 비서, 시메온 디오도키스입니다."

"그놈이요! 아, 이 악당, 반드시 갚아주겠소… 하지만 아니야,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다고 하시오?"

"왜요? 음, 그건……"

그는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말을 해도 될지, 혹시나 해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듯했다. 그러다 마침내 문장을 완성했다.

"늙은 시메온이 우리 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파트리스가 다시 한번 놀라 외쳤다.

"나는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우리 편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바로 우리 쪽 사람이었다. 그는 에사레스 베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밤 아홉 시에 전화 한 통으로, 에사레스가 오래된 온실의 난로를 피웠고, 이제 불꽃 신호가 작동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는 당연히 저항하는 체하며 경비실 문도 열어주었고, 결국 경비실 안에서 우리 손에 묶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인들을 해고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파키 대령은 그를 공범처럼 대하지 않았잖습니까?"

"에사레스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극이지."

"좋다. 하지만 시메온은 왜 에사레스를 배신한 걸까? 돈을 위해?"

"아니, 증오 때문이었지. 그는 에사레스 베이에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어. 그 증오심 때문에 우리는 종종 소름이 끼치곤 했지."

"동기가 뭐였나?"

"모르겠어. 시메온은 말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증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어."

"그가 금의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었나?" 데스말리옹 씨가 물었다.

"아니야. 그렇다고 애써 찾지 않은 건 아니야! 그는 자루들이 어떻게 지하실에서 나가는지, 그리고 그 지하실이 임시 은신처에 불과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

"하지만 자루들은 저택에서 나갔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감시를 서고 있었어.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이야. 시메온 혼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지."

파트리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에 대해 더 이상 아는 게 없나?"

"아니요.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밤이 있기 전날 오후, 시메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 편지 안에는 시메온이 알려준 몇 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지만, 같은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 실수였죠. 그 편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였으니까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파트리스가 초조하게 물었다.

"열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이 편지를 보세요. 저는 이 편지를 그에게 돌려주고 경고를 하려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보세요, 확실히 그의 필적입니다."

파트리스가 종이를 받아 들었다. 순식간에 자신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예감했던 대로, 그 편지는 자신에게 보내진 것이었다. 바로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편지였다.

오늘 밤 네게 열쇠 한 개가 도착할 것이다.

이 열쇠는 세느강으로 내려가는 골목 한복판에 있는 두 개의 문을 연다. 오른쪽 문은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정원에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 문은 내가 4월 14일 아침 9시에 만나자고 제안하는 정원의 문이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부터 4월 14일까지, 오늘 밤 시작되는 이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내가 패배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파트리스, 그녀를 지켜보라. 그녀의 곁을 떠나지 마라. 하지만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너희를 위해 준비해 온 행복을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서명은 없소.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글씨는 시메온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그 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에사레스 부인이지."

"그런데 그녀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요?" 파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에사레스는 이미 죽었소. 그럼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잖아."

"누가 알겠소? 그는 만만찮은 남자였소."

"그가 누구에게 복수를 명했을까? 그의 뜻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모르오. 하지만 경계해야 해."

파트리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급히 편지를 데스말리옹에게 건네고는, 무슨 말도 듣지 않겠다는 듯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가 차에 뛰어오르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레이누아르 거리로, 서둘러."

그는 어서 도착하고 싶었다. 늙은 시메온이 말한 위험들이 갑자기 코랄리의 머리를 위협하는 듯 느껴졌다. 이미 적들은 그의 부재를 틈타 사랑하는 여인을 공격하고 있었다.

"내가 쓰러진다면 누가 그녀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시메옹은 그렇게 말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실이 되었다. 그는 이미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말이야, 속삭였다.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스스로 불안에 떨고 있을 뿐이야… 아무런 이유도 없어…'"

하지만 그의 괴로움은 매분마다 커져만 갔다. 그는 늙은 시메온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코랄리의 정원 문이 열쇠로 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필요할 때 젊은 여인 곁으로 다가가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서 시메온을 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 노인은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문지기 초소 앞에서 그를 지나쳤고, 그가 중얼거리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파트리스는 보초병에게 물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위님."

"코랄리 어머니는요?"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야본은요?"

"야본은 코랄리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쯤 그녀의 방문 앞에 있을 겁니다."

파트리스는 계단을 올랐다.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다. 하지만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그때 그는 복도 끝에서 코랄리 어머니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있는 야본을 발견했다. 방 문은 열려 있었다.

"거기서 뭐 하니?" 그가 달려가며 외쳤다.

야본은 대답하지 않았다. 파트리스는 야본의 도르만 어깨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세네갈 남자는 주저앉았다.

"제기랄! 다쳤군!… 어쩌면 죽었는지도!"

그는 그의 몸 위로 뛰어넘어 방으로 뛰어들었고, 즉시 전등을 켰다.

코랄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무서운 붉은 실크 끈이 그녀의 목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파트리스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느끼는 절망적인 비명 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코랄리의 얼굴이 죽음의 창백함을 띠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젊은 여자는 숨을 쉬고 있었다.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파트리스는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해… 야본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계획은 빗나갔다."

그는 끈을 느슨하게 풀었다.

몇 초 후, 젊은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그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기억이 났는지,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던 두 팔로 그를 꽉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파트리스. 무서워요.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워, 코랄리? 그 악당은 누구지?"

"저를 보지 못했어요. 불을 꺼버리고는 바로 목을 조르더니, 낮게 속삭이더군요. '넌 먼저고, 오늘 밤은 네 연인의 차례야.' 오, 파트리스.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파트리스."

제11장

파트리스의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젊은 여성을 그녀의 침대로 옮기며, 움직이지 말 것과 소리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런 다음 야본이 중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칠게 종을 울렸다. 그가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둔 종들이 모두 울리며 집 전체가 진동했다.

남자들이 재촉하며 달려왔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 짐승이나 다름없어. 누군가 여기에 침입했어. 코랄리 어머니와 야본이 죽을 뻔했어."

남자들이 놀라 외치자,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조용히! 너희는 채찍질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용서해주마. 오늘 저녁과 밤 내내 코랄리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중 한 명이 항의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대위님?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 바보 같은 놈! 코랄리 어머님과 야본이 습격을 당했는데 말이야. 아니면 네가 한 짓인가? 아니지? 그럼… 자, 장난은 그만하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끼리, 그리고 너희 양심의 깊은 곳에서도 서로 소통해야 한다. 누군가 너희를 엿보고 감시하며,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코랄리 어머님은 방에서 나오지 마라. 우리는 교대하며 그녀를 지킬 것이다. 나머지는 저녁 식사 직후 곧바로 잠자리에 든다. 집안에서 오가거나 움직이는 일은 금지다. 침묵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 노신사 시메온은 어떻습니까, 대위님?"

"방에 가두세요. 미친놈은 위험하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방심한 틈을 타, 그가 문을 열어준 걸 이용했죠. 무조건 가두세요!"

파트리스의 계획은 간단했다.

상대방은 코랄리가 임종 직전이라고 믿고, 그녀에게 파트리스까지 죽이려 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털어놓았다.

상대는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아무도 그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말이다.

상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걸다가 함정에 빠져들 것이다.

그 격렬한 대결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파트리스는 야본의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그는 야본과 코랄리 어머니를 심문했다.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다.

젊은 여자는 말했다. 누워서, 조금 지친 채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야본은 열린 문 앞 복도에 아랍식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고.

그들 둘은 아무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야본은 자신의 시야와 복도의 빛 사이에 그림자가 끼어드는 것을 보았다. 복도를 밝히던 전구불빛이 꺼진 순간, 방 안의 전구불빛도 함께 꺼졌다.

야본은 이미 반쯤 몸을 일으킨 참이었다. 그는 목덜미에 세게 한 대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코랄리는 내실 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곧바로 붙잡혀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파트리스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였다. 그 남자가 계단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하인용 별채라고 불리는 쪽에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별채는 작은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부엌을 거쳐 레누아르 거리에 있는 사설 출입문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파트리스는 그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

저녁이 되자 파트리스는 잠시 코랄리 병문안을 갔다가, 밤 아홉 시가 되자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다. 방은 조금 더 멀리, 같은 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원래 에사레스 베이가 흡연실로 따로 마련해 둔 방이었다.

그는 그토록 좋은 결과를 기대하던 공격이 한밤중이 되어서야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벽에 붙인 원통형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거기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서른 분에서 마흔 분 정도 그 일기장에 글을 썼다. 책을 닫으려던 찰나, 그는 희미한 마찰음을 들은 것 같았다. 만약 그의 신경이 최대한으로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소리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 날 코랄리와 그 자신에게 총격이 가해졌던 일을 떠올렸다. 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지 않았다. 살짝 비스듬히 열려 있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계속 글을 썼다. 아무것도 그의 주의를 환기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니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글로 옮기고 있었다.

'저기 있군. 나를 보고 있다. 이제 뭘 할까? 유리를 깨고 총을 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수법은 확실치도 않고, 그에게도 잘 먹히지 않았다. 아니, 그의 계획은 훨씬 더 지혜롭게 세워졌을 거야. 아마 내가 잠자리에 들 무렵을 노리고, 내 잠든 틈을 타서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그의 시선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쾌감을 느낀다. 그는 나를 미워한다. 우리의 증오는 서로를 향해 치닫는 두 검처럼 부딪힌다.

그는 그림자에 숨어 있는 맹수처럼 나를 응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먹잇감을 노리며, 송곳니를 박을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바로 먹잇감이라는 것을. 패배와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칼을 갈거나 붉은 밧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투를 끝낼 것은 바로 나의 두 손이었다. 이미 강하고 힘찬 손이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파트리스는 실린더를 내렸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밤마다 그랬듯 태연하게 피웠다.

그는 옷을 벗어 의자 등에 깔끔하게 개어 올렸다. 시계를 감고 침대에 누워 전등을 껐다.

드디어 알 수 있겠군. 저 남자가 누구인지. 에사레스의 친구인가? 아니면 그의 뜻을 잇는 자인가? 그런데 왜 코랄리에 대한 증오인가? 나를 노리는 걸 보면, 저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알 수 있겠어.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야.

한 시간이 흘렀다. 또 한 시간이 지났지만, 창문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책상 쪽에서 딱 한 번 소리가 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가구 소리일 뿐이겠지.

파트리스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아름다운 희망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깊은 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코랄리 엄마의 죽음을 가장했던 자신의 연기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적처럼 뛰어난 인물이라면 그 함정에 쉽게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황한 그는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다.

행동해야 한다는 충동이 그를 침대에서 뛰게 했다. 그는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낯선 존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파트리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명히 나는 상대하지 못해. 적이 내 의도를 간파했고, 내가 놓은 함정을 눈치챈 모양이야. 자, 자자.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창문을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챘다. 정원 쪽 건물 외벽 전체에 돌로 만든 받침대가 1층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너비가 꽤 돼서, 발코니와 낙수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그 위를 걷는 것이 가능했다.

그 받침대와 연결된 방들을 모두 둘러봤다. 그중 한 방은 노인 시메옹의 방이었다.

“거기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감시 임무를 맡은 두 병사에게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대위님. 아무튼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파트리스가 들어왔다. 그는 꺼진 파이프를 물고 앉아 있는 노인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 방이 적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데스말리옹 씨와 함께 벌인 수색 때는 보지 못했던 물건들을 옷장 속에서 발견했다. 밧줄 사다리, 가스관처럼 보이는 납 파이프 더미, 그리고 작은 용접용 램프였다.

‘이건 도무지 수상하군.’

이 물건들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걸까? 시메온이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심코 모아둔 걸까, 아니면 시메온이 적의 도구로 쓰인 걸까? 그는 미치기 전부터 그 적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시메옹은 창가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다. 파트리스가 다가가다가 흠칫 몸을 떨었다.

시메옹의 손에는 검은색과 흰색 구슬로 만든 장례 화환이 쥐어져 있었다. 화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15년 4월 14일.

이것이 스무 번째 화환이었다. 시메옹은 이 화환을 죽은 친구들의 무덤에 올려야 했다.

“그가 놓을 거야.” 파트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이자 복수자의 본능은 그의 일생을 이끌어 왔다. 그 본능은 광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화환을 놓을 것이다.

“맞지, 시메옹? 내일 그 화환을 들고 갈 거지? 내일은 4월 14일, 성스러운 기념일이니까.”

그는 모든 음모가 교차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존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선악을 가리지 않는 모든 계략이 그곳에서 만나, 풀 수 없는 비극을 이루고 있었다.

시메온은 자신의 화환을 빼앗기려는 줄 알았다. 그는 거친 동작으로 그것을 단단히 품에 안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파트리스가 말했다. "그 화환은 네게 남겨두마. 내일 봐, 시메온. 내일."

"코랄리와 나는 약속한 시간에 꼭 나타날 테니. 그리고 내일이면, 그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머리를 맑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파트리스에게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는 어둠 속의 희미한 빛이라도 될 만한 단서를, 하루빨리 얻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4월 14일의 스무 번째 기념일과 관련된 상황들 속에서 피어오르지 않을까?

오후 늦게, 데스말리옹 씨가 레누아르 거리를 지나가다가 파트리스에게 말했다.

"자, 내가 받은 건데 좀 이상하군. 익명서야. 글씨도 위장했고."

"이거 들어보세요."

"선생님, 금괴가 사라질 거라고 알려드립니다.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내일 밤이면 일천팔백 개의 자루가 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 프랑스의 한 친구."

"내일이 바로 4월 14일이잖아요." 파트리스가 즉시 연관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아무것도요. 그냥 생각이 좀 났을 뿐이에요."

데스말리옹에게 4월 14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 그리고 노인 시메옹이라는 낯선 인물의 정체에 관해 모두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유는 분명치 않았다. 아마도 이 사건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던 의도였을 테고, 또 어쩌면 과거의 비밀들을 데스말리옹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부끄러워 말문이 막혔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요?"

"글쎄, 도무지 알 수가 없군. 이건 정당한 경고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려는 술책일까? 부르네와 상의해 봐야겠어."

"그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단 말인가?"

"아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알리비도 사실입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단지 배경 역할일 뿐, 그 역할은 이미 끝났죠."

파트리스는 그 대화에서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기억했다. 날짜의 일치였다.

데스말리옹과 자신이 이 사건에서 따라가던 두 가지 방향이, 운명적으로 오래전부터 표시되어 있던 이 날짜에서 갑자기 만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합류하는 순간이었다.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4월 14일이었다. 그날 금은 영원히 사라질 예정이었고, 익명의 목소리가 파트리스와 코랄리를 불렀다. 그들의 부모가 스무 해 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로.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4월 14일이 되었다.

아홉 시가 되자마자 파트리스는 시메옹 영감의 소식을 물었다.

"나갔습니다. 대위님. 경계 명령을 풀었으니까요."

파트리스가 방으로 들어와 왕관을 찾았다. 하지만 왕관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더구나 옷장 안에 있던 세 가지 물건, 즉 밧줄 사다리, 납땜용 납봉, 그리고 납땜용 램프조차도 사라진 뒤였다.

파트리스가 물었다.

"시메옹이 다른 건 안 가져갔나?"

"네, 대위님. 왕관 하나만요."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요, 대위님."

창문이 열려 있었다. 파트리스는 물건들이 그쪽을 통해 반출되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품고 있던 가설, 즉 이 사나이가 무의식적으로 공범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 주었다.

열 시 조금 전, 코랄리가 정원에서 그를 만났다. 파트리스는 최근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모두 알린 상태였다. 젊은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골목길 문을 가리고 있던 사철나무 숲으로 들어섰다.

파트리스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다른 쪽 문을 열려다 말고 그는 잠시 주저했다. 데스말리옹 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했고, 코랄리와 둘이서 이 성지를 찾아가는 것이 위험할 징조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권총 두 자루를 챙겨온 것이 아니던가. 무얼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들어가는 거지, 코랄리?"

"네."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 왠지 망설이는 기색이군요. 불안해 보이고…"

"맞아요." 젊은 여자가 속삭였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아요."

"왜요? 무서워요?"

"아니요… 아니 오히려 그래요. 오늘이 두렵지는 않지만, 어딘가 과거가 무섭습니다. 저의 불쌍한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어머니도 저처럼 사월 아침, 이 문을 지나셨죠.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으로 향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가지 마요… 죽음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 마요…' 하고요. 그리고 그 공포의 말들을 듣는 건 바로 저예요. 제 귀에서 윙윙거리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무서워요."

"돌아가 봅시다, 코랄리."

그녀는 그의 팔을 꽉 쥐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걸어가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저를 위로해 줄 거예요."

그녀는 담대하게 어머니가 따라갔던 작은 횡단길을 따라 올랐다. 무성한 풀들과 가지들이 뒤덮인 곳을 지나, 그들은 왼쪽에 정자를 두고 지나 초록 나무 그늘 회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부모가 쉬고 있었다.

그리고 첫눈에, 그들은 스무 번째 왕관이 그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메옹이 왔어," 파트리스가 말했다. "모든 것보다 강한 직감이 그를 이곳으로 오게 했어. 그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코랄리가 무릎을 꿇는 사이, 그는 회랑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정원의 중간쯤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시메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일은 파빌리온을 조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미뤘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죽음과 범죄의 장소로 들어설 때 느끼는 경외감 같은 떨림 때문이기도 했다.

다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젊은 여성이었다.

"오세요."

파트리스는 어떻게 파빌리온에 들어갈지 알 수 없었다. 창문과 출입구는 모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안뜰 쪽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곧장 시메옹이 안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오두막의 문턱을 넘었을 때, 시계는 딱 열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작은 현관에서 왼쪽으로는 부엌이, 오른쪽으로는 방이 나왔다. 정면에는 아마도 가장 큰 방이 있을 터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코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맞아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시메옹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코랄리,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모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방은 꽤 컸지만, 가구 배치 덕분에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디완 소파, 안락의자, 카펫, 커튼까지 모든 것이 편안함을 더했다. 그리고 마치 그곳을 살던 이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방 안은 작업장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천장이 매우 높았고, 그 중앙에는 전망대 자리에 채광창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낮빛이 그곳으로 내려왔다. 창문이 두 개 더 있었지만, 커튼이 덮고 있어 보이지 않았다.

"시메옹은 여기 없어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코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감격하며 사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한 세기 전에 간행된 책들이었다. 노랗고 파란 표지에는 연필로 '코랄리'라고 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미완성 작품들이었다. 자수 천과 태피스트리, 실 끝에서 바늘이 매달린 채였다.

그리고 '파트리스'라는 이름이 적힌 책들, 시가 상자, 책상 받침, 펜 몇 자루, 잉크병도 있었다.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사진액자. 아이들, 파트리스와 코랄리의 사진이었다.

그렇게 과거의 삶은 계속되었다. 단 한때 격렬하게 사랑했던 연인의 삶이 아니라, 오랜 공동의 삶에 대한 확신과 평온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은 두 존재의 삶이.

"오, 엄마, 엄마." 코랄리가 속삭였다.

기억들을 하나둘 모아갈수록 그녀의 감정은 깊어졌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몸을 파트리스의 어깨에 기댔다.

"우리가 떠납시다." 그가 말했다.

"네, 네, 그게 낫겠어요. 우리 친구. 다시 올 거예요. 그들 곁에서 다시 살아갈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끊어진 삶 속 친밀함을 다시 찾아가요. 떠납시다. 오늘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몇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 섰다. 놀라 어리둥절해하며. 문이 닫혀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불안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가 문을 잠그지 않았지, 그렇지?" 그가 물었다.

"네, 잠그지 않았어요."

그가 다가가 문을 열려다 보니,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었다.

한짝 문이었다. 통나무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로 되어 있었다. 마치 참나무 한 그루의 심장에서 그대로 잘라낸 것 같았다. 광택도, 페인트칠도 없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로 문을 두드린 흔적 같았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쪽에, 연필로 적은 몇 마디가 있었다.

그 아래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달랐고, 더 선명했다.

"1915년! 1915년!"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무서워! 오늘 날짜잖아. 누가 이걸 썼지? 방금 쓴 게 분명해. 오, 정말 무서워! 자, 자, 우리가 어찌할까……"

그는 창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그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창문이 벽돌로 막혀 있었다. 유리와 창문틀 사이에 거친 벽돌들이 단단히 끼어 있어,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다른 창문 쪽으로 뛰어가 봤다. 하지만 그곳도 똑같았다.

방에는 문이 두 개 있었다. 오른쪽 문은 침실로, 왼쪽 문은 주방과 연결된 방으로 이어져 보였다.

그는 두 문을 모두 급히 열었다.

하지만 두 문 모두 벽돌로 막혀 있었다.

그는 당황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일 분 동안 뛰어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열어보려 했던 세 문 중 첫 번째 문으로 달려가 문틀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다시, 그들은 서로를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똑같은 끔찍한 생각이 둘 다의 머리를 강타했다. 과거의 비극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드라마가 재연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이어, 이제는 딸과 아들이었다. 옛 연인들처럼, 오늘의 두 사람도 포로가 되어 있었다. 적의 강력한 발톱이 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바로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1895년 4월 14일. 1915년 4월 14일.

제12장

"아니, 절대 안 돼! 안 돼!"

파트리스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창문과 문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철제 화로 막대기를 집어 들었다. 그 막대기로 문짝의 나무를, 혹은 벽돌 벽을 내리쳤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다.

그가 한 행동은 과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았다. 문짝의 나무나 벽돌 벽에 남긴 흠집은 아무런 소용도, 위안도 주지 못했다.

"아, 코랄리 엄마, 코랄리 엄마!"

그가 절망적인 비명으로 외쳤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을 어떤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말았군요. 혼자 싸우려 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고 경험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아니, 제가 혼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용서해 주세요, 코랄리."

젊은 여성은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는 그를 달래기 위해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 친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날짜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의 날짜, 오늘의 날짜, 다른 손에 의해 적힌 날짜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은 부모님이 적어주신 것이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코랄리. 이 날짜는 우리를 끝장내겠다는 냉혹한 의도와 사전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로하려 애쓰며 다시 말했다.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을 가졌다면, 친구도 있죠. 그들은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코랄리? 우리가 갈 곳을 알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거든. 이 집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노인 시메온은?"

"시메온이 왔고, 왕관을 가져갔지. 하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자가 왔어. 시메온을 압도하는 자, 그리고 이제 시메온이 제 역할을 다 했으니 이미 그를 처리했을지도 모르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파트리스?"

그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기다립시다. 결국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감금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맞서 싸울 거 아닙니까? 제게 힘도, 수단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걸 믿어 주세요. 기다립시다, 코랄리.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모를 숨겨진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한 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으나 그런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벽을 두드려도 모든 곳에서 똑같은 울림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들은 카펫을 걷어냈다. 아래에는 평범한 타일 바닥이 깔려 있을 뿐, 어디에도 이상한 흔적은 없었다.

결국 유일한 관문은 문뿐이었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제로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방 안의 가구를 대부분 문 앞에 쌓아 올렸다. 이렇게 만든 장벽은 예기치 않은 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방패가 되었다.

파트리스는 권총 두 자루를 장전해 잘 보이도록 자신의 곁에 놓았다.

"이제 안심할 수 있군." 그가 말했다. "누가 나타나든, 그 순간 그의 생은 끝장이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거대한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미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 같은 생각과 불안 속에서 반복해 보았을 터였다.

파트리스의 아버지는 이미 무장을 준비했을 것이다. 코랄리의 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봉쇄하고, 함께 벽을 두드리며, 함께 카펫을 말아 올렸다.

이런 과거의 불안이 겹쳐질 때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그들은 부모님이 읽었던 책과 소설, 소책자들을 펼쳐 들었다.

어느 책의 장끝이나 권말에는 낯선 글이 적혀 있었다. 바로 파트리스의 아버지와 코랄리의 어머니가 서로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사랑하는 내 파트리스여, 나는 오늘 아침 이곳까지 달려왔다. 어제 우리가 함께했던 삶을 다시 느껴보고, 곧 다가올 우리의 시간을 꿈꾸기 위해서였다. 네가 나보다 먼저 도착할 테니, 이 글을 읽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막 떠났고, 내일 아니면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우리 사랑이 수많은 기쁨을 나누었던 이 안식처를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어…"

그들은 거의 모든 책을 넘겨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단서는커녕, 책장에는 사랑과 열정만 가득할 뿐이었다.

두 시간 이상이 흘러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들의 마음을 조여왔다.

"아무 일도 없어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일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파트리스가 말끝을 흐렸지만, 코랄리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함께 느꼈다. 하지만 그때 파트리스가 외쳤다.

"아니,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같은 나이라면 굶어 죽으려면 며칠씩, 사흘, 나흘, 어쩌면 그 이상이 걸려. 그 전에 구원을 받을 거야."

"어떻게요?" 코랄리가 물었다.

"어떻게? 당연히 우리 군대나 야본, 데말리옹 씨를 통해서지. 만약 오늘 밤을 넘겨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불안해할 거야."

"당신도 말씀하셨잖아요, 파트리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알게 될 거야. 쉬운 일이지. 두 정원은 골목 하나만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 행적은 내 방 서재에 있는 일기에 다 기록돼 있어. 야본도 그 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데말리옹 씨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시메온도 있어. 그는 지금 어디 있나? 그의 출몰을 눈치채지 않겠어? 무언가 경고를 보내지는 않겠지?"

하지만 말로는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다.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적들이 고안해 낸 또 다른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기력함이 그들을 옥죄었다.

파트리스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묘한 우연이 그를 뜻밖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파트리스는 아직 펼치지 않은 책들 중 한 권을 열었다. 1895년에 출간된 책이었다.

그는 모서리가 구겨져 붙어 있는 두 페이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떼어내고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진 한 통의 편지를 읽었다.

"파트리스, 내 아들아. 만약 우연히 이 편지가 네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죽음이 나를 막아 이 편지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죽음에 관하여, 파트리스, 작업실 벽에서 진실을 찾아보라. 두 창문 사이에. 내가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이로써 당시 두 희생자는 자신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운명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파트리스의 아버지와 코랄리의 어머니는 이 별장에 오는 순간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파트리스의 아버지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지 확인해야 할 일만 남았다.

창문 두 개 사이에는 방 전체를 둘러싼 광택 나는 나무 판자로 된 벽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두 미터 높이에 장식용 목재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는 단순한 석고 벽이 이어졌다.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특별한 의도 없이도 이 부분의 벽판이 새로 고쳐졌음을 눈치챈 바 있었다. 판자의 광택이 다른 곳과 색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트리스는 화로용 철제 받침대를 끌날처럼 사용해 장식용 목재를 부수고, 맨 위 판자를 들어 올렸다.

판자는 쉽게 부러졌다. 그 아래, 바로 석고 벽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후 노년의 시메온이 썼던 방법과 똑같군. 벽에 글자를 쓰고, 그 위에 나무나 석고를 덮어 숨기는 거지."

그는 다른 판자 윗부분을 부수어냈다. 그러자 여러 줄의 글이 드러났다.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였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많이 흐려져 있었다.

파트리스가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갈 때의 떨림은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순간에 이 글자를 남긴 것이었다. 불과 몇 시간 후,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증언이자,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죽인 적에게 내린 저주일지도 모른다.

파트리스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글을 쓴다. 악당의 계략이 끝까지 실현되는 것을 막고, 그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다.

물론 코랄리와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상이 알게 된 채로 죽는다.

며칠 전, 그는 코랄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을 거부하고, 증오로 나를 짓누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자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누구도 나를 살인자로 지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코랄리!"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코랄리가 이곳에 매일 약속을 한다고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별장에서 그는 우리의 무덤을 준비했던 것이다.

"우리의 최후는 어떨까? 알 수 없다. 아마도 굶주림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감금된 지 사 시간이 지났다. 문이 우리 뒤에 닫혔다. 아마도 그가 밤새워 설치한 무거운 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출입구, 문과 창문도 모두 우리 마지막 만남 이후 쌓아 올리고 시멘트로 굳힌 돌덩이들로 막혀 있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필기가 끊겨 있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보시죠, 코랄리. 저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었네요. 그들도 굶주림을 두려워했고,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주는 고통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글자를 남겼겠죠."

그는 잠시 동안 글을 더 살펴본 뒤 덧붙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이 문서를 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벌어진 일이지요. 보세요. 이 창문들과 창문 사이 틈새 전체를 가리던 커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이 공간 전체를 가로지르는 커튼봉도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그 커튼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숨겨진 채로 남았죠. 그러다 시메온이 진실을 알아차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다시 나무 칸막이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이던 커튼 대신 두 개를 걸어 두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인 척 보일 수 있었습니다."

파트리스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몇 줄의 글자가 또렷이 드러났다.

"아, 내가 혼자 고통받고 혼자 죽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끔찍함은, 내가 사랑하는 코랄리를 함께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지. 그녀는 기절해서 지금 쉬고 있어. 억누르려 애쓰는 공포에 짓눌린 채로."

"내 사랑하는 여인아! 이미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에 죽음의 창백함이 스며드는 것 같군.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여인아."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마음속에는 같은 감정이 요동쳤고, 같은 양심의 가책과 섬세함이 공존했다. 서로의 고통 앞에서는 자신 따위 잊는 마음도 같았다.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그는 당신 어머니를 나처럼 사랑했소. 나 역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소. 나는 이미 수없이, 그것도 미소 지으며 죽음에 맞섰으니까. 하지

만 당신, 코랄리. 내가 모든 고난을 감수할 만큼 사랑하는 당신을 생각하면…”

그는 걷기 시작했다. 분노가 다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코랄리, 내가 널 구해 주마. 맹세한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보복이 시원할지. 그 자는 우리한테 하려던 짓을 그대로 당할 거다. 코랄리, 내 말 듣거라. 바로 여기서 그 자는 죽는다. 바로 여기서. 내 분노를 다 쏟아부어 그 자를 없애 버리리라.”

그는 또다시 판자 조각을 뜯어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얻으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문장들은 그가 방금 내뱉은 말과 마찬가지로, 모두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코랄리, 그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처단하지 못하더라도, 신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지옥 같은 음모가 성공할 리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세상이 믿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상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 시간마다, 하나하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말뿐이군요! 말뿐!”

파트리스가 격분하며 외쳤다. 위협과 고통을 담은 말들뿐, 우리를 이끌어줄 구체적인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코랄리의 딸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까? 나의 코랄리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가 희생당했으니, 나의 코랄리는 살아남게 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답하지 않았다. 절박한 호소와 비탄의 말들뿐이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우리는 이 무덤 속에 벽으로 막혀 있다. 살아서 묻히고, 방어할 방법도 없이 고문받는 신세다. 내 옆 테이블에는 권총이 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랴? 적군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시간은 냉혹해서, 단순히 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 힘만으로 우리를 죽인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나의 사랑스러운 코랄리를 구할 사람은 누구인가?"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 번 죽은 듯했다. 남들이 겪은 시련을 자신들이 겪었고, 지금도 같은 조건에서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다. 부모가 겪었던 모든 단계를 빠져나갈 구석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운명과 부모의 운명이 너무도 흡사했기에, 그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코랄리는 패배감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파트리스는 충격을 받으며 판자벽에 매달렸다. 보강재로 단단히 고정된 판자들은 그의 힘겨운 몸부림에도 끄떡없었다.

드디어 그는 글자를 읽어냈다.

"무슨 일이지? 우리, 밖에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난 것 같아. 정원 앞쪽이야. 맞아, 창문 틈새에 쌓은 벽돌 벽에 귀를 대고 있으니 분명히 발소리 같았어. 정말 가능해? 오, 정말로 그래줬으면 좋겠어. 드디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 막막한 침묵과 끝없는 불확실성보다는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그래, 맞아! 소리가 또렷해져. 곡괭이로 땅을 파는 소리 같아. 누군가 땅을 파고 있어. 집 앞이 아니라, 주방 옆 오른쪽 구석에서."

파트리스가 힘을 더 냈다. 코랄리가 다가가 그를 도왔다. 이번엔 장막의 끝이 조금씩 걷힐 것만 같았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은 계속 이어졌다.

"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소음과 침묵의 교차… 흙을 파헤치는 소리와,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고요함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물론 그였다. 우리는 그의 발소리를 알아챘다. 그는 발소리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곡괭이를

들고 작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 비열한 자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집 안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소리가 집 전체를 따라 올라오는 듯했다."

파트리스는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봐…"

"네, 맞아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밖에서 발소리예요. 집 앞이나 정원에서 나는 소리가…"

두 사람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중 한 창문의 창틀은 벽돌로 막히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정말 누군가 걷고 있었다. 적의 접근을 짐작하자, 부모님이 느끼셨던 안도감이 그들에게도 밀려왔다.

그는 집 주변을 두 바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처럼 그 발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발소리였거나, 걸음걸이를 의도적으로 바꾼 발소리였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그 소리가 들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리가 나자 그들은 여전히 깜짝 놀랐다.

파트리스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스무 해 전 아버지가 새겨 둔 문구를 하나씩 쪼개며 말했다.

"곡괭이로 땅을 파는 소리야."

맞았다. 누군가 땅을 파고 있었다. 집 앞이 아니라, 부엌 오른쪽 옆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끔찍한 기적은 또다시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의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그 자체로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이미 한 번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에 예고되고 준비되었던 죽음을 알리고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한 시간이 흘렀다. 일은 더디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다. 마치 무덤을 파는 듯한 풍경이었다. 구덩이 파는 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할 뿐이다.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서서, 손과 눈을 맞대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멈췄어요." 파트리스가 나직이 말했다.

"네." 코랄리가 답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래, 코랄리.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군… 아, 듣지 않아도 돼. 그냥 기억하면 돼. 기억해 봐. '그는 부엌으로 향한다. 그리고 방금 전처럼 곡괭이로 돌을 파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 오, 코랄리,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다. 똑같은 소리야."

사실 그것은 추억이었다. 끔찍한 현실과 섞여 들어가는 추억들. 지금과 과거가 하나였다. 그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건을 예상하고 있었다.

적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곧 소리가 집 안으로 올라오는 듯했다. 마치 그 비참한 자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몸을 높여 올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벽에 적힌 글자를 다시금 살펴볼 생각도, 아니 어쩌면 감히 그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보이지 않는, 때로는 거의 감지조차 할 수 없는 행동들에 쏠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 밖에서, 그리고 그들을 겨냥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었다.

정교한 시계 장치의 움직임처럼,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계산된 신비로운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려 스무 해 동안이나 끊이지 않고, 교활하게도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적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 아래에서 뭔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부드러운 것들이 문판 아래로 쌓이고, 꾹 눌러지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어진 건 이웃 방들, 벽으로 막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어지러운 소음이었다. 창문 돌 틈과 열린 창문 사이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혹은 적어도 그 결말의 한 장면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지붕이란, 천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 방 안 유일한 빛을 비추는 유리 천창을 의미했다.

그들은 또다시 숨 막히는 질문을 마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창틀 위로 적의 얼굴이 드러나고,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기라도 할까?

그 작업은 지붕 위에서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발소리가 지붕을 덮은 아연 판을 울렸다. 그 발걸음은 집 오른쪽 면에서 다락창 주변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갑자기, 다락창, 정확히는 다락창의 일부인 네 장의 유리창으로 된 사각형이 살짝 들어 올랐다. 누군가의 손이 막대기를 끼워 넣어 틈이 벌어진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적이 다시 지붕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리고 내려갔다.

거의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이 그들을 강하게 흔들어 떨게 했다. 파트리스는 다시 벽지의 판자를 부수기 시작했다. 마지막 조각들, 그리고 비문의 끝부분이었다.

그 비문은 방금 지나온 마지막 순간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적의 귀환, 벽으로 막힌 문과 창문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 지붕 위를 걷는 발소리, 다락방 창문을 살짝 열어젖힌 것, 그리고 그것을 고정해 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로, 거의 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일어났다.

파트리스의 아버지와 코랄리의 어머니도 정확히 같은 심정을 겪었을 것이다. 운명은 같은 길을 되풀이하고, 같은 동작을 취하며,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다.

«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지붕 위를 걷는 발소리가 또 들린다… 다락창 가까이 다가선다… 들여다볼까?… 그 혐오스러운 얼굴이 보일까?… »

«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

코랄리가 파트리스에게 몸을 바짝 붙이며 중얼거렸다.

적의 발소리가 실제로 아연 지붕을 울리고 있었다.

« 맞아, » 파트리스가 말했다. « 예전처럼 올라가고 있어. 다른 사람이 따랐던 그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지. 다만 우리가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 적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

그녀는 어머니를 죽인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 그 사람이 맞지? »

« 맞아, 그 사람이야. 여기 아버지가 쓰신 그의 이름이 있어. »

파트리스는 거의 다 찾아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쯤 몸을 굽혔다.

"자, 이 이름을 읽어 보세요. 에사레스… 여기 보이시죠? 이건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입니다. 코랄리, 읽어 봐요."

« 창문이 더 크게 열렸다. 누군가 손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음흉한 놈… 에사레스… 에사레스… »

« 그러고 나서 그가 그 틈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이 내려와 방 한가운데, 우리 머리 위로 늘어졌다. 밧줄 사다리였다. »

«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끝부분에 무언가 눈에 띄었다. 아래쪽 마디에 핀으로 고

정되고 동그랗게 말려 있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에 에사레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

« 코랄리 혼자 올라와라. 목숨은 보장한다. 받아들일 시간이 십 분이다. 아니라면… »

"아, 다시 시작되는 건가?" 파트리스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사다리…… 시메옹 영감의 찬장 속에서 발견한 그 밧줄 사다리가."

코랄리는 다락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발소리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곧 그 순간이 올 것이며, 자신들도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트리스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누구란 말인가?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명뿐이다. 이미 과거에도 같은 수법이 쓰였다. 그중 두 명은 죽었다. 에사레스와 내 아버지다. 나머지 한 명은 시메온이다. 그는 이미 미쳐 버렸다. 그 미친 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음모를 계속한 걸까? 하지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정교하게 일을 꾸밀 수 있었겠는가? 아니… 아니야. 이건 다른 놈이다. 바로 그 이면에서 조종해 온 자,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자."

그는 자기 팔을 움켜쥔 코랄리의 손가락을 느꼈다.

"말하지 마요. 그가… 그가 왔어요…"

"아니… 아니야."

"네… 맞아요. 확신해요."

그녀는 또 다른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락창이 더 크게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으로 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은, 반쯤 열린 창틀 사이로 슬쩍 들어오는 한 사람의 머리였다.

그것은 노인 시메온의 머리였다.

정말로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그다지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몇 주 동안 그들의 삶에 연극 속 배우처럼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시 나타났다.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의식적인 공범일까, 운명의 맹목적인 힘일까. 어쨌든 그는 행동하는 자였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수는 없었다.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

하지만 코랄리는 반박하듯 말했다.

"아마도 그는 미치지 않았을 거야. 미쳤을 리가 없어."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율에 몸을 떨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란 안경 너머로, 그의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에는 증오나 만족스러운 기쁨의 흔적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

"코랄리." 파트리스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그냥 내 말만 들어요. 오세요."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밀며, 마치 부축해 주며 안락의자로 안내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생각은 단 하나였다. 바로 자신의 권총을 올려놓은 책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 그 총을 낚아채고 쏘는 것.

시메온은 꿈틀도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을 부르기 위해 내려온 악마의 정령처럼 굳어 있었다. 코랄리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안 돼." 그녀가 저항하며 속삭였다. 마치 파트리스의 계획이 두려운 결말을 앞당길까 봐 겁이 난 듯했다.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더 단호했던 파트리스는 목표에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의 손이 권총에 닿을 참이었다.

그는 곧바로 결단했다. 권총이 순식간에 겨눠졌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위쪽에서 머리가 사라졌다.

"아!" 코랄리가 말했다. "파트리스,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가 복수할 거예요…"

"아니… 아마 아닐 거야…", 파트리스가 권총을 손에 쥔 채 말했다. "아니, 내가 그를 맞혔을 수도 있어! 총알은 창틀 가장자리를 맞았어… 하지만 튕겨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조금의 희망을 안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붕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금, 마치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무언가가 구멍을 통해 들어왔고, 그것은 아래로 내려와 방 한가운데로 펼쳐졌다.

사다리였다. 밧줄 사다리였다. 바로 그 사다리였다. 파트리스는 옛날 시메옹의 찬장 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사다리를 발견한 바 있었다.

그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사건들이 냉혹한 필연성으로 서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즉시, 아래쪽 마디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을 그 어김없는 종이를 찾았다.

그곳에 종이가 놓여 있었다. 마치 종이 뭉치처럼 말려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마르고, 낡아 있었다.

그것은 예전의 쪽지였다. 스무 해 전 에사레스가 써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혹과 협박의 도구로 쓰이던 쪽지였다.

"코랄리가 혼자 올라오게 하시오. 목숨은 보장해 드리죠. 십 분 안에 받아들일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면…."

제13장

'그렇지 않으면……'

파트리스는 이 말을 무의식적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두 사람 모두 그 무서운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코랄리가 복종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지 않으며, 감옥의 열쇠를 쥔 남자를 따라 탈출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종류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한 것은 오직 적으로부터 내려진 '별거'의 명령뿐이었다. 한 사람은 떠나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야 했다.

코랄리가 파트리스를 희생시키면 목숨은 보장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어떤 대가가 따랐을까? 강요된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두 젊은이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불확실함과 불안감이 그 공간을 채웠다.

이제 어떤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비극은 두 사람 바깥에서, 그저 무력한 희생자로만 서 있던 그들에게서 멀찍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두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결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었다.

엄청난 문제였다.

이미 과거의 코랄리가 이 문제를 마주했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해답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죽었다.

이제 그 문제가 다시 던져졌다.

파트리스는 글씨를 읽었다. 급하게 적힌 탓에 글자는 점점 흐릿해졌다. 파트리스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코랄리에게 애원했소. 그녀는 내 무릎 앞에 주저앉았소. 그녀는 나와 함께 죽고 싶어 했소."

파트리스는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녀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는 열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외쳤다.

"코랄리, 너는 떠나야 해. 내가 바로 그 말을 꺼내지 않은 건 망설여서가 아니야. 아니… 그냥… 그 남자의 제안을 생각했거든… 그리고 너를 걱정했어. 그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니, 코랄리? 만약 그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그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일 거야. 그럼 너는 이해하겠지… 어쨌든 코랄리, 네가 순종해야 해… 살아남아야 해. 가버려… 십 분이 다 지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 그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너까지 사형선고를 내릴지도 몰라. 아니, 코랄리, 당장 떠나라. 지금 당장!"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나는 남을 거야."

그가 깜짝 놀랐다.

"미친 짓이야! 왜 이런 무의미한 희생을 감수하려는 거지? 만약 네가 그의 요구에 따랐을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

"그래, 가."

"나는 남을 거야."

"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소용없는 짓이야. 도대체 왜?"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파트리스."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 사실을 고백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

과 함께 죽을 각오로 사랑한다는 것은, 뜻밖의 기쁨이자 동시에 달콤하고도 끔찍한 충격이었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내 코랄리야… 정말 나를 사랑한다니…"

"당신을 사랑해요, 제 파트리스."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그는 그 포옹이 한번 감기면 결코 풀 수 없는 것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를 구할 결심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남아야 해. 나 혼자 죽는 것보다, 너와 함께 죽는 게 백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걸 믿어줘. 네가 자유롭고 살아있다면, 나는 죽음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백을 계속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기쁘기도 했다.

"파트리스, 나는 첫날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도 나는 알았죠. 하지만 더 일찍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죽음보다 더한 이별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는 몸을 빼려고 애쓰며 말했다. "네 의무는 떠나는 거야."

"저의 의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는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너의 임무는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자유를 얻거든, 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해."

"뭐라고요, 파트리스?"

"그래, 나를 구하기 위해. 네가 이 비루한 자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탈출해 그를 고발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떤 꾀를 써서라도."

그녀는 슬픈 미소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파트리스는 말을 멈췄다.

"당신이 나를 속이려 하는 거죠, 내 사랑. 하지만 당신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파트리스, 당신이 알다시피, 제가 이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그는 저를 침묵하게 만들고, 발과 손을 묶어 어딘가에 가둘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요."

"그걸 확신해?"

"당신이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파트리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파트리스. 그 남자가 나를 구해 준다고? 자비심 때문이 아니야. 내 포로가 된 뒤 그의 끔찍한 계획이 뭐지? 넌 짐작하겠지? 그리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취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도, 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 파트리스, 몇 시간 안에 죽어야 한다면, 왜 지금 죽지 않을래? 네 품에서, 너와 함께, 네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죽는 거야. 그게 죽음일까? 순간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는 그녀의 포옹에 저항했다. 그 입술이 자신을 내미는 첫 키스만으로도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끔찍해."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네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너는 너무 어리고, 앞으로 행복할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면, 나는 슬픔과 절망 속을 수년간 헤매야 할 거야…"

"살아남아야 해, 코랄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너에게 애원할게."

"난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파트리스. 당신은 제 유일한 기쁨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제가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을 알았죠. 당신을 사랑해요…"

오, 신성한 그 말이여! 그 말들은 다시 한 번 방의 네 벽 사이를 울려 퍼졌다. 딸이 내뱉은 사랑의 말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열렬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듯한 열정으로 읊조렸던 말들. 죽음의 기억과 죽음 자체가 스며들어, 그 감정을 두 배로 신성하게 만든 말들. 코랄리는 두려움 없이 그 말을 전했다. 그녀의 모든 공포는 사랑 속에 녹아든 듯했고, 오직 사랑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게 하고 아름다운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

파트리스는 열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 역시 이런 순간이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만약 네게 떠나라고 명령한다면, 코랄리?"

"그건… 즉, 그 남자에게 가라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당신의 진짜 뜻이죠, 파트리스?"

그 충격에 그는 몸이 떨렸다.

"세상에, 끔찍한 소리야! 그 남자라니… 그 남자라니! 너, 내 코랄리, 그토록 순수하고… 그토록 맑은 너라니…"

그 남자를 시메온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리는 이는 그녀도, 그도 없었다. 위에서 목격한 끔찍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걸린 신비로운 기운은 여전했다. 그가 바로 시메온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에게 이용당했을 뿐인 다른 인물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는 적이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웅크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악의 영혼, 그리고 그 부도덕한 욕망이 젊은 여자를 쫓고 있었다.

파트리스가 물었다.

"시메온이 너를 쫓아다닌 적을 못 봤니?"

"한 번도… 아니, 쫓아다니지 않았어. 오히려 피했지."

"그럼 그는 미쳤군."

"미친 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는 복수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는 내 아버지의 친구였어. 평생 우리 둘을 만나게 해 주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자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니?"

"나도 모르겠어, 파트리스. 이해가 안 돼."

그들은 시메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죽음이 그에게서 왔든 다른 이에게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죽음 자체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 죽음을 조종하는 존재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게 무엇으로 맞설 수 있었을까?

"동의하는 거지, 파트리스?" 코랄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도 내 뜻에 동의해 줘야 해. 간곡히 부탁해. 당신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지옥이야. 우리 둘의 몫은 같아야 해. 동의하는 거지?"

"응," 그가 말했다.

"손을 다 내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우리 함께 웃어보자, 내 파트리스야."

그들은 잠시 동안 어떤 황홀경에 빠졌다. 사랑과 갈망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 파트리스? 또 이렇게 동요하다니…"

"봐… 봐…"

그가 거친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이번엔 확신했다. 자신이 본 것을.

사다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십 분이라는 시간이 이미 끝난 것이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사다리 한 쪽 난간을 힘껏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하려던 걸까? 본인은 알 수 없었다. 이 사다리는 코랄리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포기하고 운명에 굴복할 것인가? 일분이 지났다. 이분이 더 흘렀다. 위에서 사다리를 다시 고정했나 보다. 파트리스는 단단히 고정된 물체가 주는 저항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랄리가 애원했다.

"파트리스, 파트리스, 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야?"

그는 주변과 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듯했다. 동시에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의지의 힘을 모조리 쏟아부으며 사다리를 잡고 있을 때,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기억들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왼발로 힘껏 밀어 올렸다.

팔을 쭉 뻗으며 로프 기둥을 따라 몸을 들어 올리자, 발이 다섯 번째 사다리 걸이에 닿았다.

터무니없는 시도였다.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겠는가? 다락창에 닿을 수 있겠는가? 적을 제압하여 자신과 코랄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실패했다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삼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파트리스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했다. 사다리는 다락창에 매달려 있게 해 주던 나사못에서 즉시 떨어져 나갔다. 너트는 사다리와 함께 파트리스 옆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위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락방 창문이 닫힌 것이다.

분노한 파트리스가 벌떡 일어났다. 적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격분한 나머지 권총을 두 발 쏴 유리창 두 개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어 창문과 문으로 화를 돌렸다. 벽난로 장작 받침쇠로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분을 풀었다. 벽도 두드렸다. 마루바닥도 두드렸다. 보이지 않는 악마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악마는 그를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허공을 휘두르던 그의 동작이 멈췄다.

머리 위에서 무언가 두꺼운 베일 같은 것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는 깨달았다. 상대가 천창에 덮개를 내려 천창을 완전히 가렸다는 사실을.

"파트리스! 파트리스!"

어둠에 당황한 코랄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파트리스! 어디 있어요, 내 파트리스? 아, 무서워요… 어디 계신 거예요?"

그제야 그들은 맹인처럼 어둠 속을 더듬으며 서로를 찾았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밤에 길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아직 없었다.

"파트리스! 어디 있어요, 내 파트리스?"

서로 다른 두 손이 부딪혔다. 코랄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과, 열병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파트리스의 손이었다. 두 손은 서로를 꼭 쥐며 얽히고 꼬였다. 마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도 되는 양.

"제발, 저를 떠나지 마요, 파트리스."

젊은 여자의 간곡한 애원이 터져 나왔다.

"여기 있어. 걱정 마. 우리 둘을 떨어뜨릴 순 없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둘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당신이 맞아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 단어가 너무도 끔찍했고, 코랄리의 목소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파트리스는 반발심에 몸을 떨었다.

"아니야! … 뭐라고 하는 거야? 절망하지 마.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은 가능해."

그는 한 손을 빼내 천창 주변 틈새로 스며드는 빛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 세 발을 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적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덮개는 금속으로 덧대져 있었는지, 틈이 생기지 않았다.

그순간 틈새는 모두 막혔다. 적이 창문과 문 주변에서 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 일은 꽤 오래 걸렸고 세심하게 진행됐다. 그 뒤 첫 번째 작업을 보완하는 다른 일이 이어졌다. 적은 덮개를 천창의 창틀에 못으로 고정했다.

엄청난 굉음이 울렸다. 망치질이 가볍고 빨랐지만, 그 타격은 두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관에 못을 박는 소리였다. 밀폐된 뚜껑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관의 소리였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망치질할 때마다 어둠의 감옥은 단단해졌고 장벽은 늘어났다. 세상과 그들 사이에는 어떤 인간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솟아올랐다.

"파트리스," 코랄리가 더듬거렸다. "무서워요… 오, 이 망치질이 저를 아프게 해요."

그녀는 파트리스의 팔 안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는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작업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들은 처형될 날이 밝아온 죄수들이 느끼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감옥 깊은 곳의 감방에서,

그들은 준비 소리를 들었다. 끔찍한 기계가 설치되는 소리, 혹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한 전기의자 소리였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안간힘을 썼다. 운명을 막을 수 있는 작은 기회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운명은 그 엄격하고 변덕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도 이제 막을 수 없었다. 죽음이 적의 편에 서 있었다. 죽음과 적, 이 둘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곧 죽음 그 자체였다. 그는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없애기로 결심한 자들을 향해 싸움을 이끌고 있었다.

"나를 떠나지 마요, 울먹이며 코랄리가 말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요…"

"잠시만요. 나중에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파트리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는 상자에서 성냥을 꺼내 하나둘 켜며, 코랄리를 글이 적힌 판자 쪽으로 이끌었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우리의 죽음이 자살로 오해받게 두고 볼 수는 없소. 우리 부모님이 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오.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읽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 복수해 줄 테니까."

그는 몸을 굽혀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다. 판자 맨 아래쪽,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이렇게 적었다.

"파트리스 벨발과 그의 약혼녀 코랄리는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1915년 4월 14일, 시메온 디오도키스에게 살해당했다."

글을 다 쓰려는 찰나, 그는 옛 비문의 글자 몇 개를 발견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부분을 읽지 않았다. 글자가 본문의 바깥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본문과 무관한 것처럼 보였다.

"성냥 하나 더 주세요."

그가 말했다.

"봤나요? 글자가 있네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자일 겁니다."

그녀가 성냥을 켰다.

흔들리는 빛에 그들은 여러 글자를 읽어냈다. 글자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고, 필사적으로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질식하다… 산화물…'

성냥불이 꺼졌다. 그들은 조용히 일어섰다. 질식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죽었고, 자신들도 곧 죽게 될 것임을 그들은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이 당장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이 넓은 방에는 공기가 충분히 남아 있어, 며칠 동안은 숨 쉴 수 있을 터였다. 절대적인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상황은 아니었다.

"아니면,"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공기의 질이 변해서, 그러니까…"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었다.

"맞아… 그게 맞지. 기억나."

그는 코랄리에게 자신이 의심하는 바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현실과 너무나 잘 들어맞아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늙은 시메온의 찬장 안에는 미친 남자가 가져온 밧줄 사다리만 있던 게 아니었다. 납으로 된 파이프 한 뭉치도 있었다.

이제 시메온의 행동이 모두 설명되었다. 갇힌 순간부터 그는 별채 주위를 오갔고, 틈새 하나도 남김없이 막았으며, 벽과 지붕 근처에서 무언가 열심히 작업했다.

그는 부엌에 있을 가스 계량기에 파이프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 파이프를 벽을 따라 지붕 위로 가져다놓은 것이다.

이제 그들은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조명용 가스 때문에 질식해 죽게 될 운명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손에 손을 잡은 채 방 안을 헤매듯 뛰어다녔다. 머릿속은 엉키고, 생각은 흐릿해졌으며, 의지조차 사라져 있었다. 마치 거센 폭풍에 흔들리는 작은 존재들처럼.

코랄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가라앉으라고 간청하는 파트리스조차도 그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끔찍한 절망감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죽음에게 쫓기는 어둠의 무게가 주는 그 절망감 말이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 이미 목덜미를 식히는 차가운 숨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반드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벽은 넘을 수 없었고, 어둠은 벽보다 더 단단했다.

그들은 지쳐서 멈춰 섰다. 어딘가에서 쉭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닫히지 않은 가스등에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위쪽에서 나는 것이었다.

고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반시간, 길어도 한 시간쯤 걸릴 거예요."

코랄리는 자각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용기를 내자, 파트리스."

"아, 내가 혼자였다면! 하지만 너, 불쌍한 코랄리여……"

그녀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고통받지 않을 거야."

"너는 고통받을 거야. 너처럼 약한 사람이!"

"약할수록 고통은 적어.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우리,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내 파트리스."

그녀는 갑자기 평온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파트리스도 역시 큰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끝난 일. 그런 사건들에서 풍기는 깊은 고요함에 두 사람은 서서히 잠겨갔다. 그것은 체념이었고, 더 큰 힘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들의 성품처럼 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운명의 질서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남은 것은 오직 복종과 기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파트리스의 목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느님 앞에서는 당신이 제 약혼자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처럼 하느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아주소서."

그녀의 다정함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입맞춤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스스로 파트리스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다.

"아!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무한한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가스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코랄리,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갈 거야. 우리처럼 서로 사랑했던 당신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도, 서로의 품에 안겨 입술을 맞댄 채 죽음을 맞이했어. 그들은 우리를 결혼시키려 했고, 결국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었지."

코랄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 무덤도 그분들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의 생각은 점점 흐려졌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사물이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정신도 점차 흐릿해졌다.

배가 고팠기에, 허기는 그들 정신이 서서히 잠겨버리는 어지러움에 불쾌감을 더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은 커질수록 불안이나 초조함이라는 색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오히려 그것은 환희였고, 무감각이었으며, 소멸이었다. 곧 죽게 될 공포를 잊어버리는 안식이었다.

먼저 코랄리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환각적인 말을 내뱉었고, 처음에는 파트리스가 놀랐다.

"내 사랑,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장미예요. 오, 정말 달콤해요!"

하지만 파트리스 역시 같은 축복과 고양을 느꼈다. 그것은 다정함과 기쁨, 감동으로 표현되었다.

겁 없이, 그는 그녀의 몸이 자신의 품에서 점점 무너지고, 완전히 맡겨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심연 속을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은 함께, 부드럽고 힘들이지 않고, 행복의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약간 뒤로 기대어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신들의 커플이 그려진 옛 그림들을 떠올렸다. 빛과 공기에 취한 그는, 행복의 영역 위에서 넓은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지쳤다. 구부린 팔 위에 실린 코랄리의 몸무게가 무거웠다. 하강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빛의 파동은 어둠으로 변해갔다.

두꺼운 구름이 몰려왔고, 이어 다른 구름들이 합쳐져 어둠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지쳐 쓰러졌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온몸은 열병처럼 떨렸다. 그는 거대한 검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제14장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죽어가는 상태였다. 의식의 일부가 남아 있는 채로, 그는 악몽 같은 혼란에 빠졌다. 현실의 삶과, 그가 지금 서 있는 죽음의 세계라는 새로운 현실이 뒤섞였다.

그 세계에서는 코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그를 극도로 슬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눈꺼풀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그는 보고 듣는 것 같았다.

그 누구인지,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시메온 영감의 모습으로 떠올렸다. 시메온 영감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확인하러 오는 인물이었다. 그는 먼저 코랄리를 가져가고는 다시 돌아와, 파트리스 역시 데려가 어딘가에 눕혔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정확했다. 파트리스는 자신이 아직 깨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몇 시간인지, 몇 초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파트리스는 자신이 잠들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 같은 꿈이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저주받은 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었다.

그는 다시 어둠 깊은 구덩이 바닥으로 돌아갔다. 그는 거기서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탈출하려 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수면으로 올라가려 애쓰는 모습과 같았다.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으며 그는 물속 층들을 지나쳐야 했다. 물의 무게가 그를 질식시키려 했다.

그는 미끄러지는 물건을 발과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야 했다. 지지대 없이 처져 버리는 밧줄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둠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다. 차갑고 흐릿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파트리스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살짝 뜨고 몇 번 숨을 고른 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야외에 놓인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바로 옆에는 열린 문틀이 보였다.

그 옆 다른 소파에는 코랄리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며,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다.

파트리스는 생각했다.

'그녀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오고 있군. 나처럼, 그녀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불쌍한 코랄리.'

그들 사이에는 작은 원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물이 담긴 잔 두 개가 있었다. 목이 말라 죽은 그는 잔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그때 열린 문으로 누군가 나왔다. 파트리스는 그 문이 별채의 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믿었던 대로 시메온 영감이 아니었다. 그는 본 적 없는 낯선 이였다.

파트리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잠들지 않았어. 확실히 잠들지 않았고, 이 낯선 이는 내 편이야."

그는 자신의 확신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그 말들을 큰 소리로 되뇌려 했다. 하지만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지 마세요, 대위님. 모두 괜찮습니다. 자, 드셔야 합니다."

그는 두 잔 중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파트리스는 의심 없이 한 모금에 다 마셨고, 코랄리도 똑같이 마시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했다.

"그래, 다 잘 되고 있어.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나 좋은 줄이야. 코랄리는 정말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녀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 그는 유익한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 위기는 이미 끝난 뒤였다. 아직 뇌리에 울림이 남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감각이 모두 정확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별채의 입구에 있었고, 코랄리는 두 번째 잔의 물을 비우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되뇌었다.

"사는 게 이렇게나 좋은 줄이야!"

그는 어쨌든 움직이려 했지만,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채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는 그곳을 피해서 나갔고, 묘지 전용으로 쓰이는 회랑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가 별다른 목적 없이, 다시 별채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아직 자신의 행동 이유를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무작정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정원을 내려다보는 별채의 다른 쪽 측면으로 다가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별채 정면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비스듬한 길가를 따라 서 있는 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라탄으로 만든 긴 의자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머리는 나무 그늘에, 다리는 햇볕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는 잠든 듯 보였다. 그의 무릎 위에는 책이 살짝 벌려진 채 놓여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파트리스는 명확히 깨달았다. 코랄리와 자신이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남자임을 알았다. 그의 깊은 잠은 절대적인 안전감과 만족스러운 자각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남자를 자세히 살폈다. 마른 체구에 넓은 어깨, 가무잡잡한 피부, 입술 위로는 가는 수염이 돋아 있었다. 측두부에는 몇 줄기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외모로 보아 그는 고작해야 오십 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세련됨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드러내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몸을 숙여 책 제목을 읽어보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회고록』이었다. 그는 잔디 위에 놓인 모자의 챙에 새겨진 이니셜도 확인했다. 'L. P.'였다.

'나를 구해 준 건 바로 그 사람이야.' 파트리스는 생각했다. '내가 알아봤어. 우리 둘을 작업장 밖으로 옮겨 주셨고, 치료도 해 주셨지.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누가 보내신 걸까?'

그는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남자는 즉시 몸을 일으켰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 삶은 너무 바빠서,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어디에서나 잠을 자곤 합니다. 나폴레옹처럼요, 맞죠? 음, 그렇습니다. 이 작은 닮은꼴이 싫을 리가 없죠. 하지만 제 얘기는 이쯤에서 멈추죠. 대위님, 잘 지내시나요? 그리고 '코랄리 엄마'는 어때요? 몸살 기운은 괜찮아졌나요?"

"문은 열었고, 두 분을 밖으로 옮겼을 때 깨우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 두 분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안심했거든요. 필요한 건 다 해뒀으니까요. 두 분 모두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깨끗한 공기가 나머지를 책임질 거라 생각했죠."

그는 말을 멈췄다. 파트리스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그의 미소는 곧 즐거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 깜빡했네요. 절 모르시는군요? 맞아요, 제가 보낸 편지가 가로채졌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소개해야겠네요. 도 루이스 페레냐입니다. 오래된 스페인 명문가 출신이고, 정통 귀족 신분이죠. 서류도 완벽합니다."

그의 웃음이 더 커졌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모양이군요. 아마 야본이 제 이름을 벽에 적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렀겠죠. 보름쯤 전, 어느 저녁에요. 아, 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도움을 부르던 그 분 말이죠. 이름을 그대로 불러도 될까요? 갑시다, 대위님. 제 이름을 말씀드리죠. 아르센 뤼팽입니다."

파트리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야본의 제안을 완전히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네갈인에게 그 유명한 모험가를 불러오라고 허락한 것도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르센 뤼팽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뤼팽은 단 한 번의 의지적 노력으로, 불가사의한 기적처럼 자신과 코랄리를 밀폐된 관 속 깊은 곳에서 꺼내 온 것이었다.

파트리스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쉿!" 도 루이스가 경쾌하게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소! 단단한 악수 한 번이면 충분하오. 믿으시오, 대위님, 저와 악수해도 괜찮습니다. 제 양심에 약간의 작은 잘못은 있더라도, 그 대신 정직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들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 자신의 존경을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파츠의 도만(군복) 단추를 하나 잡고는 입을 열었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어."

"누구라고요?"

"정원의 끝자락, 강변 쪽에 있는 사람요. 담장은 높지 않아요. 위쪽에는 철조망이 있죠. 그 철창 사이로 들여다보며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강변을 등지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나무들까지 있고요."

"들어봐."

"별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있어. 멈춰 선 자동차 엔진 소리야. 정차한 차가 왜 담장 옆에 서 있겠어? 그 근처에는 집도 없잖아."

"그럼, 당신 생각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시메옹 노인이죠."

"시메옹?"

"물론이지. 내가 정말로 너희 둘을 구해냈는지 확인하려는 거지."

"그럼 그자는 미친 게 아니라는 말이야?"

"미쳤다고, 그 사람이? 너나 나만큼도 안 미쳤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네 말은 시메온이 너를 보호했고, 그 목적은 너희 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정원 열쇠를 보내는 등 여러 수를 썼다는 뜻이겠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야 했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너희를 구해냈겠어."

"하지만," 파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도둑이 다시 덤빈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다시 파빌리온으로 돌아가자. 코랄리가 혼자니까."

"위험은 없어."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파트리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그는 물었다.

"시메온이 당신을 알고 있는 거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요?"

"네, 야본을 사칭해서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시메옹이 가로챘죠. 편지에는 제 도착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고, 그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대로, 저는 도착 시간을 몇 시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제압할 수 있었죠."

"그때는 그가 적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셨군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전혀요."

"그게 오늘 아침이었나요?"

"아니요. 오후 한 시 사십오 분입니다."

파트리스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지금 네 시군요.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그보다 짧아요. 저는 한 시간 전에 여기 도착했어요."

"야본을 심문했나요?"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본은 그저 제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뿐이죠. 그게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위치를 찾아냈죠."

"어떻게?"

"일단 당신의 방을 뒤졌소. 그리고 내가 잘하듯, 방을 뒤지다 보니 원통형 책상 바닥에 틈이 있는 것을 알아챘소. 그 틈은 바로 옆 방 벽에 뚫린 다른 틈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일기를 적던 장부를 그 틈으로 끌어당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소."

"이렇게 해서 시메옹은 당신의 사소한 의도까지 모두 알고 있었소. 당신이 4월 14일, 순례자처럼 이곳에 올 계획이라는 것도 그 덕분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무언가를 쓰는 모습을 본 시메옹은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당신이 무슨 글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기로 했소.

당신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신 자신으로부터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공격을 유보한 거죠."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쉬운지 말입니다. 데스말리옹 씨는 당신의 부재가 걱정되어 같은 일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내일이 되었을 겁니다."

"즉, 이미 늦었다는 뜻이군." 파트리스가 말했다.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이 일은 그(데말리옹)의 일도, 경찰의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간섭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죠. 저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신들이 수상하다고 느낄 만한 모든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데스말리옹 씨가 오늘 오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그쪽 걱정을 덜고, 여러분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은 뒤, 저는 야본과 함께 골목을 건너 이 정원으로 들어왔죠."

"문이 열려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같은 시각, 시메온이 정원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에게는 불운이었지만, 저는 그 기회를 과감히 이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시메온은 감히 항의하지 못했죠. 그는 분명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자가 적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를 리가요. 당신 일기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위님, 일기 곳곳이 그를 향한 고발장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가策划하지 않은 범죄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바로 체포했어야죠."

"그리고 나서요?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를 억지로 말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를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그를 가장 잘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입니다. 보시죠, 벌써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네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게다가 저는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 둘을 먼저 구하는 것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말입니다."

야본과 나는 정문까지 말을 몰고 달려갔다. 정문은 열려 있었지만, 계단 쪽 문은 자물쇠와 빗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나는 빗장 두 개를 모두 벗겨냈고, 자물쇠를 부수는 것은 우리에겐 별일 아니었다.

"가스 냄새만 맡아도 알았죠. 시메온이 외부 배관, 아마도 골목의 가로등을 밝히는 배관에 낡은 가스계를 연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질식시키려 했던 거죠. 우리는 당신 둘을 밖으로 끌어내고, 평소 하던 대로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해줬어요. 당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파트리스가 물었다.

"설마 그는 살해 장치를 모두 치워버렸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자신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고, 당신들의 자살로 보일 테니까요. 기묘한 자살, 뚜렷한 원인이 없는 사망. 결국은 과거에 당신의 아버지와 코랄리의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려는 것이었죠."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아니, 나에게 읽을 눈이 없는 줄 아나? 벽에 적힌 글귀, 네 아버지가 털어놓은 비밀들. 난 네만큼만 아는 게 아니라,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위."

"더 많이?"

"세상일이지. 습관과 경험 때문이야. 남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난제들도 내겐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루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니,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군. 그림자는 서서히 걷힐 거야. 기다리자. 당분간은……"

그가 귀를 기울였다.

"보라. 그가 너희를 봤을 거다. 이제 정보를 입수했으니 떠나는 중이다."

파트리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떠난다고? 보셨다시피요. 그를 붙잡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이 악당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수할 수 있을까요?"

돈 루이스가 미소 지었다.

"스무 해 동안 당신을 지켜본 남자를 '비천한 자'라 부릅니까? 코랄리 어머니와 당신을 이어준 은인 말입니다."

"아, 내가 알 수 있겠소? 모든 것이 너무도 모호하오. 나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그가 도망친 건 아쉽지만, 어쨌든……."

그는 절망적인 몸짓을 하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돈 루이가 그를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지금껏 어느 때보다도 파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는 내 손안에 있는 나뭇잎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자동차를 모는 운전수가 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택시 한 대를 내 부하에게 맡겼습니다. 그 택시는 내 지시에 따라 골목 아래를 배회했고, 시메옹은 그 택시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당신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군요." 파트리스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으로 덧붙였다.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을 때, 정원 끝쪽에서 엔진 소리를 알아챘거든요."

"그럼 당신은 그 남자가 맞다고 확신합니까?"

"물론이지."

"상관없어. 시메온은 파리를 벗어나는 동안 차를 몰게 할 수도 있고, 그 남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파리를 벗어나 큰길로 나가는 데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시메온이 파리를 떠난다면, 그는 우선 어느 기차역으로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지. 그러자마자 우리는 출발할 거야."

"어떻게?"

"자동차로."

"당신은 특별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프랑스 전역에서 유효한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완벽하군. 진짜 안전증까지 있네. 돈 루이스 페레냐라는 이름으로, 내무부 장관이 서명하고…"

"연서까지요?"

"공화국 대통령이 연서했지."

파트리스의 당혹감이 순식간에 격렬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그는 적의 냉혹한 의지에 밀려 패배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더 강력한 의지가 그의 편에 서서 나타나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운명의 방향이 바뀌는 듯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좋은 바람을 만나 항구로 향하는 배처럼.

"정말요, 대위님." 돈 루이가 말했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으시네요. 코랄리 어머님처럼요. 대위님,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배가 고픈 탓일지도요. 이제라도 식사를 하셔야겠네요. 자, 가시죠."

그는 대위를 천천히 부축하며 정자 쪽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다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선, 대위님, 절대적인 침묵을 부탁합니다. 몇몇 옛 친구들과 아프리카에서 만나 제 목숨을 구해준 야본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에서 제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이름은 돈 루이스 페레나입니다.

모로코에서 싸울 때, 저는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중립국의 매우 친절한 왕에게 도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진심을 숨겨야 했지만, 우리 승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저를 불러냈고, 그 결과로 저는 그에게 저를 공식 인정해 주고 안전 통과증을 받아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이틀 뒤면 끝이 납니다. 이틀 뒤면 저는… 제가 왔던 곳, 그리고 전쟁 중에는 제 방식대로 프랑스를 위해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방식이 나쁘지 않다는 건,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코랄리 어머님이 주무시는 자리 근처에 다다랐다. 돈 루이스가 파트리스를 멈춰 세웠다.

"한 마디만 더 하죠, 대장님. 저는 저에게 믿음을 보인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임무 동안 제 시간은 오직 제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바치겠다고요. 그러니 제가 1,800개의 금화 주머니를 찾아내는 순간,

그제야 이곳을 떠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록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부터는 단 한 분초도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제가 친구 야-본의 부름에 응한 이유도 오직 그것뿐입니다. 금화 주머니가 우리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 늦어도 모레 밤까지, 저는 곧장 떠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결말이 곧 다른 한쪽의 종결이 될 테니까요. 이제 말은 충분합니다. 설명도 여기까지. 코랄리 아줌마를 소개해 주시고, 일이나 시작합시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 앞에서는 별다른 비밀도 없습니다, 대위님. 제 진짜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르센 뤼팽은 모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사십 분 뒤, 코랄리 어머니는 깨끗하게 손질되고 철저히 감시받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파트리스는 든든한 식사를 마쳤고, 돈 루이스는 담배를 피우며 테라스를 거닐고 있었다.

"다 됐나요, 대위님? 이제 시작할까요?"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다섯 시 삼십 분입니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 한 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충분하죠."

"충분하다니요? … 대위님, 한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제가 정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르죠."

"한 시간? 무슨 말씀이세요. 몇 분 뒤면 금괴가 숨겨진 곳을 알게 될 테니까요."

돈 루이스는 서재 아래에 파놓은 지하로 안내받았다. 그곳은 에사레스 베이가 금주머니를 싣고 떠나기 전까지 보관하던 곳이었다.

"주머니들은 이 환풍구로 던져 넣었습니까, 대위님?"

"다른 통로는 없었나요?"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과, 이 환풍구 말고는 없습니다."

"이 환풍구는 테라스로 통하죠?"

"그렇습니다. 명백하군요. 주머니들은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와 두 번째 구멍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대위님.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시죠, 사람들은 늘 이상한 데서 이유를 찾으려 하죠."

그들은 테라스로 돌아갔다. 돈 루이스는 지하실 창문 근처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재 창문 앞 네 미터쯤 떨어진 곳에 동그란 연못이 있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소라 껍데기를 깔때기 삼아 물을 뿜어 내는 아이 동상이 서 있었다.

돈 루이스가 다가가 연못을 살펴본 뒤, 몸을 굽혀 동상을 잡았다. 그리고 동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렸다.

기단도 함께 90도 회전했다.

"찾았습니다." 돈 루이스가 일어나며 말했다.

"뭐요?"

"연못이 곧 비워질 겁니다."

사실, 물은 매우 빠르게 빠졌고, 물받이의 바닥이 드러났다.

돈 루이스는 내려가 무릎을 꿇었다. 안쪽 벽은 흰색과 붉은색의 넓은 무늬로 이루어진 대리석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식 문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 무늬들 중 하나 한가운데에는 고리가 박혀 있었다. 돈 루이스는 그 고리를 들어 올리고 당겼다. 그러자 무늬 전체를 이루던 벽면 일부가 반응하듯 무너져 내려, 약 30cm에 25c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돈 루이스는 단언했다.

"주머니들은 저곳으로 사라졌어요. 두 번째 단계죠.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철사를 따라 미끄러지는 갈고리를 이용해 주머니들을 보냈어요. 이 배관 상단에 철사가 있죠."

"세상에!" 벨발 대위가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철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 끝이 어디냐는 거죠. 자, 대위님, 집과 수직이 되는 선을 따라 정원의 끝, 벽 근처까지 가세요. 거기서 가지가 좀 높은 나무 한 가지를 잘라오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골목으로 나가야겠네요. 문 열쇠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에게 주세요."

파트리스는 열쇠를 건넸다. 그리고는 강가 부두를 따라 늘어선 벽 근처로 향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요." 돈 루이스가 지시했다. "조금만 더. 좋아. 이제 기다리시오."

돈 루이스는 골목을 통해 정원을 빠져나와 부두로 나갔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소리쳤다.

"대위님, 계신가요?"

"가지가 보이는 곳에 세워주시오… 훌륭하군요!"

파트리스가 다시 돈 루이스에게로 돌아갔다. 돈 루이스는 부두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세느 강을 따라 낮은 곳에는 강둑 바로 위에 지어진 부두들이 길게 이어졌다. 이곳에는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화물을 내리고 다른 화물을 싼 뒤, 종종 서로 붙박이듯 정박해 있었다.

파트리스와 돈 루이스가 계단으로 내려오던 곳의 부두에는 일련의 작업장이 늘어섰다. 그들이 찾은 작업장은 다른 곳들과 달리 버려진 듯했다. 아마도 전쟁 이후로 방치된 곳이었을 것이다.

쓸모없는 자재들 사이에는 석조물과 벽더미가 몇 개 쌓여 있었고, 유리창이 깨진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증기 크레인의 받침대만 남아 있었다.

말뚝에 매달린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베르투 작업장, 건축 »

돈 루이스는 성벽을 따라 걸었다. 그 위로는 강변 산책로가 테라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모래 더미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철제 울타리의 철봉이 보였다. 모래는 판자로 막혀 있어, 울타리 하부는 보이지 않았다.

돈 루이스가 울타리를 치우고 농담조로 말했다.

“이 사건에서 문이 닫힌 적이 없지 않았나? 이번에도 그럴 거라 기대해 보자.”

그 추측은 적중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이 결과에 돈 루이스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노동자들이 도구들을 보관하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보면 별다른 이상은 없군요." 돈 루이스가 전등불을 켜며 중얼거렸다. "양동이와 곡괭이, 수레, 사다리…… 아하, 내가 생각한 게 맞군요. 레일입니다. 아주 작은 간격의 레일 시스템이 깔려 있죠. 대위님, 저기 바닥을 좀 치워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닿았습니다."

지면과 딱 붙어, 철문 정면에는 하나의 직사각형 구멍이 열려 있었다. 그 구멍은 수조(水槽)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었다. 위쪽으로는 철사 줄이 보였고, 그 줄에는 갈고리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다.

돈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했다.

"여기서 자루들이 도착했죠. 말하자면 구석에 보이는 작은 수레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레일은 밤중에 깔렸고, 제방을 가로질렀죠. 그리고 수레는 그 내용물을 하역할 선박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는 건 프랑스의 금이 그곳으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로 흘러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00자루도 같이 보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꽤 긴 침묵이 흘렀다. 돈 루이스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파트리스는 예상치 못한 결말에 실망했지만, 동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엉킨 실타래의 일부를 어떻게 저토록 놀라운 솜씨로 풀어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돈 루이스는 말 없이 주머니에서 책을 꺼냈다. 파트리스가 그제야 돈 루이스의 무릎 위에 놓인 것을 알아챈 책,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몇 줄을 가리키며 파트리스에게 읽으라고 손짓했다.

그 구절들은 루이 16세 통치 말기에 쓰인 것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매일 우리는 내 집과 맞닿아 있는 빠시 마을로 나갑니다. 그곳에는 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시냇물과 폭포수가 사방에서 흐르고, 잘 정비된 수로들이 그 물을 끌어오고 되돌려 보냅니다."

"저를 아름다운 기계 장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던 이들은 모든 샘물이 모이는 저수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대리석 인형을 왼쪽으로 90도만 돌리면, 모든 것이 직선으로 흘러가서 벽에 뚫린 수로를 통해 센 강으로 흘러갑니다."

파트리스는 책을 닫았다. 돈 루이스가 설명했다.

"이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에사레스 베이 탓이죠. 물이 흐르는 방식이 달라졌고, 수로가 금을 흘려보내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게다가 강바닥이 좁아졌어요. 강변에 제방이 쌓였고, 그 아래로 배관 시설이 지나가죠. 보세요, 이 책이 알려준 덕분에 모든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책과 함께라면 박식하다'는 말처럼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 책을 먼저 읽어야 했잖아."

"운이 좋았죠. 시메온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가 왜 그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파트리스가 외쳤다.

"아, 바로 그 덕분에 그도 에사레스 베이의 비밀을 알아냈겠군요. 그건 그도 알지 못하던 비밀이었죠. 주인이 남긴 서류들 속에서 책을 찾아냈고, 그렇게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돈 루이스 페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변과 조금 떨어진 선착장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 바지선이 매여 있었다. 하지만 갑판에서 솟아오른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번 가보세."

그가 말했다.

배에는 '라 논샬랑트-보른(La Nonchalante-Beaune)'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배와 부두 사이의 공간을 건너야 했다. 널빤지 위에는 밧줄과 빈 술통이 널려 있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침실 겸 부엌으로 쓰이는 작은 선실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건장한 체격에 어깨가 넓었다. 검은 곱슬머리에 수염은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이었다. 입은 더럽고 기워 입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돈 루이스가 그에게 20프랑짜리 지폐를 건넸다. 남자는 재빨리 돈을 받아 쥐었다.

"조금 물어볼 게 있어, 친구. 최근 베르투 작업장 앞에서 바지선을 본 적 있어?"

"응, 어제 떠난 모터 바지선 말이야."

"그 바지선 이름이 뭐였지?"

"벨엘렌호요. 그 배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무슨 언어로 수군거렸는지… 영어였을까요, 스페인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언어일지도요. 어쨌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베르투 조선소는 이미 가동이 중단되지 않았나요?"

"네, 사장님이 징집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감독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동원되는 거죠. 나까지요. 소집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부두에 레일을 깔았죠. 손수레 소리가 들렸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싣는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녘,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망트 쪽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소."

"고맙소, 친구. 내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네."

열 분 뒤, 파트리스와 돈 루이스는 에사레스 호텔에 도착했다. 그리고 돈 루이스의 예상이 맞았다.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돈 루이스를 만난 뒤 탔던 자동차의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메온은 기차역으로 향했고, 그곳은 생라자르 역이었고, 거기서 표를 샀다.

"어디로 가는 표였소?" 돈 루이스가 물었다.

운전사가 대답했다.

"망트행이었습니다!"

제15장

"실수는 없어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데스말리옹 씨에게 금괴가 출고된다는 경고가 내려진 점, 그리고 그 작업이 밤중에 준비 없이, 심지어 배 안의 직원들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된 점, 그들의 외국인 신원, 그리고 그들이 향한 방향까지. 모든 정황이 일치하죠."

"아마도 금괴가 던져지던 지하창고와 최종 도착지인 다락방 사이에 중간 숨겨진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1,800개의 자루가 출고될 때까지 기다리며 파이프라인을 따라 한 줄로 매달려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벨엘렌호'가 교외의 어딘가에 숨어 있어, 딱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에사레스 베이가 경계심에서, 제가 목격한 그 번쩍이는 신호탄을 쏘아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사레스의 사업을 이어받는 늙은 시메온이,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원들에게 미리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금화 주머니들이 루앙과 르아브

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증기선이 그들을 태워 동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결국 석탄 층 아래 선창에 수십 톤의 화물을 싣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착한 것이죠, 맞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망트도요. 그가 표를 끊고, 벨엘렌호가 향하는 그 도시 말입니다. 명확합니까? 망트에서 그는 금괴를 찾아내고, 선원 차림으로 다시 배를 탈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금괴와 도둑이 사라지는 거죠. 어때요? 틀림없습니까?"

이번에도 루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파트리스의 추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좋소. 내가 가겠소. 보자고."

그리고 운전사에게 명령했다.

"차고로 가서 80마력 차를 가져오시오. 1시간 안에 내가 망트에 도착해야 하오. 당신, 캡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지키지?"

"코랄리 엄마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공격할 사람은 없어. 시메온은 실패했고, 이제 자신의 안전과 금화 주머니만 생각할 테니까."

"정말 고집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마음이지. 가자……. 아, 잠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야본!"

세네갈 남자가 달려왔다.

야본은 파트리스에게는 충실한 개처럼 애정을 느끼는 듯했지만, 돈 루이스에게는 종교적인 숭배를 보내는 것 같았다. 모험가의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그는 황홀경에 빠졌다. 위대한 두목 앞에서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야본, 괜찮지? 상처는 다 나았어? 피곤함은 없지? 좋아. 그럼 나를 따라와."

그는 야본을 데리고 베르투 작업장에서 조금 떨어진 부두까지 걸어갔다.

"오늘 밤 아홉 시부터는 여기서 이 벤치를 지키도록 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챙겨오고, 아래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주의 깊게 감시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아니, 만약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때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움직여."

그는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특히 시메온은 조심해. 네가 다친 것도 다 그놈 탓이니까. 만약 시메온을 발견하면 목을 졸라 여기로 데려와… 하지만 죽이지는 마. 허튼짓하지 마, 알겠지! 내가 원한 건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거든. 알겠지, 야본?"

파트리스는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쪽에서 무언가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시메온은 이미 떠났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 훌륭한 장군이 적을 추격할 때라고 해서, 점령한 땅을 방치하거나 요새에 주둔군을 두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베르투 공장은 분명히 적의 집결지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곳이겠지요. 제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돈 루이스는 코랄리 어머니를 대하는 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젊은 여성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쉼과 돌봄이 필요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동차에 태웠다. 그리고 가능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파리 시내를 한바퀴 도는 듯한 위장 주행을 벌인 뒤, 마요 대로(Boulevard Maillot)에 있는 분관으로 향했다.

파트리스는 그곳에서 그녀를 관리 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의사의 보호를 받도록 당부했다.

그녀 곁에는 외부인을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되었다. 편지도 받지 말아야 했는데, 오직 '파트리스 대위'라고 서명된 편지만이 예외였다.

밤 아홉 시. 차는 생제르맹과 망트 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 돈 루이스 옆에 있던 파트리스는 승리의 고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냈고, 그 추측들은 모두 그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았다. 모호한 점들이 있었고, 그는 아르센 뤼팽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나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첫째, 4월 4일 오전 7시 19분에 에사레스가 누구를 살해했는지입니다. 저는 그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죽었고,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루이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파트리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로 더 기이한 점은 시메온의 행동이다. 그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친구 벨발의 복수와 나와 코랄리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일관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의 적인 에사레스 베이가 죽은 날,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는 나와 코랄리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에사레스 베이가 우리 부모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음모를 우리에게도 저지르기에 이른다.

"말입니다, 여기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금에 대한 욕망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나요? 그가 비밀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그 막대한 보물이요. 이것이 그의 죄악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본능을 채우기 위해 강도가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루이스는 침묵했다.

이 위대한 모험가가 단숨에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파트리스는 불쾌함과 놀라움을 느꼈다.

그가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다.

"그리고 황금 삼각형은요? 또 다른 수수께끼인가요? 어쨌든, 이 모든 것 속에 삼각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금 삼각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라도 있으신가요?"

돈 루이스는 여전히 침묵했다. 결국 그 장교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답이 없군……. 얼굴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지." 돈 루이스가 말했다.

"무슨 이유 때문이지?"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런데도……."

"글쎄, 내가 보기엔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아."

"무슨 일이 말이야?"

"우리 일이지."

파트리스가 다시 질문하려 하자, 그는 입을 열었다.

"대위님, 당신께는 진심으로 호감을 갖고 있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모든 노력이 향

하는 목표도 하나뿐이죠. 바로 우리로부터 훔쳐간 금을 쫓는 일입니다. 그 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쪽 일은 제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두 분 모두 무사히 계신 건 좋지만, 제가 원하는 천팔백 개의 주머니는 아직 제게 없습니다. 그 주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니,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저 주머니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때야 비로소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망트에서의 수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곧바로 만족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메온 노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자가 '세 황제' 호텔에서 묵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현재 3층 방에서 잠들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1층에 머물렀다. 반면 파트리스는 다리가 불편해 눈에 띄기 쉬웠기에 '그랑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 파트리스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다. 돈 루이스의 전화 한 통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시메온은 우체국을 들른 뒤 세느 강변을 거닐었고, 기차역에서는 우아한 차림의 한 부인을 데려왔다고 했다. 그녀는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두 사람은 지금 3층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네 시가 되자 전화가 다시 한 번 울렸다.

돈 루이스는 대위에게 서둘러 시내 끝, 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오라고 요청했다. 그곳에서 파트리스는 시메온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강둑을 거닐고 있었다.

손을 등 뒤에 꼬고, 목적 없이 유유자적 걷는 듯한 표정이었다.

"목도리에 안경, 역시 같은 차림새에 같은 태도라니." 파트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잘 봐. 태도는 한가해 보이지만, 눈을 위쪽 강물로 돌리고 있잖아. '벨 에레느'호가 도착할 쪽으로 말이야."

"응, 응." 돈 루이스가 중얼거렸다. "자, 그분이 오시네."

"아, 저분이야?" 파트리스가 말했다. "길에서 두세 번 본 적 있어."

그의 허리선과 넓고 약간 힘차게 생긴 어깨를 감싸는 가바딘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넓은 챙의 모자에는 베일이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시메온에게 푸른색 전보지를 건넸고, 그는 즉시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방향을 잡은 듯했다. 카페 앞을 지나 조금 더 나아가자 그들은 멈춰 섰다.

그곳에서 시메온은 종이에 몇 마디를 적어 동반자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를 떠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시메온은 강을 따라 계속 걸었다.

"대위님, 여기서 멈추실 겁니까?" 돈 루이스가 물었다.

"하지만, 적군은 경계 태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파트리스가 반박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장님. 다만 시메온이 쓴 종이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군요."

"만약 제가 따라간다면……"

"여기서 그 여자를 따라잡으시겠다는 말씀이오? 안 됩니다, 대위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대위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도……"

그는 말을 끝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파트리스는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렸다. 강 위에는 작은 배들이 오가며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돈 루이스가 떠난 지 정확히 반 시간이 지난 순간, 그는 뚜렷한 박자를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바지선에 장착되기 시작한 강력한 엔진의 리듬감 있는 굉음이었다.

실제로 강 굽이 너머로 한 척의 바지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배가 바로 눈앞을 지나갈 때, 그는 떨리는 심장으로 배 이름을 읽었다.

'벨 에레느'!

배는 규칙적인 폭발음과 함께 꽤 빠르게 흘러갔다. 배는 두툼하고 볼록하며 무거웠고, 적절히 깊이 잠겨 있었다. 화물이 실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파트리스는 두 명의 강선 선원들이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배 뒤에 작은 배가 묶여 떠 있었다.

배는 멀어져 곡류 지점에 도착했다.

파트리스는 돈 루이스가 돌아올 때까지 한 시간 더 기다렸다. 돈 루이스가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그래, 벨 에레느는?"

"이곳에서 두 킬로미터 지점에서 그들은 작은 배를 떼어내고 시메온을 데리러 갔다."

"그럼 그는 그들과 함께 떠났나?"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대위님, 너무 무리한 질문이십니다."

"상관없어. 승리는 이미 확정됐어. 자동차로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한 다음, 예를 들어 베르농에서 관할 당국과 군부대에 알려서 체포와 압수를 진행하게 할 거야."

"우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요, 대위님. 그 작은 작업들은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하지만…"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파트리스는 자신의 머리를 스친 생각을 숨기지 못했다.

돈 루이스는 화내지 않았다.

"내 삼억 프랑을 가져갈까 봐 겁나는 거야? 글쎄, 그 많은 돈을 조끼 주머니에 숨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지만," 파트리스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의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할 수 있긴 하지요, 대위님. 하지만 성공한 뒤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 선박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들은 세 황제 호텔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를 타고 베르농 방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도로는 몇 킬로미터 더 내려가면 강과 합류했다. 로스니에서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 아래였다. 그들이 로스니에 도착했을 때, '벨 에레느'호

는 이미 큰 곡류에 진입해 있었다. 그 곡류의 꼭대기에는 로슈-기용이 있고, 다시 국도 쪽으로 돌아나가는 지점이 보니에르였다.

그 바지선이 그 구간을 운항하는 데는 최소 세 시간이 걸렸다. 반면 자동차는 언덕을 올라 곧장 직진해, 단 열다섯 분 만에 보니에르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조금 더 나아가 오른쪽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다. 돈 루이스는 차를 세우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만약 자정이 돼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파리로 돌아가라. 대위님, 당신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파트리스는 그를 따라 오른쪽으로 향했다. 작은 길을 따라가자 강가에 다다랐다. 그들은 강가를 따라 약 15분 정도 걸었다. 드디어 돈 루이스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창문이 닫힌 빌라 근처에 말뚝에 묶여 있는 작은 배 한 척이었다.

돈 루이스는 배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었다.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다. 밤은 빠르게 찾아오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보름달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우리는 열 시쯤 강에 나타날 바지선을 기다릴 겁니다. 바지선이 강을 가로질러 올 때,

달빛이나 제 손전등 불빛 아래서 정지하라고 명령할 거예요. 당신 제복을 보고는 아마 따를 겁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면?"

"배에 강제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들은 셋이지만, 우리는 둘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원 두 명은 시메온의 하수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시메온의 계획은 물론이고 화물의 정체조차 모르는 채 일만 하는 존재들이지. 시메온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해줄 테니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지선을 조종하게 될 거야.

하지만——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 대위님——이 바지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야 해.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화물을 인도할 거야. 이건 내 전리품이고, 내 포획물이야. 이 물건에 대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장교는 반발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그 비밀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절대 누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만 하죠. 각자 제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고, 당신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덧붙여 말하지만, 저는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신의 이익과 아주 존경스러운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약점을 드러냈으니 양해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잠을 잡니다. 시인이 말했죠. '잠을 즐기라'고. 잘 가십시오, 선장님."

그리고는 더 이상 말 없이, 돈 루이스는 코트를 두르고 보트로 뛰어내려 누웠다.

파트리스는 화를 꾹 참고자 몸이 찢어질 듯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돈 루이의 차분하고도 아이러니한 태도, 그리고 비꼬는 기색이 섞인 정중한 어조는 파트리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이 이상한 남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 루이가 자신과 코랄리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흘렀다. 모험가는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잠들었다.

파트리스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시메옹을 찾아내고, 루이스가 그 거대한 보물을 손에 넣는 것을 막아 이 타협할 줄 모르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행위가 동조자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럼에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루이스가 깨어나자 파트리스는 이미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마을의 시계가 열한 시를 알렸다. '벨 에레느'호는 앞으로 나아갔다.

파트리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벨 에레느'호를 잡는다는 건, 시메옹을 체포하고 잃어버린 수백만 프랑을 되찾는 일이었다. 코랄리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가장 끔찍했던 악몽을 끝내며, 에사레스의 저주 같은 업적을 영원히 무력화하는 일이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적의 센 강 위로 그 규칙적이고 힘찬 리듬이 퍼져나갔다. 돈 루이스는 노를 잡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힘껏 저었다.

그때였다. 멀리 하얀 빛 속에서 검은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십이 분에서 십오 분이면 그 배가 눈앞에 닿을 판이었다.

"도와드릴까요?"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흐름에 휩쓸린 듯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기가 힘드시네요."

"전혀 문제없소." 돈 루이스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답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파트리스는 깜짝 놀랐다. 작은 배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강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결국 뭐라는 거야? 너는 등을 돌렸잖아… 뭐라고? 포기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우리가 둘뿐이어서 그런 건가? 둘 대 셋… 그래서 두렵다는 거야? 그게 맞지?"

돈 루이스가 재빠르게 강가로 뛰어올라 파트리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파트리스는 그를 밀쳐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시간이 없어." 돈 루이스가 짧게 대답했다. "한 가지 물어야 해. 노년 시메온의 방에서 내가 찾은 그 책, 벤자민 프랭클린의 『회고록』. 네가 조사할 때 그걸 봤어?"

"젠장! 우리한테는 다른 게 더 중요한데…"

"긴박한 질문이야, 대위."

"아니, 그건 없었어."

"그렇군, 돈 루이스가 말했다. '우린 속았어.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속았지. 자, 선장님, 서두릅시다.'

파트리스는 보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보트를 밀어내고 노를 잡으며 중얼거렸다.

‘젠장, 이 작자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그가 강에서 열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외쳤다.

‘두렵다면 혼자 가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돈 루이스가 대답했다.

‘나중에 뵙죠, 선장님. 여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파트리스의 탐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내린 첫 명령에 ‘벨 에레느’호가 즉시 멈췄고, 접안은 가장 평온하게 이루어졌다.

두 뱃사공은 바스크 해안가 출신에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었다. 파트리스는 군 당국에서 파견된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거룻배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노 시메옹을 찾지 못했다. 가장 작은 금주머니도 없었다. 선창은 거의 비어 있었다.

심문은 짧게 끝났다.

“어디로 가는 거요?”

“루앙으로요. 보급 부대에 징발된 거죠.”

“그런데 길에서 누군가를 태웠소?”

“네, 망트에서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메온 디오도키스.”

“그는 어떻게 되었소?”

“잠시 후에 내리게 해서 기차로 돌아가게 했죠.”

“그는 무엇을 원했소?”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요.”

“무슨 대가로?”

“무슨 대가로?”

“모르겠소. 우리한테는 잘 주었어. 그게 중요했지.”

“그 화물은 어디 있나?”

“어젯밤 포이시 아래쪽에서 작은 증기선에 실어 건넸소.”

“그 증기선 이름이 뭐냐?”

“샤모아. 승무원 여섯 명.”

“그 배는 지금 어디 있나?”

"먼 곳으로 갔소. 속력이 빨랐지. 루앙보다 더 멀리 갔을 걸세.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쫓아갈 거요."

"시메온 디오도키스를 언제부터 알았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에사레스 씨의 일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

"아, 에사레스 씨를 위해 일한 적이 있나?"

"여러 번 했소. 같은 일, 같은 항로였지."

"신호를 보내 부르더나?"

"옛 공장 굴뚝에 불을 지펴서 그랬소."

"항상 자루였나?"

"네, 자루였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소. 하지만 돈은 잘 주더군."

파트리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보트로 내려 강가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돈 루이는 든든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빨리 가요. 화물은 샤모아호라는 증기선에 실려 있어요. 루앙과 르아브르 사이에서 그 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돈 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교에게 하얀 종이로 싼 한 뭉치를 건넸다.

"샌드위치 두 개입니다, 선장님. 오늘 밤은 고역이 될 겁니다. 선장님이 저처럼 잠을 자지 못한 게 아쉽군요. 자, 출발합시다. 이번엔 제가 핸들을 잡겠습니다. 속도가 꽤 나겠어요. 선장님, 제 옆에 앉으세요."

그들은 모두 차에 올랐다. 하지만 차가 도로로 나서는 순간, 파트리스가 외쳤다.

"어이, 조심해요! 저쪽으로 가지 마요! 우리는 망트와 파리로 돌아가는 길이네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거죠." 돈 루이가 비웃듯 말했다.

"뭐라고? 파리에서?"

"물론이지."

"아니, 안 돼. 이건 너무 심해. 내가 두 명의 선원들이……"

"네 선원들이라니? 다 장난치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화물이……"

"화물? 짐이겠지."

"하지만 샤모아 호는……"

"샤모아 호? 배 말이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둘 다 완전히 속았어, 선장님. 완전히 말이지! 노년 시메온은 정말 경이로운 놈이야. 정말 좋은 상대야. 그놈과 함께라면 정말 재미있지. 그놈이 나한테 함정을 파놓았거든. 내가 목까지 진흙에 빠질 뻔했어. 그래, 좋아. 하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지. 이제 장난은 끝났어."

"하지만……"

"선장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벨 에레느'를 지나쳤으면, 이제 '샤모아'를 공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망트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립니다. 시메옹이 이미 파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요. 우리보다 세 시간에서 네 시간쯤 앞선 상태입니다."

파트리스는 오한이 일 듯 몸을 떨었다. 시메옹이 파리에? 바로 코랄리가 있는 파리에!

그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돈 루이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 이 사기꾼! 정말 잘도 수를 썼군. '프랭클린 회고록'은 정말 한 수 위였어.

내 도착을 미리 알고 있었지. 뤼팽? 이 녀석은 위험한 놈이야. 사건을 파헤쳐서 나랑 금화 주머니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없애려면 단 한 가지 방법뿐이야. 내가 진짜 단서를 쫓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추격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진짜 단서가 가짜로 바뀌는 그 미세한 순간조차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해.

어때, 이 작전이 영악하지 않아?

그래서 프랭클린의 책이 미끼처럼 놓여 있었고, 원하는 페이지가 저절로 펼쳐졌지.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리고 쉽게 찾아낸 배관 공사.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친절하게 건네진 그 실을 나는 순종적으로 따라갔어. 시메온이라는 손에 이끌려 지하실에서 베르투 공터까지.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베르투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바지가 하나 정박해 있었죠.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반드시 정보를 캐내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얻은 순간, 저는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죠…?"

"아, 시메옹의 공범이었습니다. 시메옹은 자신이 생라자르 역까지 미행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망트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망트에서 그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벨 에레느'호가 출발했습니다. 시메옹과 금화 주머니를 싣고서요. 우리는 '벨 에레느'호를 쫓았습니다. 물론 '벨 에레느'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메옹도, 금화 주머니도요. '차라리 '샤모아'호를 쫓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샤모아'호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샤모아를 쫓아 루앙까지, 르아브르까지, 세상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추적은 헛수고였습니다. 샤모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샤모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수사를 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면, 그 남자의 작전은 완성됩니다. 백만 금은 이미 사라졌고, 시메옹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체념하고 추적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추적 포기'가 이 남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만약 ……"

자동차는 최고 속력으로 질주했다. 때때로 도니 루이는 놀라운 기술로 차를 완전히 멈추곤 했다. 지방군 검문소였다. 통행증 제시를 마친 뒤, 다시 한 번 앞으로 질주했다. 그리고 다시 그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추격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요?" 파트리스는 반쯤 설득된 듯 물었다. "어떤 단서가 당신을 그 길로 이끌었나요?"

"망트에서 그 여자를 본 것이 첫 단서였습니다. 처음엔 흐릿한 단서였죠. 그런데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선박 '논샬랑트' 호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던 그 남자를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베르투 조선소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마주 보고 있을 때, 이상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는 여성이 분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 기분이 다시 떠올랐죠. 망트의 여자와 연결 지어 생각했고, 그러자 문득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돈 루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파트리스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레고아르겠지."

"뭐라고요? 그레고아르?"

"글쎄요. 그레고아르가 여자인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들을 카페 테라스에서 연행한 날, 공범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일기에는 그런 단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디테일을 깜빡했네요."

"디테일이라고요? 그게 디테일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님!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 뱃사공이 바로 그레고

아르라는 걸 눈치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온 밤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벌이라도 받으라, 대위님, 당신도 참 어이없는 양반이군요!"

하지만 이 일로 도 루이스의 좋은 기분이 상할 리 없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예감에 시달리며 점점 어두운 표정이 되어가는 파트리스를 뒤로하고, 그는 승리를 외쳤다.

"좋아! 이제야 싸움이 제법 진지해지는군."

"정말, 너무 편해. 그래서 내가 싫었던 거야, 나 뤼팽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것이 그토록 완벽하게 연결될 리가 없어. 프랭클린, 금강, 끊이지 않는 연결고리, 스스로 드러나는 단서, 망트에서의 약속, 그리고 '벨엘렌'호까지. 너무 많은 꽃잎이야, 마담. 이제 그만 던지세요!"

"그리고 금이 배에서 새어나갔다는 점도 의아합니다. 평시라면 모를까, 전쟁 중이던 때였잖아요. 엄격한 통행증 제도, 순찰선, 검문, 압류까지…."

"시메온 같은 자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감행하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위님, 혹시 모르니 베르투 조선소 앞에 야본을 배치해 뒀습니다. 그냥 막연한 직감이었죠."

이 공사 현장이 모험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음, 제가 맞았나요? 뤼팽의 직관이 완전히 무너진 걸까요?

대위님, 내일 밤 출항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저는 떠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더 이상 신비로움은 없습니다. 황금 삼각형의 비밀조차도요.

아,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금속으로 만든 멋진 삼각형을 가져다주겠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이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금화 주머니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쌓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땅속에 파인 삼각형 모양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손에 넣을 겁니다. 금화 주머니들도 우리의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시장 앞에서 저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될 거예요.

파리 성문에 다다랐다. 패트리스는 날로 초조해지며 물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세 번째 장의 큰 고비, 우리가 일명 '일산화탄소 장면'이라고 부를 그 부분 이후에는 네 번째 장이 반드시 있을 거야. 다섯 번째 장도 있을지 모르고."

"적은 아직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어. 정말로 말이야."

그들은 강변 길을 따라 걸었다.

"여기서 내려갑시다." 도 루이스가 말했다.

그는 휘파람을 세 번 불었다.

"대답이 없군." 도 루이스가 속삭였다. "야본은 이미 사라졌다. 싸움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코랄리는요?"

"그녀가 무슨 위험에 처할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메온은 그녀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베르투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래 부두에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다른 바지선, 즉 '논샬랑트'호가 눈에 들어왔다.

"가자." 돈 루이가 말했다. "저 바지선이 그 그레고르라는 여자의 평소 거처인가? 혹시 우리가 르아브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벌써 돌아왔나? 그렇게 되길 바란다. 어쨌든 야본이 그쪽을 지났을 테고, 분명 무언가 신호를 남겼을 것이다. 대위님, 따라오시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기분이 들지?"

"무엇이 무섭다는 거지?" 돈 루이가 물었다. 그는 그 불안감을 이해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때문에…"

"글쎄,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를 텐데."

둘은 손전등을 하나씩 켜고, 권총 손잡이를 만져보며 준비를 했다.

그들은 배와 강가를 잇는 널빤지를 건너 몇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선창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여보시게, 문을 열어야겠군."

대답은 없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는 일에 착수했다. 하지만 문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일반적인 선실 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문이 무너졌다.

"천벌이 내리기를! 이건 예상치 못했군."

첫째로 안으로 들어선 돈 루이가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봐라. 그레고르라 불리던 그 여자가…… 죽은 것 같아."

여자는 작은 철제 침대 위에 엎어져 누워 있었다. 남자 옷인 블라우스가 찢겨 가슴이 드러났고,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선

실 전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그곳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 저기 가까이 보면, 그녀가 망트에서 입었던 옷들이 놓여 있어. 그런데 왜 그래요, 대위님?"

파트리스가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저기요… 우리 맞은편, 창문 바로 아래…"

강을 내려다보는 작은 창문이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음, 도니 루이스가 말했다. '그래? 맞아요. 누군가가 거기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 베일… 그 파란색 베일…" 파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간호사용 베일이에요. 코랄리의 베일이에요."

도니 루이스가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봐요, 아무도 그녀의 주소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당신은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전보를 치지 않았나요?"

"네… 전보를 쳤어요… 망트에서…"

"무슨 소리예요? 그럼…" 도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봐요, 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했어요?"

"망트 우체국에서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그 우체국에 누군가 있었나요?"

"네,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어느 여자요? 저기 살해당한 그 여자 말인가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이 쓰던 걸 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난 전보를 두 번이나 다시 썼지."

"그럼 초안은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군요. 그래서 아무나…"

"정말요, 대위님, 이제야 인정하시겠어요?"

파트리스는 이미 멀리 달아나 있었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자동차 쪽으로 향했다.

반시간 뒤, 그는 코랄리의 책상에서 건져낸 두 통의 전보를 들고 돌아왔다.

첫 번째는 그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모두 잘 돼. 안심하고 외출하지 마라. 정성을 보낸다. — 파트리스 대위'

두 번째는 분명 시메온이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대한 사건. 계획이 바뀌었다. 돌아온다. 오늘 밤 아홉 시, 정원의 작은 문에서 기다린다. — 파트리스 대위"

코랄리는 이 두 번째 전보를 여덟 시에 받았다. 그녀는 곧장 떠났다.

제16장

"선생님,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첫째, 그레고리가 여자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은 것. 둘째…"

하지만 돈 루이스는 장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장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자, 장교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그 남자를 피하려고 코랄리가 저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돈 루이스는 어깨를 으쓱였다.

"코랄리 어머니는 살아 있습니다. 시메온의 손속에 있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아신다는 말씀이죠? 설령 그 괴물의 손안에 있다 해도, 그것은 곧 죽음이고, 죽음 그 자체의 공포가 아닐까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간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단서는 있으십니까?"

"제가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노련한 베테랑인 제가, 이 선실 안에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을 반 시간 만에 다 풀어내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장 떠나야 합니다!" 파트리스는 이미 싸움 준비를 하며 외쳤다. "적진으로 달려갑시다."

"아직은 아닙니다." 돈 루이스는 주변을 더듬으며 말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대위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으로 당신을 현혹하거나, 증거가 되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마 코랄리가 밤 아홉 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시메옹이 여자 공범과 함께 거기 있었죠. 두 사람은 그녀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여기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들이 퇴로를 안전하다고 여긴 것은 당연했어요. 당신과 제가 함정에 빠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임시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아요. 밤의 일부 시간만 버티기 위한 장소였죠. 시메옹은 마마 코랄리를 공범에게 맡기고, 최종적인 은신처나 감옥 같은 곳을 찾아 나서려 했을 거예요.

다행히 야본이 있었죠. 저는 그 점을 조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야본은 어둠 속에 숨어 벤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이 강가를 건너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테고, 아마도 멀리서 시메옹의 걸음걸이를 알아챘을 겁니다."

즉시 추격이 시작됐다. 야본은 배의 갑판으로 뛰어올랐다. 두 공격자와 거의 동시에, 그들이 문을 잠그기도 전에 도착한 것이다.

좁은 방, 완전한 어둠. 네 명이 뒤섞인 그 상황은 소름 끼칠 만큼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의 야본을 잘 안다. 그는 무서운 존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용서하지 않는 주먹이 닿은 대상은 시메온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그 여자였다.

시메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코랄리를 놓지 않았다. 그녀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 위층으로 던져 넣은 뒤, 다시 내려와 두 싸움꾼을 방 안에 가두며 열쇠를 돌렸다.

"당신은…… 야본이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메온이 아니라?"

"물론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이 한 가지로 충분하죠. 울대(후두)가 으스러진 상처는 야본의 명백한 표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인 건, 상대를 쓰러뜨린 야본이 왜 어깨로 문을 박차고 시메온을 쫓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아마도 부상을 입어 필요한 힘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여성이 즉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녀가 입을 열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버리고 간 시메온에게 불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본은 창문을 깨부수고…"

"부상당하고 팔이 하나인 채로 센강에 뛰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파트리스가 반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문 전체를 따라 난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난간을 디뎌서 그곳으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는 시메온보다 열 분, 많게는 스무 분이나 늦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시메온이 숨은 곳을 알려줄 시간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도 우리가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계속 그걸 찾고 있었어요, 대위님. 그리고 방금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방금? 야본의 실력이라니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 여자가 선실의 한 곳, 아마도 저기 열린 서랍 같은 곳을 가리키며 방문카드가 있다고 말

했겠죠. 카드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야본은 그 카드를 가져와 저에게 알리기 위해 커튼에다 핀으로 꽂아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카드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야 비로소 카드를 고정시킨 핀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저 금색 핀입니다. 제가 야본의 가슴에 모로코 훈장을 달아줄 때 썼던 바로 그 핀이죠."

"그 주소는요?"

"아메데 바셰로, 기마르 거리 18번지. 기마르 거리는 아주 가까워. 이 정보는 정확해."

그들은 곧장 길을 나섰다. 여자 시체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 둔 채였다. 돈 루이스가 말했듯이, 경찰은 제 역할을 해낼 테니까.

베르투 공사터를 지나며 그들은 작은 창고 안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돈 루이스가 지적했다.

"사다리가 없군. 이 점을 기억해두자. 시메옹이 여기서 빠져나갔을 거야. 시메옹도 이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하는군."

자동차는 기마르 거리로 그들을 데려갔다. 파시 구의 작은 거리였다. 18번지는 이미 역사가 깊은 큰 빌라였다. 그들은 새벽 두 시에 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마차가 드나드는 아치형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관리인이 관리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아메데 바셰로 씨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

"네, 문지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권리로 들어오시죠?"

"경찰청의 명령입니다." 돈 루이스가 아무런 의미 없는 메달을 하나 꺼내 들며 말했다.

그들은 문지기실을 들어섰다.

아메데 바셰로는 작은 노인이었다. 얼굴은 정직해 보였고, 흰 구레나룻을 길렀으며, 교회 종지기 같은 인상을 풍겼다.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가만히 숨기지 마십시오. 알겠지요?" 돈 루이스가 거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우리는 시메온 디오도키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깜짝 놀랐다.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요? 만약 해를 끼치려는 거라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라면 차라리 천천히 불에 타 죽는 게 낫습니다. 착한 시메온 씨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돈 루이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찾는 겁니다."

"큰 위험이라고요?" 바셰로 씨가 외쳤다. "아,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나 초조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가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정을 조금 넘겨서요."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이미 떠났습니다."

파트리스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물었다.

"아마 누군가를 남겼나요?"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오길 원했습니다."

"여성분인가요?"

바셰로 씨는 망설였다.

"우리는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가장 깊은 존경심을 가진 여성분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그 여성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항상 경계심 가득한 문지기에게서 질문이 날아왔다.

"물론입니다, 에사레스 부인입니다. 은행가의 미망인 댁에서 시메온이 비서로 일하고 있잖아요. 에사레스 부인은 박해를 받고 있고, 시메온은 그녀를 적들로부터 지키려 하죠. 우리 역시 두 분을 돕고 이 흉악한 사건을 맡으려 하고 있으니, 당신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셰로 씨가 안심한 듯 말했다. "저는 시메온 디오도키스를 수년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수로 일하던 시절, 그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돈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직장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주 제 관리실에 들러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온갖 잡담을 나누며 말이죠."

"에사레스 베이와의 사소한 마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파트리스 벨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건가요?" 돈 루이스가 무심한 척 물었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입니다. 시메옹 씨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자선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분 선행을 위해 이 동네에서 저를 일거리로 챙겨주셨죠. 방금 전에도 에사레스 부인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에사레스 베이가 죽은 뒤로, 시메옹 씨를 다시 보셨나요?"

"아니, 그게 처음이었어요. 한 시쯤에 나타났죠. 숨이 차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거리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누가 날 미행했어' 하고 그가 내게 말했죠… '미행당했어… 틀림없어…'"

"누구냐?" 내가 물었다.

"너는 그 사람 모르겠지… 손이 하나뿐이지만, 목을 조르면 정말 죽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들리는지 말런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 너 나와 함께 가자. 에사레스 부인이라는 여자를 찾아야 해.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해. 내가 잘 숨겨뒀는데, 의식을 잃었어. 들어다 옮겨야 해. 아니, 혼자 갈게.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내 방은 아직 비어 있어?"

그에게 이곳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말해둬야겠군. 어느 날 그가 숨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련한 거야. 가끔 다시 찾곤 했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방을 비워뒀던 거지. 다른 세입자들과는 떨어진 외딴 곳이라 은신하기 딱 좋았으니까.

"그 후에요?" 파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후에?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떠났소."

"그런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쫓던 자가 그를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분, 즉 불행을 당한 그 여자분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분에게 무슨 일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녀를 찾아갈 방향을 알려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빨리, 서두릅시다. 그녀를 구하려면 제가 그녀를 구덩이에 묻어야 했거든요. 두세 시간 정도면 괜찮지만, 그 이상이면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공기가 부족해서요.'"

파트리스는 노인의 옷깃을 꽉 쥐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몸이 떨렸다. 이미 병약하고 지친 코랄리가 어딘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말해! 당장 말이야. 그녀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줘!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줄 알았어? 그녀는 어디 있냐고? 그 남자가 이미 말했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그는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는 바쉐로 씨의 어깨를 움켜잡고, 전례 없는 분노를 그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돈 루이스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군요, 대위님. 정말 감탄합니다. 제 조언 덕분에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네요. 이제 바쉐로 씨도 우리 편이 됐으니까요."

"아, 그럼 내가 이 늙은이의 혀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나 보군!" 파트리스가 외쳤다.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문지기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여러분, 속았네요. 여러분은 시메옹 씨의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야? 정말 입을 닫고 있을 거야?"

화난 파트리스가 권총을 겨눴다.

"셋까지 센다. 그 전에 결심하지 않으면, 벨발 대위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문지기가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보니, 현재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막 일어났다는 기색이었다.

"벨발 대위라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벨발 대위 맞나요?"

"아, 내 친구, 그 말이 네 생각을 바꾸는구나!"

"당신, 벨발 대위? 파트리스 벨발?"

"만나서 반갑군. 단, 2초 안에 설명하지 않으면…"

"파트리스 벨발! 당신은 파트리스 벨발이고 시메옹 씨의 적이라고 주장하죠?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저는 그 개 같은 놈을 쏘아 떨어뜨리고 싶어요. 네, 그 악질 시메옹을요. 그리고 당신도요, 그와 결탁한 자를요. 아, 정말 썩은 놈들이야! 자, 이제 결정하시겠소?"

"불쌍한 사람! 문지기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사람!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메옹 씨를 죽이다니요! 당신이라니요! 당신이라니!'"

"그리고서? 말해, 늙은 바보야!"

"당신이, 시메옹 씨를 죽이다니요, 파트리스! 당신, 벨발 대위라니요! 당신이라니!"

"왜 안 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건……"

"아, 자, 이제 말하겠소, 늙은 바보야!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너, 파트리스? 시메옹을 죽이다니!"

"왜 안 되겠나? 말해 봐, 젠장! 왜 안 된다고?"

관리인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오."

파트리스의 분노가, 코랄리가 시메옹의 손에 있거나 어딘가 깊은 구덩이에 처박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긴 그의 불안이, 고통스러운 초조함이,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거대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메옹의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하하, 정말 재미있군! 구해 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군, 늙은 도적아! 참으로 편한 논리야. '이 남자를 죽이지 마라. 그건 네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라니, 더러운 시메옹을! 시메온 디오도키스, 벨발 대위의 아버지라니! 정말 배가 아플 지경이야."

돈 루이스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파트리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대위님, 이 일을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까요? 몇 분만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드리죠."

그는 장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노인을 향해 몸을 굽혔고, 천천히 물었다.

"자, 바셰로 씨.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중요하니까요. 불필요한 수사는 그만두고, 핵심만 짚어봅시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밝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당신의 은혜를 입은 남자의 진짜 이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망 벨발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파트리스 벨발이라 불렀죠."

"네, 그의 아들이름과 같습니다."

"아르망 벨발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즉 코랄리 에사레스의 어머니와 같은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랄리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르망은 죽지 않았죠."

"그건 1895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1895년 4월 14일."

파트리스는 돈 루이스의 팔을 꽉 쥐었다.

"갑시다. 더듬거리며 그는 말했다. '코랄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괴물이 그녀를 묻어 버렸죠. 그 점만 중요합니다.'

돈 루이스가 대답했다.

"그 괴물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대위님, 당신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랄리 때문에요! 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이런 말이 무슨 악몽이람! 조용히 하라니, 조용히 하라고! 내가 그를 목 졸라 죽여야 했어!"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리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정말로, 그 순간은 끔찍했다. 그 어떤 비극도 그를 그토록 깊이 뒤흔들 수 없었다.

돈 루이스는 감정에 젖어 그를 바라보다가, 문지기를 향해 말했다.

"설명해 주시오, 바셰로 씨. 짧은말로요. 디테일은 나중에 보죠. 그러니까, 1895년 4월 14일…"

"1895년 4월 14일, 어느 공증인 사무소 서기가 경찰서장과 함께 저의 상사 근처에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관 두 개를 주문하러 왔습니다. 작업장이 모두 동원되었죠. 밤 10시, 상사와 동료 한 명, 그리고 저는 레이누아르 거리로 향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갔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시체 두 구가 있었습니다. 두 구 모두 관에 넣기 위해 흰 천으로 감싸 안치했죠. 그리고 열한 시가 되자, 상사와 동료는 저를 혼자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은 일은 관 뚜껑을 못으로 고정하는 것뿐이었죠.

그때, 기도하며 지켜보던 수녀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일입니다, 선생님.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온몸이 떨렸죠.

선생님, 그 남자의 시체가 움직인 겁니다. 그 남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돈 루이스가 물었다.

"당신은 그때 그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그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네, 두 사람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까지 몇 시간이 더 걸렸어요. 마치 중독된 듯했죠."

"그런데 왜 수녀님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서서히 기운을 차리며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죽었죠?'"

"그리고는 곧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이 일은 비밀로 하자. 내가 죽은 줄로 아는 게 더 낫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은 제 의지를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아이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른 관 옆으로 몸을 굽혔다. 시신 덮개를 걷어내고 죽은 여자의 얼굴에 여러 차례 입맞추며 중얼거렸다.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마. 내 일생을 네 원수를 갚는 데 바치겠다. 그리고 네가 원했듯, 우리 아이들을 맺어주겠다.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다. 파트리스와 코랄리를 위해서. 안녕."

그가 나에게 말했다.

"도와줘."

그래서 우리는 죽은 여자를 관에서 꺼내 옆의 작은 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가 큰 돌들을 가져와, 두 시신이 있던 자리에 놓았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두 개의 관을 못으로 박았다. 그리고 하녀를 깨운 뒤 떠났다.

그는 죽은 여자와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침이 되자, 장례식장 직원들이 두 개의 관을 수거하러 왔다.

파트리스는 손을 벌렸다.

그의 머리가 경련하듯 떨리면서, 돈 루이스와 문지기의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멍한 눈으로 그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덤이라니, 그래도?"

"그곳에 두 사람이 묻혔다는 비문은?"

"살인이 벌어진 파빌리온 옆에?"

"그 묘지란 말이야?"

아르망 벨발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당시 나는 우리 집 다락방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거처를 하나 빌렸고, 그는 시메온 디오도키스라는 가명을 쓰고 몰래 들어와 몇 달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렀다. 아르망 벨발은 법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내 중개를 통해 그는 자신의 별장을 다시 사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두 무덤을 팠다. 코랄리의 무덤과 그의 무덤. 그의 무덤, 맞다. 그는 그렇게 원했다. 내가 반복해서 말하듯.

파트리스와 코랄리는 둘 다 죽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떠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아마도, 고백하자면, 절망이 그를 조금은 미치

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었다. 오직 1895년 4월 14일에 죽은 그 여자의 기억과 추모에 관해서만 말이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여기저기에 적었다. 무덤 위에도, 벽 위에도, 나무 위에도, 심지어 꽃밭 위에도.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과 코랄리 에사르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일, 즉 살인자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아들과 죽은 여자의 딸을 위한 일이라면…… 오, 그건 확실히, 선생님, 그는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답니다."

파트리스는 떨리는 주먹을 내밀며 절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거를 보여 주세요. 당장입니다. 지금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당의 잔인한 뜻에 따라…… 한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셰로가 말했다. "내 친구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다. 그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

"그는 우리 둘을 이 별장으로 불러들여, 우리 부모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당신과 그녀를 죽음 속에서라도 하나로 묶으려 할 뿐입니다."

"네, 죽음 속에서요."

"삶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죠. 그분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겨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도둑놈이야! 괴물이야!" 장교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분이고, 바로 당신의 아버지랍니다."

파트리스는 모욕적인 말에 몸이 떨렸다.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그가 외쳤다. "진실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에는 더 이상 한 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겠소."

노인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한쪽 팔을 뻗어 오래된 마호가니 서랍장 쪽으로 내밀었다. 그는 서랍장 앞판을 내려치고, 스프링을 눌러 한 개의 서랍을 열었다. 그러고는 한 뭉치의 서류를 건넸다.

"대위님, 아버지의 글씨를 아시죠? 영국에 계셨던 학교 시절 편지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 편지에는 당신의 이름이, 곧 그의 아들 이름이 백 번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당신에게 정해준 코랄리의 이름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당신의 일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부한 것, 여행한 것, 해온 일들까지요. 거기엔 아버지가 대리인을 통해 찍어 보낸 당신의 사진도 있고, 그가 살로니크까지 찾아간 코랄리의 사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신이 비서로 들어간 에사레스 베이에 대해 품었던 증오입니다. 복수 계획, 끈기, 그리고 인내도 기록되어 있죠. 에사레스와 코랄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기쁨, 바로 자신의 아들을 에사레스의 아내와 결혼시켜 복수를 더 잔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그는 편지들을 하나씩 파트리스의 눈앞에 놓았다. 파트리스는 처음 본 순간 아버지의 필체임을 알아챘고, 자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 조각들을 열정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바셰로는 그를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 의심하지 않으시죠, 대위?"

장교는 다시 주먹을 이마에 대고 힘주어 말했다.

"그 얼굴을 봤어. 다락창 위에서, 우리가 갇혀 있던 정자에서 말이야. 그는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지. 미치도록 증오에 찬 얼굴로. 그는 에사레스보다 더 우리를 증오했어."

"틀렸어요! 환상이에요!" 노인이 항변했다.

"아니면 광기일지도요,"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반발심에 사로잡혀 테이블을 힘껏 두드렸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그가 외쳤다. "이 남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악당이라니…"

그는 관리실 안을 돌며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다. 그리고 돈 루이스 앞에 서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서 떠납시다.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 악몽이야…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세상이 뒤집히고 머리가 비틀리는 악몽. 우리 떠납시다… 코랄리가 위험해져. 그게 유일한 문제야."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무슨 두려움이란 말이오?" 장교가 포효했다.

"내 불쌍한 친구가 자신을 미행하던 자를 만나버렸을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에사레스 부인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가 말하길, 그 부인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고…."

파트리스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코랄리가 죽어가고 있어. 코랄리…"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안간힘을 써서 관리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돈 루이스의 팔을 꼭 붙잡으며 물었다.

"코랄리는 끝났죠,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소."

돈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메옹도 당신처럼 행동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소. 그는 이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말은 과장했을 뿐이오. 믿으시오, 코랄리 어머니에게 당장 위급한 일은 없소. 우리에게 몇 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소."

"진짜로요?"

"물론이오."

"하지만 야본이…"

"응?"

"야본이 그를 잡았을 때, 만약…"

"야본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했소.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도 시메옹은 살아있소. 그게 중요하오. 시메옹이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소. 그는 코랄리 어머니가 죽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테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대체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일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은 증오로 변해버렸죠."

그가 갑자기 돈 루이의 팔을 꼭 쥐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들으십시오. 몇몇 우연한 일치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발." 장교가 말을 가로막았다. "에두르지 마십시오. 단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마디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돈 루이가 대답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 씨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대위."

"아! 입 다물게, 입 다물게! 끔찍해! 주님, 얼마나 어둡고 깊은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루이가 말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로 씨와의 대화 덕분에 우리도 어느 정도 단서를 얻었습니다."

"가능할까요?"

하지만 파트리스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온갖 생각이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시메온이 아마도 경비실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없으면 어떡합니까? 코랄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르고요."

"아니요." 돈 루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느님, 당연히 모든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요. 금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적의 모든 작전은 그 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확신하지만, 후퇴 중이라 해도 금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금이 베르투 공사장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트리스는 아무 말 없이 돈 루이의 안내를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돈 루이가 외쳤다.

"들렸습니까?"

"네, 폭발음입니다."

이때 그들은 레누아르 거리로 빠져나갈 참이었다. 집들이 너무 높아서 총성이 정확히 어디서 터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략 에사레스 호텔이나 그 근처에서 들린 것 같았다. 파트리스가 불안한 눈빛을 던졌다.

"야본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돈 루이가 말했다. "야본은 총을 쏘지 않아요. 그럼 총을 맞은 건 야본이겠지요. 천벌이 내려라. 내 안쓰러운 야본이 죽으면 어쩌나."

"혹시 코랄리일까요?"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돈 루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대위님. 저는 이 일에 관여한 걸 후회합니다. 제가 오기 전엔 당신도 훨씬 더 강했고, 눈도 밝으셨잖아요. 시메온이 왜 코랄리 어머니를 건드리겠어요? 그녀가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들은 서둘러 걸었다. 에사레스 호텔 앞을 지나니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길을 계속해 골목으로 내려섰다.

파트리스는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오호, 오호." 돈 루이스가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뜻이군. 대위님, 부두에서 만납시다. 나는 베르투 공장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

몇 분 전부터 희미한 빛이 밤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부두는 여전히 한산했다.

돈 루이는 베르투 현장에 특별한 이상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파트리스와 합류했을 때, 파트리스는 빌라 정원을 따라 난 인도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사다리를 가리켰다.

돈 루이는 그 사다리를 즉시 알아봤다. 현장의 작은 창고에서 사다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던 바로 그 사다리였다.

그는 본능적인 통찰력으로 즉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메온이 정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다리를 이용해 야본이 정원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 시메온이 바셰로 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그리고 코랄리 어머니를 다시 데리러 가던 중, 시메온이 피신처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런데 시메온은 코랄리 어머니를 다시 데려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데려오기 전에 또 도망쳤을까? 나는 알 수 없지. 하지만 어쨌든…"

그는 허리를 굽힌 채 보도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야본이 금화 주머니가 쌓인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그 은신처는 코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만약 적군이 먼저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다면, 아직 그녀를 그곳에서 꺼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확신합니까?"

"네, 대위님. 야본은 항상 몸에 분필 조각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는 글을 쓸 줄 모르죠. 제 이름을 빼면요. 그래서 그는 벽에 두 개의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들과 벽의 선이 만나 삼각형을 이루죠. 바로 황금 삼각형입니다."

돈 루이스가 몸을 일으켰다.

"지시 내용이 좀 간결하긴 합니다. 하지만 야본은 저를 마술사쯤으로 믿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이 세 줄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불쌍한 야본!"

"하지만 파트리스가 반박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파리에 도착하기 전, 즉 자정이나 한 시쯤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들은 총성은 어떡합니까? 네다섯 시간 뒤의 일이잖아요?"

"그건 제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시메온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직전, 조금은 안심한 상태에서 야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러자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야본이 그를 덮쳤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가정하길…"

"저는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본이 부상을 입었고, 시메온은…"

"그리고 시메온이 도망쳤다고?"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루이스는 사다리를 벽 위에 있는 철제 울타리에 기대 세웠다. 돈 루이스의 도움을 받아 대위가 울타리를 넘었다. 이어 돈 루이스도 울타리를 넘은 뒤, 사다리를 걷어내 정원으로 던졌다. 그리고 사다리를 꼼꼼히 살폈다.

마침내 그들은 키 큰 풀과 무성한 관목 사이를 지나 별장 쪽으로 향했다.

해가 금방 떠올라 사물들이 뚜렷한 형체를 드러냈다. 그들은 별장을 돌아섰다.

거리 쪽 안뜰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앞서 걷던 루이스가 돌아서며 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는 곧장 돌진했다.

현관문 앞에는 두 적수의 몸이 뒤엉킨 채 뒹굴고 있었다. 야본의 머리는 끔찍한 상처를 입었고, 피가 온 얼굴을 적셨다. 그는 오른손으로 시메온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즉시 야본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살아 있었다.

제17장

야본의 움켜쥔 손아귀를 풀어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죽었는데도, 세네갈인은 먹이를 놓지 않았다. 철처럼 단단한 손가락은 호랑이 발톱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낸 채, 비명을 지르다 기절해버린 적의 목을 파고들고 있었다.

마당 바닥에는 시메온의 권총이 놓여 있었다.

"운이 좋았네, 늙은 도둑." 돈 루이스가 낮게 말했다. "총을 쏘기 전에 야본이 네 목을 조일 시간이 없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너무 웃지 말게. 야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너를 살려주었을 걸세. 하지만 야본이 죽었으니, 이제 넌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지옥 의자를 예약하면 돼. '깊은 곳에서'라고, 디오도키스. 너는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감정을 담아 덧붙였다.

"가엾은 야본아.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네가 나를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 주었지. 그런데 오늘, 내 명령으로 죽다니……. 가엾은 야본아!"

그는 세네갈 사람의 눈을 감아 주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죽은 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단순하고 충실한 영혼들이 바라는 것, 즉 기억과 복수를 약속하며.

드디어 파트리스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큰 방 옆의 작은 방으로 옮겼다.

"오늘 밤, 대위님." 그가 말했다. "이 비극이 끝나면 경찰에 알릴 겁니다. 지금은 그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수가 우선입니다."

그는 싸움이 벌어진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고는 야본 쪽으로, 이어 시메온 쪽으로 다가갔다. 시메온의 옷과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파트리스 벨발이 있었다. 그의 끔찍한 원수 바로 앞이었다. 시메온은 파빌리온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벨발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고정되어 있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시메온! 시메온 디오도키스!

그는 저주받은 악마였다. 이틀 전, 그는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창문 틈새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의 끔찍한 죽음을 웃으며 구경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 그는 맹수처럼 코랄리를 어딘가 깊은 구덩이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 그녀를 마음껏 고문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숨을 쉬는 것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아마 야본의 냉혹한 주먹에 성대가 상한 모양이었다.

싸움 중 노란 안경이 떨어졌다. 짙고 회색이 섞인 눈썹이 무거운 눈꺼풀을 덮고 있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그를 뒤져 보시오, 대위."

하지만 파트리스는 꺼림칙해하는 기색이었다. 돈 루이스는 직접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 장교에게 건넸다.

먼저 시메온 디오도키스라는 그리스인 이름의 체류 허가증이 있었다. 사진이 카드 윗부분에 붙어 있었다. 안경에 코 가리개, 긴 머리칼……. 사진은 얼마 전 찍힌 것으로 보였고, 1914년 12월 자 파리 경찰청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에사레스 베이의 비서인 시메온 앞으로 온 서류들이 한가득이었다. 송장, 견적서 등등. 그중에는 건물 관리인 아메데 바셰로가 보낸 편지도 섞여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성공했습니다. 젊은 친구 하나가 구급대에서 에사레스 씨와 파트리스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죠. 기

쁜 마음으로 도와드려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쯤 아드님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도 못 합니다!"

편지 아래에는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직접 적어 놓은 개인적인 메모가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인 네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로, 다시 한 번 엄숙한 약속을 한다. 내 약혼자 코랄리가 복수받을 때까지, 그리고 파트리스와 코랄리 에사레스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이 글씨가 당신의 아버지의 필체 맞습니까?" 돈 루이스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파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글씨는 그 악당이 친구 바셰로에게 보낸 편지의 필체와도 같습니다. 오, 얼마나 추악한 짓입니까! 그 인간은! 그 도둑은!"

시메온이 몸을 움직였다. 여러 차례 눈꺼풀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다 완전히 깨어난 그는 파트리스를 바라보았다.

파트리스는 곧장 숨을 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코랄리?"

시메온은 아직 어리둥절해 보였고, 넋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강하게 반복했다.

"코랄리? … 그녀가 어디 있느냐? … 네가 그녀를 어디에 숨겼느냐? 그녀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시메온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파트리스… 파트리스…"

그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돈 루이스가 눈에 들어왔고, 아마도 야본과의 치열한 싸움이 기억났을 것이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분노가 치솟은 파트리스가 그를 향해 외쳤다.

"들어라… 망설이지 마라… 대답해야 한다… 네 목숨이 달린 문제다."

남자의 눈이 다시 떴다. 혈관이 드러나고 눈가는 붉게 충혈된 눈이었다. 그는 목을 만지며 말을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짓으로 보였다.

드디어 그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말했다.

"파트리스, 너야? …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 … 그리고 오늘, 적들처럼 우리가…"

"적들처럼, 아니 철천지원수처럼." 파트리스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죽음만 있다. 야본의 죽음, 어쩌면 코랄리의 죽음까지. 코랄리는 어디 있느냐?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파트리스… 정말 너인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장교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상대의 재킷 깃을 움켜쥐고 거칠게 밀쳤다.

하지만 시메온은 파트리스의 다른 손에 든 지갑을 보고 있었다. 그는 파트리스의 거친 행동에 저항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파트리스… 너는 분명 편지를 찾아냈겠지. 그리고 우리 둘을 묶는 연결고리를 알고 있을 거야… 아, 내가 얼마나 행복할 뻔했는지 모른다!"

파트리스는 그를 놓아주고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진실이야, 파트리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장교가 외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져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 넌 이미 눈치챈 모양이구나.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군."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그냥 도적일 뿐이야!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코랄리와 나를 향한 음모는 왜 있었지? 왜 두 번의 살해가 자행된 거지?"

"나는 미쳤소, 파트리스… 네, 때때로 나는 미치죠… 이런 재앙들이 내 머리를 돌게 만들었소… 과거의 코랄리 죽음도, 그리고 에사레스의 그림자 속에서 보낸 내 삶도…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이었소… 정말로 당신 둘을 죽이려 했던 걸까? 기억이 나지 않소… 아니, 적어도 내가 꾸었던 한 꿈은 기억나오… 그 꿈은 파빌리온에서 꾸었던 것이오, 예전처럼… 아, 미치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죄수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강요당한다는 게… 그러니 그 꿈속에서도 파빌리온이었던 것이오, 예전처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도구들로?… 네, 맞소. 꿈속에서 나는 내 고통과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을 다시 겪었소.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통을 주는 쪽이었지… 정말 지옥 같은 꿈이었소…"

그는 낮게, 자신에게만 속삭이듯 말했다. 주저하는 말투와 침묵이 섞여 있었고, 그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파트리스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돈 루이스는 눈도 떼지 않고 파트리스를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시메온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사랑하는 파트리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장 치열한 적을 가진 셈이지. 어찌 그런 일이 아니겠나. 너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아, 왜 에사레스가 죽은 뒤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나는 이성을 잃어갔으니까."

"그럼 당신이 그를 죽인 겁니까?" 파트리스가 물었다.

"아니, 아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야. 다른 자가 내 복수를 가로채 갔지."

"모르겠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생각만 해도 아파. 코랄리가 죽은 뒤로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코랄리!" 파트리스가 외쳤다.

"그래,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말이야. 그리고 아이도…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겠지. 아이는 에사레스와 결혼하면 안 됐어.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낀 파트리스가 속삭였다.

"그녀는 어디 있나?"

"말해줄 수가 없네."

"아!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지!" 파트리스가 분노에 떨며 말했다.

"아니, 그녀는 살아있네. 자네에게 맹세하네."

"그럼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게 중요해. 나머지는 모두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한 여자의 삶, 코랄리의 삶은 달라."

"들어보게."

시메온이 말을 멈추고 돈 루이스 쪽으로 한 번 눈길을 던진 뒤 말했다.

"말은 하고 싶은데… 하지만…"

"무슨 방해가 된다고요?"

"저 남자가 있는 거요, 파트리스. 저자가 먼저 물러나야 합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 남자? 바로 저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럼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 대신, 늙은 도적아. 코랄리 어머니가 숨어 있는 곳을 대라."

돈 루이스의 웃음은 더 커졌다.

"하! 코랄리 어머니는 금화 자루들이 숨어 있는 곳과 같은 곳에 있소. 코랄리 어머니를 구한다는 건, 곧 금화 자루를 건네준다는 뜻이오."

"그럼 어떻단 말이오?" 파트리스는 다소 적대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captain, 돈 루이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답했다. "만약 시메옹 경이 자기를 풀어 주면 약속대로 코랄리 어머니를 구하러 가겠다고 제안한다 해도, 당신이 승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만?"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믿지 않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게 옳은 거죠.

시메온 씨라는 분은 비록 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지만, 우리를 망트 쪽으로 돌려보내며 보여준 그 기지와 절도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요?"

"결론은 이겁니다, 대위님. 시메온 씨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거라는 거죠.

'코랄리를 주마. 대신 금은 내가 가져가마.'"

"그리고?"

"그리고요? 만약 당신 혼자 그 신사랑 마주했다면, 그 제안은 금방 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 정말 골치 아픈 일이네요."

파트리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돈 루이스 쪽으로 다가가, 분명히 공격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도 반대하지 않겠지? 이건 한 여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물론이지. 하지만 문제는 3억 프랑이라는 거야."

"그럼 거절하는 거야?"

"내가 거절한다니!"

"그 여자가 죽어가는데도 거절한다고? 그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잊고 있는 게 있어. 이건 내 문제야…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두 남자는 서로 마주 서 있었다. 돈 루이스는 약간 비웃는 듯한 차분함과, 자신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파트리스를 격분시켰다.

사실 파트리스는 돈 루이스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알고 있는 협력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한다는 거야?"

"네, 그렇소." 돈 루이스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대위님. 저는 그 거래를 거부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니까요. 속임수에 불과하죠. 천만의 말씀, 3억 프랑이라니! 그런 거대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다만, 저는 시메온 씨와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시메온 형?"

"좋아요. 둘 다 알겠지?" 돈 루이스가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라. 시메온 디오도키스 씨는 아들을 믿고 있으니, 금고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코랄리 부인을 풀어주게."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요?" 파트리스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이를 갈았다.

"저는 지금과 과거에 대한 제 작은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위님. 다시 한번 당신이 죽을 뻔했던 방을 찾아갈 테니까요. 곧 돌아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돈 루이스가 손전등을 켜고 파빌리온 안으로, 이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파트리스는 벽으로 막힌 창문 사이로, 벽면에 비친 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곧장 그 장교는 시메온 쪽으로 돌아왔고, 명령조로 말했다.

"갔군. 서둘러야 해."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확신해?"

"물론이지."

"그 자는 조심해야 해, 파트리스. 그는 금을 빼내어 혼자 독점하려 할 거야."

파트리스는 성이 나서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코랄리…"

"내가 코랄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잖아."

"당신이 떠날 때만 해도 그녀가 살아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 그 이후라니…"

"뭐라고? 의아해하는 표정이군."

"무엇이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지 고작 다섯, 여섯 시간 전인 오늘 밤의 일이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파트리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단호한 말을 듣기 위해선 무엇이든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노인을 잡아 눌러 벌주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단속하며 다시 물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말은 소용없습니다. 저 여자한테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숨이 턱 막힐 듯 끊어지곤 했으며, 마치 야본의 손이 다시 한번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파트리스는 몸을 굽혀 그에게 다가갔다.

"들으마. 하지만 제발, 서둘러라!"

"이제 말하지…" 시메옹이 말했다. "곧… 코랄리가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직 하나뿐인 조건, 파트리스."

"나는 받아들일게. 그건 무엇인가?"

"듣거라, 파트리스. 너는 그녀의 머리를 걸고 내게 맹세해야 해. 금을 손에 넣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말이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마."

"맹세했군, 좋소. 하지만 저놈… 저 저주받은 동료가… 우리를 따라올 거요. 그가 보게 될 거요."

"그렇소… 하지만 네가 동의한다면…"

"무엇에? 아! 제발 부탁이오!"

"이것에… 들어보게. 하지만 코랄리를 구하러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파트리스는 왼쪽 다리를 구부린 채, 거의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럼… 오라," 그가 적을 향해 반말을 하며 말했다. "오라, 코랄리가…"

"그래, 하지만 그 남자가…"

"하! 코랄리가 먼저야!"

"뭐라고? 그가 우리를 보면 어쩌지? … 내게서 금을 빼앗으면 어쩌지?"

"상관없잖아!"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파트리스! … 금이야! 모든 게 금에 달려 있어! 이 금이 내 것이 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과거는 이

미 끝났지. … 증오도, 사랑도, 이제 내게는 금뿐이야. 금 주머니들 말이야. 코랄리가 죽고, 온 세상이 사라져도 상관없어. 나는 죽음을 택할 거야."

"그래,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파트리스는 이 남자의 팔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이 남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파트리스는 이때만큼 격렬하게 아버지를 증오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온몸을 다해 아버지를 애원하고 있었다. 만약 노인이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거라 믿을 수 있었다면,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것 하나요. 들어보세요. 저기 있죠, 맞나요?"

"작업장에?"

"그렇다면 … 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뭐라고?"

"아니야. 우리가 일을 끝내기 전까지, 그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해."

"간단해. 잘 들어봐.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지. 자물쇠는 부서졌지만, 문고리 잠금장치가 두 개나 달려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해했지?"

파트리스가 반발했다.

"당신 미친 거예요? 내가요?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코랄리까지 구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몰라. 생각해보라구. 만약 그가 없었다면,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코랄리는 자유로웠을 거야. 너도 동의하지?"

"왜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도적일 뿐입니다. 천박한 악당 말이에요. 오직 수백만 프랑을 빼앗는 일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겠다고요? 제발, 파트리스.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너도 동의하지?"

"아니요. 천 번이고 아니라고요."

"그럼 코랄리는 안됐지만 어쩔 수 없군. 그래, 네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 파트리스, 때가 됐어. 아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

"아, 입 다물어 주세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해. 네가 책임을 져야 해. 그 저주받은 흑인 놈이 나를 쫓아올 때, 나는 코랄리를 어떻게든 치워버렸어.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녀가 해방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리고 또…… 너도 알고 있는 일이 발생했지. 밤 열한 시였어. 이제 거의 여덟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 생각해 봐."

파트리스는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비틀었다. 그는 이런 고통이 한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다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시메온은 멈추지 않고 잔인하게 계속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내게 맹세할게… 겨우 조금의 공기만 간신히 들어올 뿐이야… 게다가 내가 묻는 건, 그녀를 덮고 보호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하는 거야. 그러니 그녀는 질식하고 있어… 질식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지. 자, 이 남자 한 명을 십 분간 가두는 게 너한테 무슨 손해가 된다는 거야?… 고작 십 분간, 알겠지?… 넌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그녀를 죽이는 거야, 파트리스. 생각해 봐… 살아서 묻히는 거라고!"

파트리스는 결의를 다지며 몸을 일으켰다. 이때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행동이라도 그가 꺼리지 않았을 것이다. 시메온이 요구한 것은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원하시든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다. "명령하세요."

상대방은 속삭였다.

"네가 잘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너무도 간단한 거야. 문까지 가서 잠그고 다시 오기만 하면 돼."

"마지막 조건이오? 다른 건 없소?"

"없소. 당신이 그 일을 해내면, 코랄리는 곧바로 석방될 거요."

장교는 결의에 찬 걸음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가로질렀다. 작업장 안쪽에서는 빛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망설임도 없었다.

문을 세게 닫고, 빗장을 두 개 모두 꽂은 뒤 그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열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엄중한 의무를 다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됐소. 서둘러요."

"도와주시오. 제가 일어설 수가 없소."

파트리스는 노인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노인은 다리가 떨리고 있었기에, 파트리스는 그를 부축해야만 했다.

"아, 저주라니. 그 저주받은 흑인이 나를 무너뜨렸어. 숨이 막혀. 걸을 수도 없게 됐어."

시메온이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파트리스는 그를 거의 들어 나르듯 했다. 시메온은 기력이 다해 비명처럼 말을 이어갔다.

"여기로… 지금 바로 직진으로…"

그들은 별장 모퉁이를 돌아 묘지 쪽으로 향했다.

"문 꼭 잠갔지? 확신해?" 노인이 계속 물었다. "맞지? 내가 들었어… 아, 그 녀석이 무서워. 경계해야 해… 하지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맹세해.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코랄리를 두고 맹세해. 네가 맹세를 저버린다면, 그녀가 즉시 죽기를!"

그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폐부까지 숨이 스며들게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이제 평온할 수 있겠지? 더구나 넌 금을 좋아하지 않잖아. 그럼 왜 말을 하겠어? 어쨌든, 입을 다물겠다고 내게 맹세해. 음, 명예를 걸고 약속해… 그게 가장 좋지. 네 명예를 걸고 말이야?"

파트리스는 여전히 그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 이 느린 행군과, 코랄리를 구하기 위해 강요당한 그 기묘한 포옹 같은 자세는 그 장교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그는 이 싫어할 만한 남자의 몸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며, 질식할 때까지 조여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끔찍한 문장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의 아들이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저기요." 노인이 말했다.

"저기? 하지만 그곳은 무덤들이잖아."

"그곳은 내 코랄리의 무덤이고, 내 무덤이기도 해. 그리고 그곳이 바로 목적지야."

그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발자국 자국? 돌아올 때 지워버려. 안 그러면 그 녀석이 우리 발자국을 따라와 여기란 걸 알아챌 테니까."

파트리스가 외쳤다.

"무슨 소리예요! 걱정할 것 없잖아요. 서두릅시다. 그럼 코랄리는 거기 있군요? 깊숙이? 이미 묻혔나요? 세상에, 끔찍하다!"

파트리스에게 지나간 매 순간이 한 시간의 지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코랄리의 생사가 한 순간의 주저나 실수 하나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요구되는 모든 맹세를 다 했다. 코랄리를 두고 맹세했다. 신의를 걸었다. 그 순간이라면 그는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은 신전 아래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 한 손가락을 뻗으며 시메온이 되뇌었다.

"여기야… 바로 아래야…"

"믿을 수 없군요. 묘비석 아래라니?"

"그럼 돌이 들리나요?" 파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혼자서는 들어 올릴 수 없어. 불가능해. 최소한 세 명이 필요해."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반대쪽을 누르면 저절로 들어 올라가. 한쪽 끝에서 힘을 주면 돼."

"어느 쪽?"

"오른쪽이야."

파트리스가 다가가서 '여기에 파트리스와 코랄리가 잠들었다'라고 새겨진 큰 돌판을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었다.

돌판은 단번에 들어 올랐다. 마치 반대편에 추가 달린 것처럼.

"잠깐." 노인이 말했다. "들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다시 떨어질 거야."

"어떻게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철제 막대로 받치면 돼."

"그런 게 있나요?"

"있어. 두 번째 계단 밑에."

세 계단이 발견되었다. 계단은 아주 작은 공간으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사람이 몸을 반으로 굽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파트리스는 철제 막대를 발견했다. 그는 어깨로 돌을 받쳐 든 채 막대를 잡아 일으켰다.

"좋아." 시메온이 다시 말했다.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그 구덩이로 몸을 낮추기만 하면 돼."

"거기가 바로 내 관이 놓여야 할 곳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코랄리 곁에 자주 누워 있던 곳이기도 해. 나는 그곳에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몇 시간씩 머물렀지.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정말이야, 우리 둘이 수다를 떨었거든. 수다를…… 아, 파트리스!"

파트리스는 키가 큰 몸을 좁은 공간에 구부려 넣었다. 그는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며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코랄리 소리는 안 들려? 너와 그녀 사이를 가르는 건 벽 한 장뿐이야. 흙에 가려진 몇 장의 벽돌, 그리고 문 하나. 그 너머는 코랄리의 묘실이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묘실이 있어. 바로 금화가 든 주머니들이 있는 곳이지."

노인은 몸을 숙여 풀밭 위에 무릎을 꿇고 수색을 시작했다.

"문은 왼쪽에 있어. 저기 더 멀리. 못 찾았어? 이상하군. 어서 해. 아, 네가 닿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내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좁아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더 몸을 낮춰 봐. 좋아. 움직일 수 있겠어?"

"네," 파트리스가 대답했다.

"그다지 많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좋아, 계속해 봐, 이 사람아!" 노인이 터져 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외쳤다.

그는 재빨리 몸을 물러났고, 거친 동작으로 철봉을 떨어뜨렸다. 추에 의해 천천히, 하지만 막을 수 없는 힘으로 거대한 돌덩이가 무거우며 떨어졌다.

파트리스는 흙이 뒤섞인 땅속으로 온몸이 파묻혔지만, 위기를 느끼고 일어나려 했다. 시메온이 철봉을 잡아채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파트리스가 비명을 지르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돌덩이가 그를 덮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보잖아, 네 친구와 헤어지게 한 게 옳았다고." 시메온이 외쳤다. "그 녀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연극을 해야 했는지!"

시메온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파트리스는 부상을 입었고, 갇힌 채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몸이 약해져 있었다. 시메온은 그가 무덤 뚜껑을 들어 올릴 체력이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니 그쪽에서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다.

그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섰다. 걸음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고통을 과장한 듯했다. 그는 현관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발자국을 지우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계획을 가진 사람처럼, 그 계획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며, 실행이 끝나면 모든 길이 열릴 것을 알기에 직진했다.

현관에 도착한 시메온은 귀를 기울였다. 안쪽 작업장과 방 쪽에서는 돈 루이스가 벽과 칸막이에 두드리고 있었다.

"완벽하군." 시메온이 비웃었다. "이 녀석도 속았네. 이번엔 이 차례야. 하지만 정말, 이 신사들은 다들 실력이 형편없군."

순간이었다. 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계량기 뚜껑을 열고 열쇠를 돌려 가스를 새어 나오게 했다. 그리고는 파트리스와 코랄리에게는 실패했던 일을, 돈 루이스를 상대로 다시 시도한 것이다.

그제야 그는 자신을 짓눌렀던 막대한 피로감에 굴복했다. 이삼 분간 기절할 듯 쉬었다. 이제 그의 가장 무서운 적도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는 더 행동해야 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별장을 돌아다니며 노란색 안경을 찾아 썼

다. 그리고 정원을 내려가 문을 열고 닫았다. 이어 골목을 통해 부두로 향했다.

이번에는 베르투 공사장을 내려다보는 담장 앞이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마부나 채소 장수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는 자동차를 불러 르기마르 거리로 향했고, 문지기 바셰로의 집으로 갔다.

그는 문간에 서 있는 친구를 발견했고, 친구는 곧바로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 환대에는 노인의 깊은 정과 감동이 배어 있었다.

"아, 시메옹 씨가 오셨군요!" 문지기는 외쳤다.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입 다물어. 내 이름을 부르지 마." 시메온은 문지기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속삭였다. "나를 본 사람이 없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막 일곱 시 반이라, 집안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 그 자식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숨이 막혀 보이세요. 누군가에게 습격당하신 모양인데요."

"그래, 나를 따라오던 그 흑인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라니?"

"저희를 찾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파트리스는요?"

"뭐? 파트리스가 왔다고?" 시메온이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제 밤에 그 친구 한 명과 함께 여기서 도착했어요. 당신보다 늦게요."

"그리고 네가 그에게…?"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때문이군.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가 내 폭로에도 놀라지 않았던 거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코랄리와 함께 있어. 그녀를 구해냈지. 그들 손에 다시 넘겨줬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아니야. 서둘러… 의사를 불러야 해… 시간이 얼마 없어…"

"이 집에 의사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싫어. 전화번호부 있나?"

"여기 있습니다."

"펼쳐서 찾아봐…"

"어떤 이름인가요?"

"제라데크 박사."

"뭐라고요? 말이 안 돼요. 제라데크 박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의 클리닉은 몽모랑시 대로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주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에게 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시메옹 씨. 여권 위조와 가짜 증명서 사건 같은 거요."

"계속 말해 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메옹 씨. 떠나시려는 건가요?"

"계속 말해 봐."

시메온이 전화번호부를 넘기며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이라 연결이 되지 않자, 그는 신문 조각에 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의사가 외출 중이라고 했다. 아침 열 시에나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잘됐군. 어차피 지금 당장 갈 힘도 없었을 테니."

시메온이 말했다.

"열 시에 간다고 전해 줘."

"시메온 씨라고 말씀드릴까요?"

"내 진짜 이름으로 해. 아르망 벨발이라고. 긴급한 일이라고 전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줘."

문지기는 따라 했지만, 전화기를 받으며 탄식했다.

"아, 불쌍한 시메온 씨! 당신처럼 착하고 자선심 깊은 분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내 방은 준비됐나?"

"물론이지요."

"그럼 우리, 누가 보지 못하게 바로 가자."

"우리 모습은 아무도 못 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서둘러. 권총도 챙기고."

"자네 방은? 비워둬도 되나?"

"예… 5분이면 됩니다."

이 방 뒤로는 작은 안마당이 나왔고, 그곳은 긴 복도와 이어져 있었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지하실과 다락방으로 된 작은 집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지나 세 개의 방이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그중 두 번째 방만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마지막 방은 기마르 거리와 평행한 거리로 바로 통했다.

그들은 두 번째 방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시메온은 힘이 다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몸을 일으켰다. 주저앉지 않겠다는, 어떤 일도 꺾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동작이었다.

그가 말했다.

"지하실 문은 잘 잠갔지?"

"네, 시메옹 씨."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은 없었나?"

"아무도요."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의심할 사람은 없겠지?"

"아무도요."

"권총을 줘."

관리인이 총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시메온이 속삭였다.

"내가 총을 쏘면, 소리가 들릴까?"

"절대로요.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

"당신은 쏘지 않으시죠?"

"내가 망설일 것 같으냐!"

"당신을 향해서요, 시메옹 씨? 당신을 죽이시려는 건가요?"

"멍청하긴."

"그럼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방해하고 배신할 만한 사람을 향해."

"누구요?"

"바로 너지, 당연하잖아!" 시메온이 비웃었다.

그리고 한 방의 총성. 그의 관자놀이에 총알이 뚫고 들어갔다.

바셰로 씨가 무거운 덩어리처럼 쓰러졌다. 즉사였다.

시메온은 총을 내려놓은 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굳은 표정을 지켰다. 그는 한 손가락, 또 한 손가락, 여섯 손가락까지 하나씩 펴 보였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처치해 버린 여섯 명을 세고 있었던 걸까? 그레고르, 코랄리, 야본, 파트리스, 돈 루이, 그리고 바셰로 씨.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구원은 물론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그 힘은 없었다.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고, 팔은 허공을 헤매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슴에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은 듯했다.

하지만 9시 45분, 그는 의지의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 위기를 넘기고, 고통을 무시한 채 그는 집의 다른 쪽 출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열 시가 되자, 그는 두 번이나 차를 갈아타고 몽모랑시 대로에 도착했다.

그때는 바로 제라데크 박사가 리무진에서 내려, 전쟁 이후로 클리닉을 차려 놓은 그 화려한 빌라의 계단을 올라서던 순간이었다.

제18장

제라데크 박사의 클리닉은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었다. 정원 안에는 각각의 용도가 뚜렷한 여러 동이 모여 있었다. 그중 빌라는 대형 수술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

박사 자신의 진료실도 이곳에 있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먼저 그곳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간호사의 간단한 검진을 받은 뒤, 그는 독립된 별관 안쪽 끝에 있는 방으로 옮겨졌다.

박사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대략 육십 살쯤 되어 보였다. 외모는 아직 젊어 보였지만, 수염을 깎은 얼굴은 항상 오른쪽 눈에 끼고 있는 모노클 때문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노클이 얼굴 전체를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시메온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전날 밤, 한 부랑자가 그를 습격해 목을 조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는 반쯤 죽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사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때 진작 의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메온이 대답하지 않자, 의사는 계속했다.

"하지만 별일 아닙니다. 살아 계신 걸 보니 골절은 없었던 거죠. 후두 경련일 뿐입니다. 기관 삽관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지시를 내렸다. 환자의 목구멍으로 긴 알루미늄 관을 밀어 넣었고, 그것은 반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의사가 돌아와 관을 빼내고 환자를 살폈다. 환자는 이미 꽤 수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제라데크 의사가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아졌군요. 환자의 경우, 목구멍이 수축되는 억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조금만 쉬시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시메온은 진료비를 물어보고 지불했다. 의사가 그를 문까지 배웅하는데, 시메온이 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은밀한 어조로 속삭였다.

"저는 알부앙 씨의 친구입니다."

의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시메온은 재촉했다.

"아마 그 이름은 당신에게 낯설겠군요. 하지만 모스그라넴 씨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는 금방 뜻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으로요?" 의사의 얼굴은 놀람으로 더욱 굳어졌다.

"자, 의사 선생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둘만 있습니다. 문은 모두 이중이고 방음 처리도 되어 있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의사 선생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빠를 겁니다. 긴 면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몇 마디만 나누면 됩니다. 함께 앉아 봅시다."

그는 단호하게 자리에 앉았다. 의사는 점점 더 놀란 표정으로 그와 마주 앉았다.

시메온은 별다른 서두 없이 곧장 입을 열었다.

"저는 그리스 국적입니다. 그리스는 지금까지 중립을 유지해 왔고, 심지어 우호국이지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를 빠져나갈 여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함께 찾아보죠. 그리고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아무런 위험 없이 무사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분노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메온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했다.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제발요. 문제는 돈이죠? 맞습니까?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의사는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시메온은 항의하지 않았다. 모자를 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2만 프랑이면 충분합니까?"

"불러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야 하나요?"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차분하게, 숫자 하나하나 사이에 긴 침묵을 두며 말했다.

"삼만? … 사만? … 오만? 오호, 오호! 더 많이?"

"대단한 게임이군요, 그렇군요. 깔끔한 숫자요. 자, 갑시다. 하지만 아시죠, 정해진 숫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걸요. 단순히 제게 문제될 여지가 없는 여권을 발급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친구인 모스

그라넴 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를 빠져나갈 수단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게다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요. 결국, 저는 흥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니 결정하셨습니까, 의사 선생님? 십만?"

제라데크 의사는 그를 오랫동안 내려다보더니, 재빨리 문고리를 잠그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말해 봅시다."

"저도 그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제 질문을 반복합니다. 십만 프랑으로 합의된 건가요?"

"합의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만 상황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십만 프랑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잠시 주저했다. 이 남자가 좀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의사는 곧바로 물었다.

"성함을 여쭤도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럼, 이십만 프랑이지."

"뭐?"

시메온이 깜짝 놀랐다.

"젠장! 자네는 정말 냉정하군. 그 액수라니!"

제라데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락할 의무가 어디 있나? 우리는 협상을 하는 거야. 자네는 자유지."

"그래도 자네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준다면,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나?"

"아주 중요하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첩자를—이건 엄연히 탈옥이니까—탈옥시키는 거라 위험이 비교도 안 되게 크거든."

"나는 첩자가 아냐."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제 집에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체도 감추신 채로요. 게다가 사라지려는 마음이 그토록 급해서 십만 프랑을 지불할 준비까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직한 신사인 척 하

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직한 신사는 도둑이나 살인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노인 시메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분명히 그는 제라데크가 만만찮은 상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게 접근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계약은 조건부였다.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余地가 남아 있었다.

"오호, 오호!" 그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날카로운 말을 하시는군요."

"말장난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추측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고, 제 주장을 정당화할 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요. 다시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합의한 대로 진행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모스그라넴 여사의 친구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혹시 그쪽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모스그라넴 여사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고요."

의사는 약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사실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많은 것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모스그라넴 여사는 그 호의를 비싼 값으로 치르게 하는, 매력적인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자리에 고요함이 흘렀다. 노년의 시메온은 대화 상대를 마주할수록 점점 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졌다.

마침내 상대가 입을 열었다.

"제가 지나치게 간섭한 것 같아 불편하시군요. 모스그라넴 씨와 당신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그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모스그라넴 씨!"

"왜 그녀를 그렇게 부릅니다?" 시메온이 물었다.

"왜요? 바로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요."

"전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끔찍한 비극을 모른다고요?"

"그녀가 떠난 뒤로 편지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아……. 저는 어제 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모스그라넴 부인!"

"네, 맞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까지 만나자고 했죠…… 아주 이상한 약속이었어요."

"어디서?" 시메온이 뚜렷한 불안감을 드러내며 물었다.

"당신이 천재라 해도 맞히기 힘들 거요."

"빨리 말하시오!"

"강에 정박해 있는 뱃집에서요."

"뭐?"

"네, '논샬랑트'라는 이름의 뱃집이었어요. 파리 서쪽, 베르투 공터 옆 파시 부두에 묶여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시메온이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지 서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시오? '그레고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레고르…… 남자 이름이군요." 노인이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남자 이름이죠. 여기 편지가 있어요. 보시죠. 그 여자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며, 자신의 재산을 함께한 남자를 경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 그쪽까지 가 봤나?"

"갔지."

"언제?"

"오늘 아침. 여기서 전화할 때 난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불행히도…"

"불행히?"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이미?"

"그래. 그레고르 씨, 아니, 모스그라넴 씨가 죽어 있었지."

"죽었다니!"

"목이 졸려 죽은 거야."

"무서운 일이군." 시메온이 숨 막힐 듯 떨며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는 게 없나?"

"더 이상? 뭘 말인가?"

"그녀가 말하던 그 남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그 남자?"

"그래. 그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 시메온 디오도키스라는 그리스 사람이지. 그녀가 내게 그의 생김새까지 써 보내줬는데… 나는 대충 읽었어."

그는 편지를 펼치며 두 번째 페이지를 흘끗 보았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이가 꽤 드신 분…… 허리가 굽은 분…… 코를 가리는 스카프를 항상 두르시고, 큰 노란 안경을 쓰신 분."

제라데크 의사는 독서를 멈추고 시메온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의사가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나이가 꽤 드신 분…… 허리가 굽은 분…… 코를 가리는 스카프를 항상 두르시고, 큰 노란 안경을 쓰신 분……"

문장마다 잠시 멈춰 서서,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적발된 증거인지 확인하듯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시메온 디오도키스."

상대는 항변하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순서로 이어지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는 절감하고 있었다.

제라데크 의사는 큰 제스처를 취하며 선언했다.

"바로 그게 제가 미리 예상한 겁니다. 상황이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저에게 치명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즉, 대금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죠?"

"백만 프랑."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시메온이 격분해 외쳤다. "그건 안 돼! 게다가 저는 모스그라넴 여사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여사를 목 졸라 죽인 범인에게 공격을 당했고, 바로 그 범인, 야본이라는 이름의 흑인이 저를 쫓아와 목을 조르더군요."

의사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그 이름을 다시 말해 줘요. 정말 야본이라고 하셨나요?"

"네, 팔이 하나 없는 세네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본과 다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야본을 죽였나요?"

"저는 자위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자를 죽이셨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우연치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창을 나서자마자 저는 불구가 된 병사 여섯 명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거죠. 그들은 바로 동지 야본을 찾고 있었고, 동시에 벨발 대위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위의 친구도요. 그리고 그들이 묵고 있던 집의 여주인도 찾고 있었죠."

"네 사람이 사라졌고, 그 실종 사건을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웠죠. 하지만 잠깐, 그들이 저에게 말한 이름이 있네요. 아, 정말 점점 더 기이해지네요. 시메온 디오도키스, 바로 당신을 지목했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정황이라는 점, 따라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백만 프랑."

이번에는 시메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남자의 발톱에 갇힌 쥐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그를 장난감처럼 놀리고 있었다. 놓아주기도 하고, 다시 잡아챘다. 시메온은 그 죽음의 장난에서 벗어날 희망을 단 한 순간도 품을 수 없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협박이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제스처를 취했다.

"정말 다른 말이 없군요. 협박이죠. 하지만 이번 협박은 제가 기회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멋진 우연이 마침 내 손이 닿는 곳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을 뿐입니다. 당신도 내 자리라면 똑같이 했을 테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나라의 사법 기관과 몇 번이나 마찰을 빚어온 건 아시죠. 우리는 이제 평화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적 기반은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져다준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경찰청에 전화할 거예요. 요즘 저는 거기서 평판이 아주 좋거든요. 그분들에게 몇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시메온은 창문 쪽을, 이어 문 쪽을 힐끔거렸다. 의사가 이미 전화기의 수화기를 쥐고 있었다.

현재로선 어쩔 수 없었다. 양보하는 수밖에. 다만, 나중에 올지도 모를 유리한 상황을 노려야지.

"좋아요." 시메온이 말했다. "어차피 그게 더 나은 선택이죠. 서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합의할 수 있어요."

"제시한 조건으로요?"

"200만 프랑?"

"네.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수단은 제가 가지고 있죠. 미리 다 털어놓는 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탈출과, 당신이 겪고 있는 위험의 종결이잖아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계약금 반은 지금, 나머지는 일 끝난 뒤에 주시오. 여권 문제는 내게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오. 하지만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하시오."

박사는 신원 확인서를 적으려 종이를 꺼내 들었다. 상대방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회색 머리… 수염 없는 얼굴… 노란 안경.' 그러고는 물었다.

"하지만 당신, 내가 받을 돈이 정말 확실한지 어떻게 보증해주시오? 저는 진짜 지폐를 원하오. 가짜가 아닌, 진품 은행권 말입니다."

"당신은 그 지폐를 받게 될 거요."

"그 지폐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소."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말할 수는 있소. 하지만 내가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줘도, 당신은 결코 찾지 못할 거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돈은 그레구아르가 맡고 있었어. 사백만 프랑이지. 그 돈은 거룻배 안에 있어. 같이 가자고. 첫 백만 프랑은 내가 직접 건네줄게."

박사가 탁자를 내리쳤다.

"뭐라고? 다시 해봐."

"그 사백만 프랑이 그 거룻배 안에 있다는 말이야."

"베르투 작업장 옆에 정박해 있고, 모스그라넴 부인이 목이 베여 살해된 그 거룻배라는 거야?"

"그래. 사백만 프랑을 거기에 숨겨뒀어. 그중 한 백만 프랑은 네게 주마."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 그 돈은 받을 수 없어."

"왜? 너 미쳤나?"

"왜? 이미 네 것이 된 걸로 치고 받으면 뭐 하냐?"

"뭐라고?!" 시메온이 놀라 외쳤다.

"그 사백만 프랑은 내 거야. 그러니 네가 내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시메온은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 망상 속에 사는군요. 그 돈이 당신 것이 되려면, 먼저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그걸 가졌다는 거야?"

"가졌지."

"무엇을? 설명해 봐. 당장 설명해, 시메온이 분노에 겨워 이를 갈며 소리쳤다."

"설명하지. 숨겨진 장소란, 못 쓰게 된 낡은 보탱 전화번호부 네 권이었어. 파리용과 지방용, 각각 두 권씩. 이 네 권은 표장 밑이 파여 있어 속이 비어 있었지. 각 권마다 백만 프랑이 들어 있었어."

"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그것들은 선실 옆 작은 창고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음, 지금 여기 있잖아."

"이 선반 위에, 당신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정당한 소유자인 제가 어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 도둑!" 시메온이 분노에 몸이 떨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당신은 그저 도둑일 뿐입니다. 반드시 속은 다 빼앗아 주겠습니다. 악당 같으니라니…"

제라데크 의사는 매우 차분하게 미소를 짓더니, 항의를 하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정말 큰 소리로,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부당한지요. 당신의 정부였던 모스그라넴 부인이 저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정확히 말해 어느 아침, 그녀는 잠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그녀가 저를 그렇게 불렀고, 그 순간에는 저에게 반말을 해

주었습니다. '내 친구, 내가 죽으면……'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유산으로 주마.' 그녀가 죽는 순간, 그 아파트는 바로 그 선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성스러운 유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 시메온은 듣지 않았다. 악마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의사를 향해 몸을 일으켰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요,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둔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메온은 말 없이 그에게 다가섰다.

마침내 노인이 속삭였다.

"그 종이를 저에게 주시오. 내 여권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발급되었는지 보고 싶소."

그가 종이를 찢어 들고는 눈을 빠르게 굴리며 훑어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무슨 이름을 적었소? 무슨 이름을 적었다는 말이오? 그 이름을 붙일 권리가 어디에 있소? 도대체 왜?"

"하지만 당신께서 제 마음대로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라고요… 왜 그 이름을 적었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어본 거야. 시메온 디오도키스라 할 수도 없지. 네가 그 이름이 아니니까. 아망 벨발이라 할 수도 없고. 역시 네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거야."

"그런데 왜 하필 그 이름이냐?"

"글쎄, 그게 네 진짜 이름이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는 듯 몸을 떨었다. 그는 점점 더 몸을 구부리며 의사 쪽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사람뿐이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걸 알아챌 수 있었어."

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의사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정말 한 사람만이 그걸 알아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한 사람뿐이지…." 다시 숨이 가빠지는 듯한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랬듯, 단 몇 초 만에 그 사백만 프랑의 은닉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얼굴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시메온은 입가에 올라온 그 무서운 이름을 꺼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인 앞의 노예와도 같았다. 이미 격투 중에 그 무게를 느껴본 어떤 거대한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선 남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거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말 한마디로 그를 없애버릴 수도, 손짓 하나로 그를 소멸시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용을 지니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담아 속삭였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

"바로 그거야, 뚱보야!" 의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는 모노클을 떨어뜨렸다. 주머니에서 연고 든 작은 상자를 꺼내 얼굴에 발랐다. 찬장 속에 있던 세숫대야에 물을 떠 세수를 하고는 다시 나타났다. 얼굴빛은 맑아졌고, 표정은 미소 띠며 장난기 가득했다. 걸음걸이도 한결 여유로웠다.

"아르센 뤼팽." 시메온은 얼어붙은 듯 중얼거렸다. "아르센 뤼팽… 나는 끝장났어…"

"완전히 끝장났지, 이 멍청한 늙은이야. 정말로 멍청하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내 이름을 소문으로 알고, 나 같은 정직한 인간

이 낳은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해. 너 같은 낡은 도둑놈이 내 앞에서 떨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내가 네 가스 상자 같은 곳에 갇히겠지라고 생각했나?"

뤼팽은 능숙한 배우처럼 거리를 오갔다. 대사를 외우듯, 적절한 곳에 쉼표를 찍듯, 자신이 만들어낸 효과에 기뻐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이다.

그는 결코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듯했다. 자신의 역할을 놓치지 않을 듯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잘 봐. 그때는 네 목덜미를 확 잡아채고, 지금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제5막의 명장면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내 5막이 좀 짧았다는 거야. 나는 연극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대신, 어떻게 됐나? 흥미가 다시 튀어 올랐지. 네 얄팍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싹트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작업실로 가서 전등을 끈 줄에 매달아, 착한 파트리스가 내가 아직 그곳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그리고는 빠져나와서, 파트리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며 신중하게 감옥에 가둔 것이, 뭐였지? 바로 내 전등이었어!"

"이건 뭐, 일품이잖아. 어때?"

"그렇지? 네가 감탄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군."

"그리고 십 분쯤 뒤,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장면, 정말 멋지지 않았나? 물론 나는 작업실과 왼쪽 방 사이의 벽으로 막힌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지."

"하지만 시메온 아저씨, 나는 작업실에 있지 않았어. 왼쪽 방에 있었지."

"시메온 아저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조용히 떠났다. 뒤에는 사형수를 남겨둔 줄로만 알았지."

"완벽한 수완이었지. 어때?"

"나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 네가 끝까지 따라갈 필요조차 없었지. 두 더하기 이가 사라는 게 확실하듯, 네가 경비원 아메데 바세로 씨를 만나러 갈 거란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역시, 너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지."

뤼팽이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 그건 정말 큰 실수였군, 시메옹 아저씨. 덕분에 난 곤경에서 벗어났소. 내가 도착했을 때,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더군. 어떻게 하지? 당신의 흔적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다행히 하늘이 나를 보호해 주셨소. 신문에 실린 조각을 보니, 뭐라고 적혀 있나? 방금 연필로 쓴 전화번호가 있더군. 오호, 좋은 단서가 나왔소.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

었소. 연결되자마자,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방금 제가 전화 드린 사람입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알았지만 주소는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소가 알려졌소. '몽모랑시 대로, 제라데크 박사 댁.'"

"아, 알겠군. 제라데크 박사? 맞지? 먼저 시메온 노인에게 관을 꽂아 주어야 해. 그다음에 여권 문제를 처리할 거야. 제라데크 박사는 가짜 여권 전문가니까."

"오호! 시메온 노인이 도망치려나 보군? 안 돼, 리제트! 나는, 네가 어딘가에서 살해해 버린 가엾은 친구 바셰로 씨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이리로 왔어. 그는 네게 불리할 만한 증인이 될 수도 있었잖아."

"여기서 제라데크 박사를 만났소. 참으로 매력적인 분이셨지. 고민에 시달리며 성격도 부드럽게 변하셨더군. 덕분에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자기 자리를 내주셨소. 조금 비쌌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소? 대강의 인사는 그렇고, 당신의 약속이 열 시였으니, 나는 아직 두 시간이나 여유가 있었소. 그래서 그 선창선을 둘러보고, 백만 프랑을 챙기고, 몇 가지 일을 정리했소.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요."

뤼팽은 노인의 앞에 서서 물었다.

"자, 준비됐소?"

시메옹은 무언가에 빠져 있던 듯 놀라 몸을 떨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요?"

뤼팽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촉했다.

"물론 대장정 준비지. 여권도 문제없어. 파리행, 지옥행. 편도 티켓. 급행 열차. 그리고 침상, 아니 관석. 자, 타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적의 엄습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의 농담이 그를 너무도 깊이 흔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눌한 음절만 뱉어낼 뿐, 제대로 된 말을 건네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힘을 모아 입을 열었다.

"파트리스는요?"

"파트리스?" 뤼팽이 되물었다.

"네. 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그와 관련해 어떤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제 목숨과 그의 목숨을 바꾸겠습니다."

뤼팽은 깜짝 놀란 듯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 목숨과 그의 목숨을 바꾸자는 거죠."

뤼팽은 팔짱을 끼고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놀랍군! 넌 정말 대담하구나. 파트리스가 내 친구라고? 그럼 내가 그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뤼팽이? 내 친구 파트리스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 뤼팽이 네 임박한 죽음을 두고 영리한 농담이나 늘어놓고 있겠어? 시메옹 아저씨, 당신은 점점 추락하고 있군.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쉬러 가실 때야."

그가 커튼을 들어 올리고 문을 열며 불렀다.

"자, 대위님?"

두 번째 호출을 한 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대위님. 다행입니다! 나를 보고 너무 놀라지 않으셨죠? 아니, 절대요. 제발 감사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와 주시겠어요? 우리 시메옹 아저씨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메옹 아저씨는 예우를 받아 마땅하답니다."

그가 노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소. 자식을 버린 아버지."

제19장

파트리스가 들어왔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시메온이 내리친 타격과 돌덩이의 무게가 그의 옛 상처를 다시 터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창백했고, 고통이 심한 듯했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를 본 순간, 그는 끔찍할 정도로 분노에 찬 몸짓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두 남성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뤼팽은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어떤 장면인가! 정말 감동적인 연출이야. 이건 훌륭한 연극이지? 아버지와 아들! 죄인과 피해자! 자, 오케스트라가 시작한다…… 피아니시모의 트레몰로…… 이 둘은 어떻게 할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것인가? 숨 죽인 순간…… 얼마나 고요한가! 오직 피의 목소리만이 호소하고,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가! 드디어 왔다! 피의 목소리가 외쳤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단단히 옥죄기 위해 안아들 것이다."

파트리스는 두 발짝 앞으로 나섰다. 뤼팽이 예고한 그 움직임이 곧 이루어질 참이었다. 장교의 두 팔이 이미 싸움을 위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시메온이 무너졌다. 고통에 지친 그는 더 강한 의지에 눌려 자제력을 잃고 애원했다.

"파트리스…… 파트리스…… 너, 대체 뭐 하려는 거야?"

그는 손을 내밀었다. 적의 자비를 구하는 몸짓이었다. 그제야 발걸음을 멈춘 상대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며, 그 남자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 남자에게는 미스터리하고 풀리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그대로 외쳤다.

"코랄리! 코랄리! 그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 줘. 그러면 목숨은 살려 주지."

노인은 몸을 떨었다. 코랄리에 대한 기억이 그의 증오를 부채질했다. 남을 해치려는 그 분노는 다시금 힘을 얻었다. 그는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아니야. 코랄리를 구한다니? 차라리 죽지. 그리고 코랄리가 숨은 곳은 금이 숨은 곳과 같아. 아니, 절대 안 돼. 차라리 죽을래."

"그럼 죽여버리세요, 대위님." 돈 루이스가 끼어들었다. "그가 그쪽을 원한다면, 죽여버리세요."

장교의 얼굴에 다시 피가 치밀었다. 즉각적인 살해와 복수의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망설임이 충돌을 막아섰다.

"아니, 안 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왜 그래요?" 돈 루이스가 재촉했다. "그렇게 쉬운 일인데! 자, 닭 목 비틀듯 그의 목을 비틀어 버리세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를 질식시키는 게 싫다고요? 혐오스럽다고요? 하지만 전장 위의 보에슈(독일군)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하지만 이 남자는…"

"그건 당신의 손이 거부해서 아닐까요? 이 살점을 쥐고 조이는 생각 때문에요? 자, 대위님, 제 권총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날려 버리세요."

파트리스는 주저 없이 총을 쥐고 노년의 시메온을 겨눴다. 침묵이 무시무시했다. 시메온의 눈은 감겨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장교의 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쏴!" 돈 루이스가 성내며 명령했다.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 내가 이유를 말해줄까, 대위님? 당신은 이 남자를 마치 당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군요."

"아마도요." 장교가 나직이 말했다. "때로는 겉보기가 저를 그렇게 믿게 만들죠."

"그가 비열한 악당이고 강도일진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가 죽든 말든, 제 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럼 복수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숨도 막힐 만큼 끔찍하군요."

돈 루이가 다가가 파트리스의 어깨를 툭 치며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때?"

파트리스가 그를 바라보았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의심이 겉보기나 추측에 기반한 것일 뿐, 그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봐, 네가 느끼는 혐오감이나 꺼림칙함도 말이야. 결국 그 점도 고려해야 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깨끗하고 정직한, 명예와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악당의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파트리스,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말했다.

"파트리스, 그 점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이야. 그 점도 분명 가치가 있어. 맹세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파트리스가 열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내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내 양심을 잘 알고 있지 않소? 이 모든 일에서 내 행동은 오직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동기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소."

"네, 네!" 파트리스 벨발이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나의 대위여, 만약 그 남자가 네 아버지라면, 네가 그를 죽이도록 부추기겠소?"

파트리스는 화가 난 듯했다.

"당신은 확신이 있으신 거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돈 루이스가 이어서 말했다.

"만약 그 남자가 네 아버지라면, 내가 네게 그를 증오하라고까지 말하겠소?"

"아!" 파트리스가 외쳤다. "그럼 그분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돈 루이스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과 점점 고조되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천 번이라도 아니라고요! 그 녀석을 보시오. 저 흉악한 얼굴을 보라고요. 저 야수 같은 얼굴에는 모든 죄악과 악덕이 새겨져 있소. 이 사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범죄가 하나도 없소. 하나도 말이요.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두 명의 범죄자가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소. 지옥 같은 일을 시작하는 에사레스와, 그 일을 마무리하는 노년 시메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소.

범죄자는 단 한 명뿐이요, 오직 한 명뿐이오, 파트리스. 바로 그 녀석이오. 우리 눈앞에서 야본을 죽이고, 문지기 바셰로를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공범까지 죽인 그 강도가 바로 그 범죄자요. 그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그 음흉한 일을 시작해 이미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죽이고 있었소.

그중 한 명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요, 파트리스. 당신이 피와 살로 이어진 혈육인 사람을 죽인 것이오."

"누구라고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트리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최후의 비명을 들었던 그 남자를 말이야. 네 이름을 부르며 너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남자를. 그자가 바로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그 남자는 바로 네 아버지, 파트리스! 아르망 벨발이야. 이제야 이해가 가나?"

파트리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돈 루이스의 말은 어둠 속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을 강타하는 끔찍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신 거였나요?"

"그건 네 아버지가 맞았지, 파트리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남자는……."

"바로 이 노인이야." 돈 루이스가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메온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눈만 허공을 응시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비참한 죄수처럼 굳어 있었다.

파트리스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분노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다.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정리되면서, 그 기쁨은 점점 커져 그의 온 마음을 채웠다.

이 더러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진짜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오히려 그게 낫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정당한 분노로 그를 미워할 수 있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누구냐?"

그가 돈 루이스에게 물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간곡히 부탁하오. 그를 짓밟기 전에, 그의 이름을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이름이라고? 이름이라니. 어떻게 아직도 짐작하지 못했느냐?"

"나 역시 오랫동안 그 정체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가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도대체 무슨 가설이라는 거요? 무슨 생각이라는 겁니까?" 파트리스가 격분하며 외쳤다.

"알고 싶으냐?"

"제발 말씀해 주시오! 그놈을 즉석에서 처단하고 싶지만, 먼저 그놈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섰다.

하지만 돈 루이스는 아마도 진실을 밝힐 시기를 아직 미뤄야 한다고 느꼈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군, 파트리스. 하지만 정작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네가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파트리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둬. 인생도 연극과 같아서, '극적인 반전'이 효과를 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

"내가 반전을 부리려는 건 아니야. 다만, 너에게 한 남자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이 심어주려는 거지. 그 남자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시메온 디오도키

스도 아니야. 비록 그 남자가 시메온 디오도키스의 외모와 특징, 신분, 심지어 삶까지 모두 빼앗아 썼다고 해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나? 방금 내가 한 말을 다시 반복해야 하나? '우리는 이 싸움 동안 두 명의 범죄자를 상대한 게 아니었다. 지옥 같은 일을 시작할 에사레스도, 마무리하기 위해 늙은 시메온이라 자칭한 자도 없었다.'"

"있었던 건 단 한 명의 범죄자뿐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 숨 쉬며, 항상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는 가차 없이 제거하고, 필요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뒤집어쓰고, 그들의 모습을 빌려 저주받은 일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가 가는가? 내가 이 거대한 사건의 핵심, 즉 음모를 꾸미고 모든 장애물과 동맹자들의 치열한 반대를 뚫고 목적을 향해 사건을 몰고 간 장본인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대줘야 하나? 파트리스, 네가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려라."

기억만 더듬지 마라. 첫날의 기억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파고들어야 해. 코랄리가 과거에 대해 들려준 모든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누가 이 모든 악행의 주범인가? 네 아버지와 코랄리의 어머니, 코랄리 자신, 파키 대령, 그레구아르, 야본, 바셰로, 그리고 모두를 괴롭힌 단 하나의 악당, 단 하나의 도적, 단 하나의 살인자, 그리고 모든 악의 원천이 된 천재는 누구인가?

자, 자. 네가 거의 알아챈 것 같군. 진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유령이 네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 남자의 이름이 네 머릿속에서 싹트고 있단다. 추악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진정한 정체가 형체를 갖추며, 가면이 벗겨지고 있지.

이제 너 앞에는 범인 자신이 서 있어. 즉, ……

그 두려운 이름을 입에 올린 이는 누구였을까. 돈 루이스가 확신의 열정으로 외쳤을까. 아니면 파트리스가 새로 생기는 신념의 주저함과 놀람을 섞어 부르던 걸까.

하지만 장교는 달랐다. 엄숙한 침묵 속에 네 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진술이 어떻게 단순한 진실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그 진실을 즉각 받아들였다. 가장 분명한 사실들로 증명된 것처럼, 이의 여지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코 생각지 못했던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다. 그 이름은 가장 불가사의한 문제의 해설을,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에사레스 베이…… 에사레스 베이……"

"에사레스 베이, 다시 말하지만 에사레스 베이. 네 아버지를 죽인 자, 그리고 말하자면 두 번에 걸쳐 죽인 자. 예전에 별장에서 네 아버지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모두 앗아갔고, 며칠 전에는 서재에서, 네 아버지 아르망 벨발이 너에게 전화를 걸고 있던 바로 그때 죽인 자. 에사레

스 베이, 코랄리의 어머니를 죽이고 코랄리를 찾아볼 수 없는 무덤에 묻어 버린 자.”

이번에는 살인이 확정되었다. 장교의 눈에는 꺾이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의 살인자이자 코랄리의 살인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 죽어야 했다. 임무는 명확하고도 정확했다. 끔찍한 에사레스는 아들이자 약혼자의 손으로 죽어야 했다.

“기도해라.”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열 초 뒤면 너는 죽어 있을 거다.”

그는 그 초를 세기 시작했다. 열 번째 초에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때 적은 기이할 정도로 거친 에너지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늙은 시메온의 외양 아래 아직 젊고 건강한 남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놀랄 만큼 격렬하게 외쳤고, 그 목소리에 파트리스는 잠시 주저했다.

“그래, 나를 죽여라! … 그래, 이 모든 것을 끝내자! … 나는 졌다. 패배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건 승리다. 코랄리가 죽었고, 내 금은 살아남았으니까! … 나는 죽겠지만, 그 누구도 그걸 가질 수 없다. 그 여자도, 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도, 내 생명이었던 그 금도. 아, 파트리스, 파트리스! 우리 둘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을 뿐이야. 내가 그녀를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도 가질 수 없어, 파트리스. 내 복수는 그 역할을 다 했어. 코랄리는 망했어! 코랄리는 완전히 망했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야수 같은 힘을 되찾았다.

그 맞은편에 선 파트리스는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잠시 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끔찍한 말들을 듣기 위해서였다.

"패배했소, 파트리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완전히 졌소! 어찌할 도리가 없소. 내가 금화 주머니와 함께 땅속에 묻어둔 그 시체는, 당신도 절대 찾지 못할 거요.

무덤 판석 아래? 아니, 내가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오. 파트리스, 당신은 그녀를 다시는 찾지 못할 거요. 금화가 그녀를 질식시켰소. 그녀는 죽었소. 코랄리가 죽었소!

이걸 당신의 얼굴에다 던져주고 싶었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상상해 보니, 정말 짜릿하오. 코랄리가 죽었소! 코랄리가 죽었소!"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시오. 그녀가 깨어날 테니까." 돈 루이스 페레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금속 케이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고르게, 그리고 소용돌이치듯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평범한 경고라도 하듯 보였다.

그러나 뜻밖의 그 짧은 말 뒤로 경악이 밀려왔다. 그 경악은 두 대립자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파트리스는 팔을 축 늘어뜨렸다. 시메온은

기절할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둘 다 뤼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기에,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트리스에게 모호한 말장난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단어들은 부족했다. 그에게는 확실함이 필요했다. 목소리가 떨리며 그는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를 깨우시려는 건가요?"

"저런!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 남들이 깨어난다니까!" 돈 루이가 말했다.

"그럼 코랄리는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인가?"

"죽은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비록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살아 있는 사람만 깨우는 거지."

"코랄리는 살아 있다! 코랄리는 살아 있다!" 파트리스는 자신을 변모시킬 듯한 흥분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여기 있는 건가? 오, 제발 그 사실을 확언해 주시오. 당신의 맹세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겠지? 그렇지?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은 장난을 친 걸까?"

돈 루이가 답했다.

"대위님, 방금 그 비열한 자에게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성하기도 전에 제 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

위님, 제 성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손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제 습관이고, 더구나 그 습관이 제게 유리하니까 더더욱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는 방 안의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파트리스가 잠시 전에 들어갔던 문을 가리던 커튼과 대칭을 이루는 다른 커튼이 있었다. 그는 그 커튼을 들어 올렸다. 그 뒤로 두 번째 문이 숨겨져 있었다.

파트리스 벨발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는 여기에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실망이잖아요… 저에게 맹세해 주세요…"

"저는 어떤 맹세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위님. 그냥 눈만 뜨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에, 프랑스 장교가 이런 차림새라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군요. 맞아요, 바로 그녀예요. 코랄리 어머니께서요. 그녀는 이 침대에서 두 경비병의 보살핌을 받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상처도 없고, 열이 조금 나는 것과 극도의 피로증상뿐이죠. 불쌍한 코랄리 어머니, 저는 그녀가 지치고 멍한 상태 외에는 본 적이 없네요."

파트리스는 기쁨에 넘쳐 다가가려 했지만, 돈 루이스가 그를 막았다.

"됐습니다, 대위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녀를 집으로 모시지 않고 여기로 데려온 것은, 환경과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

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충격을 받았고, 지금 나타나시면 모든 것을 망쳐 놓을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파트리스는 말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그녀가 살아 있다는 말씀이오?" 돈 루이스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이나 나나, 그리고 당신에게 마땅한 행복을 줄 준비가 된 그녀가요. 이름도 바뀔 테니 말이에요. 파트리스 벨발 부인이 되겠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위님. 결국 그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요."

그는 문을 닫고 파트리스를 에사레스 베이 앞으로 다시 돌려세웠다.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대위님. 이번엔 각오가 되셨나요? 코랄리 어머님과 당신 사이에, 그 비참한 남자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할 셈이오?"

에사레스는 옆방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돈 루이스 페레나의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구부정한 채, 힘도 기력도 없이 의자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돈 루이스가 그를 부른다.

"자네, 친구. 자네 얼굴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무서운가? 왜 그런 거지? 내가 약속하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먼저 뜻을 모으고, 우리 셋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노라."

"이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군, 그렇지? 우리 셋이 자네를 심판할 거야. 지금 당장."

"카피탱 파트리스 벨발, 돈 루이스 페르냐, 그리고 노신사 시메온이 법정을 연다. 변론은 시작한다. 에사레스 베이 씨를 변호할 사람은 없나? 없군."

"에사레스 베이 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감경 사유는 없다. 상고도 없다. 사면 청원도 없다. 집행 유예도 없다. 즉각 처형이다. 판결 선고!"

그는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보라니까, 시간이 안 걸린다고. 만장일치였어, 하하! 만족스러운 판결이고,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결과야. 이제 남은 건, 어떤 방식으로 죽일지를 정하는 거야. 네 생각은 어때? 권총 한 방? 좋군. 깔끔하고 빠르니까. 벨발 대위, 당신의 차례입니다. 과녁은 제자리에 있고, 여기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파트리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힌 그 추악한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증오가 그의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을 거야."

"당신이 옳아요." 돈 루이스가 동의했다. "결국 당신이 맞고, 당신의 양심은 당신을 빛나게 하네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 그 남자를 죽일 권리는 당신에게 없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당신은 죽이는 게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 짓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요, 친구,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줄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어."

돈 루이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에사레스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 비참한 자는 들었을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기나 한 걸까? 그는 의식을 잃은 듯, 의식이 없는 듯 보였다.

돈 루이스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에사레스가 신음했다.

"금… 금 주머니들이…"

"아, 그걸 생각하는군, 늙은 도적. 그게 당신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야?"

돈 루이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맞다. 그 얘기를 깜빡했네. 너도 그거 생각했지, 늙은 도둑놈! 흥미진진하지? 자, 내 친구, 주머니 속에 금화 주머니들이 들어 있어. 주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천팔백 개의 금화 주머니 말이야."

남자가 반박했다.

"은신처가…."

"네 은신처? 하지만 그건 이제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증명할 필요도 없지, 코랄리가 여기 있잖아? 코랄리가 금화 주머니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는 걸 네가 알면, 당연히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겠지. 그러니까 넌 완전히 끝장이야. 네가 원하던 여자는 자유롭고,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자유롭다는 거야. 그녀는 그 남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보물이 발견되었지. 그럼 끝이야, 그렇지?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 거야? 자, 해방의 선물이야."

그가 권총을 내밀었다. 다른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 뤼팽을 향해 조준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총구가 아래로 처졌다.

"완벽하군." 돈 루이스가 말했다. "네 양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그 팔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통하는군. 네가 하려는 그 행동이 네 썩어빠진 삶을 속죄할 거야, 늙은 도적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남는 건 오직 하나, 죽음뿐이야. 그것이 마지막 피난처지."

그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약해진 손가락이 권총 손잡이를 감싸도록 한 뒤, 총구를 에사르스의 얼굴을 향해 겨눠 들었다.

"자, 용기를 내보게. 네가 결심한 일은 아주 잘한 거야.대위와 내가 너를 죽이는 것으로 치부를 더럽히기를 거부했으니, 너는 스스로 행동하기로 한 거지. 감격에 찬 박수를 보낸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에사레스는 한낱 늙은 악당일 뿐이지만, 죽을 때는 우아하게, 영웅처럼, 입가에 미소를 띠고 꽃을 꽂고 죽을 거야.'"

"아직 조금은 저항하는 기색이 있지만,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어. 한 번 더 축하해. 네가 그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건 정말 멋져. 네가 이 세상에 군더더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지? 파트리스와 코랄리의 방해가 될 테니까……. 맞아, 남편이란 늘 걸림돌이 되는 법이야. 법도 있고, 사회적 관습도 있고……. 그래서 넌 물러나기로 한 거지. 용감한 사람! 넌 진짜 신사야. 그리고 네가 옳아. 더 이상 사랑도, 더 이상 금도 없어! 금이 없어, 에사레스! 네가 탐내던 빛나는 동전들, 그걸로 따뜻하고 안락한 삶을 꾸며보려던 것들, 다 사라졌지……. 아니, 결정적으로 사라지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에사레스는 간신히 저항할 뿐이었다.

무력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돈 루이스가 옳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한 걸까.

총구가 그의 이마로 올라갔다.

총열이 측두부에 닿았다.

그는 차가운 강철의 접촉에 전율하며 비명을 질렀다.

"용서하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돈 루이스가 말했다.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선 안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만약 네가 내 가엾은 야본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또 다른 결말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넌 나한테 너 자신만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너는 죽어야 해. 네가 옳아. 내가 너를 막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여권은 이미 준비됐어. 주머니에는 티켓도 들어 있고. 이제 물러설 길은 없어. 저쪽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알아두어라. 지루해할 각오는 해야 해. 가끔 지옥을 묘사한 그림을 본 적 있나? 지옥에서는 각자 거대한 돌덩어리가 덮힌 무덤 속에 갇혀 있어.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저마다 제 등으로 받쳐서, 아래에서 치솟는 불꽃을 피해야 해. 진짜 불탕이지. 그러니 지루할 틈이 없어. 하지만 돌덩어리는 계속 내려앉아. 불꽃은 치솟고. 미스터의 불탕이 준비된 셈이야.

그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 비참한 자의 검지를 권총 손잡이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방아쇠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에사레스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죽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네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점을 명심하게. 자네 마음먹기에 달렸지. 나는 관여하지 않아. 절대 자네에게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는 건 자네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조언하고 도와주려는 거야."

사실 그는 엄지를 놓았고, 팔만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와 에너지 전부를 에사레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파괴하려는 의지, 소멸하려는 의지, 그리고 에사레스가 벗어날 수 없는 굴복할 줄 모르는 의지였다.

매초마다 죽음이 이 움직이지 않는 몸속으로 조금씩 들어와, 본능을 해체하고 생각을 어둡게 했으며, 거대한 휴식과 무활동에 대한 갈증을 안겨주었다.

"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술기운이 뇌를 타고 오르는 거야. 거의 쾌감에 가까워, 그렇지? 얼마나 해방되는지 모른다.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 네가 가질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금에 대해, 그리고 다른 남자의 것이 되어 그 남자의 입술과 매력적인 온몸을 내줄 그 여자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생각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그 두 연인의 무한한 행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지? 그럼…"

비참한 남자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비겁함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는 사람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힘, 운명처럼 강력하고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마주하고 있었다. 현기증이 그를 어지럽혔다. 그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자, 가 봐라. 잊지 마라. 넌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에사레스 베이로 장례를 치르고 묻혔잖아, 친구.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사법 체계의 손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필요하면 그 사법 체계를 이끄는 사람도 나야. 그러니 감옥, 아니면 단두대. 단두대야, 친구. 음… 차가운 새벽바람… 내려치는 칼날."

모든 것이 끝났다. 에사레스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갔다. 사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쳤다. 돈 루이의 의지가 그를 관통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파트리스를 돌아보며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파트리스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팔짱을 낀 채, 그는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벌은 마땅한 것이었다. 운명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었다. 파트리스 벨발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자, 해봐… 별것 아니야. 그냥 큰 휴식일 뿐이지. 이미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잊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지… 네가 잃어버린 그 금에 대해 생각해 봐… 삼억 프랑이 물거품이 되었잖아… 그리고 코랄리도 잃었지. 어머니든 딸이든, 그 누구도 네 것이 되지 못했어. 이런 세상에서 삶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해. 차라리 탈출하는 게 낫지. 자, 조금만 힘을 내. 작은 동작 하나만…"

이 작은 동작을 그 무법자가 실행에 옮겼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터졌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쓰러져,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돈 루이스는 박살난 머리에서 솟구친 피에 튀지 않으려고 몸을 옆으로 피했다.

"헛! 저 자식의 피라니? 내게 불운을 가져다줄 뻔했군. 하지만, 세상에, 저런 개쌍놈이 또 어디 있나. 내가 이번에도 착한 일을 하나 했구나. 이 자살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이 생겼어. 오, 나는 요구가 많지 않아. 그림자 속의 작은 의자만 주면 돼. 하지만 그건 내 권리야. 어떻게 생각해, 선장?"

제20장

그날 저녁, 파씨 부두를 걷고 있던 파트리스였다. 시각은 여섯 시를 조금 앞두고 있었다. 가끔 전차나 트럭이 지나갈 뿐, 산책객은 거의 없었다. 파트리스는 거의 혼자였다.

그는 아침 이후로 돈 루이스 페레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다만, 돈 루이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야본을 에사레스 호텔로 옮기고, 그 뒤 베르투 공사장 위층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해 가고 있었다. 파트리스는 이 만남을 기대하며 설렜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는 진실을 대략 짐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둠은 깊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았다.

드라마는 끝났다. 커튼이 떨어졌다. 도둑의 죽음으로 막이 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겨진 함정을 경계할 필요도 없었다. 강력한 적도 무너졌다.

하지만 파트리스 벨발은 그 드라마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쏟아져 들어올 그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또 얼마나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의 몇 마디 말만 있으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 믿기 힘든 자, 뤼팽의 몇 마디 말만 있으면 모든 비밀이 해결될 거야.'

그와 이야기하면 짧고 명확할 것이다. 그는 한 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

파트리스는 생각했다.

그는 금의 비밀을 가지고 떠날 것인가? 삼각형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금을 어떻게 혼자 간직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가져갈 것인가?

트로카데로 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속도를 줄이더니, 인도 옆에 멈췄다. 돈 루이스가 분명했다.

하지만 파트리스는 큰 놀람을 금치 못했다. 데말리옹 씨가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밀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대위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약속 시간 딱 맞춰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라도 다시 다치셨습니까?"

"네… 별일 아닙니다." 파트리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어떤 약속 말씀이십니까?"

"뭐요? 저랑 약속하신 거요!"

"저는 당신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 오! 이것은 무슨 뜻이오?" 데말리옹 씨가 말했다. "여기, 경시청에서 받아온 메모가 있소. 내가 읽어주마."

"'벨발 대위의 명의로, 데말리옹 씨에게 알립니다. 삼각형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천팔백 개의 자루는 귀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권 위임을 받아 저녁 여섯 시, 파시 부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 스무 명의 튼튼한 순경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중 절반은 에사레스 소유지 백 미터 앞에, 나머지 절반은 백 미터 뒤에 배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명확합니까?"

"매우 명확합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한 일이오?"

"그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 수수께끼들을 손쉽게 풀어냈고, 필히 직접 찾아와 해답을 가져다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호, 전쟁 중이라니.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겠군요."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

데말리옹 씨 뒤에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지만 있으면 될 일입니다."

데말리옹 씨와 파트리스는 돌아보았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목에는 높은 칼라가 둘러져, 마치 영국식 성직자 같은 차림새였다.

"제가 말씀드린 친구입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그는 돈 루이스를 알아보는 데 다소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그를 소개했다. "그는 제게, 그리고 약혼녀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제가 그를 보증합니다."

데말리옹 씨는 인사를 건넸고, 곧이어 돈 루이스가 약간의 억양을 섞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시간 모두 소중합니다. 저도 오늘 밤 파리를 떠나 내일 프랑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끝난 이 사건의 주요 전개를 따라오셨으니, 벨발 대위가 당신이 아직 모르실 부분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게다가 선생님 같은 전문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론, 아직 모호한 몇 가지 점도 금방 밝히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야본이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오늘 밤 적과 치열하게 싸우다 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체 세 구도 발견했습니다. 그레고리, 본명은 M 모스그라넴 씨의 시체가 이 수상 가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샤로 씨의 시체는 기마르 거리 18번지 건물 어딘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모랑시 대로에 있는 제라덱 의사의 클리닉에는 시메온 디오도키스 씨의 시체가 있습니다."

"늙은 시메온?" 데말리옹 씨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시메온이 자살했습니다. 벨발 대위가 그 인물과 그의 진짜 정체성에 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려줄 테니,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게 좋다고 결론 내릴 겁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넘어갑시다. 당신이 서 있는 특별한 관점에서 볼 때, 저것들은 모두 사소한 뒷이야기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 그리고 당신이 직접 발걸음을 옮겨 준 이유, 그것은 금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합시다. 당신도 요원들을 데려왔습니까?"

"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당신이 숨겨진 장소의 위치를 알려준다 해도,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찾아낼 수 없는 곳일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밀은 유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어쨌든——돈 루이스는 이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잘라 말했다——어쨌든 이건 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데말리옹 씨가 미소 지었다.

"그건 이미 받아들여진 조건이죠. 우리 요원들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 어떤 권력을 부여받는다 해도 그것이 충분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다음은 봅시다."

"이렇습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가 평정된 어조로 말했다. 마치 가장 하찮은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는 냉정하게도 놀라운 제안을 꺼냈다.

"선생님, 두 달 전 제 동양 관계와 오스만 제국 내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현재 터키를 주도하는 세력이 별도의 평화안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몇억 프랑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제가 그 제안을 연합국 측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죠."

"이 작은 외교적 실패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데말리옹 씨는 완전히 당황한 나머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장엄한 어조를 띠었다.

1915년 4월 현재, 연합국과 유럽의 마지막 중립 강대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협상은 임박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 전체가 열광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일고 있는 질문 중,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돈 문제다.

이 강대국은 우리한테 금화 3억 프랑의 대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절해도 이미 내려진 결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 금화 3억 프랑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이 돈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쓰겠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조건이자, 사실 유일한 조건이다.

데말리옹 씨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세계 대전이라는 거대한 갈등의 종결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다루며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죠."

"각자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데말리옹 씨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제발 좀 생각해보십시오. 당신 스스로도 그 세력이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합의가 며칠은 늦어질 겁니다."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시간의 차이입니다."

"도대체 왜요?"

"당신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모릅니다. 나만 빼고, 그리고 여기서 오백 리외(약 2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몇몇 사람만요."

"어떤 이유죠?"

"러시아군이 탄약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말리옹 씨는 성이 나서 어깨를 으쓱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믿기 힘든 황당한 이야기였다.

"러시아군은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저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몇 시간 안 있어 그 결말이 날 것입니다. 러시아 전선이 뚫릴 것이고, 러시아 군대는 후퇴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후퇴할까요? 분명히 이 가능성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강대국의 의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부에는 완강하고 격렬한 중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협상을 미루면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쥐여주는 셈입니까! 전쟁을 주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곤경에 빠뜨리는지 아십니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저는 이 실수를 제 나라에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데말리옹 씨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는 손짓을 하며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조건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상도 필요하고요."

"5분이면 됩니다. 길어도 6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선생님.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일입니다. 매우 명확한 상황,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 불가능해요! 우리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요?"

"무슨 어려움이라고요!" 데말리옹 씨가 외쳤다.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천 가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미 가까이 다가와 돈 루이스의 짧은 연설을 들어둔 사람이었다. 그이는 멀리 주차해 있던 자동차에서 내려왔는데, 파트리스의 놀라운 눈에는 그의 등장이 데말리옹 씨나 돈 루이스 페레나 누구에게도 반대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게 보였다.

그는 꽤 나이가 든 남자로, 얼굴에는 단호함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가 말했다.

"데말리옹 씨, 저는 당신이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 각하." 돈 루이스가 말했다.

"아, 나를 아시는군요, 선생님." 새로 온 남자가 말했다.

"발랑글레 장관이시죠, 대통령 각하? 몇 해 전, 당신이 내각 총리였을 때 저를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기억나는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말하기 어렵군요."

"찾지 마십시오, 대통령 각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데말리옹 씨."

"중요한 건 당신이 이분의 제안을 따져봐야 하느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거래라면 양쪽 모두 무언가를 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반면 이분은 모든 것을 내놓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금화 3억 프랑을 원하시오? 원한다면 이렇게 하시오. 원치 않는다면, 잘 가시오.'"

"이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맞죠, 데말리옹?"

"네, 대통령 각하."

"자, 당신은 이분(돈 루이스) 없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분 없이도 금이 숨겨진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현장까지 직접 데려다주었고, 거의 위치까지 알려준 셈이죠.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수주, 아니 수개월 동안 찾던 비밀을 이제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데말리옹 씨는 솔직했다.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대통령 각하. 더 이상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발랑글레가 돈 루이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도 이거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잘 가요, 하는 말씀이십니까?"

"각하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금은 즉시 건네주겠습니까?"

"즉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결정은 명확했다. 전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강조하듯 짧고 단호한 제스처를 곁들였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수락합니다. 오늘 밤 바로 대사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다. 내 말을 믿으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합의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모든 대화는 순식간에 오갔다. 전 총리가 자리에 나타난 지 오 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 돈 루이스가 할 일은 오직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도망칠 길은 막혔다. 더 이상 말로 얼버무릴 수도 없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과 증거뿐이었다.

정말 그 순간은 장엄했다. 네 남자는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길에서 마주친 산책객들이 잠시 수다를 떨듯.

발랑글레는 한 팔로 강변의 담장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센 강을 향해 몸을 돌린 채, 모래 더미 위에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낮췄다.

파트리스와 데말리옹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돈 루이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대통령 각하, 제가 마법 지팡이로 금을 만들어내거나,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동굴을 보여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황금 삼각형'이라는 표현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언가를 연상시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단순히 금이 모여 있던 공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공간의 모양이 삼각형이었을 뿐이죠. 황금 삼각형, 즉 그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된 금 주머니들이 들어 있던 공간일 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대통령 각하, 실망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금 주머니 1,800개를 눈앞에 보여주신다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발랑글레가 말했다.

돈 루이스는 거듭 강조했다.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의 승인은 완벽할 것입니다."

"내가 금주머니들을 눈앞에 둔다면, 그 승인은 완벽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금주머니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뭐? 눈앞이라니! 무슨 뜻이오?"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대통령 각하. 주머니를 만지지 않는 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보다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도 발랑글레의 놀람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화 위를 걷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의 포장석을 들어 올리거나,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금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것 역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당신과 목표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장애물 하나도 없다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자루에 닿으려면 아주 작은 동작만 하시면 되니까요."

"작은 동작이라니!" 발랑글레가 말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돈 루이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제가 말하는 작은 동작이란, 힘을 들이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를 물웅덩이에 꾹 누르는 것이라든가…… 혹은……"

"혹시?"

"모래 더미에 말입니다."

발랑글레는 침묵을 지켰다. 표정도 변화가 없었다. 다만 어깨가 살짝 떨릴 뿐이었다. 그는 지시한 동작을 하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이해했다.

다른 이들도 모두 말을 멈췄다. 순식간에 번개처럼 내려친, 놀랍도록 단순한 진리의 위력에 모두 넋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침묵은 아무런 항의나 불신으로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돈 루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다면, 대통령 각하. 하지만 저는 각하께서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만 — 지팡이를 꽂아 보십시오. 아, 너무 깊게는 말고요. 최대 오십 센티미터쯤."

"그때 느껴지실 겁니다. 지팡이가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저항감을."

"그건 금화 주머니들입니다. 아마 천팔백 개쯤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쌓인 양이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금화 1킬로그램, 기술적인 디테일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이 수치는 꼭 필요합니다. 금화 1킬로그램은 3,100프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략 계산한 바로는, 50킬로그램짜리 한 자루에는 천 프랑짜리 작은 동전 롤들이 가득 차 있어 총 15만 5천 프랑의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주머니들은 서로 부딪히며 쌓여 있고, 한 층 위에 또 한 층이 겹쳐져 있다. 전체 부피는 약 5세제곱미터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덩어리를 대략적인 삼각뿔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기저면의 한 변은 3미터에서 3미터 50센티미터 정도 될 것이다. 주머니들 사이로 생긴 빈 공간까지 고려했을 때의 수치다. 높이는 이 벽만큼이다.

전체 위에 모래 한 층을 덮어주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더미가 완성된다.

돈 루이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건 몇 달째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금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조차 그 아래에 금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연조차 그 존재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래더미요! 우리는 지하실을 뒤지고, 동굴이나 구덩이를 이룰 만한 모든 것을 찾아다녔어요. 구멍, 굴착지, 우물, 하수구, 땅굴 말입니다. 그런데 모래더미라니요! 누가 거기 작은 창문을 하나 뚫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개들은 그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고, 아이들은 놀며 모래성을 쌓아요. 어떤 행색이 초췌한 나그네는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하죠. 비가 오면 물러지고, 햇볕이 내리쬐면 단단해지며, 눈이 오면 하얗게 덮이죠. 하지만 그런 변화는 겉면, 보이는 부분에서만 일어나요.

안쪽은 풀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안쪽은 탐험할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죠. 공공장소에 노출된 모래더미 안만큼 숨기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억 프랑의 금화를 숨기기로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놈이오, 대통령 각하."

발랑글레는 돈 루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설명이 다 끝나자, 그는 고개를 두세 번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분도 있습니다, 각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모래더미 속에 삼억 프랑 어치의 금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간파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릎 꿇고 존경해야 할 스승이십니다."

돈 루이는 칭찬에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발랑글레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나라에 바친 공로에 걸맞은 보상을 드릴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각하."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들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 일입니까, 각하?"

"필수죠. 제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시간 뒤 부처에 들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15분 뒤면 저는 이미 떠날 테니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발랑글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대통령 각하?"

"음, 우리는 당신의 이름도, 신원도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평화시라면 모를까. 하지만 전쟁 중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 대통령 각하. 제게는 예외를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호, 예외라니…"

"제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받아들이시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건 결코 요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민의식

을 갖춘 당신 같은 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겠지요.”

“말씀하신 그 의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불행히도…”

“불행히요?”

“저는 그런 의무를 따르는 습관이 없습니다.”

도 루이스의 어조에는 약간의 도발이 섞여 있었다. 발랑글레는 그 점을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안 좋은 습관이시군요. 이번 한 번만은 그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데스말리옹 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친애하는 데스말리옹 씨. 이 일에 대해 서로 합의해 주십시오. 한 시간 뒤, 부처에서 봅시다. 저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발랑글레는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손에 든 지팡이로 경쾌하게 원을 그었다. 그러고는 데스말리옹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좋아, 저 녀석은 꽤 단단한 놈이군!” 돈 루이가 비웃듯 말했다. “순식간에 삼억 프랑의 금화를 받아내고,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하며, 아르센 뤼팽 체포를 명령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파트리스가 깜짝 놀라 외쳤다. "당신을 체포한다니요?"

"아니, 적어도 소환장은 받을 거야. 내 서류를 조사당하고, 온갖 귀찮은 일을 다 겪게 되겠지."

"그건 끔찍한 일이야!"

"법적으로 정당한 일이지, 친애하는 대위님.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해."

"대위님, 이런 작은 불편함 하나쯤이야 제가 느끼는 보람을 조금도 깎아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전쟁 중 프랑스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프랑스를 위해 아낌없이 쓰려 했죠. 그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백만 프랑 말입니다. 코랄리 어머니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사실 그녀의 것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보증합니다."

"고마워. 선물이 잘 쓰일 거라는 건 확신해도 돼. 내 나라의 위대함과 꼭 필요한 승리를 위해 쓰일 테니, 다른 곳으로 한 톨도 새지 않을 거야. 그러니 모든 게 준비된 셈이지. 이제 몇 분 더 너에게 줄 시간이 있어. 이 기회를 살리자고. 이미 데스말리옹 씨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들의 일을 쉽게 해 주고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우

리는 반대편 승강장, 모래 더미 앞에 내려가자. 거기가 그가 내 멱살을 잡기에 더 편한 곳이 될 거야."

그들은 내려갔다. 걸어가면서 파트리스가 말했다.

"몇 분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위님? 제가 좀 배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별채 작업실에 가뒀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코랄리 어머님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대로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아르센 뤼팽이 삼억 프랑의 금화를 천시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군." 파트리스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필요해."

"감사라니? 제가 당신 목숨을 구했고, 코랄리 어머님도 구했다고요? 감사할 것 없소. 제게 사람을 구하는 건 하나의 스포츠일 뿐이니까."

파트리스는 돈 루이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그리고 감정을 감추기 위해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감사 인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났고, 내가 그 괴물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삶이 빛나게

열렸고, 코랄리가 나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행복을 자랑하지도 않겠습니다. 아,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행복은 아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조금 흐릿합니다. 조금 수줍습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돈 루이스가 외쳤다. "가장 복잡한 진리일수록 언제나 단순하다! 자,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십육 년에서 십팔 년 동안,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당신에게 완벽한 친구처럼 행동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헌신적인,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 복수심 외에 다른 생각은 오직 당신의 행복과 코랄리의 행복뿐이었다. 그는 당신 둘을 결혼시키려 했다. 당신의 사진을 수집했고, 당신의 삶을 끝까지 따라다녔다. 거의 당신과 직접 접촉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정원의 열쇠를 보내고 면회를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변했다! 그는 당신의 집요한 적이 되어, 당신과 코랄리를 죽이려는 생각뿐이었다. 이 두 가지 심리 상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단 하나의 사실, 아니 오히려 한 날짜, 즉 4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의 일, 그리고 그날 밤과 다음 날 에사레스 호텔에서 벌어진 비극뿐이다."

"그 날짜 이전에는 당신이 시메온 디오도키스의 아들이었다. 그 날짜 이후에는 당신은 시메온 디오도키스의 최대 적이었다. 눈이 트이지 않느냐? 내 발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사건 초기부터 그런 관점을 취했지."

파트리스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그 비밀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었다.

"저기, 우리 유명한 모래더미에 앉아라." 돈 루이스가 말했다. "열 분이면 다 끝낼 테니 내 말을 들어라."

그들은 베르투 공사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해, 센 강 건너편의 실루엣들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강변에는 바지선이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돈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그날 밤, 도서관 안쪽 발코니에 숨어 에사레스 호텔 사건을 목격했을 때, 당신 눈앞에는 두 남자가 공범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에사레스 베이와 시메온 디오도키스였습니다. 둘 다 현재는 죽었습니다. 한 분은 당신의 아버지였죠. 이제 다른 한 명, 에사레스 베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 밤, 그의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동방 세력을 위해, 확실히 독일의 지시를 받은 세력을 위해 프랑스의 금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모은 10억 프랑의 잔액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아름다운 헬레네'호는 번쩍이는 불빛 신호를 받고 바로 베르투 공사장 옆에 정박했

습니다. 하역 작업은 밤중에 모래 더미를 모터선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메온의 경고를 받은 공범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협박의 장면, 파키 대령의 죽음,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이 벌어진 이유였다.

에사레스는 그제야 깨달았다. 공범들이 자신의 음모와 금괴를 빼돌리려는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파키 대령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법정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끝장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칠까? 하지만 전쟁 중에는 도망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더구나 도망친다는 것은 금괴를 버리는 것이었고, 코랄리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쩔 것인가?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었다. 싸움터 한복판, 금괴 옆, 그리고 코랄리 곁에 말이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에사레스는 그 밤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썼다.

여기까지가 에사레스의 이야기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시메온 디오도키스로 넘어가자.

돈 루이스가 숨을 고른다. 파트리스는 그 말을 목말라하며 경청했다. 숨 막히는 어둠 속에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빛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오래된 시메온'이라 불리던 사람, 다시 말해 당신의 아버지—네, 당신의 아버지다. 당신은 의심하지 않겠지?—그도 역시 삶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르망 벨발. 과거 에사레스로부터 코랄리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 바로 당신의 아버지다. 그는 마침내 목표를 향해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적 에사레스를 파키 대령과 그 공범들에게 고발하고 넘겨주었다. 그는 당신과 코랄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별채의 열쇠를 보내주었다.

며칠만 더 지나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단서들로부터 위험이 닥쳐왔음을 직감했다. 아마도 에사레스가 꾸미고 있던 음모의 실마리를 꿰뚫어 본 듯했다.

그 역시 같은 물음을 던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너에게 알려야 했다. 지체 없이, 곧장 전화해서라도. 시간이 촉박했다. 위기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사레스는 감시하고 쫓고 있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로 정한 그 사람을. 시메온이 쫓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을까?

그가 너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 너는 그 자리에 있을까?

어쨌든 그 남자는 당신에게 무조건 알리려 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요청했고, 허락받았다.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에사레스가 문을 부수며 난리를 피우는 사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파트리스, 너야? 열쇠는 가지고 있니? 그리고 그 편지는? 없어? 세상에, 무서운 일이군. 그럼 넌 아직 몰라…"

그리고 이어진 거친 비명. 전화기 끝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이어지지 않는 말투와,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는 듯한 소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다시 이어져, 제멋대로 중얼거렸다.

"파트리스, 자수정 목걸이… 파트리스, 정말 원했어… 파트리스, 코랄리."

그리고 커다란 비명. 점점 약해지는 함성. 그리고 정적.

그게 전부다. 당신의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이번에는 과거 별채에서 그를 놓쳤던 에사레스 베이가, 옛 라이벌에게 복수한 것이다.

돈 루이스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사건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의 살해 현장을 다시 목격하는 듯했다.

파트리스는 심정이 요동치며 속삭였다.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돈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적어둔 대로 아침 7시 19분이었습니다. 몇 분 뒤, 진실을 알고 싶어하며 전화를 걸었고, 에사레스가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의 시체가 그 사람의 발치에 놓여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라, 그 악당."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했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 시체가……"

"이 시체는 에사레스 베이가 고의로 변장한 겁니다. 단순히 꾸민 게 아니라,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대위님. 죽은 시메온 디오도키스가 에사레스 베이가 되었고, 이제 에사레스 베이가 시메온 디오도키스로 변장해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파트리스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이해가 가요."

그리고 돈 루이스는 계속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에사레스는 이미 그 늙은 시메온이 과거의 라이벌이자 코랄리의 어머니의 연인이었던 남자가, 즉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 있었을까? 또 시메온이 곧 나의 아버지, 아르망 벨발임을 알고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바는, 이 새로운 살인이 즉흥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에사레스는 키와 체격, 걸음걸이 등에서 일부 유사함을 확인한 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메온 디오도키스의 자리를 꿰찰 준비를 이미 해두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쉬웠다. 시메온 디오도키스는 가발을 쓰고 수염을 기르지 않았지만, 에사레스는 정수리가 벗겨졌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수염을 밀어내고, 장작 집게로 시메온의 얼굴을 짓이겼다. 피범벅이 된 시체와 에사레스의 수염 털을 뒤섞은 뒤, 시체의 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시체의 옷을 입고, 가발과 안경, 코 가리개를 착용했다. 변장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파트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반박했다.

"좋아요. 아침 7시 19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정도로 해 두죠. 하지만 정오 23분쯤에 또 다른 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오 23분을 가리키는 그 시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수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려야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메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비난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어떤 비난을요?"

"무슨 소리요? 바로 에사레스 베이 살해 사건 말입니다. 아침이 되어 시체가 발견되었죠. 누가 죽였을까요? 의심은 곧바로 시메온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그를 심문하고 연행했겠지요. 그리고 시메온의 가면 뒤에서 에사레스가 발견되었을 테고요."

"아니요. 그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아침 내내 그 살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서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는 세 번이나 아내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에사레스 베이는 아침 내내 살아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나가자, 그는 시메온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곧 자기 자신에게 내린 지시였다. 그녀를 샹젤리제의 야전병원까지 모시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에사레스 부인은 살아 있는 남편을 뒤로 남기고, 늙은 시메온의 동행을 받으며 떠나는 줄 알았다.

실제로는 달랐다. 그녀는 집 빈 공간에 늙은 시메온의 시체를 남겨 둔 채로 떠났고, 그녀를 안내한 이는 바로 남편이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둑이 원했던 대로였다. 오후 한 시쯤, 파키 대령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 한 구를 마주했다.

누구의 시체였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녀들이 주인을 알아봤다. 에사레스 부인이 현장을 찾아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벽난로 앞에 쓰러진 남편의 시신이었다. 바로 전날 밤 그가 고문을 당했던 곳이었다.

노인 시메온, 다시 말해 에사레스가 그 신원을 확인했다.

당신도 그 함정에 빠진 셈이다. 술수는 완벽하게 먹혔다.

파트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네, 사건은 그렇게 전개됐습니다. 일련의 인과관계였죠."

"수완이 좋았소." 돈 루이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구도 의심을 품지 못할 정도였지."

그가 책상 위에서 건져 올린, 에사레스가 직접 쓴 편지가 증거로 있지 않았나? 4월 4일 정오에 그의 아내에게 보낸, 자신이 떠난다고 알리는 편 말이야.

더욱 놀라운 것은, 진실을 폭로해야 할 단서들조차 오히려 거짓말을 뒷받침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당신의 아버지는 조끼 안주머니에 작은 사진첩을 지니고 다녔어. 에사레스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고, 조끼를 벗기지 않았지.

그 사진첩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곧장 이런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어. 에사레스 베이가 자기 아내와 벨발 대위의 사진을 담은 앨범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피살자의 손, 다시 말해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자수정 메달리온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최근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다. 또 구겨진 종이 한 장도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는 '황금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곧장 Essarès bey가 이 메달리온과 문서를 훔쳤으며, 죽는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시체가 눈앞에 있는 이상, 피살자가 Essarès bey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파고들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메온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Essarès bey는 죽었다. 이제 시메온의 시대다.

도 루이스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그에게 정말로 재미있어 보였다. 그는 예술가로서, 그 안에 숨겨진 사악한 상상력과 악의적인 재능을 마음껏 음미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계속했다.

에사레스는 변장한 채, 그 어떤 것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바로 그는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당신과 코랄리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 위에 몸을 기우는 것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리볼버를 한 발 쏘았다.

하지만 그 새로운 범죄는 성공하지 못했다.

에사레스는 도망쳤고, 정원의 작은 문 근처에서 온갖 연기를 펼쳤다. 그는 살인자를 향해 비명 지르고, 벽 너머로 열쇠를 던져 거짓 추적을 유도했다. 그리고 '리볼버를 쏜 적'에게 목이 졸린 듯 반쯤 죽은 척하며 쓰러졌다.

그 연기는 결국 광기 시뮬레이션으로 끝이 났다.

— 하지만 그 광기는 어떤 목적 때문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수작이었나? 감시와 심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미친 사람이라면 침묵할 수도 있고,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말을 했다면, 에사레스 부인은 그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억지로 억양을 숨기려 했더라도 소리의 질감은 속일 수 없었으니까.

이제 그는 미친 사람이다. 책임 없는 존재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냥 미친 사람일 뿐.

그리고 그의 미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시되어, 그가 말하자면 당신의 손을 잡고 옛 공범들에게로 데려간다. 우리는 그들을 체포할 뿐, 이 미친 자가 자신의 이익을 가장 명확하게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불쌍한 미친 사람, 해롭지 않은 미친 사람. 그런 불쌍한 존재들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 있는 법이지."

이제 그는 단 두 명의 적, 코랄리 어머님과 당신, 대위님과 맞서 싸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가 작성한 일기를 손에 넣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당신이 매일 들고 다니는 일기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통해 그는 무덤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고, 4월 14일에 코랄리 어머님과 당신이 그 무덤을 참배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계략을 통해 당신이 그곳에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미 그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준비했던 그 음모를, 오늘날의 패트리스와 코랄리, 즉 아들과 딸을 향해 다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만약 우리 불쌍한 야본의 한 가지 아이디어 덕분에 제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끝까지 성공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나머지 사정은 당신도 저와 똑같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추악한 악당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십 사 시간 동안, 이 악당은 공범 그레고리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정부 모스그라넴 부인을 목 졸라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코랄리 아줌마는 모래더미 밑에 묻혔고, 야본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별장에 가두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당신도 아버지가 파놓은 무덤에 묻힐 뻔했고, 경비원 바셰로는 제거당했습니다.

자, 이제 대위님, 제가 그 자살을 막았어야 했을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가장하려던, 그 멋진 신사가요?"

"당신이 옳았어요, 파트리스가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모와 세부 사항이 모두 내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황금 삼각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모래 더미까지 가게 되었으며, 또 무엇 때문에 코랄리를 가장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까?"

"오!" 돈 루이가 답했다. "그쪽은 더 간단합니다. 빛이 거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밝혀졌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기서 물러납시다. 데스말리옹 씨와 그의 부하들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형사들이 베르투 공사장의 양쪽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었다. 데스말리옹 씨가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돈 루이스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곧 그에게 다가가려 준비하고 있었다.

"선창으로 갑시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놔뒀습니다."

파트리스가 그를 따라갔다.

그레고리의 시신이 놓여 있던 선창 바로 맞은편에는 또 다른 선창이 있었다. 같은 계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대위님." 돈 루이스가 서랍을 열고 봉인된 편지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대위님, 이 편지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하지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시죠. 제가 당신의 호기심을 채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곧 도착할 테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삼각형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합시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파트리스는 곧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청하면서도 말을 이었다.

"황금 삼각형!"

어떤 문제는 무작정 찾지 않고도, 대충의 기회에 해결되곤 합니다. 사건들이 우리를 해답으로 이끄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를 고르고, 또 다른 것을 걸러내며, 하나를 살펴보고 다른 것은 외면합니다. 그러다 문득 목표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가서 돌판 아래에 묻어둔 뒤, 에사레스 베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저를 파빌리온의 작업장에 가두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다정하게 가스 계량기의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는 베르투 공터 위, 강변에 있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귀중한 단서였습니다. 그가 바로 코랄리 어미를 구출하러 가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 당신을 구하러 돌아갔습니다. 에사레스 호텔에 있는 당신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당신 곁에 머물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사실, 사건 전개를 보면 다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금화 주머니는 파이프 내부에 없었을 것이다. '벨 에레느'호가 그것들을 가져가지도 않았으니, 주머니들은 정원과 파이프 바깥, 즉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 선창을 뒤졌다. 주머니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뜻밖의 단서를 찾으려 함이었다. 물론, 솔직히 말해 그레고르에게 건네진 사백만 프랑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채 장소를 뒤질 때면, 에드거 앨런 포의 기묘한 단편소설 '도둑맞은 편지'가 항상 생각난다. 기억나지? 외교 문서가 도둑맞았고, 그것이 특정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는 경우 말이다.

수사관들은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진다. 바닥판도 모두 들어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뒤팽 경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벽에 걸린 주머니 속을 향해 걸어간다. 거기서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온다. 바로 그 문서였다.

"그렇죠, 저는 본능적으로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곳을 찾은 거예요. 숨길 곳이 아닌 곳을요. 숨기는 게 너무 쉬워지면 오히려 발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반 위에 놓인 네 권의 망가진 보탱 안내서를 펼쳐 본 것도 그 이유에서였죠. 사백만 프랑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아셨다는 건가요?"

"에사레스의 심리 상태, 그가 읽은 책, 그의 습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좋은 숨겨진 곳'의 기준까지요. 우리는 너무 멀리, 너무 깊게 찾

았어요. 오히려 어렵게 접근한 셈이죠. 우리는 쉬워야 합니다. 겉을, 표면만 보면 됩니다."

두 개의 작은 단서가 더 나를 도왔다.

야봉이 이 근처에서 집어 들었을 사다리의 옆기둥에 모래알이 몇 개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났다. 야봉이 인도 위에 분필로 삼각형을 그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삼각형에는 두 변만 있었다. 세 번째 변은 벽의 바닥면이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디테일일까? 왜 분필로 세 번째 선을 그어 삼각형을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 세 번째 선이 없었던 이유는, 숨겨진 곳이 바로 벽 기슭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뱃전의 위쪽, 강선의 갑판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 리틀 뤼팽, 너에게는 5분이 주어진다. »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부를 때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다.

담배를 사분의 일도 피우기 전에,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단서들 중, 정확히 어느 하나가 불꽃을 튀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모두 함께 작용했을 겁니다. 심리적 분석은 화학 실험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죠. 잠재되어 있던 요소들이 신비로운 반응과 결합을 일으키며, 정답이 문득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직관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고조 상태였죠. 저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숨겨진 장소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코랄리 어머니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주저하거나, 더 오래 망설였다면 그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불꽃이 튀었고, 결합이 일어났다. 나는 곧장 모래 더미 쪽으로 달려갔다.

발자국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거의 정상 근처에서는 발로 짓밟은 흔적이 또렷했다. 나는 그 자리를 샅샅이 뒤졌다.

첫 번째 모래자루를 만졌을 때, 내 심장은 얼마나 격렬하게 뛰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감정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모래자루 몇 개를 치웠다.

그곳에는 코랄리 어머니가 있었다. 모래가 천천히 그녀를 덮고, 스며들고, 눈을 가리고, 숨을 막고 있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공사장은 평소처럼 한산했다. 나는 그녀를 모래더미에서 건져냈다. 택시를 불러 먼저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에사레스, 그리고 문지기 바세로를 처리했다. 적의 계획을 파악한 뒤, 제라데크 박사와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몬모랑시 대로에 있는 클리닉으로 이송했다. 코랄리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야 했다. 잠시라도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위님. 단 세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사의 차가 나를 클리닉으로 데려다줄 때, 에사레스도 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나는 그를 잡았다.

돈 루이스는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받은 쪽은 그것이 어떤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감사를 증명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돈 루이스는 그런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자원은 막대했고, 일상적인 사소한 행동들처럼 손쉽게 기적 같은 일들을 성취해 내는 남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파트리스는 다시 한번 돈 루이스의 손을 힘껏 쥐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돈 루이스는 그 침묵 속의 감동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말했다.

"만약 제 앞에서 아르센 뤼팽 이야기가 나오면, 그를 변호해 주십시오, 대위님.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명성은 지키고 싶게 되는 법입니다. 악마도 은둔자가 되곤 하니까요."

그는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대위님,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코랄리 어머니께 제 인사를 전하십시오. 저는 코랄리 어머니를 거의 알지 못했고, 어머니도 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위님."

"그럼, 벌써 헤어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데말리옹 씨가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을 맞으러 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데려와 주십시오."

파트리스는 망설였다. 돈 루이스는 왜 자신을 데말리옹 씨 앞으로 보내는 걸까. 자신을 대신해 그를 위해 중재해 달라는 뜻일까.

그 생각은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때 파트리스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주 빠르고,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긴 어둠의 모험이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파트리스는 다리에서 데말리옹 씨를 만났다. 데말리옹 씨가 물었다.

"당신의 친구가 여기 있소?"

"네. 하지만 먼저 두 마디만요… 당신은 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아니죠?"

"걱정 마시오. 우리는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소. 오히려 그 반대지."

그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장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데말리옹 씨가 지나갔다. 파트리스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아, 내가 이 선실의 문을 열어뒀었는데."

파트리스가 말했다.

그가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돈 루이스는 더 이상 선실에 없었다.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맞은편 플랫폼에 서 있던 경관들, 이미 도하교를 건너간 경관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파트리스는 말했다.

"이 선창을 제대로 조사해 보면, 분명히 개조된 흔적이 나올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죠."

데말리옹 씨가 몹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물었다.

"즉 당신의 친구가 어떤 구멍을 통해 물속으로 도망친 셈이군요?"

"그렇겠죠," 파트리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면 잠수함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센 강에 잠수함이요?"

"왜 안 되겠어요? 제 친구의 자원은 한계가 없고, 의지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말리옹 씨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그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바로 그 편지가 돈 루이스 페레냐가 파트리스 벨발과 면담을 시작할 때 남긴 것이었다.

"그는 내가 여기서 만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나? 우리 만남 이전에, 내가 그에게 어떤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단 말인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의 갑작스러운 퇴장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왜 여기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저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믿어 주십시오. 제 처지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설명을 요구하실 권리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설명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꼭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프랑스를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식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 동안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과언이 아니라, 나라가 저에게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 날이 오면, 당신도 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숨겨진 야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쯤이면 당신은 경찰청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직접 힘도 보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말리옹 씨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인물이다. 만약 그가 원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큰 임무를 맡겼을 것이다. 발랑글레 씨의 명을 받아 내가 전하려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지금 해내고 있는 일들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선생님." 파트리스가 말했다.

그는 이어 덧붙였다.

"정말 이상한 인물이지요. 그 이상으로,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기묘하고, 강력하며, 놀랍습니다. 만약 각 동맹국마다 그와 같은 인물들을 세 명이나 네 명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전쟁은 결코 여섯 달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말리옹 씨는 중얼거렸다.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만 살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카이저로 하여금 자신의 감옥으로 찾아와 자신을 풀어주게 만든 그 유명한 모험가 말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랑 때문에 카프리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은 그 사람."

"누구 말입니까?"

"당신도 잘 아시죠. 뤼팽. 아르센 뤼팽."